한러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Russia Diplomatic Relations

역사 속의 한국과 러시아:
상호 인식과 이해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Date: September 16-17, 2010
Venue: Video Conference Room 7th Fl. Graduate School Bldg.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Hosted by :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Sponsored by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사업단

프로그램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Russia Diplomatic Relations

September 16, 2010 (Thursday)

09:30~10:00 Registration

10:00~10: 40 Opening Ceremony

Opening Address: Eom, Gu Ho(Direct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Congratulatory Speech: Kim, Chong Yang (President, Hanyang University)

Keynote Speech: Inho Lee (Former Korean Ambassador to Russia)

10:40~12:30

Session 1-A Perception of the Other at the End of 19th Century and in the Early 20th Century

* Chair: Ko, Jae-nam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 Papers:

Kim, Young So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 Analysis on Perceptions toward the Korea-Russia Treaty of 1884"
Choi, Deok Kyu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ussian Perception towards Korea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 Discussants: Choi, Deok Soo (Korea University)
  Seok, Hua Jeong (Far East University)

12:30~13:35 Luncheon

14:00~14:45

Session 1-B

* Papers:

Bak, Bella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RAS)
"Russia's Policy towards Korea during King Gojong's Stay at the Russian Legation"

* Discussant: Kim, Jong Heon (Dongguk University)

14:45~14:55 coffee break

15:00~17:30

Session 2 Perception of the Other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and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 Chair: Han, Jeong Sook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pers:

Min, Kyung Hyun (Korea University)
"The Changes in the Russia's Policy toward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Russia Relation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Ban, Byung Y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viet Policy towards Korea and Korean Perceptions towards the USS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ong, Woong Ho (Dongguk University)
"Soviet Views towards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Russian College Textbooks"

* Discussants: Heo, Dong Hyun (Kyunghee University)
  Sim, Heon Yong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Park, Sang Chul (Chonnam University)

18:00~21:00 Congratulatory Reception

September 17, 2010 (Friday)

09:30~12:30

Session 3 Korea and Russia in Contemporary History

* Chair: Kwon, Hee You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Papers:

Tikhonov, Vladimir (University of Oslo) "Images of the Soviet Union in the Korea of 1930s"
Ki, Kwang Seo (Chosun University) "Soviet Perceptions toward the Korean War"
Ki, Kye Hyeong (Hanyang University)
"The Russian Views on the Korean War in History Textbooks"
Vorontsov, Alexander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RA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Park Chunghee Regime from the Russian Perspective"
Koo, Ja Jeong (Hanyang University)
"The Russain Views on the Park Jung Hee / Chun Doo Hwan Regimes"

* Discussants: Yun, Hae Dong (Sung Kyun Kwan University)
Jung, Byung Joon (Ewha Womans University)
Lee, Wan B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ark, Tae G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Il Joon (Korea University)

12:30~13:20 Luncheon

13:20~15:40

Session 4 Vision of New Rel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e Future

* Chair: Eom, Gu Ho
* Papers:

Kurbanov, Sergey (St. Petersburg University)
"Transformation in the Perception of Korea within Russian Historiography from 1990 to 2010"
Timonin, Alexander (Minister-Counsellor & Deputy Chief of Mission, The Russian Embassy to ROK) "Importance of Overcoming the Differences in Views on Mutual History"
Jung, Se Jin (Hanyang University) "Perceptions of Russia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in Russian Textbooks"

* Discussants: Hwang, Young Sa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om, Gu Ho (Hanyang University)
Paek, Jun Kee (Hanshin University)

15: 40~15:50 Closing Ceremony
15:50~16:00 coffee break

16:00~17:00

Special Lecture of the Russian Ambassador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Russia-Korea Diplomatic Relations

* Guest Speaker:
Vnukov, Konstantin (Ambassador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Meanings of the 20 Years of Russia-Korea Diplomatic Relations and their Future"

17:30~21:00 Dinner

9월 16일 첫째 날 (목요일)

9:30~10:00 등록

10:00~10:40 개회식

개회사: 엄구호(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환영사: 김종량(한양대학교 총장)

기조연설: 이인호(전 러시아대사)

10:40~12:30

세션 1-A 19세기 말 20세기 초 상호 인식

* 사회: 고재남(외교안보연구원)

발표주제 1: 1884년 한러조약에 관한 인식과 분석

발표자: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최덕수(고려대)

발표주제 2: 대한제국 시기 러시아의 조선인식

발표자: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석화정(극동대)

12:30~13:35 <점심>

14:00~14:45

세션 1-B

발표주제 3: 아관파천 시기 러시아의 조선정책

발표자: 박 벨라(동방학연구소)

토론자: 김종헌(동국대)

14:45~14:55 coffee break

15:00~17:30

세션 2 러일전쟁과 일제강점기 상호 인식

* 사회: 한정숙(서울대)

발표주제 1: 러일전쟁 시기 러시아 제국과 대한정책의 변화

발표자: 민경현(고려대)

토론자: 허동현(경희대)

발표주제 2: 일제강점기 소련의 대한정책과 한인들의 소련인식

발표자: 반병률(한국외대)

토론자: 심헌용(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표주제 3: 러시아 교재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소련의 한국인식

발표자: 홍웅호(동국대)

토론자: 박상철(전남대)

18:00~21:00 <환영만찬>

9월 17일 둘째 날 (금요일)

09:30~12:30

세션 3 현대사 속의 한국과 러시아

* 사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주제 1: 1930년대 한국에서의 소련 이미지
- 발표자: 박노자(오슬로대)
- 토론자: 윤해동(성균관대)

발표주제 2: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인식
- 발표자: 기광서(조선대학교)
- 토론자: 정병준(이화여대)

발표주제 3: 러시아의 교재에 나타난 한국전쟁 인식
- 발표자: 기계형(한양대)
- 토론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주제 4: 러시아의 시각으로 본 박정희 체제에 대한 해석
- 발표자: 알렉산더 보론쪼프(동방학연구소)
- 토론자: 박태균(서울대)

발표주제 5: 박정희/전두환 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 발표자: 구자정(한양대)
- 토론자: 정일준(고려대)

12:30~13:20 <점심>

13:20~15:40

세션 4 미래의 한러관계 비전

* 사회: 엄구호(한양대)

발표주제 1: 1990-2010년 러시아 역사서술로 나타난 한국인식의 변화
- 발표자: 세르게이 쿠르바노프(상트 페테르부르그대)
- 토론자: 황영삼(한국외국어대)

발표주제 2: 양국 역사에 대한 견해차이 극복의 중요성
- 발표자: 알렉산더 티모닌(주한 러시아 부대사)
- 토론자: 엄구호(한양대)

발표주제 3: 한러수교 이후 러시아 교재에 나타난 한국인식
- 발표자: 정세진(한양대)
- 토론자: 백준기(한신대)

15: 40~15:50 폐회사

15:50~16:00 coffee break

16:00~17:00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대사 초청 특별강연

* 한러수교 20주년의 의미와 한러 관계의 미래
  - 발표자: 콘스탄틴 브누코프(주한 러시아대사)

17: 30~21:00 <만찬>

*공식언어: 한국어, 러시아어 | 모든 프로그램은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목 차

기조연설: 이인호(전 러시아대사) 9

세션 1 19세기 말 20세기 초 상호 인식

발표주제 1: 1884년 한러조약에 관한 인식과 분석 21
발표자: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최덕수(고려대) 40

발표주제 2: 대한제국 시기 러시아의 조선인식 43
발표자: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석화정(극동대) 64

발표주제 3: 아관파천 시기 러시아의 조선정책 67
발표자: 박벨라(동방학연구소)
토론자: 김종헌(동국대) 115

세션 2 러일전쟁과 일제강점기 상호 인식

발표주제 1: 러일전쟁 시기 러시아의 대한정책의 변화 117
발표자: 민경현(고려대)
토론자: 허동현(경희대) 133

발표주제 2: 일제강점기 소련의 대한정책과 한인들의 소련인식 137
발표자: 반병률(한국외대)
토론자: 심헌용(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49

발표주제 3: 러시아 교재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소련의 한국인식 151
발표자: 홍웅호(동국대)
토론자: 박상철(전남대) 170

세션 3 현대사 속의 한국과 러시아

발표주제 1: 1930년대 한국인의 소련인식 173
발표자: 박노자(오슬로대)
토론자: 윤해동(성균관대)

발표주제 2: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인식 205
발표자: 기광서(조선대학교)
토론자: 정병준(이화여대) 221

발표주제 3: 러시아의 교재에 나타난 한국전쟁 인식 225
발표자: 기계형(한양대)
토론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주제 4: 러시아의 시각으로 본 박정희 체제에 대한 해석 247
발표자: 알렉산더 보론쪼프(동방학연구소)
토론자: 박태균(서울대) 264

발표주제 5: 박정희/전두환 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267
발표자: 구자정(한양대)
토론자: 정일준(고려대) 289

세션 4 미래의 한러관계 비전

발표주제1: 1920-2010년 러시아 역사서술로 나타난 한국인식의 변화 291
발표자: 세르게이 쿠르바노프(상트 페테르부르그대)
토론자: 황영삼(한국외국어대) 315

발표주제2: 양국 역사에 대한 견해차이 극복의 중요성 319
발표자: 알렉산더 티모닌(주한 러시아 부대사)
토론자: 엄구호(한양대)

발표주제3: 한러수교 이후 러시아 교재에 나타난 한국인식 327
발표자: 정세진(한양대)
토론자: 백준기(한신대) 354

기조 연설

존경하는 김 종량 총장님, <역사 속의 한국과 러시아: 상호 인식과 이해> 라는 무게 있는 제목의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러시아에서 오신 학자들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와 동료들이시기 때문에 더욱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20년 전 우리 한국과 러시아가 새로이 수교를 하게 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에는 여기 저기서 많은 학술 문화 행사가 개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의 양국 학자들간의 대화는 다른 어떤 학술 행사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니며 많은 결실이 기대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학술 회의에서 제가 기조 연설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술 회의가 지니는 큰 의미는 물론 그 주제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김 종량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수교 이래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크게 미흡했고 기대에 못 미친다 함을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관계가 서로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근본 원인은 서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의 수준이 아직 매우 낮을 뿐 더러 서로 간에 많은 오해와 편견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걸어 온 역사의 길이 어떠했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로간에 직접적으로 교류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이 들어설 자리가 많았던 것이며, 오해에 기초해서 정형화 되어버린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또 다른 오해와 편견을 낳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한국과

러시아: 타자의식과 상호간 이해]라는 이 학술회의의 제목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정면 돌파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한번의 학술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고 있다는 증거이고 새로운 시작이며, 사회 정치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주제의 중요성 못지 않게 회의의 구성이 매우 짜임새 있다고 봅니다.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시대에 어떤 역사적 요인들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도는 편견을 벗어나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의 개최가 매우 반갑고 감동적인 일로 다가 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회의가 개최된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한-러 양국이 다 같이 지난 20년간 얼마나 크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양국간의 관계가 얼마나 훌륭한 결실을 이미 낳고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러시아 양국 모두가 20년 전에는 기대하기 쉽지 않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같은 회의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국 모두에게 큰 족쇄였던 이념대립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으로서 양국관계를 재 점검해 볼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는 이제 수교 이후 러시아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몸으로 익힌 새 세대 러시아 전문가 층이 형성된 것이며 러시아와 한국의 학자들은 이제 제3자의 매개 없이 서로를 마주 대하고 서로간에 거리낌 없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지적 토대와 분위기가 드디어 조성된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인접국일 뿐 아니라 많은 역사적 체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표면으로 보면 나라의 크기, 언어, 종교적 배경, 문화의 성격 등 여러 면에서 서로 공통된 것이 별로 없을 듯 보이지만 고난으로 가득 찬 역사적 체험을 통해 형성된 기층 문화나 정서에서는 다른 어느 두 나라 보다 공감대가 형성되기 쉬운 것이 두 나라 국민들입니다. 관계의 기복은 있었을 망정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운명 지어진 것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대표들이 서로 만날 기회를 가진 것은 늦어도 몽골제국 초기까지 소급할 수 있는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까운 이웃인 우리 두 나라는 아직도 서로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면에서는 많은 부족과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 가장 큰 것으로는 한국이 100년 전에 일본에게 주권을 강탈당하고 러시아에는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한 후로 약 70년 간 남한과 러시아 두 나라 간에는 공식적이 접촉 통로가 차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때 한국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 적이 있으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그러한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나 그 밖의 다른 매개 세력을 통해서나 한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은 서로 간혹 접촉할 수가 있었고 러시아의 고전 문학이나 대체로 은밀하게 입수한 공산주의 선전물 만이 한국인들에게 러시아를 향한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해 들어갔다가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들이나 망명객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소수의 한국인들이 러시아에 있었듯이 한반도에는 혁명으로 밀려난 러시아 난민들이 간혹 발견되면서 러시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이런 제한된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상호인식은 균형 잡힌 진정한 이해와는 거리가 먼 것일 수 밖에 없었으며 오해와 편견이라는 큰 부작용을 동반하는 상호인지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간 상호 이해에 가장 큰 걸림돌 또 한가지는 언어장벽입니다. 사실 발음체계나 언어 속에 배어 있는 생활 정서로 본다면 러시아어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들 가운데 한국인들이 가장 쉽게 익힐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이 제 개인적 체험이지만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그 영향을 크게 받는 국내 정치적 여건 때문에 남한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러시아인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양국간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교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어의 장벽은 무시할 수 없으며 전문가라는 사람들 조차도 이제는 세계어가 되다시피 한 영어로 된 자료를 통해 서로를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그런 자료들 속에 담겨있는 시각이나 접근방식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어 한국과 러시아가 직접적 교류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활짝 열려 있으며 한 러 수교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사이에 이룩된 성과로 볼 때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새롭게 한국사를 해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2007년에 발족한 동북아재단이 중심이 되어 제정시대 러시아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자료들을 번역 출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양국이 다 같이 직면해야 되었던 또 한가지 어려움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정치적 상황과도 연계되어 있던 것으로 역사적 자료에 접근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안에서도 스탈린 치하에서는 역사의 자의적 왜곡이 통상적인 일이었고 학문적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했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

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러시아 측 사료를 제대로 볼 수는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간에 많은 오해와 편견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재가를 얻는 다음에 계획적으로 준비된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남측의 북침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러시아 국민이 오래 동안 믿었을 뿐 아니라 유럽의 지식인 사회에서도 그러한 선전에 설득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의 중요한 사례이지만 의도적이 아니라도 오해와 편견이 자리 잡을 여지는 매우 컸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불의에 들어 닥친 분단과 6.25 전쟁이 낳은 뼈아픈 체험 이외에도 전 후 오랜 시일 동안 매우 우매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반공교육 덕분에 러시아나 공산주의국가들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라면 맑스-레닌주의 고전은 물론 서양인들이 반공적 시각에서 써놓은 학술서적 조차도 금서목록에 오르는 상황이었으니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적 이해 수준은 오히려 일제강점기 보다도 더 떨어져서 거의 백지 상태에 이르는 현상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문제들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학계나 사회 전반이 공통으로 직면했던 것들이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호 이해의 수준에 관한 한 러시아와 한국의 사정은 매우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국으로 성장했던 러시아에서는 19세기 초 외무부 산하에 아시아국이 설치된 이래 아시아에 관한 탐사와 연구가 학술원 뿐 아니라 지리학회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한국에 관해서도 많은 자료들이 발간되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1900년에 발행한 한국지(Opisanie Korei)는 지금까지도 유용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으며 20세기 초 극동대학교에는 이미 4년제 지역연구 과정이 한국, 중국, 일본 별로 따로 설치되어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는 표트르 대제 시대에 설립된 학술원(Akademiia Nauk)의 산하 기구인

동방학 연구소의 연구 전통이 혁명기를 관통하며 이어져 오면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연구의 맥을 이어 온 헌신적인 전문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7세기 한국 언문소설이나 실학, 광개토대왕비 등에 관한 선도적 연구들이 러시아에서 나왔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국에서 뿐 아니라 서방의 학계에서도 널리 활용되지를 못한 유감스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만으로 전반적인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는 서로에 대한 인식이 좌우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술원 산하 연구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학문적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불리했던 외적인 여건들이 개선되자 마자 그 동안 학문적 자유를 속박했던 정치적, 이념적 막을 걷어내고 한국의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려는 노력이 소생하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들이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한국 연구 전통의 깊이를 잘 드러내 주는 증거로는 박노자나 안드레이 란코프 같은 러시아 출신 학자들이 젊은 나이에 이미 제3국의 대학에서 한국사 교수로 발탁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이해라는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사정은 러시아 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1884년 수교 이전 한국에는 러시아에 관한 정보나 지식의 축적이 거의 없었고 경흥 군수의 보고 조차 조정이 오히려 외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친러 정치 노선이라는 것도 러시아제국의 내부사정에 관해 무지한 상태에서 추진된 일이었기 때문에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러시아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일제 강점으로 직접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신 지식인 층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 당시 세계 지식인 세계가 걸었던 막연한 기대에 동참하면서 일본어 번역으로 읽히는 러시아 고전 문학이나 소련의 공산당국이 내보내는 선전자료를 통해 러시아 관을 형성해 갔습니다. 일제

강점 체제 아래 신음하던 한국의 젊은 애국적 지식인층에게는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코민테른의 통일전선 전략은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한국의 신문학은 쉽게 이른바 ""프로문학""으로 경도되며 ""브나로드"" 운동의 모방자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기반 위에서 러시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일제 강점기에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학문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정치적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 지식인 세계의 이해 부족은 단지 러시아를 상대로 했을 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한국 사회가 체험해야 했던 지적 전통의 심각한 단절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화된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학술원(Akademiia Nauk)이 볼셰빅 혁명을 거치면서도 학술의 본산으로 그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문호 개방과 정치적 독립의 상실을 계기로 구학문 전통과 신학문 간에는 심각한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세대 간에는 한문, 일본어, 한국어, 영어 순으로 사용하는 학문적 언어까지 달라 지는 불행한 상황이 계속 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가 오래 단절되었던 러시아에 대해서 는 물론 1945년 이후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 온 이웃인 미국에 관해서 까지도 상대방에 대해 객관적 지식에 기초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문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대체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니 70여 년 간 직접적 교류 없이 반공적 시각에서만 바라보았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현실성을 크게 결여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 하자면 한국의 외국연구와 인식과정에서는 아직도 학문적 검토와 합의를 통해 도출된 지식이 기반이 되어 특정 외국에 대해 공통된 이해가 생기고 공통된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주도한 반공교육 정책은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상이 부정적인 것으로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했고 사실 해방 직후 미국과 러시아 군대의 주둔 아래서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는 과정과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 제1세대에게는 반공 교육이 따로 필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체험적 반공주의자들이 양산되면서 러시아와 공산주의가 동일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식인들은 너무도 잘 알다 시피 정치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데는 엄격한 한계가 있으며 사상이나 지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에서 도가 넘치면 심각한 반대 현상이 빚어지게 마련입니다. 한국의 지식인 세계의 대 러시아 인식 형성 과정에서 그 대표적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군사독재 치하에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던 젊은 지식인층 사이에서는 공산주의 소련이나 공산주의 중국에 관한 정보라면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리는 풍토가 조성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대학가에서는 소련에서 조차 스탈린 사망 이후 지나치게 왜곡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폐기 처분 되었던 책들, 예를 들어 1938년에 간행된 소련공산당사 같은 책들이 교과서처럼 읽히면서 스탈린 시대의 소련이나 중국의 문화혁명을 모두 무조건 긍정적인 눈으로 받아들이는 풍조가 일었습니다. 예를 들어 페레스트로이카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시기 한국을 방문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측근 바딤 메드베데프씨는 ""사회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사회주의의 대의를 저버린다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한국의 대학생으로부터 받고 놀라던 일도 있었습니다. 우매하게 추진되는 반공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역방향으로 다시 왜곡되는 현상이 한편에서는 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와 공산주의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편협한 반공주의와 공산주의라면 무

조건 미화시키는 양 극단의 교조주의적 입장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서 사실적 연구를 통해 러시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들어설 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얻는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수교 이전부터도 경제발전에서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된 상당수의 일반 한국인들은 러시아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조짐을 러시아 팀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88올림픽 게임에서 한국 청중들이 러시아 팀을 열심히 응원하는 풍경에서 엿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한러 수교 자체가 그러한 막연한 호의적 관심과 서로에 대한 지식부족과 오해, 그리고 그에 기인하는 과장된 기대에 기초했던 면이 없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수교 후에 한-러 양측이 체험해야 했던 실망과 좌절, 그리고 현실적 적응과정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러시아에서 공산독재 체제가 종식되면서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기초한 객관적 인식이 형성되는데 장애가 되었던 주요 요인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앞다투어 러시아학과를 개설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러시아 유학 바람이 불면서, 또 체제변환기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러시아 지식인, 예술인들, 사업가들이 한국을 왕래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다시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 올 수 있게 되었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소원해 지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러시아의 한국 연구도 어느 정도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시일에 걸쳐 생겨났던 지적 공백이 메꿔지고 각종의 편견이 극복되어 서로가 경쾌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의식적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20년간 어문학,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여러 분야에서 양국간에 협동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결실이 이루어졌지만 러시아인과 한국인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인지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가 개최하는 이번의 양자간 학술 회의는 매우 의미가 큰 새로운 시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삶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타자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며 확산 또는 실종되었는가를 살펴 보는 일은 단지 호고적 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다 다각적으로, 다층적으로 볼 수 해주는 지침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고의 흐름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지속 될 때 양자간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웃들 모두가 서로 친구인 동시에 경쟁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 세계화 시대에 한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협동관계의 잠재적 가능성은 남김없이 현실적인 힘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열쇠를 거기에서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매우 큰 결실을 낳기를 기원하면서 참가자들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타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서로 매우 다른 정치 풍토와 학문 전통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이라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비해 훨씬 규모가 작고 민족구성이 덜 복잡한 나라지만 학술적으로는 러시아 보다 훨씬 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백가쟁명이 항상 허용되어 왔던 나라이며 지금도 국민여론이 심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러시아에서 오신 학자들께서는 잊지말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러시아 측과 한국측 사이에 합의점을 찾는 다는 것이 쉬운 일인

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패는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는 경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국적을 달리하더라도 학문적으로 대등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는 일이 국가적 민족적 소속은 같아도 인간으로서, 학자로서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기율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실에서 현실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그 타당성과 유용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역사 속의 한국과 러시아: 상호 인식과 이해>를 주제로 하는 이 학술회의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

1884년 한러조약에 관한 인식 및 분석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머리말

러시아는 1856년 말 동시베리아지역에 캄차트카주, 우다지방, 연흑룡지방을 포괄하는 연해주가 만들어지면서 17세기 후반에 상실했던 아무르지역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 1860년 북경조약 체결로 북으로는 우다지방, 서로는 만주, 북서로는 우수리 꼬사크관구, 남으로는 만주 및 조선의 일부, 동으로는 따따르해협과 뾰뜨르빌리끼만을 접하는 광대한 남우수리지방이 연해주에 포함되었다. 러시아의 연흑룡 우수리지역 병합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극동정책의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1861년에는 항카호에서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가장 끝 접경지역에 경계비가 설치되었고, 연해주 남쪽 국경이 두만강까지 내려오면서 러시아는 극동에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이웃 국가와 접하게 되었다.[1)]

러시아 정부는 1884년 한러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1880년대 초반 미국, 독일, 영국의 조선과의 조약을 참고했다.[2)] 해군대신 사무대리 해군대장 세스타꼬프(И. А. Шестаков)는 1882년 5월 외무대신 기르스(Н.К. Гирс)에게 “주청 러시아공사가 러시아의 군사항로를 위한 조선 항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고 알렸다.[3)]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는 1882년 11월 주일 러시아공사 로젠(Розен)을 만나면서 한러수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자리에서 박영효는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선정부가 청국의 어떠한 중재나 협조 없이 나머지 열강들, 특히 이웃한 강대국 러시아와 조속하게 조약을 체결할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4)] 이후 주청 텐진(天津) 러시아영사인 베베르는 1884년 5월 도쿄에 도착했고, 이후 러시아군함을 타고 서울로 출발해서 1884년 7월 7일(러6월

1) 1884년 이전까지 연해주는 이르쿠츠크에 총독부를 둔 동시베리아 총독령에 속해 있었다. 1884년 연흑룡(쁘리아무르) 총독부는 하바롭스크에 소재하여 자바이칼, 아무르, 연해주, 사할린 등을 관할했다.(이항준, 2007「러시아 연흑룡총독 운떼르베르게르의 조선이주민 인식과 정책(1905-1910)」『역사와현실』64, 266쪽)

2)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Л.13 с об,

3)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17,

4) 박영효는 “조선이 완전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서방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로젠에게 말했다.(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Л.168-171об)

25일, 윤5월 15일) 한러조약(朝俄條約)을 체결했다.[5] 한러조약은 “상대국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협력해야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전체 13조 및 부속장정(俄約附續通商章程)으로 구성되었다.[6]

필자의 의문은 다음에서 출발한다. 첫째 러시아와 조선의 상호이해는 한러조약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둘째 한러조약이 참고한 외국 조약은 무엇인가? 즉 한청장정, 한일장정, 한미조약, 한영조약 등과 한러조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셋째 한러조약에서 조선과 러시아 원문의 차이는 무엇인가? 원문 분석을 통해 조선에 불리한 조항은 무엇인가? 넷째 서구열강의 근대의 이미지는 한러조약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한러조약에서 영토영해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먼저 1884년 체결된 한러조약에 관한 선행연구의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한러조약에 대한 오랜 연구가 진척되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선행연구는 한러조약의 내용에 관해서 대체로 우호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 배경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약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열강이 근대 조약체결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한다. 더욱이 한러조약 내용에서 러시아와 조선의 각각의 입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한러조약과 한영조약을 상호 분석하여 한러조약의 2조 중 영사관설치, 그리고 부속통상장정 중 세칙과 세율 등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작 한러조약의 한문과 러시아 원문을 상호 비교하는 시도가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한러조약의 내용과 다른 열강과의 조약을 살펴보면서 1884년 체결된 한러조약의 한문과 러시아 원문의 내용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1. 한러조약에 관한 기존 인식

1) 러시아에서의 한러조약 인식

러시아에서는 대체로 한러조약을 이주민사와 관련된 연구, 외교정책을 청국과의 관계에서 파악한 연구, 러시아의 극동정책에서 주목한 연구 등으로 나뉜다.

제정러시아 시기 초기연구(1917년까지)는 이미 러시아의 경제적 필요성, 한러조약이 한영조약을 기초한 사실, 조선이주민에 관한 지위문제 등을 주목하면서 한러

5)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Л.47-48 с об,

6)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Л.70-86 с об,

조약 연구의 원형을 제공했다.

한국관련 러시아학자들은 양국의 공식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한러조약을 오래 전부터 주목했다. 일찍이 러시아 외교관 뽀지오는 1880년대 조선을 주목하면서 조선이 "멀지않은 장래에 아시아대륙의 동쪽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나라"라고 판단했다. 포지오는 조선과 러시아 관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러조약을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러시아와 조선이 1860년 베이징조약에 의거하여 두만강 하구 약 23 베르스타에 걸쳐 국경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러시아가 1884년 한러조약 체결로 자국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넓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7)]

러시아 재무부도 1900년 발간한 '한국지(Описание Кореи)'에서 한러조약 체결과정에서 청국의 영향력을 주목했다. 한국지에 따르면 "이홍장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외국 무역을 위해 나라를 개방하고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 이홍장은 외국이 세력들을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조선에 침략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

한국지에는 한러조약에 영향을 주었던 조약을 한미조약과 한영조약으로 파악했다. "1882년 5월 조선과 미합중국의 조선담당 대표인 슈펠트간에 통상조약이 체결되었고, 조선은 이와 유사한 조약들을 영국, 독일, 러시아, 불란서 등과 체결했다"고 기록되어 1882년 체결된 한미조약이 한러조약에 영향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했다.[8)] 특히 조선지에는 "조영 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독일, 러시아, 이태리, 프랑스 및 오지리와 체결한 조약의 기초로 되었다"고 주장했다.[9)]

러시아에서 조선학 전문가인 뀨네르(Кюнер Н.В.)는 1912년 '한국개관'(Очерк Кореи)을 발간하면서 러시아에 거주하는 조선이주민과 한러조약의 연관성을 주목했다. "1884년 러시아가 조선과 첫 번째 조약을 체결되면서 조선인은 러시아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러시아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생명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완전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한러조약의 체결 이후 러시아 영토에 정주한 조선인들의 지위를 합법화시킨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같이 모든 이주 한인들 중에서 1884년 이전에 이주한 이들은 러시아 국적을 받아들인다는 조건 하에 러시아 영토에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10)]

---

7) Поджио М. А. Очерк Кореи, СПб. 1892

8) 러시아재무부, 한국지, 31쪽

9) 러시아재무부, 한국지, 부록, 29쪽

소비예프 시기의 연구(1917-1990)는 한러조약의 의미를 자본주의 열강의 식민지정책이라는 원형을 제공하면서 한러조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한국근대사를 전공한 짜가이는 한러조약에 대해서 동시대 조선과 열강이 체결한 조약의 의미를 함께 평가했다. 짜가이에 따르면 조선의 강화도 및 1884년 러시아를 포함한 열강과의 조약은 해외 세계로부터 조선 고립의 끝을 의미했다. 조선은 세계 분할을 위한 격렬한 투쟁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조선에서 지배를 위한 자본주의 열강의 경쟁, 조선의 식민지 지배 시기가 시작되었다.[11)]

러시아에서 한러조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박보리스(Пак. Б.Д.)였다. 그는 1979년 러시아와 조선(Россия и Корея)을 저술했고, 2004년 수정증보판을 발간했다.

박보리스는 "한러조약이 조선과 러시아의 육로장정 체결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며 조약체결을 위한 본질적인 측면을 최초로 주목했다. 박보리스에 따르면 1884년 12월 기르스는 조선과 러시아의 국경 관계에 대한 문제를 허락받기 위한 근본적인 설명을 위해서 베베르를 서울주재 대표로 상주할 것을 지시했다.[12)]

박보리스는 한러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러시아, 청국, 조선의 입장을 상세하게 추적했다. 박보리스에 따르면 한러조약 체결 이전에 러시아 외무부는 조선정부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고민했다. 첫째 조선은 독립적이고 주권 국가였다. 둘째 러시아 외교관은 조선이 청국의 영주적 관계라는 사실을 강요받았다.[13)]

박보리스에 따르면 이홍장은 러시아와 조선의 접근에 반대해서 "러시아가 북쪽 이웃인 조선을 점령할 것이다"라며 고종에게 경고했다. 이홍장은 1884년 고종에서 러시아와 조선의 상호 관계에 관한 메모렌덤(각서)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가 육로 상업을 피할 수 없도록 국경문제를 이용하여 조선을 점령할 예정이었다"고 기록되었다. 청국정부는 한러조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양통상조약만 체결할 것도 요청했다.

박보리스에 따르면 1884년 초 조선관료 김광훈은 남우수리 지역 국경위원 마쥬닌을 만나기 위해서 노보끼옙스크에 도착했다. 김광훈은 고종의 밀사로서 러시아가 조러조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김광훈은 "조선정부는 러시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현재 조선정부는

10) Кюнер Н.В, Очерк Кореи. Владивосток, 1912,

11) Тягай . начал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завваления Кореи. История Кореи. Т. 1. М. 1974.

12) П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2004.

13) 조미조약은 청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침묵했다. 청국정부는 조선에서 미국과 영국과의 힘을 통합시키면서 조선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반대했다.(П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2004)

청국정부와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며 한러조약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고종의 밀지를 전달했다.

박보리스는 1884년 한러조약이 한영과 한독 조약과 대체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박보리스에 따르면 1884년 12월 외무대신 기르스는 조영조약에 근거하여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것을 베베르에게 지시했다. 그런데 박보리스는 한러조약의 2조의 내용 중 한영과 한독 조약과 다른 점을 주목했다. 한러조약 2조 1항에는 개항장의 총영사, 부영사 영사를 상호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조선은 서구 열강 요원이 러시아항구에 주재한 영사관에만 주재시킬 수 있었다.[14] 박보리스에 따르면 한러조약 2조는 영사의 임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영사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었다.

박보리스는 한러조약의 특별의정서도 주목했다. 박보리스에 따르면 러시아와 조선은 특별의정서를 체결했는데, 러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조선에서 러시아국적 시민의 무한대의 법률적 권리를 거절할 수 있었다. 만약 조선정부가 자국의 법률과 재판재도를 변경시키고, 러시아정부가 조선 재판제도의 변경을 인정한다는 조건이었다.

박보리스는 한러조약에 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첫째 한러조약에서는 청국에서 조선의 노예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박보리스는 한러조약에서 평등을 요청하는 고종의 노력을 소개했다. 고종은 "한러조약이 양국의 완전한 평등관계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편지를 러시아황제에게 보냈다. 둘째 한러조약은 단지 해양 상업만의 규정만 있고, 러시아를 위한 경제적인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한러조약은 조선의 외교정책인 고립 국가의 상태를 종식시키는 조약 중의 하나로써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한 조약체결 이후 조선은 세계 자본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했다.

박보리스는 한러조약을 통해서 러시아 극동정책의 전환도 주목했다. 러시아부르주아는 한러조약 체결을 통해서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상업의 확대, 그리고 태평양에서 강력한 진출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근동에서 극동으로 러시아 외교정책의 전환을 의미했다. 한러조약은 1850-1860년대 러청의 아이훈과 북경 조약 체결의 결과로 근본적인 러시아 외교정책의 전환이었다. 더구나 조선과의 외교적 상

14) П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2004.
1883년 한영조약 2조에는 "피차 의논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설치하고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1884년 한러조약 2조에는 "피차 참작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둘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영사관을 두기로 승인된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한문)
"기타 열강 영사의 주재를 허락한 개항장 전부 또는 일부에 총영사, 영사와 부영사를 주재시킬 수 있다"(러시아)

업적 공식적인 관계의 성립은 조선의 변화에 실질적인 위협의 결과도 만들었다. 러시아는 다른 열강의 상황과 동일하게 조선에서 차지할 가능성을 획득했다.[15]

러시아시기(1991년 이후) 연구는 한러조약을 극동에서 러시아 식민정책의 연결선상에서 파악했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한 부분을 부곽시켰다.

꾸르바노프(Курбанов С.О.)는 박보리스의 연구성과에 기초해서 한러조약의 개략적인 내용을 서술했다. 꾸르바노프에 따르면 1884년 한러조약은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청국정부에 저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1882년 7월 한미조약이 체결되자 천진주재 러시아영사 베베르는 한러 상업조약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꾸르바노프는 한러조약의 필요성을 러시아의 식민지 정책과 연결시켰다. 러시아는 1858년 아이훈조약으로 남우수리지역을 편입했고, 1860년 북경조약으로 두만강 하구지역에 국경을 인접하게 되었다.새로운 영토는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식민지 정책을 촉진시켰다. 또한 러시아와 조선은 국경지대에서 상업교역이 발생하였다. 러시아 영토에서 조선인의 임시적인 이동 또는 장기적인 이주 등에 따른 상업관계는 특별한 규칙을 요구했다.

꾸르바노프는 청국이 한러조약 체결을 부정적으로 파악했고, 고종이 한러조약 체결을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꾸르바노프에 따르면 1884년 청국은 러시아와 조선의 협정체결에 부정적인 관계를 표방했다. 청국의 전통적인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종은 남우수리 지역에 밀사를 보내서 러시아와의 협정 체결을 요청했다.[16] 꾸르바노프는 청국이 육로장정체결을 반대한 사실을 한러조약 체결 자체까지 반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리블라지미르(Вл. Ф. Ли)도 박보리스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보강했다. 1883년 10월 11일 러시아 외무대신 기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르스는 서울과 워싱턴이 체결했던 것과 같은 조약을 조선과 체결할 것을 외교관 베베르에게 지시했다. 도쿄주재 조선공사 김옥균은 1883년 12월 조선정부가 러시아와 신속히 조약체결을 실행하려는 의사를 일본주재 러시아공사에게 전달했다. 조선정부는 한러조약의 모델로 영국과 독일과의 조약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조선정부는 두만강 유역을 개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제시했다. 고종은 1884년 5월 초 남우수리 국경위원 마쥬닌에게 밀사 김광훈(Ким Гван Сун, 金光訓)을 파견하여 양국의 협정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그 내용에는 러시아

15) П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2004.

16) Курбанов С.О. Курс лекций истории Кореи. Спб. 2002,

함정에게 외국인 항해를 위한 인천항 개항도 포함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한러협약 내용을 조율한 다음 1884년 6월 20일 러시아 공사 베베르를 인천에 파견했다. 1884년 6월 24일 베베르는 외무차관 김옥균을 공식적으로 면담했다. 1884년 7월 7일 베베르와 외무대신 김병시는 한러조약을 체결했다.

리블라지미르는 한러조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조약의 내용 중 2조는 영사 파견에 대해서 양국의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3조는 조선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법률적 보장이었고, 4조는 제물포 원산 부산 등에 관한 개항이었고, 5조는 조선진출 러시아인의 상업 활동이었고, 7조는 러시아함정의 해상조난에 관한 구호 활동이었고, 8조 러시아와 조선 함정의 해양탐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리블라지미르는 한러조약이 양국의 상호 이익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리블라지미르에 따르면 한러조약은 다른 열강, 특히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과는 구별되었다. 즉 러시아는 조선을 위협하지 않았고, 조선의 민족국가를 유지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다만 조선은 예를 들면 러시아 연해주에 관한 해양 조사를 실행할 준비 등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리블라지미르는 한러조약이 조선에 관한 일본의 반식민지 보호정책을 폐기시키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17]

2) 한국에서의 한러조약 인식

한국에서는 한러조약의 체결과정과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 부터였다. 1980년대 연구는 한러조약에서 한국의 필요성을 주목했고, 러시아가 영국·미국과 대응하게 한국에 진출했다고 파악했다.

최문형은 조선에서 한러조약 체결의 배경과 경위를 주목했다. 최문형은 한러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러시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러시아는 슈펠트의 움직임이 확연히 드러난 1882년 5월 청의 주선을 받아 일을 추진하려 했다. 한영신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조선과의 독자적인 수교를 결심하게 되었다. 둘째 러시아는 1884년 초에 꼬르프 프리아무르 총독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동아시아 정책을 이미 적극화하고 있었다.

최문형은 조선에서 한러조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종은 대미 대영 기대가 바뀌면서, 러시아가 청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조선에 유용했을 뿐만

17) Вл. Ф. Ли(Ли У Хё). Кризис и упадок позднефеод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в Корее//История Кореи. М. 2003.

아니라 영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도 장차 쓸모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문형은 한러조약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러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는 다른 열강과는 달리 조약을 통해 자국군함의 조선항구에의 자유입항까지 보장받았다. 러시아는 일거에 청일과 대등한 위세를 가지고 한반도에 군림하게 되었고, 영미등과 나란히 조선의 정치무대에 등장케 되었다.[18]

한러조약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2000년대 중반 부터였다. 2000년대 연구는 러시아 박보리스가 제시한 한러조약의 체결과정 및 러시아의 육로통상장정의 필요성 등을 수용했다. 그 중 민경현은 박보리스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한러조약의 체결과정 및 전반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민경현은 한러조약의 각 조항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한영조약을 동시에 분석했다.

민경현은 한러조약의 목적이 '이이제이' 정책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민경현에 따르면 청국이 한미조약이나 한영과 한독조약을 추진한 것은 바로 일본을 견제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국이 조선에서 추진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은 자연스럽게 조선에서 또 다른 차원의 이이제이 정책을 대두시켰다. 1884년 체결된 한러조약은 이 두 차원의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민경현에 따르면 한러조약의 실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하나는 국경에서 이뤄지고 있는 밀무역을 정상화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인들의 러시아 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다.

민경현은 1884년 체결된 한러조약이 한영조약을 모델로 작성되었고, 러시아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한러조약은 다른 자본주의 열강들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처럼 영사재판권, 협정 관세에 의한 조선의 관세자주권상실, 최혜국 조항 등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러시아는 이 조약으로 그들의 군함이 조선의 모든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할 수 있었고, 각종 보급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군함의 수선도 가능함으로써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다.

민경현은 한러조약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한러조약은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접한 뒤 20년 이상이나 안고 있었던 이주민 문제와 육로 밀무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물론 이것은 조선의 외교권이 아직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19] 둘째 1884년의 한러조약은 국경에서의 밀무역을 합법화하는 데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

18) 최문형, 「한러수교의 배경과 경위」『한러관계 100년사』, 1984,

19) 민경현에 따르면 1888년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육로무역장정은 조선이 외교에서 중국을 극복하고 외교 자주권을 행사하는 첫 시험장이 되었다.(민경현,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조선정책과 조러수호통상조약, 대동문화연구, 61, 2008)

민경현은 한러조약의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한러조약과 한영조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민경현에 따르면 한러조약은 조영조약 등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조영조약처럼 13개 조항과 부속통상장정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약의 2조에는 총영사, 영사 혹은 부영사는 오직 다른 국가의 영사관이 주재하는 개항장에 한해서만 주재시킬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조선은 블라디보스톡에 영사관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

민경현은 한러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역과 관세에 관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민경현에 따르면 1883년 비준된 조영조약의 세칙과 세율은 한러조약에도 준용되었다. 그러나 품목을 면밀히 관찰하면 한영조약의 관세세칙에 포함된 상품이 한러조약에는 생략된 것들이 다수 있었고, 조영조약과 비교하여 하향조정된 품목도 발견되었다. 예컨대 한영조약에서 5%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했던 목화와 밀가루 그리고 7.5%의 종이와 모시 등은 한러조약에서 항목이 삭제되었다. 또한 한영조약에서 7.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해초는 한러조약에서는 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20]

한동훈은 한러육로통상장정의 체결과정을 연구하면서 한러조약의 체결과정도 함께 다루었다. 한동훈은 러시아가 1882년 한미조약 체결 이후 조선과 수로와 육로 관련 조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에 따르면 러시아는 기타 열강과는 달리 조선과 접경하고 있다는 특수한 조건을 이용하여 기타열강이 확보했던 권리뿐만 아니라 육로통상조항이 추가된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다. 러시아는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통하여 수로와 육로에서의 교역권리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했다.

한동훈은 한러조약이 해로무역 관련된 내용만 위주로 체결되었는데, 그 이유를 청국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에 따르면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한 청국은 두만강 유역의 조러 국경 사이에 '공광지(空曠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접경(接境)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서구열강과 같은 해로무역 관련조약을 통한 공식적 외교관계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정부 역시 청국과 같은 국경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육로를 통하여 조선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어려웠다. 러시아는 1884년 조선과 해로무역 관련조약, 한러조약을 체결하여, 조선과의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21]

그런데 한러조약이 한영조약을 참고했다면 한영조약에 관한 분석 및 한영조약

20) 민경현,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조선정책과 조러수호통상조약, 대동문화연구, 61, 2008,

21) 한동훈, 조러육로통상장정(1888) 체결과정 연구, 고대 조선사학과 석사논문, 2009

에 영향을 미친 다른 조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열강이 체결한 조약에 관한 연구를 주목해야 한다.

그 중 한러조약이 한영조약을 참고했다면 한영조약에 관한 연구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승훈은 한영조약의 체결과정을 상세하게 연구하면서 즈프조약(1876), 한청장정(82.10), 한일장정(83.7) 등의 연관성을 상호 비교하려고 노력했다. 한승훈은 한영조약의 쟁점을 선박 통행제도, 무역 내지통행, 연안무역 등으로 꼽았다. 또한 한승훈은 한영조약의 논쟁점을 5% 또는 7.5%, 그리고 내지통상권의 허용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승훈은 한청장정 및 한일장정의 특징을 분석했다. 1882년 10월 체결된 한청장정에 의하면 청 상인들은 조선에서 수입관세율을 5% 적용받으며, 내지통상과 개항장간 무역을 보장받았다. 1881년 말, 조선정부는 조사시찰단의 조사활동을 토대로 일본에 조선 측 조약초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이 조약 초안은 비록 청일수호통상조약을 모본으로 작성되었다.

조선정부는 1883년 7월 25일 일본과 통상장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조선은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철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일장정에서는 조선에 대한 관세자주권을 부정했으며, 주요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조영조약 비준안의 10%에서 8%로 낮추었다. 조영조약 비준안에는 개항장간 무역을 금지했지만, 조일통상장정을 통해서 일본은 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승훈은 한영조약에서 조선과 영국의 협상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협상초기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7.5%의 수입관세율을 관청시키고자 했다. 조선은 조일통상장정에 의거해서 8%로 할 것을 주장했다. 민영목은 고종으로부터 “담판은 반드시 엄정히 하여 8%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라”라는 엄명을 받은 상태였다.

파크스는 청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중이었던 7.5%의 수입관세율을 조영조약에 관철시켰다. 조선의 수입품 중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5%, 7.5%로 확정지음으로써, 그는 평균 수입관세율을 7.5% 이내로 맞추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파크스는 내지통상의 자유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

한승훈에 따르면 파크스는 1858년 청과 일본에 관철시켰던 영사재판권 조항의 개정 성격을 갖는 즈프협정(1876)과 오스트리아·일본조약(1869)을 조영조약에 관철시켰다. 이를 통해 그는 영국인들이 조선법률체계를 적용받지 않게끔 조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영사재판권의 폐지를 주장했던 일본 측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22)]

2. 한러조약의 한문과 러시아 원문 분석

한국은 조약체결 과정에서 청에 대한 외교적 견제를 위해서 열강의 거중조정이 핵심이었다. 그렇지만 거중조정을 얻은 그 대가는 비쌌다. 러시아는 한영조약에 근거하여 자국에 유리한 조항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한성개잔을 포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인정했다. 이것은 한청과 한영 조약의 가장 불평등한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한러조약은 1884년 7월 7일(양력, 러시아역 6월 25일, 음력 5월 15일) 조선 전권대표 김병시와 러시아 전권대표 베베르에 의해서 서울에서 체결되었다. 한러조약은 13조의 본문, 3조의 부속통상장정, 특별의정서로 구성되었다.

한러조약의 본문을 살펴보면 1조는 상대국 분쟁에 관한 평화적 해결에 관한 내용이었다. 2조는 양국의 외교관 파견 및 공관 설치에 관한 내용이었다. 3조는 양국의 사법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판관할에 관한 내용이었다. 4조는 조선의 개항장 및 조계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5조는 개항장에서 상품의 구매 및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이었고, 조선에서 조난당한 러시아 선박에 대한 구조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8조는 조선에서 러시아 군함의 상륙 및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9조는 양국인의 고용 문제 및 문화 교류 등에 내용이었다. 10조는 최혜국대우에 관한 규정이었다. 11조는 조약의 효력 규정 및 관세 세율의 개정 관련 내용이었다. 12조는 조약문의 기초 언어에 관한 내용이었고, 13조는 조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었다.

한러조약의 부속통상장정을 살펴보면 1조는 선박의 입출항 수속에 관한 규정이었고, 2조는 상품의 하역, 적재 및 세금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었고, 3조는 세관의 감독에 관한 규정이었다.

특별의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3조 중 치외법권에 관한 러시아의 포기와 관련된 단서조항이었고, 4조 중 러시아가 한양 개항장을 포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었다.

러시아는 한러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미조약, 한영조약, 한독조약을 참고했는데 그 중 한영조약을 주로 참고해서 한러조약을 작성했다. 그런데 한영조약에 영향을 준 조약은 1882년 10월 체결된 한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이었다. 한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라고 규정되어 청국이 조선을 속방으로 인정한 일종의 조약이었다. 그 중 영토영해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3조 “양국

22) 한승훈, 조영조약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한국사연구 135, 2008

상선은 피차 통상 항구에 들어가 교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청국이 조선의 통상항구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23]

한러조약의 내용 중 한영조약과의 주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조 중 "기타 열강 영사의 주재를 허락한 개장 전부 또는 일부에 총영사, 영사와 부영사를 주재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다.[24] 둘째 특별의정서의 조약 4조에 대하여 중 "여타의 모든 국가가 수도인 한양에 상관을 설치할 권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러시아 공민도 이 권리를 향유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규정이었다.[25]

한러조약 중 영토영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4조와 8조에 집중되었다.

조선은 4조 1항에서 러시아에게 제물포, 원산, 부산 등의 항구를 개항한다.[26] 한미조약과는 달리 한영과 한러 조약은 조선의 개항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조선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자국의 이익관계를 드러낸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한러조약은 한영조약과 동일하게 4조 1항에서 "부산항이 불편할 경우에는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서울의 양화진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장소"라고 규정했다. 그만큼 한러조약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유리한 개항장을 선택할 수 있는 조약이었다.

1882년 한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과 1883년 한영조약(韓英修好通商條約)에 근거하여 청국과 영국 상인은 한국 개항장에서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1884년 3월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및 1884년 12월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을 역임한 김윤식에 따르면 한청장정 4조 "한성과 양화진에서 청국 상인이 거주와 통상을 할 수 있다"는 '한성개잔권(漢城開棧權)'이 문제였다.[27] 한러 조약도 조선이 청국과 영국의 조약에서 '한성개잔권(漢城開棧權)'을 인정한 내용을 계승했다.

한러조약 4조 2항에는 "러시아국 상인들이 이상의 지정한 곳에서 토지를 영구

23) 고종실록, 1882년 10월 17일

24) 한영조약 2조를 살펴보면 "총영사, 영사, 부영사를 둘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영사관을 두기로 승인된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고종실록, 1883.10.27 ; 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編, 朝英通商條約原本 =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Russia and Korea, 1883)

25) 한영조약 특별의정서의 4조에 대하여 중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와 창고를 설치하는 이권을 철회, 취소하더라도 영국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규례를 인용할 수 없다"(고종실록, 1883.10.27 ; 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編, 朝英通商條約原本 =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Russia and Korea, 1883)

26) 한미조약에는 조선의 구체적인 개항장을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6조를 살펴보면 "미국 상인이 개항한 조선 항구에 가 해당 지역의 정계(定界) 안에 거주하며, 주택을 세내고 땅을 조차(租借)하며 집을 짓는 일은 그의 편리대로 하게하며, 무역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소유한 토산물 및 제조한 물건과 위반되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할 수 있다."(고종실록, 1882년 4월 6일)

27) 김윤식은 조선이 영국과의 조약체결에서 '한성개잔권'을 규정한 점 및 내지행상(內地行商)을 인정한 조항을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 내용으로 꼽았다.(『金允植全集(上)』, 亞細亞文化社, 1980 : 李相一, 「雲養 金允植(1835~1922)의 政治活動」『역사와실학』 17-18, 2000)

조차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모두 그 편의를 도모해준다"라고 규정되었다. 다만 토지를 매매하는 지역을 4조 4항에는 조계지로부터 "10리(十里)"라고 한정했다. 그럼에도 이것은 러시아인이 개항장에서 조선의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었다.

한러조약은 러시아인의 조선에서의 상업과 여행 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4조 4항에는 "러시아인은 외국과의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로부터 100리(百里) 내의 지방이나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상호 협의 하에 규정되는 범위 내에서 여행증명서가 없이도 원하는 곳을 여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한러조약 4조 6항에는 특별한 사유의 러시아인이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면 개항지로부터 100리 이상을 여행 및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즉 "러시아인이 여행허가증(護照)를 휴대하고 조선의 각처를 유력하고 통상하며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여와서 팔거나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한러조약 체결 이후 '내지통행'에 관한 조약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이견을 갖고 있었다. 의정부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은 1903년 6월 11일 외부대신 이도재(李道宰)에게 한러조약 4조 6항에 "여행허가증(護照)에 한국의 각도·각군(各道·各郡)을 통행(通行)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규홍은 한러조약의 '무애통행(無碍通行)'에 근거하여 러시아가 용암포(龍岩浦)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거주하는 것이 한러조약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28]

이도재(李道宰)는 1903년 6월 13일 김규홍(金奎弘)에게 한러조약 4조 6항 중 "러시아인이 여행허가증(護照)를 휴대하고 조선각처(朝鮮各處)를 유력·통상(遊歷·通商)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명했다. 우선 이도재는 '각처(各處)'가 구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도·각군'(各道·各郡)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도재는 "여행허가증(護照)이 왕래할 때 증빙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 개항지 이외에서 토지와 가옥의 구매는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러시아공사관에 용암포의 토지와 가옥 구매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설명했다.[29]

한러조약의 8조는 러시아 군함의 한반도에서의 활동, 즉 항해의 자유, 관세와 세금의 면제, 해양 상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30] 첫째 8조 1항은 "양국의 군함

2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권 1903년 6월 11일, 議政府參政 金奎弘이 外部大臣 李道宰

2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권 1903년 6월 13일, 外部大臣 李道宰가 議政參政 金奎弘

30) 한러조약 8조
1.러시아원문 :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아무데나 가는 것을 쌍방이 승인한다."

은 모든 항구를 방문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상호주의를 인정했다. 둘째 8조 2항은 "러시아 군함이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관리와 통역·병사·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를 위배했다. 셋째 8조 3항은 "러시아함대에 필요한 각종 물자는 조선의 개항장에서 하역될 수 있으며, 러시아정부 관리의 감시 하에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한다"고 규정하여 조선에서 러시아함대에 대한 편리를 최대한 보장했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1896년 5월 조선을 방문하면서 조선에서 정박 중인 러시아군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895년 10월 을미사변 이후 러시아군함이 제물포에 정박했는데, 보급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었다. 알렉세예프는 러시아군함이 제물포에서 일본인 소유의 회사로부터 석탄을 보급받는데, 석탄의 품질이 저질품이고 가격도 임의대로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쟁을 대비하여 러시아가 안정적인 석탄을 보급받기 위해서 제물포에 석탄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1]

알렉세예프는 한러조약 8조 3항을 근거해서 한반도에 석탄기지(저탄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2] 알렉세예프는 저탄소 건설을 위해서 이미 1896년 2월초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와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알렉세예프는 러시아 저탄소 건설을 위한 장소로 월미도의 일부를 임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 후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는 월미도 저탄소 건설과 관련된 협상을 조선정부와 진행했다. 알렉세예프는 한러수교 조약 내용 중 8조 러시아군함의 활동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

1-1.조선원문 : "양국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간에 피차 항해하는 것을 승인한다."(兩國師船, 無論是否通商口岸, 彼此均許駛往)

1-2.러시아원문 : "군함은 통상 및 항구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자에 대한 일체 관세와 세금을 면제해준다."

1-2-1.조선원문 : "이상의 선척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자에 대한 일체 세금과 각종 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以上船隻, 勿庸遵守, 通商及口岸章程, 其購取物料, 一應鈔稅各等規費, 均應豁免)

2.러시아원문 : "러시아 군함이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관리와 통역·병사·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락한다."

2-1.조선원문 : "러시아국 군함이 조선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항해할 때에는 승선한 관원, 통역, 병사, 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가한다."(俄國師船, 駛往朝鮮, 非通商口岸, 其船上員弁兵役, 概准登岸)

3.러시아원문 : "러시아함대에 필요한 각종 물자는 조선의 개항장에서 하역될 수 있으며, 러시아정부 관리의 감시 하에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물자 중 어떤 것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규정되어 있는 관세를 조선정부에 지불해야한다"

3-1. 한문원문 : 러시아국 군함에서 쓰는 군수물자 및 일체 군량과 필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으며, 러시아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관리한다. 이런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를 면제한다. 어떤 이유로 팔게 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규례에 따라 더 지불해야 한다.(俄國師船, 所用軍裝物料及一切餉需各件, 可在朝鮮通商各口, 存寄交俄國委派之員看管。 此項軍裝物料, 概行免征稅項。 倘有因事轉售者, 則由買客, 將應完稅課, 照例補交)(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 高宗實錄, 1884년 윤5월 15일)

31)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0.

32) "러시아함대에 필요한 각종 물자는 조선의 개항장에서 하역될 수 있으며, 러시아정부 관리의 감시 하에 어떠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물자 중 어떤 것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규정되어 있는 관세를 조선정부에 지불해야한다"(8조 3항)

했다. 결국 8조는 표면상으로는 상호주의를 강조한 듯 보이지만 실제 러시아함대의 조선 항구에서의 활동을 보장한 조항이었다.

그런데 8조 4항을 살펴보면 조선과 러시아 원문 사이의 내용 차이가 존재한다.

"러시아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수로 형세에 대해 현지 조사하면 조선 정부도 힘껏 도와야 한다."[33]

"조선정부는 조선의 강, 바다, 호수 등에서 측량(測量)과 측도(測度) 작업에 종사하는 러시아군함에게 가능한 모든 협력을 제공한다."[34]

그 내용을 분석하면 조선정부는 조선의 바다에 인접한 연해에만 러시아의 조사를 한정했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조선의 강과 바다 등 물과 인접한 모든 지역에 관한 측량을 규정했다. 한러조약은 한문과 러시아어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12조 1항에는 "각 조항의 의미를 해석할 경우에는 러시아어 조문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우리의 바다와 강가에 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조사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조선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다.[35]

그런데 러시아 원문을 기초로 삼는다는 규정은 상대국의 언어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평등한 조항이었다. 1882년 한미조약에서는 한문을 양국 조약 해석의 기초로 인정했다.[36] 1883년 한영조약에서는 조항의 의미를 해석할 경우에는 영문을 기초로 인정했다.[37] 따라서 한미조약과는 달리 한영과 한러조약은 언어적으로까지 조선에 매우 불리한 조항이었다. 더구나 당시 조선에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층에 비해서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고위층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 정부에 매우 유리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러조약 중 1조 2항을 살펴보면 조선과 러시아 원문의 차이점을 나타난다.

첫째 1조 2항을 살펴보면 조선원문은 "저 나라에서 앞으로 만일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나라는 일단 저 나라와 조약을 맺은 이상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중간에서 잘 조처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38] 그런데 러시아원문은 "체

33) "俄國師船, 在朝鮮沿海處所, 踏看水路形勢, 朝鮮政府, 亦應竭力相助"

34)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всевозможное содействие Русским военным судам, заним ающимся съемочными и промерными работами в Корейских водах"

35) 한영조약 8조 4항을 살펴보면 "영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in corean waters)서 항로 상태를 조사할 경우에 조선 정부에서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이것은 영국이 한영조약을 체결하면서 남긴 선례를 러시아가 답습했다.(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編, 朝英通商條約原本 =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Russia and Korea, 1883)

36)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조약과 이후에 교환할 공문에 대해서 조선은 중국문〔華文〕을 전용하고 미국도 한문을 사용하거나 혹은 영문(英文)을 사용하되 반드시 중국문으로 주석을 하여 착오가 없게 한다."(고종실록, 1882년 4월 6일)

37) "이후 글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곳이 있을 때에 영어로 해석해서 쌍방 간의 분쟁을 면하게 한다."(고종실록, 1883.10.27)

약국 일방과 제3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일방의 청원에 따라 타의 일방은 발생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39] "중간에서 조처하는 하는 것"과 "평화적 해결에 협력해야 하는 것"의 차이란 주체의 역할이었다. 중간에서 조처하는 것은 조선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평화적 해결에 협력해야하는 것은 상대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러시아원문은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분쟁에 반드시 개입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조선원문은 조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중립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상대국에 관한 협력"과 "당사국의 중립적인 대응"의 차이였다.

둘째 1조 2항 거중조정(居仲調停)의 내용 중 조선원문은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應卽設法)"였고, 러시아원문은 "그 일방의 청원에 따라"라는 내용 뿐이었다. 우선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라는 규정은 1882년 한미조약의 "반드시 서로 도와주며(必順相助)"라는 내용보다는, 거중조정의 강제성이 약화되는 한영조약과 한독조약이 참고 되었다. 또한 조선원문은 거중조정의 강제성이 약화된 반면에 러시아원문은 거중조정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었다. 즉, 한국과 러시아의 해석이 달랐다. 러시아는 자국의 요청으로 한국을 동원할 수 있었고, 조선은 상대국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조선은 향후 러시아가 일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에 적극적인 협력을 제공해야했다.

한러조약에서 조선과 러시아 원문의 차이는 부속통상장정의 1조 1항 선박의 입출항 규정이었다.

"러시아 선박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그 선박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그 항구의 해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40]

"러시아 선박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는 입항 후 48시간(일요일과 휴일 제외) 이내에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했다는 러시아 영사가 발급한 선박서류 접수증명서를 그 항구의 해관에게 제출해야 한다."[41]

---

38) 彼國日後, 倘有與別國相岐之處, 此國一經彼國相約, **應卽設法**, 從中善爲調處(고종실록, 1884년 윤5월 15일)

39) В случае какого-нибудь несогласия между одною из Высоких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сторон и третью Державою, другая договаривающаяся сторона, по просьбе первой. Окажет свое содей ствие к мирному окончанию возникшего недоразумения.

40) "凡俄國船隻, 進入朝鮮通商口岸, 應由船主, 在二十四箇時辰內(禮拜及停公日不計) 將該船所持領事官發給船牌收據, 呈交該口海關驗收,"(고종실록, 1884년 윤5월 15일)

41) "В продолжение сорока восьми часов (не считая Воскресных и праздничных дней), по прибытии Русского купеческого судна в Корей ский порт, шкипер обязан представить таможенному начальству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т Русского Консула, что все кораб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переданы Консульству."(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조선 원문은 신고 시간이 ‘24시간’ 이었고, 러시아 원문은 ‘48시간’ 이었다. 신고시간의 차이는 그만큼 러시아 선박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만약 러시아 선박은 48시간 이내에 상업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항구로 이동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더구나 조약의 해석에서 러시아 원문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항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선과 러시아 원문에서 내용의 미묘한 차이가 아닌 명백한 숫자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에 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42)]

시간의 차이는 부속통상장정의 1조 4항에서 찾을 수 있다.

“러시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아직 개창하지 못해 하선하지 못한 경우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하면서 순전히 식용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43)]

“조선국의 항구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이 48시간(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선박의 출구를 개방하지 않거나, 악천후로 인하거나 신선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이 적재된 상품을 하역하거나 적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하목록과 입항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입항세도 부과되지 않는다.”[44)]

1조 4항에서도 조선 원문은 24시간, 러시아 원문은 48시간으로 각각 기록되었다. 한러조약 부속통상장정 1조 4항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은 정식무역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는 기항하는 항구에 적하목록과 입항신고서를 해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러시아 선박이 조선 해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예외 내용인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러시아 선박은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비밀히 상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더구나 러시아 선박은 조선 해관에 신고하지 않고 필요한 생필품을 조선 항구에서 자유스럽게 구매할 수 있었다.

한러조약에서 조선과 러시아 원문의 차이는 부속통상장정 1조 2항에서 찾을 수 있다.

---

42) 한영조약 부속통상장정에도 한국원문은 24시간, 영국원문은 48시간으로 기록되었다.(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編, 朝英通商條約原本 =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Russia and Korea, 1883, 52쪽)

43) “凡俄國船隻, 停泊通商口岸時, 在二十四箇時辰內(禮拜及停公日不計), 未曾開艙起貨及遇颶進口躲避, 或專欲購買食用等物未經貿易者, 概無須到關呈報, 亦不得征收船鈔.”(고종실록, 1884년 윤5월 15일)

44) “Русское судно, остающееся в порте не открывая люков, менее сорока восьми часов (не считая Воскресных и праздничных дней) или зашедшее в порт вследствие непогоды или же для принятия свежей провизии, не обязано представлять манифестов и декларация и с него не будут взыскиваться ластовые сборы, если оно не будет выгружать или погружать товаров.”(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입항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45)

“적하목록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제출한 후 24시간(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이내에는 벌금을 지불함이 없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46)

1조 2항에서 조선 원문은 12시간, 러시아 원문은 24시간으로 각각 기록되었다. 이러한 시간의 차이는 러시아 선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러시아 원문에 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러시아 원문에는 부속통상장정 1조 3항에 “상품 소유주가 이 세금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 소유주는 24시간 이내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세관장에게 제시해야한다” 규정되었다. 그런데 조선 원문에는 그 시간이 12시간으로 규정되었다.

맺음말

기존 연구는 러시아정부가 조선의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설치를 회피했다고 한러조약 2조를 해석했다. 그런데 한러조약 체결 이후 1884년 9월 러시아 외무대신 기르스는 조선에 정치적 약속 불가, 조선에 불리한 정치적 협정 막기, 주한 러시아공사관의 설립 등을 당면과제로 설정했다. 기르스는 후속조치로 “조선정부에게도 블라디보스톡 주재 영사 임명권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블라디보스톡 주재 영사관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다시 검토해야한다. 기르스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조선 항구 점령에 반대하여 러시아의 해군력을 통해서 일본의 실행을 억제하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기르스는 “조선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한 러시아는 관망자적 역할을 고수해야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충돌을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47)

조선은 1880년대 열강과 차례로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1882년 한미조약에서 거중조정을 규정하면서도 ‘최혜국대우’를 관철시켰다. 영국은 1882년 한청장정을 참고하여 ‘한성개잔’(漢城開棧) 뿐만아니라 ‘내지행상’(內地行商)까지

45) “進口總單內, 倘查有錯誤者, 從遞單之時起, 在十二箇時辰內(禮拜及停公日不計), 卽可改正, 勿庸納費”(고종실록, 1884년 윤5월 15일)

46) “Если в манифесте окажется ошибка, то в продолжение двадцати четырех часов после подачи (не считая воскресных и праздничных дней) ошибка может быть исправлена без уплаты какой -либо пени но за всякое изменение или добавление”(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47)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포함시켰다. 러시아는 1884년 한영조약을 참고하여 치외법권·최혜국대우·한성개잔 등을 포함시켰다. 프랑스는 선교문제로 조선과 논란을 벌이다가 여행허가증(護照)만 소지하면 선교를 위해서도 조선 내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철시켰다. 오스트리아는 1892년 상업이권에 관심을 표방하면서 최혜국대우를 관철시켰다. 그런데 한·오조약은 오히려 거중조정의 내용이 삭제되었다.

한러조약은 기본적으로 한영조약에 기초했다. 그런데 한영조약은 조미조약에 기초하여, 한청장정의 개항장에 대한 규정, 한일장정의 관세규칙, 한일조약의 부속장정도 참고했다. 한러조약은 기본적으로 열강의 조약체결의 내용에 기초했지만 러시아가 청국과 영국과 달리 조선정부에 양보한 조항도 있었다. 한성개잔을 포기할 수 있는 유보적인 단서조항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었다.

1884년 7월 한러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의 체결은 양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1882-83년 미국, 영국 등과의 조약을 체결한 조선은 청국과 일본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조약 체결을 통해서 외교노선의 다변화를 도모하였다. 러시아는 1884년 극동지역의 행정체계를 '동시베리아'에서 '연흑룡강' 지역 체제로 전환하면서 극동지역에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조선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필요하였다. 둘째 1860년 북경조약 이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조선과 러시아 정부는 비공식적 교역 및 비합법적인 연해주 지역의 조선 이주민 문제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결국 양국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통해서 양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조선에 파견된 공사 및 연해주 지역의 관리 등을 통해서 조선의 정치상황, 조선인 이주민 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48]

동아시아 삼국 한국, 일본, 청국은 열강에 의해 강요된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개했다. 그런데 청국과 일본은 열강에 의해 당한 불평등 조약을 한국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한국은 한미조약을 기초로 청국과 일본의 더욱 불평등 조약을 막으려고 시도했지만 청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했다. 영국은 한청장정, 한일장정의 근거로 한국정부에게 더욱 불평등한 조약을 완성했다. 이러한 한영조약은 한독조약, 한러조약, 한불조약의 원형을 제공했다. 한러조약은 한청조약, 한미조약, 한영조약 등이 충분히 분석된 기초위에서 열강과 한국이 체결한 조약 중 완결판이었다.

48) 김영수, 2007「대한제국을 바라보는 러시아학계의 시각」『역사와현실』63

「1884년 한러조약에 관한 인식 및 분석」에 대한 토론문

최덕수(고려대 한국사학과)

발표자는 1884년 한러조약의 체결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한러조약의 조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조선이 개항 이후 체결한 조약(특히 수호통상조약)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조약 한문본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나, 조약이 체약국들의 언어로 작성되었음에 주목하고 한문본과 러시아본을 비교하고 있다. 조약문에 사용하는 언어의 규정성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이와같은 시도는 연구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연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러조약의 각각의 조항에서 한문본과 러시아본에 사용된 단어 혹은 의미상의 차이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던 사례에 대한 연구는 분석의 참신함을 잘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1) 8조 4항의 조선 '연해' 탐사 조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한문본에는 연해로 규정된 것이 러시아어 조약문에서는 강, 바다, 호수로 확대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를 한영조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한영조약의 'Corean waters'를 발표자가 보는 바와 같이 강, 바다, 호수로 해석하는 볼 수 있는가? 'waters'는 연해, 근해의 뜻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발표문 의 각주에서 제시한 'водах' (밑줄 친 부분)와 'waters'의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2) 입출항 규정 관련 해석 문제

입출항 등의 규정을 담은 통상장정에서 한문본과 러시아 본이 각각 24시간과 48시간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한문본의 二十四箇時辰內을 두고 24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것은 조선시대 시간 측정법인 12시진에 의한 표기라 할 것이다. 즉 24개시진은 서양식으로 따지자면 48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이유로 위 내용을 두고 한문본과 러시아본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3) 거중조정 관련 해석 문제 : 1조 2항

거중조정 조항은 한미조약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으나 한영조약(1883)에서는 삭제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문본과 러시아어 조약문의 비교를 통해 조선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상황과 연관지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과연 조선이 조약의 러시아 본에 의거해서 러시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국제법의 거중조정(Good office)와 중재(mediate)의 개념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발표문은 맺음말에서 한러조약이 당시 '열강과 한국이 체결한 조약 중 완결판이었다'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지금까지의 한러조약 연구가 주로 한영조약의 연장선에서 파악하였던 점을 생각할 때 이 연구의 연구사적 의미는 매우 소중하다. 앞으로도 러시아측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영국), 한국과 일본 관계와 다른 한러 간의 역사적 상황의 독자성(육로통상장정 시도 및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논의 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와 한국 역사교과서 - "태프트-가쓰라 협정"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이 글은 러시아에서 발간된 한국사 대학교재 2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특히 대한제국시기의 역사서술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들에 주목한 이유는 이것이 한국사 관련 러시아 역사학계의 연구수준과 한국인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바, 축적된 개별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합의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국제관계대학(МГИМО)의 한국사 교재 『한국사新講 История Кореи(Новое прочтение:2003)』와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쿠르바노프 교수가 저술한『한국사강의(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2003,2009)』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상기 교재들의 한국사 서술 가운데 러시아와 한국 역사학계 모두에게 시급히 해결해야할 쟁점으로 이른바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제기함으로써 이 "밀약론"이 양국 역사학계에 잘못 인식되게 된 과정을 추적하고 그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의 부차적인 목적이다. 이는 한국병탄 100년을 맞이하여 "밀약"의 존재자체에 대해 재검토함으로써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역사연구에서도 그 기억과 서술상의 오류를 바로잡아야할 시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러시아의 한국사대학교재속의 "태프트-가쓰라 밀약"의 서술과 논거들을 검토하고 둘째,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한국을 거래했다는 "태프트-가쓰라 밀약"이 제기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핌으로써 이 "밀약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셋째, 태프트의 전문(1905.7.29)을 "태프트-가쓰라 협정"으로 둔갑시킨 일본외교문서가 한국역사교과서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서구에서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정리된 "태프트-가쓰라 밀약"이 한국 역사교과서에서 역사적 사실로 서술된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가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학자들의 공동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 속의 “태프트-가쓰라 밀약”

『한국사新講 История Кореи(Новое прочтение:2003)』의 대표저자인 토르쿠노프는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한국과 한국인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한국사에 대한 제대로 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저술했다고 이 책의 집필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사의 해석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념적인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사회주의 진영의 역사학자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만은 아니었고 영미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전자가 사적유물론에 입각한 계급 분석이 특징이라면, 후자는 개별왕조 인물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인 요소와 외부적 요인의 의미를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르쿠노프는 이 책의 집필지침이 기존의 정형화된 구도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2002년 페테르부르크대학의 쿠르바노프 교수가 집필한『한국사강의: 고대에서 20세기말까지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ека)』는 한국학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대에서 20세기말까지의 한국사를 강의하기 위한 대학교재의 성격이 강하다.[1] 이 책은 앞서 소개한『한국사新講 История Кореи(Новое прочтение)』과는 달리 공동저작이 아닌 단독저술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 사학에서 벗어나 국내외 최신 연구업적들에 기초한 객관적 저술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단독저술이 갖는 오류와 편견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으로써 2009년 개정판을 발간한 바 있다[2]. 따라서 2000년대에 들어와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서 간행된 한국사 대학교재들은 학문후속세대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 탈이념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의 대학교재들이 마르크스-레닌 역사학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국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주제를 검토해볼 경우, 여전히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대한제국시기 관련 역사서술에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태프트-가쓰라 밀약”이다.

---

1) С.О.Курбанов,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ека. СПб. 2002.

2) 쿠르바노프의 개정판의 제목은『한국사-고대에서 21세기 초까지』인 바, 초판의 『강좌한국사-고대에서 20세기 말까지』보다 연구범위를 21세기 초(2005년)까지 확대하고 있다. С.О.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ека. СПб. 2009.

1974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에서 간행한『한국사(История Кореи)』고종의 측근들이 1910년 초 미일간의 전쟁위기설이 유포되자 "미일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해방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면[3], 필리핀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미국이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협정까지 체결한 미일 양국이 전쟁위기에 봉착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른바 "태프트-가쓰라 협정"이 체결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루즈벨트 대통령이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입장만이 명확하게 표현되었을 뿐, 미국의 입장은 심각하게 오도되었다"고 말했다면, 과연 이 협정에 미일간에 필리핀과 한국을 거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을까? 그리고 이 "협정문"이 서류함에 사장된 채 근 20년 만에 발견되었다면, 이 협정은 과연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었는가? 요컨대 태프트가 가쓰라와 협정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태프트-가쓰라 협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토르쿠노프의『한국사신강』의 서술부터 분석해 본다. 이 책에 따르면, "포츠머스에서 협상이 시작되기 약 10일전 도쿄에서 미일비밀협정(태프트-가쓰라 밀약)이 체결되었는데,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 하는 것을 인정했다(후에 여기에 영국도 합류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제3국의 압력과 위협이 있을 경우 사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중조정을 주선한다고 명시한 1882년 한미수호조약에 따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방기해버렸다"는 것이다.[4] 이같은 서술은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체결한 미국에게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인정한 책임과 거중조정의 의무를 방기한 책임까지 묻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미감정을 투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논거는 무엇인가?

이는 1958년 북한의 역사연구소가 출간한 조선통사의 이른바 태프트-가쓰라 협정에 대한 서술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데,『조선통사 下』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통사의 제19장「2절, 로일전쟁과 일제의 조선 강점 정책의 로골화,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러일전쟁의 종말에 가까운 1905년 6월 미국의 주선에 의하여 포츠머스 강화회의가 열리던 전후시기에 이미 미국의 계획에 의하여 조선의 운명은 결정되었으며 또한

3) История Кореи/Под ред. Ю.В.Ванин, М., 1974, С. 417.; 당시 국내언론에서도 미일전쟁 위기에 대해 이미 1909년 9월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대한매일신보』(1909.9.15)는 "미일전쟁의 풍설이 홍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미일전쟁의 가상활동사진이 성황리에 상영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의 최후의 승리를 그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또한『대한매일신보』(1910.3.17)의 '미일전쟁론' 기사에서는, "미국부자 싯푸씨가 미일전쟁은 불가불 된다고 주장한 이래로 미국사람이 일본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동경 국제신문협회에서 미일전쟁이 이유 없는 것으로 결의"했음을 전하고 있었다.

4) История Кореи(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Под ред. А.В.Торкунова. С. 268

그 계획을 집행하기위하여 일본과의 사이에는 일체 필요한 거래가 성립되어 있었다.

동년 7월 러일 양국간에는 요구조건의 대립으로 강화회의가 지지하게 진척되고 있는 틈을 타서 미국은 육군장관 타프트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수상 계태랑(桂太郎)과의 사이에 비밀 회담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미제는 일본으로부터 그 식민지 비률빈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보증을 받는 대신에 조선에 대하여 "어떤 결정적인 수단을 단연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일본태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조선이 일제의 "보호국화"를 허용하였다...이와 같이 조선에 대한 처리는 두 강도들의 밀담에서 결정되였다... 이와같이 미국은 조선을 일제에게 넘겨주는 죄악적 행위를 아무러한 거리낌 없이 진행하는 일방 일제와 더불어 짜리 로씨야에 압력을 가하면서 강화조약을 촉진시켰다...그러나 조선의 통치배들은 이미 지난 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의 배씸을 알만치 배신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친우"로, "동정자"로, "후원자"로 믿었다. 이것은 로회한 미제의 조선에 기어들던 첫날부터 떠들던 기만적 선전의 효과이기도 하였다.

조선의 일부 통치배들은 이미 배신한지 오랜 1882년의 "한민통상조약"의 첫 조항에 환상을 걸고 그들의 "친선", "박애"의 감언 리설에 매혹되여 이러한 흉악한 강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었다.

"을사보호조약" 직전 또 다시 고종왕은 루즈벨트에게 밀사를 파견하여 애원하는 어리석은 잠고대까지 하였다. 오히려 미제는 강도적 "을사보호조약"의 성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기 공사 알렌을 소환하고 그 후임으로 몰간을 보내여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적극 표명하였으며 조약이 체결되자 솔선 조선에서 공사관 철거의 선봉에 섰던 것이다.

미제의 조선에 감행한 죄악사는 이로써 그치지 않는다. 놈들의 교활 음흉한 침략기도와 우리나라에서 범죄적 죄행은 1866년 "제네랄 셔만호 사건"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5]

이같은 미국에 대한 서술과는 달리『조선통사』에는 러시아가 빠져있다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러시아가 러일전쟁을 종결짓는 포츠머스(Portsmouth)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을 인정한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 러일전쟁의 전후처리를 위해 1905년 9월 5일 러일전쟁을 러시아의 전권대표 비떼와 일본의 전권대표 고무라간에 체결된 포츠머스강화조약의 제2조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정치・군사 및 경제적인 면에서의 월등한 권익을 인정하고 일본

5)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 下, 로동신문출판사, 1958, 131-133쪽

이 한국의 보호와 감독을 위해 취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조치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장차 한국에서 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먼저 한국정부와 합의한 뒤에 이를 집행한다는데 동의"한 바 있었다. 결국『조선통사』는 미국에 대해서는 태프트-가쓰라 회담 기록을 인용하여 미국을 비난한 반면, 러시아가 일본에게 한국보호국화의 법적토대를 마련해준 포츠머스 조약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는 냉전체제의 성립과 6.25전쟁을 치르면서 강화된 조소간의 사회주의 연대와 반미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프트-가쓰라 회담을 둘러싼 『조선통사』의 서술에 투영된 친소 반미의 경향성은 소비에트 역사학의 연구업적에 영향 받은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련에서 태프트-가쓰라 회담에 대해 처음으로 소개한 저서는 1955년 소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에서 출간된『러일전쟁외교사개관(Очер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 1895- 1907)』이다. 이 책은 소련역사학계에서 실증적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가로 평가 받던 로마노프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다. 그는 1928년 제정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을 사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만주에서의 러시아(Россия в Маньчжурии)』를 보완하여 1947년『러일전쟁 외교사 개관(Очер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 1895-1907)』를 발간했다. 그러나 1947년 판『러일전쟁 외교사 개관』은 출판심의 과정 및 1948년 3월에 열린 소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의 세미나에서 포츠머스 강화회의에 대한 새로운 장을 설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받은 바, 이후 1955년에 출간된 개정판에서는 포츠머스 강화회의를 주선한 미국,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자세하게 다뤄졌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러일전쟁 초기부터 강화에 이르기까지 미국무성을 배제한 채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정책을 전개한 루즈벨트 특유의 개인외교(Personal Diplomacy)에 초점을 맞춰 루즈벨트가 러일 강화를 주선한 배경, 러일 전권대표들간에 전개된 협상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로마노프는 이미『만주에서의 러시아(Россия в Маньчжурии)』에서 루즈벨트가 러일전쟁을 양국이 국력을 소진하고 전후에도 양국이 지속적으로 상호대립하게 하는 지렛대로 삼아 이를 계기로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보장받고자 했음을 입증한 바 있었다. 이에 그는『러일전쟁 외교사 개관』에서 러일전쟁과 강화협상 과정을 유럽의 국제관계와 연관시켜 보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극동의 문제와 유럽의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문제에 개입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모로코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는 러일전

쟁이, 유럽에서는 모로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종전과 더불어 모로코 사태가 해결되는 상호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했다. 1904년 4월 8일 일본과 러시아의 동맹국이었던 영국과 러시아가 각각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영불협상(Anglo-French Entente)을 체결하자, 이것이 러일전쟁 이후 영-불-러-일의 4국 동맹체제로 전화될 것을 우려한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2세가 모로코에 대한 독일의 지분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모로코 사태는 루즈벨트의 중재로 러일전쟁의 강화와 더불어 해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서양을 아우른 그의 세계정책은 세계질서 재편의 중심에 백악관이 자리잡게 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동아시아정책과 관련하여 태프트-가쓰라 회담이 로마노프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소련학계에 소개되었다.[6] 그는 이 회담을 1905년 여름 루즈벨트 외교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평가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태프트-가쓰라 회담 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이 회담은 1905년 3월부터 영일동맹 갱신을 위해 교섭해왔던 영국과 일본간의 합의사항의 재확인 과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7]그는 태프트-가쓰라 회담에서 거론된 한국문제의 경우, 태프트가 자신의 "私見"임을 전제로 가쓰라에게 말한 내용, 즉 "일본의 동의 없이 한국이 외국과 어떤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일본군대에 의한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이 전쟁의 논리적인 결과이며 극동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발언"은 이미 1905년 6월 5일 영국의 외상 랜스다운(Lord Lansdowne)이 제2차 영일동맹조약의 영국측 조약안의 제3조의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랜스다운의 조약안 제3조에서는 "일본이 한국에서 자국의 특수한 정치, 군사,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고 필수적이라 인정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있었다.

더욱이 태프트-가쓰라 회담보고 전문에 따르면, 이 회담은 후자의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태프트[8]는 자신의 발언이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일본에게 어떠한 약속도 해주지 않았다. 이에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지 못했으나, 가쓰라 백작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정중하

6) 로마노프는 그의 제자였던 가넬린(Р.Ш.Ганелин)이 존 레이드의 "루트에게 보낸 태프트의 전보(Taft's Telegram to Root, July 29, 1905)에 근거하여 태프트-가쓰라 회담을 정리했다. John G. Reid, "Taft's Telegram to Root",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9, No. 1,(1940), pp. 66-70.

7) *Романов Б.А.* Очер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 1895-1907, М.,Л. 1955. С. 433-434.

8) 윌리암 태프트(William H. Taft: 1857-1930) 미국 제27대 대통령(1909.3-1913.3), 필리핀 민정총독(1900) 과 미육군장관(1904) 역임.

게 간청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가쓰라가 관심을 보였던 제2차 영일동맹에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본-영국-미국간의 동맹 체결 건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지 않았다. 로마노프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1905년 3월 영일동맹 갱신에 대한 양국간의 교섭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주영일본공사 하야시가 가장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새로운 영일동맹조약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랜스다운은 미국이 동맹조약을 통해 자신을 구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이를 묵살해 버렸던 것이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쓰라는 태프트와의 회동에서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인 극동의 전반적인 평화를 지지하는데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의 3국 정부간의 우호적인 협정을 이끌어내려는 고려를 하고 있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가쓰라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이 공식적인 동맹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우리 공통의 이해를 염두에 둔다면, 왜 어떤 우호적인 협약이나 명칭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동맹이, 체결될 수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가쓰라가 미국으로부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문서로 남길 수 있는 단순한 구두선언이라도 받고 싶어 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태프트의 보고전문에 따르면 그는 이를 완곡하게 거절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 없이는 비공식적인 비밀조약의 의미를 지닌 어떠한 협약이라도 사실상 체결할 수 없다"고 대답한 그는 그러나 "조약이 아니더라도 미국국민들은 극동의 평화유지와 관련하여 일본 및 영국국민과 공감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과 더불어 미국정부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것을 취해야할 의무를 미국이 가진 것으로 믿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자신이 국무상이 아닌 육군상이기 때문에 미일간의 어떠한 협정체결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결코 아니었다. 결국 태프트는 미 국무장관 루트(Elihu Root)에게 가쓰라 수상이 인터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지만 결코 국무성의 사무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전제하고, 만일 자신이 너무 자유롭게, 부정확하게 혹은 부지불식간에 얘기한 것이 있다면, 국무장관이 이를 시정해 줄 것으로 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태프트-가쓰라 회동에 대한 보고전문을 면밀히 분석한 로마노프는 이 문서가 미국을 서명하지 않은 영일동맹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려는 미일간의 비밀협정은 결코 아니었지만 필리핀과 한국을 교환한 이른바 "탈취한

9)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s of World War I, Vol. IV, pp. 120-122. The Marquess of Landsdowne to Sir C.MacDonald, March 24, 1905. *Романов Б.А.* Очер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895-1907, М.,Л. 1955. С. 432.

영토를 맞바꾼 제국주의적 거래"였다고 결론지었다.[10] 로마노프의 결론은 쿠르바노프의『한국사강의』에도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서술로 표출되었다. "1905년 7월 29일 일본수상 가쓰라와 루즈벨트 행정부의 육군상 태프트간의 밀약이 체결되었던 바,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해를 인정하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승인하였다".[11]

3. "태프트-가쓰라 밀약"의 신화와 한계

태프트가 1905년 7월 27일 목요일 아침에 이루어진 가쓰라 와의 대화에 대해 1905년 7월 29일 미 외무장관 루트(Elihu Root)에게 보고한 전문은 미일간의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비밀협정이었는가? 과연 이 전문에서 미일 양국이 필리핀과 한국을 교환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있었는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위해 우리는 먼저 태프트의 보고전문(1905.7.29)이 "태프트-가쓰라 밀약" 혹은 "태프트-가쓰라 협정"으로 둔갑한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전문은 단순한 회담에 대한 보고서일 뿐, 태프트와 가쓰라가 서명한 협정이 아니며, 협정체결은 육군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국무장관의 업무범위이므로 만일 태프트가 협정에 서명했다면 그는 월권을 한 것에 틀림없는 것이다. 요컨대 가쓰라와의 회담내용을 보고한 태프트의 1905년 7월 29일자 전문은 협정도 아니고 밀약도 아닌 보고전문일 뿐이기 때문이었고 2) 내용의 측면에서, 태프트-가쓰라 회담은 후자의 간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이를 회의록으로 정리한 것인 바, 미국이 필리핀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나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 양자는 러일전쟁과 관련된 현안(필리핀 문제, 영일동맹에 미국이 참여하는 문제, 한국문제)에 대한 의견교환만 했을 뿐이며, 더욱이 이 전문에는 중국에서 미국상품에 대한 보이콧 문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에서 미국으로 출발한 중국관리 2명이 비록 입국서류가 불충분하더라도 그들의 미국입국을 원만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미 육군장관 태프트가 필리핀 순방길에 일본에 들러 일본수상 가쓰라와 대화를 나눈 후, 이를 정리한 기록에 대해 양자가 동의한 후 이를 미 국무

10) *Романов Б.А.* Там же. С. 433-434.

11) *С.О.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ека. СПб. 2009. С.335-336.

장관에게 보낸 보고전문에 불과한 바, 7월 29일자 태프트 전문의 첫줄에 씌어진 바와 같이 "양자가 동의한 대화기록(agreed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Prime Minister of Japan and myself)"에 불과할 뿐 결코 협정(Agreement)[12]은 아니었다.

이제 태프트의 전문(Telegram)이 "태프트-가쓰라 협정(Agreement)"으로 둔갑한 과정을 추적해보자. 1924년 존스홉킨스대학 역사학부 교수 테일러 데넷(Tyler Dennett)은 미 국회도서관에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관한 사적(私的) 비망록과 외교서류 등을 조사하던 중, 1905년 7월 29일자 태프트가 루트에게 보낸 전문을 처음 발견했다.[13] 데넷은 이 전문을 태프트와 일본 수상 가쓰라간의 비공식 회담에 관한 '합의된 비망록(Agreed Memorandum)'으고 간주하여 당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급의 중요 비밀사실을 알아냈다고 확신하고, 국무장관인 찰스 휴스(Charles Hughes)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휴스는 즉시 태프트에게 의견을 물었고, 태프트는 공개를 반대하지 않았다. 데넷은 같은 해 8월 매사추세츠州 윌리엄스타운(Wiliamstown) 에서 열린 미국 정치학회에서 이 문서 내용을 발표했고, 이는 미 '현대사(Current History)'지(誌)에 "루스벨트 대통령과 일본과의 비밀협정(Secret Pact)"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실리게 되었다.[14] 이렇게 하여 태프트의 전문은 데넷에 의해 처음으로 비밀협정으로 명명되었다.

그럼 왜 데넷은 태프트의 전문을 비밀협정으로 간주했을까? 데넷은 1905년 7월 31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태프트에게 보낸 회신전문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귀하와 가쓰라간의 대화는 모든 측면에서 정확하다. 그러므로 귀하의 모든 발언을 내가 확인한다고 가쓰라에게 말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회신전문의 요지였다. 이에 데넷은 미국외교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의 내용을 이 회의록에서 찾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논문에 첨부한 태프트 전문의 사진 복사본(Photostat)에서 태프트의 이름과 전문의 발신, 수신인을 삭제하고 중국 관리의 미국입국 관련 내용도 생략함으로써 이 전문(Telegram)이 마치 비밀협정문으로 보이도록 둔갑시키는 극적인 효과를 고조시켰다.[15]

---

12) 日本外務省,『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 上』 (原書房: 1965-1966), pp.239-240. 桂クフト協定 (THE TAFT-KATSURA AGREEMENT)

13) Raymond A. Esthus, "The Taft-Katsura Agreement-Reality or Myth?", *The Journal of Mordern History*, Vol.31, No.1(1959), pp. 46.

14) Tyler Dennett, "President Roosevelt's Secret Pact with Japan", *Current History,* Vol. 21:1(1924), pp.15.

15) 위의 논문, pp. 16-17.

이와 더불어 태프트-가쓰라 회담에서 필리핀과 한국의 거래(*quid pro quo*)가 이루어졌다는 오해를 낳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던 코쿠민신문(國民新聞)의 1905년 10월 4일자 보도였다. 1905년 10월 4일 주일미국대사 그리스콤(Lloyd Griscom)은 일본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협정에 관한 소문을 보고한 바, 그 요지는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의도가 없음을 선언하고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 하는 문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양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16] 태프트와 가쓰라간에 한국과 필리핀에 관한 비밀거래가 있었다고 언급한 고쿠민 신문은 한발 더 나아가 일본정치가들의 희망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다. "이는 사실상 일-영-미의 동맹이며, 일본은 영국이 동맹국이 되었을 때 미국도 협정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미국이 독특한 국가전통에 의해 공개적인 동맹국이 될 수 없지만, 비록 공식적인 조약으로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세계적 정치가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리더쉽 하에 일본 및 영국과 협조하여 동양의 문제들을 처리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전했던 것이다.

일본 언론의 이러한 과장보도를 보고받은 루즈벨트는 태프트의 발언의 진의가 왜곡된데 대해 주미일본공사 타카히라(高平小五郎)를 초치하여 강력 항의했다. 이는 "미국의 영토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에게도 무엇을 요구하거나 호의를 베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태프트에게 보낸 편지(1905년 10월 5일)에서 "우리는 그러한 간섭을 방지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영토보전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재확인 하였다.[17] 이에 루즈벨트는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입장만이 명확하게 표현되었을 뿐, 미국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18] 그 결과 태프트-가쓰라 회동에 대한 보고전문은 1924년 데넷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19]

결국 이러한 루즈벨트의 단호한 입장표명에 대해 일본정부는 공식해명을 해야

16) Raymond A. Esthus, 위의 논문, pp. 49.

17) Roosevelt to Taft, Oct. 5, 1905, *The Letters of Theodore Roosevelt*, ed. E.Morison, V. 5 (Harvard University Press: 1952), pp. 49.

18) Roosevelt to Taft, Oct. 7, 1905, 위의 책, pp. 46.

19) 1905년 7월 29일 루트에게 보내진 이 전문은 같은 날 오이스터 만(Oyster Bay)에 머물고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발송되었고 7월 31일 루즈벨트는 태프트에게 가쓰라와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이를 승인하고 확인하는 회신전문을 보냈다. 태프트의 전문은 7월 31일 국무성의 서기장이 스탬프를 찍었고 8월 16일 색인되었으나 1905년 10월 7일까지는 서류철에 보관되지 않고 있었다. John G. Reid, "Taft's Telegram to Root",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9, No. 1,(1940), pp. 66.

만 했다. 1905년 10월 10일 수상 가쓰라는 주미공사 다카히라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해명할 것을 훈령했다. "고쿠민 신문은 친정부적이지만 일본정부의 기관지는 아니며 대통령이 언급한 기사는 정부가 지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호의적인 태도를 인식하고 이에 감사한다...(중략) 미국의 그러한 태도가 거래 혹은 양해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은 미국을 거짓되게 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귀하는 대통령에게 일본정부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 미국의 실제 입장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려 노력할 것임을 전하라".[20] 이는 언론에 비밀을 흘린 정부들이 곤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는 부인은 결코 아니었다. 가쓰라는 "고쿠민" 신문의 보도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솔직하게 시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고쿠민 신문이 태프트-가쓰라 회담을 미일간의 거래로 과대포장하거나 왜곡한 배경은 무엇인가? 비록 가쓰라는 일본정부가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것을 공식부인하고 있지만, 소문의 진원지가 친정부 신문이었다는 점과 루즈벨트에게 이를 공식 사과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경우, 이 같은 고육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국내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905년 10월 초 이 소문이 도쿄에 처음 유포되었을 때, 가쓰라 내각은 포츠머스 강화회의에서 배상금 한 푼 받지 못한 외교적 실패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그 위기는 포츠머스강화조약이 체결된 1905년 9월 5일, 도쿄의 히비야(比谷)공원에서 3만의 군중이 참석한 강화조약반대국민대회(講和條約反對國民大會)가 개최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대회를 주최한 대러강경론 그룹의 강화문제동지연합회(講和問題同志聯合會)는 치안경찰법에 의해 금지된 이 집회를 경찰의 제지를 물리치고 강행함으로써 소요사태가 발생했고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던 경찰 간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결국 군대가 투입되면서 소요는 진정되었지만 강화를 반대하는 대중 집회는 전국각지에서 개최되었고 10월 4일 樞密院에서 강화조약이 승인될 무렵까지 이어졌던 것이다.[21] 따라서 일본정부가 태프트-가쓰라 대화를 필리핀과 한국을 거래한 "협정"으로 둔갑시킨 근본원인은 강화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반정부적 여론과 내각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현상타개책이 필요했던 국내상황에 있었다. 추밀원에서 강화조약을 승인한 1905년 10월 4일에 코쿠민 신문에서 태프트-가쓰라간의 비밀거래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

20) Raymond A. Esthus, 위의 논문, pp. 50.

21) 海野福壽, 『日淸·日露戰爭』, 集英社, 1992, pp. 210-214.

더욱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9년 2월 8일 차기 태프트행정부의 신임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녹스가 자신의 대외정책을 계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의 대일관을 담은 편지를 발송했는데 편지의 제목은 “일본의 위협(The Threat of Japan)”[22]인 바, “미국의 안전과 국익에 가장 중대한 위협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닥쳐올 것”임을 예견하는 것이 그 요지였다.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임을 충고한 이 편지는 러일전쟁 이후 미일관계가 신뢰와 타협에 근거한 우호관계 보다는 불신과 배척의 측면이 훨씬 강했던 불화의 시기였음을 반증하고 있다.[23] 루즈벨트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은 매우 위협적인 군사강국이며 국민들은 각별한 전투능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전적이기 때문에,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재앙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미국)가 비록 이긴다하더라도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의 함대를 강력하게 무장시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든가, 혹은 만일 개전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을 강조했다”.

루즈벨트는 일본인들이 자신감과 수치심이라는 모순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않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것이 개전방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인들의 자신감은 러시아제국에 대한 군사적인 승리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치심이란 그들이 서구국가 형제단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간주받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맹국인 영국민과 그들의 친구인 미국인들이 유럽의 가장 후진국이나 퇴락한 국민들을 대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인들을 제휴의 대상이나 시민권를 부여하지 않으려하는 것을 알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일본이 미주지역으로 이민을 활성화하고 있는 반면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몰려오는 것을 혐오하며 일본인들을 배척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에 루즈벨트는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이주해 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인종문제를 야기하고 인종경쟁을 촉발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일본이 거리낌없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미국은 철저한 무장을 해야하는데 전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4] 결국 태프트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을 담당할 녹

22) Theodore Roosevelt-Knox, Feb. 8 1909. Papers of Theodore Roosevelt, Manuscript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pp.120-126.

23) 1909년 백악관을 떠나면서 자신의 외교정책을 후임 대통령인 윌리엄 태프트가 계승할 것으로 확신하고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1909년 2월에 집중적으로 일련의 메모와 편지들을 작성했다.

24) Theodore Roosevelt-Knox, Feb. 8 1909, Papers of Theodore Roosevelt, Manuscript Division, Library of

스 국무장관 내정자에게 보낸 루즈벨트의 편지는 태프트-가쓰라 회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미국의 영토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에게도 무엇을 요구하거나 호의를 베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루즈벨트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문서이기도 했다.

4. 일본외교문서와 한국 역사교과서 속의 "태프트-가쓰라 협정"

상술한 바와 같이 1905년 7월 29일 태프트가 루트에게 보낸 전문은 태프트와 가쓰라의 대화기록일 뿐 결코 테일러 데넷이 주장한 "루즈벨트 대통령과 일본간의 밀약(Secret Pact)"이나 협정(Agreement)이 아니었다. 비록 1905년 7월 31일 루즈벨트가 "태프트의 발언을 추인하고 이를 가쓰라에게 전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미국외교사의 가장 명백한 "행정협정"이라고 데넷은 해석했지만, 동년 10월 일본이 태프트-가쓰라 회담을 과대포장하여 국내위기를 모면하려 했을 때 보인 루즈벨트의 태도와 상술한 1909년 2월 8일자 편지에 나타난 그의 대일관에 근거할 경우, 이는 밀약도, 행정협정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 대화기록에는 필리핀과 한국을 비밀 거래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정부에 의해 조작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는 1959년에 발표된 에스더스(Raymond A. Esthus)의 논문 "태프트-가쓰라 협정 - 사실인가 신화인가?"에서 이미 논증된 바 있다.[25] 에스더스는 데넷의 논문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본과의 비밀협약"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태프트의 전문은 대화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에 동의(agreed memorandum)한 것이지, 협정(agreement)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태프트의 전문(Taft's Telegram to Root, July 29, 1905)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연구사는 1959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시기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는 데넷, 그리스콤의 연구가 이에 해당하고, 후자는 에스더스, 채종석[26], 앤드류 남,[27] 존 윌츠[28] 등이 해당된다. 요컨대 미국학계에서는 이미 1959년에 태프트의 전문

Congress. pp. 120-126.

25) Raymond A. Esthus, "The Taft-Katsura Agreement-Reality or Myth?", *The Journal of Mordern History*, Vol.31, No.1(1959), pp.46-51.

26) Jongsuk Chay, "The Taft-Katsura Memorandum reconsidered",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37, No. 3 (1968), pp. 321-326.

27) Andrew C. Nahm, "The Impact of the Taft-Katsura Memorandum on Korea-A Reassessment", *Korea Journal*,(October 1985), pp. 4-17.

은 가쓰라와의 대화기록일 뿐 결코 밀약이나 협정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리되었던 것이다.[29]

이러한 존재도 하지 않은 “태프트-가쓰라 밀약”의 조문에 대한 국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은 태프트의 電文(1905.7.29)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출간한 일본외무성의『일본외교연표와 주요문서』에 힘입은 바 크다.[30] 또한 일본외교문서(38권 1책)에는 미육군장관 태프트의 방일 일정과 행적에 관한 일본외무성과 주미일본공사간의 왕복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유독 태프트-가쓰라의 대화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외교문서의 “태프트-가쓰라 협정(TAFT-KATSURA AGREEMENT)”과「루즈벨트」대통령의 추인(追認)전보(1905. 7.31)를 첨부하고 있다.[31] 이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태프트가 루트에게 보낸 전문(1905.7.29)을 “태프트-가쓰라 협정(TAFT-KATSURA AGREEMENT)”이라 명명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전문이 협정문처럼 보이도록 조작해 놓은 것이다. 그 결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태프트-가쓰라 “협정” 혹은 “밀약”이 실재한 사실로 여기게 되었고 그것이 을사보호조약의 체결과 한일병합에 끼친 영향에 대해 왜곡된 역사서술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표1> 태프트의 전문(1905.7.29)과 일본외교문서의 태프트-카쓰라 협정의 비교

電文	Taft's Telegram to Root, July 29, 1905. John G. Reid, "Taft's Telegram to Root",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9, No. 1,(1940), pp. 66-70.
日外	THE TAFT-KATSURA AGREEMENT 『日本外交文書(38卷 1冊)』(1959. 9.30), pp. 450-452

28) John E. Wilz, "Did the United States betray Korea in 1905?",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54, No. 3 (1985), pp. 243-270.

29) 국내에서는 1993년 이우진 교수에 의해 데넷과 에스더스의 논쟁이 소개되었고(이우진, “러일전쟁과 한국문제”,『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8권2호, 1993. pp.346-348.) 최덕수 교수에 의해 “태프트-가쓰라 비망록” 관련 자료들이 소개되었다.(최덕수 외 지음,『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pp. 504-520). 한편 나카타 아키후미(長田彰文)는 “태프트-가쓰라 밀약”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나카타 아키후미,『미국, 한국을 버리다-시어도어 루즈벨트와 한국』, 이남규 옮김, 기파랑, 2007. pp. 108-152).

30) 日本外務省,『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 上』 (原書房: 1965-1966), pp.239-240. 桂クフト協定 (THE TAFT-KATSURA AGREEMENT).

31)『日本外交文書』, 38권 1책, 450-452쪽. 桂 「タフト」了解ニ 關シ 美大統領 追認ノ 件; (附記一) 比島, 極東ノ平和, 韓國ノ諸問題ニ關スル桂「タフト」了解, THE TAFT-KATSURA AGREEMENT.

電文	The following is agreed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Prime minister of Japan and myself: "Count Katsura and Secretary Taft had a long and confidential conversation on the morning of July 27th. Among other topics of conversations the following views were exchanged regarding the questions of the Philippine Islands, of Korea, and of the maintenance of general peace in the Far East.
日外	..."Count Katsura and Secretary Taft had a long and confidential conversation on the morning of July 27...
電文	"First, inspeaking of some pro-Russians in America who would have the public believe that the victory of Japan would be a certain prelude to her aggressions in the direction of the Philippine Islands, Secretary Taft observed that Japan's only interest in the Philippines would be, in his opinion, to have these Islands governed by a strong and friendly nation like the United States, and not to have them placed either under the misrule of the natives, yet unfit for self-government, or in the hands of some unfriendly European power. Count Katsura confirmed in the strongest terms the correctness of his views on the point and positively stated that Japan does not harbor any aggressive designs whatever on the Philippines: adding that all the insinuations of the yellow peril type are nothing more or less than malicious and clumsy slanders calculated to do mischief to Japan.
日外	First, inspeaking [sic] of some pro-Russians in America who would have the public believe that the victory of Japan would be a certain prelude to her aggressions in the direction of the Philippine Islands, Secretary Taft [two words deleted] observed that Japan's only interest in the Philippines would be, in his opinion, to have these Islands governed by a strong and friendly nation like the United States, ...Count Katsura confirmed in the strongest terms the correctness of his views on the point and positively stated that Japan does not harbor any aggressive designs whatever on the Philippines...
電文	Second, Count Katsura observed that the maintenance on general peace in the extreme East form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Japan's international policy. Such being the case, he was anxious to exchange views with Secretary Taft as to the most effective means of insuring this principle. In his own opinion, the best and in fact the only means for accomplishing the above object would be to form good understanding between the three government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which have common interest in upholding the principle of eminence.
日外	Second, Count Katsura observed that the maintenance on general peace in the extreme East form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Japan's international policy. Such being the case,... the best and, in fact the only means, for accomplishing the above object would be to form good understanding between the three government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電文	The Count well understands the tradition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pect and perceives fully the impossibilities [sic]of their entering into a formal alliance of such nature with any foreign nation, but in view of our common interests he could not see why some good understanding or an alliance in practice if not in name should not be made between those three nations insofar as respects the affairs in the far East. With such understanding firmly formed general peace in these regions would be easily maintained to the great benefit of all powers concerned. Secretary Taft [two words deleted] said that it was difficult, indeed impossible.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enter even to any understanding amounting in effect to a confidential informal agreement, without the consent of the Senate, but that he felt sure that without any agreement at all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were so fully in accord with the policy of Japan and Great Britain in the maintenance of peace in the far East that whatever occasion arose appropriate action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 conjunction with Japan and Great Britain, for such a purpose could be counted on by them quite as confidently as if the United States were under treaty obligations to take [it].
日外	생략
電文	“Third, In regard to the Korean question, Count Katsura observed that Korea being the direct cause of our war with Russia it is a matter of absolute importance to Japan that a complete solution of the peninsula question should be made as the logical consequence of the war. If left to herself after the Korea will certainly draw back to her habit of improvidently resuscitating the same international complications as existed before the war. In view of the foregoing circumstances Japan feels absolutely constrained to take some definite step with a view to precluding the possibility of Korea falling back into her former condition and of placing us again under the necessity of entering upon anther foreign war. Secretary Taft full admitted the justness of the Count's observations and remarked to the effect that, in his personal opinion, the establishment by Japan troops of suzerainty over Korea to the extent of requiring that Korea enter into no foreign treaties without the consent of Japan was logical result of the present war and would directly contribute to permanent peace in the East. His judgment was that president Roosevelt would concur in his views in this regard, although he had no authority to give assurance of this.

日外	"Third, In regard to the Korean question, Count Katsura observed that Korea being the direct cause of our war with Russia, it is a matter of absolute importance to Japan that a complete solution of the peninsula question should be made as the logical consequence of the war. If left to herself after the war, Korea will certainly draw back to her habit of improvidently entering into any agreements or treaties with other powers, thus resuscitating the same international complications as existed before the war. In view of the foregoing circumstances Japan feels absolutely constrained to take some definite step with a view to precluding the possibility of Korea falling back into her former condition and of pacing us again under the necessity of entering upon another foreign war. Secretary Taft fully admitted the justness of the Count's observations and remarked to the effect that, in his personal opinion, the establishment by Japan troops of suzerainty over Korea to the extent of requiring that Korea enter into no foreign treaties without the consent of Japan was logical result of the present war and would directly contribute to permanent peace in the East. His judgment was that president Roosevelt would concur in his views in this regard, although he had no authority to give assurance of this...
電文	Indeed Secretary Taft added, that he felt much delicacy in advancing the views he did for he had no mandate for the purpose from the president, and since he left Washington Mr. Root had been appointed Secretary of State and he might seen thus to be trespassing on another's department. He could not, however, in view of Count Katsura's courteous desire to discuss the questions, decline to express his opinion which he had formed while he was temporarily discharging the duties of Secretary of Stat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and he would forward to Mr. Root and the President a memorandum of the conversation. Count Katsura said that he would transmit the same, confidentially, to Baron Komura." Prime Minister quite anxious for interview. If I have spoken too freely or inaccurately or unwittingly, I know you can and will correct it. Do not want to "butt in", but under the circumstances, difficult to avoid statement and so told truth as I believe it. Count Katsura especially requested that our conversation be confined to you and the President, so have not advised Griscom. Is there any objection? If necessary, under your direction, Foreign Office can give him a copy.
日外	생략

電文	Kai Kah and Wang Ta Hsieh, two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will sail from Yokohama tomorrow by Mongolia. Former was imperial Commissioner to World's Fair and has for some time past been residing in Yokohama, is under [sic] orders to proceed to Washington: latter is Chancellor [of] Imperial Foreign Office [at Peking] proceeding [to] Washington under Government orders. Neither has more than the certificate of the Chinese-Consul General at Yokohama as to this identity. Department of Commerce rules this is not our protestations of a desire to ameliorate conditions for Chinese having the right to enter country[.] Consul-General Miller and Crist, Special Agent [of] Department of Commerce[,] recommend their admission without any trouble and think a special order should issue. Boycott question [by Chinese against Americans] is just at critical stage.
日外	생략

이러한『일본외교문서』의 사료조작은 한국의 역사교과서 서술에 커다란 폐해를 끼쳤다. 1950년대에 발간된 국사교과서에는 러일전쟁 관련 국제관계 부분에서 '태프트-가쓰라 협정'은 아예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있으나,『日本外交文書(38卷 1冊)』의 초판 발행(1959년 9월 30일)이후 간행된 1960년대 국내 역사교과서에 '태프트-가쓰라 협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57년에 간행된 최남선의『고등학교 사생과 고등국사』에서는 "... 이듬해 일본이 노국을 이기고 노일간에 포츠마우스 강화조약이 체결되어 노국이 한국에서의 일본의 특수이익을 승인하니 마침내 일본은 그 본심을 나타내어 제2차협약 즉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을 강제로 체결하였으므로 이로서 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인의 통감(統監)정치가 시작되게 되었다"[32]고 서술하고 있다. 이병도 역시 러일전쟁 관련 국제관계를 다룬「노일세력의 각축(角逐)」과「한·일병합」에서 '태프트-가쓰라 협정'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33] 그러나『日本外交文書(38卷 1冊)』의 초판(1959년 9월 30)과 『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 上』 (原書房: 1965-1966)이 간행됨에 따라, '태프트-가쓰라 협정'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0년대 후반부터 국내 국사교과서에 서술되기 시작했다.

1968년에 발간된 이원순의『문교부 검정 (인문계고등학교) 국사』(교학사: 1968)에서 언급된 "태프트-카쓰라 협약"은 일본외교문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태프트-카쓰라 협약"은 러일전쟁이후 한일강제병합까지 지속된 우호적인 미일관계의 표상으로 서술되었다. 이 책의「제4장 민족의 수난, 한국의

32) 최남선, 고등학교 사생과 고등국사, 사조사, 1957, 194-195쪽.

33) 이병도, 고등학교 사회과 국사, 일조각, 1959, 176-177쪽.

국제적 고립」에서 "... 러·일전쟁 종결 직전의 영·일동맹 개정 때 영국은 일본의 한국보호권을 인정해주었으며, 한국침략의 경쟁자 러시아는 포오츠머드 조약에 의하여 한국 문제에서 이탈당하고, 미국은 **태프트·카쓰라 협약**으로 미국의 필리핀에서의 우월권을 인정하는 댓가로 일본의 한국에서의 우월권을 인정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일본은 국제적 간섭 없이 한국병탄의 최종단계를 서두르게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34]. 미일관계에 대한 이러한 단선론적인 서술경향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속 교과서에 영향을 끼쳤다.

<표2> 한국 국사교과서의 "태프트-카쓰라협정" 서술

저자, 『교과서 명』, (출판사: 발행연도)	소제목/내용
한우근,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을유문화사: 1969)	제4장 근대화의 시작과 주권의 상실(212-213쪽) 즉 미국은 러시아의 극동진출을 차단하고 일본의 필리핀 진출을 막기 위하여 포오츠머드 조약 이전에 이미 일본과 **가쓰라(桂)·태프트 밀약**을 맺고(1905.7) 필리핀에 대한 독점적인 권익을 보장받는 댓가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승인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은 한국을 노리는 경쟁국가를 모조리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다.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 1976)	IV. 근대사회, (6) 민족수난의 시작, 대한제국과 러일전쟁(192-193쪽). ..이 강화조약의 결과 일본은 랴오뚱 반도를 영유하고 사할린 남부를 차지하여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은 이 조약보다 약간 앞서 미국과 비밀협상을 벌여, 일본이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독점권익을 인정하는 댓가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묵인하는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1981)	IV. 근대사회, (6) 민족수난의 시작, 대한제국과 러·일의 대립(248-249쪽) ...한편 이 조약보다 조금 앞서 일본과 미국은 비밀협상을 벌여, 일본이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독점권익을 인정하는 댓가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묵인하는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또한 "태프트-가쓰라 밀약"의 신화는 국내 검인정 역사교과서에서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국내의 대부분의 검인정 고등학교 근현대사에서는 일본외교문서에서 조작해 놓은 "태프트-가쓰라 협정"을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밀약의 내용까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확인한다. 둘째,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확인한다. 셋째, 극동평화를 위하

34) 이원순, 『문교부 검정 (인문계고등학교) 국사』,(교학사: 1968), pp.210.

여 미국·영국·일본 세 나라가 실질적으로 동맹관계를 맺는다-가쓰라·태프트 비밀 합의 각서(1905.6) 요약문"[35]; "태프트는 일본이 무력을 통해 일본의 허락 없이는 조선의 어떠한 대외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는 요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보호를 획득하는 것은 대러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이는 극동의 항구적인 평화유지에 공헌하리라고 말하였다"-가쓰라·태프트 밀약 제3조-[36]; "첫째,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전반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일본미국·영국 등 3국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셋째, 미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 평화에 직접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한다. >> 미국역사자료집."[37]

태프트의 전보에 대한 일본의 사료조작은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국의 역사교과서에도 미국을 자국의 동아시아정책의 동조자로 묘사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는 러일전쟁 이후 야기된 미국의 일본인배척운동, 미일간의 전쟁위기, 간도문제와 한국병합, 영미중재조약 체결 등 미일간의 잠재되어 있던 갈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태프트-가쓰라 협정을 부각시킬 경우, 일본은 한국의 보호국화 및 병합에 대한 열강의 승인과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유효할 수 있지만, 왜 미국이 러일전쟁 당시 일본을 지지했는지, 일본인들이 친구로 여기던 미국인들은 왜 일본인들과 함께 살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독일보다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었는지 를 포함한 일본역사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방기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러일전쟁이후 국제관계사를 단선론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이고 다변적인 글로벌히스토리의 시각에서 재검토해야할 시점에 도달했다. 이는 " 태프트-가쓰라 협정" 속에 내재된 냉전적 사고의 극복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인바, 태평양전쟁 이후 소련의 위협에 맞서 미일동맹론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 실상이 과대포장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35)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 2007; 김종수 외 3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7.

36) 김흥수 외 5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주)천재교육, 2007.

37) 김한종 외 5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7.

<표3> 일본역사교과서의 "태프트-가쓰라협정" 서술

교과서 명	소제목/내용
宮地正人 외 10명, 『新日本史B』, (桐原書店: 2010)	2.日露戰爭과 戰後의 國際關係, 韓國併合(310쪽): ...일러전쟁의 결과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보호국화가 구미열강으로부터 승인되었고1) 일본은 1905년 제2차 일한협약(을사보호조약)에 따라 한국의 외교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이를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또한 통감부를 한성에 세워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통감이 되었다. 1) 1905년(명치38), 아메리카는 **가쓰라-태프트협정(桂-タフト協定)**, 영국은 일영동맹개정(제2차일영동맹), 러시아는 포츠머스조약으로서 이것을 승인했다.
石井進, 五味文彦, 笹山晴生, 高埜利彦, 『詳說 日本史(日本史 B)』, (山川出版社: 2010)	제9장 근대국가의 성립 4절, 日露戰爭과 國際關係 (273쪽): 일러전쟁후 일본은 전승으로 얻은 대륙진출거점의 확보에 전념했다. 우선 1905(명치38)년, 아메리카와 비공식으로 **가쓰라·태프트협정(桂-タフト協定)을 체결**하고 영국과는 일영동맹협약을 개정(제2차)하고 양국에 일본의 한국보호국화를 승인받았다.
山本博文 外 11名, 『日本史B』, (東京書籍株式會社: 2010)	第16章 帝國主義世界와 日淸·日露戰爭, 韓國併合(297쪽) :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러시아에게 승인받은 일본은 1905년(명치38) 일영동맹의 개정, 아메리카와의 **가쓰라·태프트협정(桂·タフト協定)**, 1907년 일불협약에 의해 열강과 아시아에 대한 세력권의 권익을 상호승인을 했다.

5. 맺음말

대한제국시기의 역사는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제국주의 시대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세계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들은 러시아 및 한국 학자뿐만 아니라 여타국가의 학자들과도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사를 성찰할 수 있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에 대한 분석은 러시아의 한국사인식을 구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한국근현대사는 제국주의체제를 통해 상호 긴밀하게 엮여있는 세계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를 위해 일종의 '한국사국제연구위원회'와 같은 모임이 필요한데, 이것이야말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문제를 제대로 보려는 노력과 지혜를 모으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와 한국 역사교과서 -“태프트-가쓰라 협정”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석화정(극동대)

이 논문은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 2종과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태프트-가쓰라 협정(1905.7.29)”의 용어와 서술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저자는 미 국무장관 태프트와 일본 가쓰라 수상 사이의 ‘합의된 비망록(Agreed Memorandum)'이 “태프트-가쓰라 협정”이 된 과정,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필리핀 맞교환’을 이루었다는 신화가 된 과정을 추정하면서, “협정”이라는 용어는 물론, “밀약”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자가 밝힌 것처럼, 이는 1959년 에스터스(R.A.Esthus)가 이미 논증한 바 있다.

에스터스 이래 최종석을 비롯한 학자들 대부분이 **“협정”이 아니라 “의견교환”이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볼 때. “협정”에 대한 저자의 단호한 주장은 학계의 중론과 다소 거리가 있다. “협정”은 아니었다고 해도, “합의된 비망록“이 한국 병합을 단행하려던 일본에 힘을 실어 주었던 파장을 고려해본다면, “밀약”의 존재 자체와 함의에 대한 평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자는 “협정”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근거로서 1905년 7월과 1909년 퇴임시의 루즈벨트의 메모를 제시했다. 루즈벨트는 태프트의 ‘보고 전문(7.29)’을 “.....내가 확인한다고 가쓰라에게 말해주길 바란다(7.30)”고 했지만, 외교적 파장이 일자, “우리는 그러한 간섭을 방지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영토보전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10.5)”는 편지를 태프트에게 보냈다. 그러나 저자가 인용한 10월 5일자 편지의 내용만으로는 루즈벨트의 정책변화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1905년 7월의 루즈벨트의 정책과 1909년 2월의 루즈벨트의 일련의 메모와 편지들을 연계시키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일본과의 전쟁을 고려할 정도로 미국의 대일정책이 1908-09년에 이미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루즈벨트의 정책과 미일관계, 그리고 일본의 한국 병합문제와의 연관성은 보다 정치(精緻)하게 분석되어야 할 문제이다.

“태프트-가쓰라 협정”이 교과서에서 반복 재생산된 고리를 입증하기 위한, 저자의 논지 전개에도 무리가 있다. 논문에 따르면, “태프트-가쓰라 비밀협정(밀

약)"이라고 서술한 토르쿠노프의 <한국사신강, 2003>은 북한의 역사연구소가 출간한 <조선통사, 1958>와 그 맥을 같이 하며, <조선 통사>는 로마노프의 연구(1928, 1947, 1955)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일간의 비밀협정은 결코 아니었지만, 필리핀과 한국을 맞교환한 이른바 '탈취한 영토를 맞바꾼 제국주의적 거래"였다는 로마노프의 결론은 쿠르바노프의 <한국사강의, 2002>에 반영되었다. 이 같은 영향의 고리가 사실이라면, 저자는 토르쿠노프와 쿠르바노프의 교재에서 인용한 출처들을 각주로 밝혀야 한다. 만일 저자의 추정이라면 왜 이런 루트로 재생산되었다고 보는 지 최소한 그 추정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들과 러시아의 대학 교재들이 일본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와 <일본외교연표 및 주요문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저자의 추정도 출처를 각주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

논문의 목적과 그 구성에도 의문점이 있다. 서론과 결론에 제시된 논문 목적('러시아에서 발간된 한국사 교재 2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특히 대한제국 시기 역사서술을 검토하는데 있다'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러시아의 한국사 인식을 구명한다')을 충족시키기에는 러시아 대학교재 2권의 분석이 너무 소략하며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미흡하다.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와, '대학교재가 아닌' 한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논문 제목에 대해서도 저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Пак Б.Б.[1]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И В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вед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ие в 1990 г. СССР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РК), а в 1992 г. заключ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К «Договора об основа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подписание в 2000 г. нового «Договора о дружбе,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КНДР), ознаменовали начало нового этапа в истор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ССР и его правопреемницы –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РК и КНДР. В этой связи возраст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глубленного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и, особенно, в период их наибольшего подъема – пребы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ороля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 Сеуле в 1896-1897 гг.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меет давние корни. С тех пор, как в начале 60-х гг. XIX в. Россия и Корея обрели общую границу по нижнему течению реки Туманган,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существляло политик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Кореей. Это отвечало интересам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и, в то же врем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обеспечению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Лейтмотивом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и, являлась в силу ряда объективных причин (военная и финансово-

[1] Пак Бэлла Борисовна –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лабост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громные затраты на хозяйственное осво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владений, отвлеченность на други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е цели и др.) борьба за сохранение статус-кво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тремление не допустить захвата Кореи враждебными России державами. При этом предметом особой заботы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вплоть до аннексии Кореи Японией были ее северные районы,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другими во враждебных для России целях.

Рассмотрение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XIX столетия позволяет проследить основные этапы процесса постепенного возрастания роли и места Коре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еятельность русских дипломатов по нейтр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агрессивных держав в Корее и сохранению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стал важной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о времени подписания в 1876 г. Канхваского договора. Корея, остававшаяся до того времени единствен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родолжавшим курс н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ую изоляцию, оказалась объектом ожесточенной схватки за нее держав. Возникла угроза ее превращения в военно-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лацдарм агрессивных государств для нападения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окраины России.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лейтмотивом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Корее стало стремление иметь в ее лице дружественного соседа и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ть утверждению там враждебных себе сил, сохрани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Росс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пыталась не допустить навязывания Корее кабальных договоров западными державами. В этих же целях российские дипломаты

добивались обязательства Китая уважать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ь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ую целостность Кореи.

В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е в Корее в рассматриваемый период просматривались выдержка и осторожность, чтобы любыми чрезмерно решитель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не вызвать осложнений в отношениях с Китаем, Японией и другими державами и тем самым не допустить вовлечения России в военные конфликты.

Главную свою задачу росс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видела в сохранении статус-кво в Корее. Установление же контроля России над Кореей не входило в ее намерения.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России не имелось никаких плано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итязаний на Корею, в том числе и приобретения там незамерзающего порта.

Все эти положения, определявшие корейскую политику цар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деятель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развернутом виде были изложены в решениях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25 апреля/ 8 мая 1888 г. Указав на то, что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группирую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около Кореи» оно высказалось против завладения Россией Кореи, поскольку «Приобретение Кореи не только не обещало бы нам никаких выгод, но не преминуло бы повлечь за собою весьма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Будучи страной бедной, Корея не может служить для нас выгодным торговым рынком, в особенности ввиду отсутств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наших собственных владениях на Тихом океане. Находясь на фланге Маньчжурии, Корея при известных условиях могла бы быть обращена нами в выгодную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позицию, но выгоды этой позиции теряют свое значение ввиду неудобств и затруднений, с коими была бы сопряжена ее оборона. Корея слишком удалена от центров, где мы располагает достаточными боевыми силами, а при ограниченности средств в Приамурском военном округе всякое расширение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было бы для нас обременительным, в особенности если бы на нас выпала обязанность оборонять обширную береговую линию Кореи. Наконец, завладение Кореей нарушило бы наши отношения не только к Китаю, но к Японии, которая также имеет виды на означенную страну. Наше положение в виду китайско-японской коалиции сделалось бы во всех отношениях крайне затруднительным». Совещание,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ишло к заключению, что Корея могла бы обратиться в орудие враждебных России целей, «если бы она подпала под владычество своих соседей, из которых более си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судьбу Кореи может оказать Китай»[i]..

Особое совещание выработало основные соображения, которыми русско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ю в Сеуле следовало бы руководствоваться в отношениях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и:

«Помня, что Корея сама по себе совершенно бессильна, необходимо удерживать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 предприят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к изменению его отношений к Китаю, и советовать ему тщательно избегать всего того, что может послужить поводом к вмешательству Китая. Так как принятие корейских интересов под нашу исключительную защиту, не обещая нам никаких выгод, может вовлечь нас в затруднения, то 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в случае встреченной им потребности во внешней поддержке, надлежит советовать прибегать к содействию всех вообще иностра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 Сеул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наше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Кореи должно быть крайне осторожно и строго ограничено лишь теми случаями, когда оно может помещать внутренним осложнениям и смутам. Наиболее надежное средство к обеспечен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ложения Кореи заключается в ее промышленном развитии и на этот предмет следуе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обращать внимание 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а»[ii]

Решения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25 апреля / 8 мая 1888 г. легли в онову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и. Исходя из этих решений МИД России в специальной инструкции российско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ю в Сеуле К.И. Веберу указывало, что Россия не желает при приобретения Кореи, ни даже принятия ее под свое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 ибо в условиях воен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лабости на Тихом океане защита Кореи от внешних посягательств была бы крайне обременительна для России.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была нацелена на то, чтобы содействовать избавлению Кореи от каких-либ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ли внутренних осложнений и направить главное вним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укреп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траны. Эту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и Росси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водила вплоть до 1898 г.

Российские дипломаты в Корее, поддерживавшие тесные связи с русским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 Китае и Япон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го и приамур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 в отличие от руководств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в Петербурге, настаивали на более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в корейских делах 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чрезмерному усилению Япон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они часто не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и и не всегда наделялись достаточны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для оказания практ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деле защиты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их притязаний.

1. Переход ван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Активизация экспансионистской политики Японии в Корее после японо-китайской вой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8 октября 1895 г. и убийство королевы

Мин усилили в стране позиции антияпонски настроенных феодалов и сановников во главе с ваном Коджоном, ориентировавшихся на Россию.

В декабре 1895 г. по требованию японцев марионеточ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им Хонджипа приступило к проведению так называемых реформ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ичесок, шляп и трубок, которые шли вразрез с древним укладом жизни и были встречены населением с возмущением.

В сложившейся обстановке, когда в стране стало развёртываться массовое антияпонское движение, сформировавшаяся ещ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80-х гг. XIX века прорусская группировка во главе с Ли Бомджином, Пак Чонъяном и Ли Юньёном, усилившая своё влияние после японо-китайской войны, решила вырвать вана Коджона из японского плена и рук министров-изменников и сформировать с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то же время, К.И. Вебер, убедившись, что одним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мерами невозможно воздействовать на агрессивные круги Японии, решил поддержать попытки прорус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свергнуть про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обеспечи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шающее влияние в Корее за Россией.

Тем временем, 8 января 1896 г. в Сеул прибыл новый российский поверенный в делах в Сеуле А.Н. Шпейер.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обстановка в Корее настолько обострилась, что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решилось отозвать из Кореи К.И. Вебера, несмотря на приезд нового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Он еще в декабре 1895 г. получил предписание остаться в Корее и после приезда Шпейера.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сле вручения верительных грамот Ли Бомджин передал Шпейеру и Веберу содержание письма, которое он получил от вана. В письме Коджон, «горячо сетуя на свою судьбу», заявлял, что «помощи он ждёт только от России» и не теряет надежды увидеть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России «более светлые дни». В заключение письма ван

убедительно просил Шпейера и Вебера «помешать японцам разлучить его с наследным принцем, если только дошедшие до него слухи о намерении японцев отправить молодого принца в Японию подтвердятся»[iii].

Приезд Шпейера не изменил общего направления рус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Корее. Оба россий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читали главной задач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Корее устранение прояпонских деятелей из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оджону возможности самому избрать министров. Они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ли, что в этом случае было бы сформирова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з деятелей прорусской ориентации и произошло падение японского влияния. Поэтому и Шпейер, и Вебер встали на путь решительног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Японии в Корее, оказывая поддержку антияпонской партии в Сеуле. В полн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 о чем ранее доносил Вебер, Шпейер в первых же своих депешах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бращал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ставрации власти вана, удаления из дворца тэвонгуна и с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го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Для радикального измен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его порядка вещей, - указывал Шпейер, - нам следовало бы, смею думать, добиться теперь же от Японии согласия на представление королю права выбрать себе других советников из числа его приверженцев и на немедленное удаление отсюда тай-вен-гуна. Только достигнув этого, путём ли соглашения с Японией или же путем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нее, мы могли бы считать порядок восстановленным в этой несчастной стране». При этом российский поверенный предполагал, что в случа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ласти вана Коджона «призреваемый нами корейский сановник (под которым Шпейер подразумевал,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Ли Бомджина-авт.) займет, конечно, видное положение в новом кабинете и мы, несомненно, будем иметь в нем искренно преданного нам человека...» [iv].

Последующие события и назначение в 1900 г. Ли Бомджина посланником в Россию доказал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суждений Шпейера.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 беспокойством следило за действиями Японии в Корее. Уже на первой телеграмме А.Н. Шпейера от 15 января 1896 г., где сообщалось о бесконтрольном хозяйничании японцев в Корее, Николай II наложил резолюцию: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ра японцам дать отчет в их безобразиях в Корее». Эта резолюция требовала решительног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японской политике в Корее. Однако 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 предпочел сначала проявить осторожность и просил Шпейера уточнить, что «именно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под ниспровержением нынешнего режима в Корее и какие имеются к тому средства». Одновременно ему предписывалось иметь ввиду, что «мы не желаем вызвать новых осложнений на Крайнем Востоке в нынешнее время»[v].

27 января Шпейер телеграфировал в Петербург: «Король ожидает от нас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своей власти и права свободного выбора министров. Средствами достигнуть этого не располагает вовсе, хотя народ и лучшие люди Кореи с ним. Японский гнёт ненавистен всем. Волнение повсеместно, но безоружная масса бессильна, ждет нашего мощного слова для освобождения её от министров-убийц, поставленных Японией. Вебер и я смеем думать: хотя вмешательством нашим рискуем вызвать осложнение, но положение дел здесь не позволяет нам отказаться от активной роли, если не желаем совершенно уступить Корею Японии. Реш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в нашем смысле одними переговорами невероятно. Япония не прогонит нынешних министров и отца короля, так как это равносильно отречению от Кореи. Мы добьемся этого, только имея в Сеуле отряд войск, равный японскому. Присылку войск сюда легко мотивировать желанием содействовать скорейшему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спокойствия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траны, причем можно согласиться с Японией: по достижении этой цели одновременно убрать войска. Немедленное удаление японского отряда нежелательно, так как вызовет смуты и кровопролитие. Мало вероятно, чтобы обессиленная Япония пошла бы на осложнения с нами, и чем скорее и решительнее будут наши действия, тем риск меньше и тем вернее устран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пеки Кореи»[vi].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е имело принципиальных возражений против поддержки вана Коджона и других антияпонских сил в Корее. Однако, ввиду возможных осложнений, в Петербурге выражали серьёзное опасение по поводу предложения о посылке русских войск в Корею, и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было отвергнуто. В ответной телеграмме Лобанова-Ростовского Шпейеру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в настоящую минуту неудобно возбуждать в Корее вопросы чисто внутреннего свойства» и что для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реш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следует подождать объяснений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ланника в Токио Хитрово, который в это время собрался выехать в Россию вместе с японским посольством, направляющимся на коронационные торжества в Москву.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ылался при этом на объяснения Хитрово, который в донесении ему от 3 февраля писал, что в ре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требуется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крайняя осторожность и осмотрительность», ибо «всякое поспешное нарушение естественного хода событий может иметь последствием вмешательство других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держав» и что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должен быть разрешен мирным образо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через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ею и Японией, без всякого посторонне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vii].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пасаясь вооруженного столкновения с Японией в случае прям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 Корее, избрало путь мир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Оно не отказывалось от вытеснения японского и установле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влияния в Корее, однако без применения военной силы. Разыгравшиеся спустя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события в Сеуле облегчили росси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ыполнение этой задачи.

2 февраля 1896 г. ван Коджон через Ли Бомджина передал Шпейеру и Веберу секретную записку о намерении покинуть свой дворец и укрыться в здании русской миссии. «С сентября месяца, - говорилось в записке, - меня неотступно окружает шайка изменников.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еремена причёски по иностранному образцу стала повсеместно вызывать восстания. Изменники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им случаем, чтобы погубить меня и моего сына. Вместе с наследником я намерен бежать от ожидающей меня опасности и искать защиты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Как думают об этом оба посланника? Если согласны, то я воспользуюсь одною из следующих ночей, чтобы тайком пробраться в миссию. О дне я уведомлю особо. Другого средства спастись мне нет. Глубоко надеюсь, что оба посланника готовы оказать мне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 и защиту»[viii].

Вебер и Шпейер дали согласие предоставить Коджону убежище в миссии, а цар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добрило действия своих дипломатов. На секретной телеграмме Шпейера о том, что корейский ван, опасаясь за свою жизнь, уведомил его и Вебера о намерении на днях укрыться вместе с наследником в миссии и что он ответил согласием, Николай II наложил резолюцию: «Надеюсь, что одно из наших крупных судов будет послано в Чемульпо»[ix]. Это была установка на во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действий вана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Вместе с тем, Шпейер и Вебер указали Ли Бомджину на те 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ым может подвергнуться Коджон на пути в российскую миссию. Ли Бомджин ответил, что Коджон «твердо решил подвергнуться этому риску», если росси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огласятся принять его, «так как, оставаясь во дворце, он рискует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После такого заявления оба российских дипломата согласились поддержать план бегства вана. Вечером 10 февраля по просьбе Шпейера в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прибыл с крейсера «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 десант в составе 100 матросов с одним орудием. Тогда же Ли Бомджин сообщил Шпейеру, что ван безоговорочно решил перейти в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на рассвете следующего дня.

По документам, хранящимся в АВПРИ, трудно установить, какова была роль Вебера и Шпейера в появлении среди прорусски настроенной части ванского окружения плана бегств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ую миссию. Согласно их донесениям, они действовали только по настоятельным просьбам вана Коджона и его ближайших довер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ановников. Возможно, «имея предписание Лобанова о соблюдении невмешательства, Шпейер и Вебер предпочли не подчёркивать своего участи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бегства короля из дворца»[x]. Можно лишь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план организации побег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мог зародиться в ходе бесед между Вебером и Ли Бомджином, скрывавшимся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с 8 октября 1895 г.

11 февраля 1896 г., ван Коджон вместе с наследником прибыл в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где пробыл до 20 февраля 1897 г.[xi]

В течение первых же четырех часов пребывания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ан Коджон подписал воззвания к народу, в которых он, объясняя причины, заставившие его покинуть дворец, обещал впредь избегать в своих действиях и распоряжениях того, что могло бы вызвать справедливое недовольство в стране, и призывал народ к порядку и

спокойствию, убеждая быстрее прекратить ненужные междоусобицы и распри. Далее он призывал наказать изменников – организатор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и убийства своей супруги, издал указ об отмене «реформ» причесок, одежды и трубок. Тогда же было сформировано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ольшинство членов которого составили антияпонски настрое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деятели[xii].

Затем Шпейер и Вебер по поручению Коджона известили иностранные миссии в Сеуле о том что король Кореи «находя, что настоящ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королевства чрезвычайно серьёзны и что оставаться во дворце было бы сопряжено с крайнею опасностью для его особы, признал нужным укрыться вместе с наследником престол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xiii].

В полдень Коджон пригласил иностра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 себе на аудиенцию и объяснил им причины, побудившие его прибегнуть к защите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се иностра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очувственно отнеслись к свершившемуся факту и поздравили российских дипломатов «с этим нравственным успехом». Японский министр-резидент старался держаться корректно и отнесся,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нешне, довольно спокойно к переезду вана[xiv].

События 1896 г. явились «мирным переворотом»,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ого пал контролируемый японцами кабинет Ким Хонджипа, было образовано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з сторонников русской ориентации. Влияние Японии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ая опасность ликвидаци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ыли ослаблены. Это была настоящая победа росси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Что касается вана Коджона и поддерживавших его сановников, то прибегнув к покровительству России, они избавились от опеки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вернулись к власти и начали расправу со свои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противникам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всех этих целей Коджон и

сторонники погибшей Мин Мёнсон использовали царившую в стране всеобщую ненависть к японцам и их ставленникам.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кратило с Японией переговоры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займа и уволило японских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2. Тактика росси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после переход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и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переездом вана Коджона в здание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а затем размещением там же 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в Корее возникла совершенно нов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Отныне всё, что совершалось в стране, происходило под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и. Любопытное описание жизни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содержится в частном письме состоявшего секретарём в миссии титулярного советника Е.Ф. Штейна:

«Король занимал в миссии две прекрасные высокие комнаты, снабженные такою обстановкою и такими удобствами, которых он, конечно, никогда не имел и не будет иметь в своем дворце. Рядом был выстроен большой барак под королевскую кухню, а двор миссии весь застроен корейскими домами самых разнообразных фасонов, в которых были канцелярии главных министров. Тут министры ожидали своей очереди для докладов, и тут же велись текущие дела. Незадолго до переезда короля, к нему даже был проведен телефон от министерств двора и военного, с которыми он мог сноситься в любой момент. Сонм придворных лиц, евнухов и гаремных дам наполнили миссию, ожидая приказания своего властелина. Десантный отряд – 80 человек охранял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ь высокого гостя; из своего окна он ежедневно мог

видеть образцовое строевое учение наших бравых моряков;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главным входом красовалась пушка; караульные посты расставлены были вдоль всей ограды миссии. Чего больше мог желать несчастный король?»[xv].

Коджону был оказан самый теплый прием и со стороны членов семьи Вебера. Командированный в августе 1896 г. в Сеул директор Шанха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го банка Д.Д. Покотилов писал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Как сам Вебер, так 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его жена и живущая в доме дальняя родственница семьи госпожа Зонтаг, занимающаяся хозяйством, можно сказать, прямо не надышатся на своего гостя. Разговоры о короле и о том, что он сделал или сказал тогда-то или по такому-то случаю, положительно не сходят у них на языке. При этом всё стараются свести на придворные обычаи настоящих дворов, называя, например, корейских наложниц «фрейлинами» и т.п. Госпожа же Зонтаг прямо заведует разными хозяйственными делами короля…Впрочем,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вызывается отчасти тем, что г. Веберу приходится ис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и советника короля. Такого рода отношения сложились также, конечно, вследствие личных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установившихся между королем и нашим поверенным в делах»[xvi].

На пути дальнейшего укрепления позиций в Корее Россию ожидало и немало трудностей. Прежде всего, нельзя было не учитывать того, что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иностранные державы будут всячески стремиться не допустить безразде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Росс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что всякая попытка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отектората или иной формы 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от России встретит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и что из-за военной слабо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я не готова к военному столкновению с Японией.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учитывать и то, что открытый нажим на вана, находившегося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ызовет недовольство и

сопротивление в стране. Сложившаяся обстановка потребовала недюжинного такта, гибкости и выдержки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йских дипломатов.

Шпейер и Вебер верно оценили сложившуюся обстановку и вели себя сдержанно. Росси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ались предоставить Коджону и 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вободу действий и как можно меньше вмешиваться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государства. В отношениях с корейским двором они сумели проявить деликатность и большой такт. Не посягая ни в коей мере на авторитет и свободную волю Коджона, Вебер в своих вечерних беседах с ним, продолжавшихся почти ежедневно до поздней ночи, старался убедить его в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в стране тех или иных перемен. «К тому же, - писал он, - все министры имели свои канцелярии и заседания проходили у нас, и мне представлялас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озможность обсуждать с ними наедине подробности какого-нибудь дела, если они получали от короля приказание посоветоваться со мною.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я избегал предосуд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а действий японцев, нередко предъявлявших 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длинные списки с указанием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подлежащих немедленному и точному осуществлению, ограничивался лишь оказанием содействия в разрешении возбужденных, как будто, лично королём вопросов»[xvii].

В то же время россий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е могли не сознавать, что длительн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могло вызвать у корейцев недоумение и дать повод для обвинения вана и его министров в пренебрежении интересами страны. Поэтому сразу же после с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Шпейер и Вебер намекнули Коджону на желательность скорейш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в свой дворец. Сначала ван дал согласие и даже опубликовал объявление, что он укрылся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опасаясь, как бы не произошло смуты при аресте изменников, но что «теперь, вероятно, всё опять пришло

в прежний порядок и во дворце всё спокойно» и поэтому он на днях, если будет возможно, вернется «в свое собственное жилище»[xviii]. Но потом он заявил Шпейеру, что, боясь вероломства японцев, не решается пока оставить миссию и просит его «ходатайствовать перед император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 назначении в Корею русского главным советником кабинета» и об отправлении в Корею русских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Наши заверения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корейш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Его величества в свое помещение, - доносил Шпейер, - для успоко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которое, конечно, найдет непонятным долгое и ничем необъяснимое пребывание короля в императорской миссии, выслушиваются королем с нескрываемым страхом, и он каждый раз в ответ на этот совет заявляет, что, к несчастью, не может последовать ему, если дворец не будет охраняться отрядом наших войск». Опасаясь, что не буде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 дворце, Коджон так и не решился покинуть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росси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 Сеуле согласились с ваном, хотя считали дальнейшее пребывание его в миссии нежелательным, так как «японцы уже используют это ненорм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в своих целях, для подрыва авторитета короля»[xix].

Пребывание вана Коджона и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поставило Россию перед непростым выбором: либ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чрезвычайно благоприятной для неё обстановкой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в той или иной форме протектората над Кореей, решившись в этом случае на обострение конфликт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Японией, либо, остановившись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постараться урегулировать корейские дела в соглашении с Японией, идя ей на уступки, но при сохранении за собой преобладающего влияния в Корее. Этот вопрос вплотную встал перед российскими дипломатами уже 14 февраля 1896 г., когда Коджон, пригласив к себе Шпейера и

Вебера, просил их передать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оссии «его убедительную просьбу поддержать первые шаги, делаемые им, в полном единомыслии на сей раз с новыми советниками своими, на пути тесного сближения с Россией, которой одной он безгранично доверяет и которой без малейшего колебания желает вверить судьбы своей страны».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Кореи ка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должал Коджон, зависит «от степени участия в нем России» и он надеется, чт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чувство сострадания к его несчастной стране, а, с другой, политические соображения, на основании которых мы признаем, может быть, для себя полезным иметь на нашей Тихоокеанской окраине вполн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вязанное с нами неразрывными узами признательности», побудят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лагосклонно отнестись к просьбе «о помощи и поддержке против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порабощения страны». Далее корейский ван сказал, что он, *«сознавая ...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уководствоваться во всех важ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ах советами и указаниями одной России», желает, чтобы рус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рило ро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и наставника корейских министров какому-либо доверенному лицу, которое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го советника кабинета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бы при всех его заседаниях и направляло бы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их сановников на путь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разумного прогресса». Особенно необходимы, подчеркивал Коджон, советы в области финансовой политики и прави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оенного дела и он желал бы «образовать у себя надежный и хорошо обученный корпус войск численностью на первое время до 3 тысяч человек, ... чтобы обезопасить страну как от внутренних неурядиц, так и от внешних посягательств на ее независимость»*[xx].

Шпейер, разделявший точку зрения Коджона, сообщая о ней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обанову-Ростовскому, убеждал его в том, что «бесповоротно

решившись ныне взять судьбу королевства этого, бросающегося нам в объятия, мы тем самым не только ослабим серьёзный характер предстоящих осложнений, но несомненно упрочим наше положение на берегах Тихого океана». Что касается Японии, то Шпейер утверждал, что с ней нетрудно будет договориться при условии, если «предоставить ей возможные торговые выгоды и руководящую роль в устройстве финансов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хозяйства»[xxi].

Телеграмма Шпейера с изложением просьбы вана была отправлена в Токио Хитрово для пересылки в Петербург 15 февраля.. Хитрово сопроводил телеграмму Шпейера замечаниями о том, что «поднимать вопрос об официальном русском советнике и инструкторах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преждевременным», т.к. «советы можно передавать и неофициально». При этом он указывал на то, что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лизко к убеждению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глашени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 нами, что оно старается приготовить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в высшей степени возбужденное». Предостерегая, что излишнее форсирование дел в Сеуле может бросить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тив воли в политику приключений или привести к нежелательному обращению к прочим державам», он высказывал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с некоторою осмотрительностью мы можем всего достигнуть, не возбуждая вражды Японии… Корея же от нас никуда не уйдет».

Между тем, решен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того, какой политики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в Корее после перехода ван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было принято в Петербурге еще до получения телеграммы Шпейера с изложением просьб вана. Суть его сводилась к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сле ограждения Кореи от посягательств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задача эта считалась выполненной, поскольку Коджон был вырван из рук японских ставленников в корей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отношений с последней,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пытаясь раньше времени получить особые права и преимущества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прийти к столкновению с ней. Еще 18 февраля 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 дал указание Шпейеру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всякого повода к столкновению», продолжая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вать корейскому королю и заботиться о его безопасности[xxii]. Вслед за этим 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 по совету Хитрово, решительно отверг просьбу корейского вана и телеграммой от 24 февраля передал Шпейеру, что рус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готово «преподать советы королю, но ввиду настоящего тревож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ещей находит преждевременным возбуждать вопрос об официальном советнике и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ах[xxiii].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есмотря на поступившие от корейского вана просьбы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фактического протектората России над Кореей, российский МИД, не отказываясь от сохранения и дальнейшего укрепления позиций России в Корее, склонялся к соглашению с Японией по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К концу февраля 1896 г.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тносительно подписания двух соглашений по корейским делам. Япония надеялась с их помощью связать и ограничить свободу действий Росс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сохранить в Корее, хотя бы в урезанном виде, свои позиции, с тем, чтобы в будущем, при благоприятной обстановке, обеспечить за собой господствующее положение,

Россия шла на подписание вышеупомянутых соглашений по Корее, не желая быть из-за нее втянутой в столкновение с Японией и другим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в Корее державами. Она предпочитала хотя бы ценой известных уступок достигнуть соглашения с Японией. При этом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что именно в это время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се более и более сосредотачивались в Китае.

Последнее не могло не вызвать спада активности рус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Корее. В то же время, согласие России на переговоры с Японией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росс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в тот период не питала каких-либо завоевательных замыслов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и и считала необходимым ограничиться укреплением позиций России в Корее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ем возможности новых покушений н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14 мая 1896 г. между К.И. Вебером и Комурой Дзютаро был подписан русско-японский Сеульский меморандум, состоящий из 4-х статей[xxiv].

Меморандум Вебер-Комура носил компромиссный характер в том смысле, что Россия не смогла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которые открывались перед ней вследствие благоприятной обстановки, сложившейся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еход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и укрепить свое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в Корее, а Япония, сохранив за собой некотор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в Корее, которые она имела до сеульских событий 11 февраля, вынуждена была пойти на значительные уступки России.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Япония вынуждена была отказаться от своих первоначальных требований о рекомендации корейскому вану немедленно вернуться во дворец и ре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формированного из прорусски настроенных министров, а в I и II статьях меморандума признать сложившееся в Корее после 11 февраля положение. Однако по ст.III Комура добился офици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на пребывание в Корее японских войск и отряда жандармерии для охраны японских поселений и телеграфной линии. Выдвинутое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Вебером предложение об уступке япо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е телеграфной линии Сеул-Пусан, ибо «владение япо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телеграфа несовместимо с независимостью Кореи», или уничтожении этой линии в случае, если бы соглашение о стоимости этой линии не было достигнуто

сторонами, было отвергнуто Японией. Статья IV предоставляла России, не имевш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сво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ебольшого отряда в Сеуле, право держать свои войска в тех же местах и в том же количестве, что и Япония. Это явилос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успехом России Однако главное достиж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заключалось с том, что меморандум Вебер-Комура зафиксировал отказ Японии от своих особых прав и преимуществ в Корее, которыми она располагала до переход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ую миссию.

9 июня 1896 г. в Москве между Лобановым-Ростовским и Ямагата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второе русско-япон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Корее, известное как Московский протокол. Он состоял из четырёх открытых и двух секретных статей[xxv].

Вкратце суть Московского протокола была изложена в телеграмме Лобанова-Ростовского Шпейеру от 15 июня 1896 г.: «В Москве между нами и маршалом Ямагата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на основании существующего положения вещей в Корее и не предрешающее будущее. Впредь до образования туземного отряда для ох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короля последний может пребывать по-прежнему в нашей миссии. Време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состоявшееся между Вебером и Комурою и дающее нам право содержать столько же войск в Корее, сколько имеют японцы, остается пока в силе»[xxvi].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торая секретная статья Московского протокола подтвердила зафиксированное в Сеульском протоколе право России обеспечивать охрану вана Коджона, но по ост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касающимс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Корее займов,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и ввода русских и японских войск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устанавливалось юридическое равенство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и их обязанность не предпринимать каких-либо действий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согласования между ними. Это серьёзно ограничивало права России в решении именно тех вопросов (займы,

создание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на содействие в которых рассчитывало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 в телеграмме указывал на соглашение с маршалом Ямагатой как на «не предрешающее будущее», предполагая добиваться решения ряда существенных проблем в Корее в интересах России в будущем.

Позиция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корейском вопросе была уточнена в инструкции Веберу, который вновь приступил к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Сеуле после отъезда Шпейера в Токио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1896 г. для исполнения обязанностей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ланника в Японии вместо ушедшего в отпуск Хитрово. «Первая и вторая статьи вышеупомянутого протокола, - говорилось в инструкции, - касаются финансовых и военных вопросов в Корее, не предрешая, однако, будущего. Корея, как страна вполне независимая, сохраняет совершенную свободу действий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не подчиняясь никаким стеснительным условиям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бора иностра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и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к услугам коих она могла бы прибегнуть. О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лишь обязываются оказать посильное содействие Корейскому казначейству при заключении займов в случае крайне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тносительно секретных статей протокола в инструкции было сказано, что Россия не придаёт особенной важности статье, кото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япон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порядк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указывает на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 оставить нейтральную полосу между обоюдными районами занятия. Условия военн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ообще едва ли могут быть предусматриваемы впредь, так как они каждый раз находя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овокупности налич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В случае, есл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укажут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оенн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они сделаются предметом переговоров на основании четвертой, явной, статьи соглашения». «Тем большее значение, - говорилось далее в инструкции, -имеет для нас вторая секретная статья протокола, которая оставляет в силе, впредь д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туземной армии, време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состоявшееся между Вами и г. Комура, вследствие коего мы имеем право содержать в Корее одинаковое с японцами количество войск. Той же статьей сохраняется существующий ныне порядок личной ох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короля. Первое из двух условий дае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в случае надобности, усилить наш десант в Сеуле, второе- представляет, так сказать, нам одним попечение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оля»[xxvii].

Однако 27 февраля 1897 г. в японских газетах, вопрек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достигнутой при подписании протокола,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тексты обоих русско-япон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но в переводе были преднамеренно допущены неточности. Так, согласно ст. III опубликованного Сеульского протокола, Япония получала якобы санкцию России держать свои войска в Корее без всяких оговорок. Согласно ст.II Московского протокола получалось, что будто бы Корее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раво организовать свою собственн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армию и полицию, не прибегая к иностранной помощи. 12 марта японск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ередал 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оба протокола. Он сообщил также о содержании секретных статей,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Односторонние шаги япон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ызвали серьезные осложн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Поэтому 14 марта 1897 г. Вебер передал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ореи Ли Ванъёну копии подлинников протоколов с сообщением, что рус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ошло в соглашение с японским для заключения двух

конвенций с целью признания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и Кореи и оказания ей помощи. Тем не менее Ли Ванъён в своем ответе на уведомление Вебера заявил, что поскольку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участвовало в заключении этих конвенций, то свобода действий его, как независимой державы, не может быть ограничена их постановлениями»[xxviii].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ыло убеждено в том, что Россия действует совместно с Японией, нанося ущерб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и потому не признало Сеульский и Московский протоколы.

Незадолго до подписания протокола Лобанов-Ямагата, 22 мая/3 июня 1896 г.,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стремясь заручиться поддержкой в вопросе о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во время коронационных торжеств в Москве настояла на включении в союзный договор с Китаем статьи 1-й, которая гласила

«Всякое нападен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Японией либо против рус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либо против территории Китая или Кореи, повлечет за собой немедленное приложение настоящего договора. В этом случае, обе договаривающиеся стороны обязуют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друг друга всеми сухопутными и морскими силами, которыми они могут располагать в этот момент, и помогать друг другу, насколько возможно для снабжения свои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ил»[xxix].

3.Миссия Мин Ёнхвана в Россию

Главной и наиболее важной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акцией вана Коджона явилась отправка им летом 1896 г. на коронацию Николая II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сольства во главе с Мин Ёнхваном[xxx].

Официально посольство ехало в Москву для принесения поздравления Николаю II. Неофициальная часть поездки, которая не разглашалась из опасения, как бы о ней н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Японии и другим державам, заключалась в отправке, по окончании московских торжеств, в Петербург временн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миссии. Глава посольства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утрачивал титул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сла и принимал звание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сланника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министра при дворе росси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азделением целей посольства на церемониальную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различный характер имели и грамоты, посылаемые корейским ваном на имя императора Николая II : в одной из них содержалось поздравление Николаю II, другая была верительной грамотой для вед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которую посол рассчитывал вручить Николаю II на особой аудиенции[xxxi]. Мин Ёнхвану, согласно инструкции предписывалось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в Петербурге поднять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соединение сибирской телеграфной линии с корейской и отправка в Корею специалиста по телеграфному делу для указаний, советов и ведения постройки корейской линии до русской границы; командирование в Корею русских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кавалерийской и саперных частей, а также для устройства военного оркестра и налаживания интендантской и ветеринарной службы, жандармерии и полиции; назначение в Корею русских советников –личного советника короля, советника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и поли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и советника по вопросам открытия прииск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всякого рода технически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работ; охрана русским отрядом вана и организация гвардии ва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Россией Корее займа в 3 млн. иен[xxxii]. Последняя просьба обуславливалась жел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осрочно погасить навязанный ему япо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марте 1895 г. 6% - ный трехмиллионный заем.

Мин Ёнхвану было поручено обратить главное внимание на приглашение русских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для создания надежной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которая, по словам Юн Чхихо, была необходима для сохранения устойчивого и стаби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xxxiii].

Однако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А.Б. Лобановым-Ростовским и директором Азиатск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Д Д.А. Капнистом корейский посланник соединил вопрос об инструкторах с вопросом об охране вана после 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в свой дворец русским военным отрядом.

При встрече с Мин Ёнхваном 13 июня А.Б. 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 начал беседу с заявления, что он передал царю просьбы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что царь приказал ему заверить посла в том, что Россия всегда будет расположена защищать Корею от внешних на неё нападений и от посягательств Японии на её независимость. Мин Ёнхван поблагодарил российского министра и пояснил, что важнейшей из переданных им от лица вана пяти просьб к царю, составляющей главную цель посольства, является «посылка в Сеул русского отряда для охраны короля». Вручив Лобанову-Ростовскому памятную записку с перечислением просьб вана и высказав свое пожелание о возвращении Коджона во дворец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обаяния корейской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он предложил, чтобы русский десант, охраняющий ва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последовал за ним в его дворец.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шило, что исполнение последней просьбы неудобно, т.к., во-первых, охрана вана в самом дворце была бы несовместима «с принципом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во-вторых, она могла бы вызвать «явное неудовольствие других держав, в особенности Японии, и усложни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ли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Кореи» 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 опасался, что исполнение этой

просьбы корейского посланника вызовет недовольство других держав, особенно Япо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торой на коронационных торжествах в Москве заявил, что присутствие русских караулов во дворце может вызвать такое «возбуждение умов», с которым япон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будет «весьма трудно бороться». Поэтому российский министр оставил просьбу Мин Ёнхвана без ответа и ограничился заявлением, что «пока король остается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он будет охраняться русскими матросами; оставаться же он там может сколько ему угодно», но что мы имеем возможность лишь нравственно ручаться за его безопасность в случае возвращения во дворец». «Тем временем будет сделано сношение с военным министром для посылки инструкторов, которые сформируют из туземцев отряд, подчиненный королю и достаточный для его охраны»[xxxiv]. На запрос корейского посланника, может ли король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русских моряков, если бы ему угрожало нападение во дворце, Лобанов отвечал, что «нельзя впредь предусматривать неожида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но что десант наш находится и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находиться в безусловном распоряжении наше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в Сеуле, так сказать, в двух шагах от корейского дворца»[xxxv].

8 июня Мин Ёнхвану были вручены «Ответные пункты корейскому послу». Впервые они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Б.А. Романовым в книге «Россия и Маньчжурия[xxxvi]. Он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и оставление русского десанта, охраняющего миссию и его усиление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гласие отправить в Сеул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го и опытного офицера, которому будет поручено формирование отряда телохранителей вана, та также командировать из России опытное лицо для изуч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Кореи и выяснения необходимых финансовых мер. Заключение займа коре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тавилось в зависимость от скорого выясн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траны., в вопросе о соединение русских сухопутных телеграфных линий с корейскими рус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ещало оказать «зависящее от него содействие».

В письме, врученном корейскому посланнику 13 августа, 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 заверил «в неизменном расположении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корейскому», его неуклонном стремлении поддерживать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Кореей, готовности и впредь «оказыв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охране корейского королевства»[xxxvii].

В «Ответных пунктах корейскому послу» и в письме А.Б. Лобанова–Ростовского Мин Ёнхвану от 13 августа 1896 г. была окончательно сформулирована позиция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вопросам, поднятым корейским посольством. Она исходила из обще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ее. Её суть сводилась к сохранению независимости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едопущению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влияния в Корее других держав, прежде всего Японии, и в то же время, к устранению опасности вооруженного столкновения с нею из-за Кореи, поддержанию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рус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нашло возможным немедленно осуществить пожелания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и было вынуждено отклонить демонстративную посылку своего охранного отряда во дворец вана, что вызвало бы осложнения с Японией и другими державами. Тем не менее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Кореи высоко оценивала сам факт отправки корей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в Россию и, пусть даже не совсем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е для Кореи, результаты переговоров в Петербурге. Газета «Тоннип» (орган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оннип хёпхве») писала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Во-первых, отправление миссии ко двору рус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доказывает тесную

дружбу между двумя народами. Во-вторых, это первый пример в истории Кореи, чтобы было отправлено посольство к европейскому двору… В-третьих, посольство добилось согласия рус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из русской армии»[xxxviii].

5. Деятельность российских дипломатов по реализации «Ответных пунктов корейскому послу».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еще до оконча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иехавшим на коронацию Николая II корейским посольством решило приступить к изуч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финанс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Кореи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займа. Тщатель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корейских финансов Д.Д. Покотиловым позволило Петербургу принять следующее решение: поручить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му банку предоставить Корее заем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платежи процентов и погашение займа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поземельной податью и таможенными сборами Кореи, поступления от которых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под наблюдением финансового советника России, а время соглашения о займе установит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согласятся ли японцы на погашение ныне же Кореей займа в три млн. иен[xxxix].

Летом 1896 г. в Петербурге было решено отправить в Сеул полковника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Д.В. Путяту - бывшего помощника заведующего Азиатской частью Главного штаба, 6 лет состоявшего военным агентом в Китае и посетившего все корейские порты-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о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ах и формировании отряда охраны вана в составе батальона (четырех рот) численностью 700-1000 человек,

а также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плана будуще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Ему также дано было предписание «следовать во всех делах советам наше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в Корее и избежать всего, что могло бы вызвать столкновение с Японией»[xl].

Затем было одобрено предположение о командировании в Корею первой группы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двух офицеров, 10 унтер-офицеров и врача). Эта группа 16 октября 1896 г.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им посольством выехала в Корею на канонерской лодке «Гремящий»[xli].

В начале ноября русские инструкторы отобрали из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Сеуле пяти батальонов 800 человек в отдельный батальон для обучения по «русскому образцу». Ответственным за обучение этого батальона назначили поручика Л. Афонасьева, на которого возложили также подготовку 33 курсантов корейского «кадетского корпуса», основанного по просьбе вана Коджона еще в феврале 1896 г. Обучение «кадетского корпуса» проводил тогда начальник русского десанта в Сеуле по охране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где находился корейский ван, лейтенант крейсера «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 Хмелев - фактически первый русский военный инструктор в Корее.

Занятия с отдельным батальоном, названным впоследствии «русским», начались 3 ноября[xlii]. К декабрю 1896 г. в результате длительных и слож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Путяте удалось согласовать с корейскими министрами план ре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вший подготовку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шеститысячной кадровой армии с последующим увеличением ее численности до 40 тыс. человек, а также формирование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и кавалерийских часте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оенных арсеналов, мастерских и госпитал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такой армии Путят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увеличение штата русских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в Корее до 24 офицеров и 131 унтер-офицера[xliii].

В поддержку плана Путяты выступил военный министр Ванновский, на докладе которого о проекте полковника Путяты Николай II пометил, что считает создание 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очень важным делом и желает «разрешения этого вопроса в положительном смысле».

Муравьев старался доказать, что формирование 6-тысячной армии в Корее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ни финансовым возможностям страны, ни предстоящим ей новым «весьма значительным расходам, хотя бы по одним военным реформам, не считая реформ по другим ведомствам». В этой связи Муравьев предлагал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цифре в 3000 человек, тем более, что подобная цифра была первоначально указана и самим корейским королем. К тому же в вопросе о преобразовании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существовавшие соглашения с Японией, хотя и не лишали Россию права на отправку инструкторов, но, несомненно, ограничивали ег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цар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казалось полностью взять на себя организацию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Переговоры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xliv].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осьбы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сл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21 военного инструктора, то решено было пока отправить в Корею 13 советников.

Анализ докуме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планом полковника Путяты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также как и летом 1896 г., принципиально соглашаясь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созда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Коре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России, откладывало осуществление его на

неопределенное будущее. Занятая М.Н. Муравьевым позиция объяснялась тем, что он, прежде чем приступить к решению военного вопроса, считал необходимым укрепить позиции России в финансовой области и только после этого приниматься за решение военных вопрос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лан ре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как и все друг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достигнутые в ходе визита в Россию первой корейской миссии во главе с Мин Ёнхваном, не был реализован до конца. Помешали этому многие факторы, такие как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Японии; измен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90-х годов XIX века и перемещение центра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з Кореи в Маньчжурию; возвращение в феврале 1897 г. в свой дворец вана Коджона и др.

6. Возвращ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вана в свой дворец и его последствия

На выезде вана Коджона из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и возвращении в свой дворец настаивали прояпонски настроенные деятели в правящей верхушке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ША, Англии и Франции, напуганные ростом влияния России в Корее. Они пытались направи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 антирусскому руслу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в частности, Тоннип хёпхве (Общество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и которого Со Джэпхиль, Юн Чхихо и др. в это время находились под сильным влиянием миссий США и Англии в Сеул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идея возвращения вана была очень популярна в широких слоях населения Сеула. Среди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бы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о мнение, что Коджон, находясь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проводит политику, угодную русски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в Сеуле, в ущерб независимости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Что касается самого Коджона, то его стремление к возвращению в свой дворец усилило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русскими инструкторами охранный батальон начал нести охрану нового дворца.

Русск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финансовые и во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 Корее оставили интересные описания пребывания ван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усиления русских позиций в Корее в этот период и отношения Коджона к так называемой «русской партии» к России с объяснением причин его отъезда в свой дворец. Согласно их свидетельствам, Коджон не хотел покидать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до начала организации караульной службы батальоном охраны во дворце. Он ссылался на «не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порядка в стране», на «тяжел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видом старого дворца», где была убита Мин Мёнсон, и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этому построить новый дворец в европейском квартале. Затем он объявил годовой траур по убитой жене и заявил о новом затруднении – отсутствии подходящего места для захоронения её останков и опытных мастеров для возведения в её память мавзолея. Почти полгода целый штат чиновников разъезжал по окрестностям Сеула, возвращаясь с неизменным ответом, что подходящего места для гробницы не найде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Коджона связывали с Веберо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лизкие,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Особую их теплоту и доверительность отмечал начальник эскадры в Тихом океане контр-адмирал Алексеев, говоря об изменениях к лучшему, происшедших в Сеуле в результате действий рус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в письме к управляющему Морски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Чихачеву в ноябре 1896 г.: «В самом Сеуле за 6 месяцев, прошедших со времени моего последнего посещения, одинаково заметны улучшения, и город начинает приводиться в порядок.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покойствия в стране, укрепление власти короля, приведение в порядок финансов, несомненно, составляют результат русского влияния на ход событий в Корее со времени перехода короля в нашу миссию.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вещей достигнуто спокойными, н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г. Вебера, его знанием страны и людей и, наконец, особым и широким доверием к нему короля. В этом факте я имел случай убедиться из моих трехкратных посещений Сеула, и при представлениях королю он прямо высказывал свое доверие к наше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ю и насколько он ценит его образ действий при всех происходивших труд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для Кореи. Обращение ко мне с этими заявлениями имело цель быть доложенным Его Величеству Государю Императору. При последнем моем представлении король в убедительных словах просил довести до сведения Его Величества, что слухи об отозвании из Сеуле г. Вебера весьма его огорчают, и, если это неизбежно, то король будет просить разрешения пригласить г. Вебера к себе в качестве советника»[xlv].

Но, очевидно, не все устраивало ван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Е.Ф. Штейна, «у нас король был не более как узник; всегда одни и те же две комнаты; всегда одна и та же прогулка из одного угла в другой.. Иногда он, полумёртвый от страха, решался выезжать с наследником в ближайший дворец для таких неизбежных церемоний, как принесение поздравлений своей престарелой матери. Все остальное время он сидел у себя взаперти, невидимый и таинственный, как то и подобает восточному монарху… Затем, быть может, и сам Вебер слишком много высказал любви и преданности королю, окружив его непроницаемой стеной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а… Но едва он заметил, что с системой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а ему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вязывают чужую волю, как он стал искать способа избавиться от такого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а». Далее Штейн отмечал, что в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вана в стенах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новь

явилась на сцену глубоко ненавистная фамилия Минов», а затем «Мины стали появляться во всех поприщах коре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Очевидно , - писал он, - что при налич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крайне возбуждённого против Минов, такое бесцеремонное и исключительное протежирование им не может произвести особенно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эффекта или доставить их покровителям популярность и сочувствие, отсутствие которых уже неприятно сказалось в тех интригах, которые предшествовали оставлению королём нашей миссии».

Штейн обращал внимание и на то, что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горизонте стали показываться и другие предвестники грядущих событий в виде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ций, имевших склонить короля к оставлению им нашей миссии. Почти ежедневно эти народ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числом около ста, собирались у входа в нашу улицу и просиживали здесь целый день». Подавалис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рошения с просьбой вернуться во дворец. Эти петиции передавались чере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анифестаций, которые состояли членами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сходок», непрерывно заседавшего в Сеуле и поощрявшегося крупными денежными подачками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двора[xlvi].

В создавшейся обстановке министры и влиятельные сановники, после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а о возвращении вана в свой дворец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овете (Ыйджонбу-авт), стали убеждать Коджона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ставить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Одновременно они вступили в переговоры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 Сеуле. Французский поверенный в делах в Сеуле Коллен-де-Планси (J.Collin de Plancy) посоветовал им обратиться прямо к Путяте с вопросом о готовности охранного батальона к несению службы во дворце в случае переезда туда Коджона 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ответа Путяты, принять то или иное решение[xlvii].

18 февраля чле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все министры и влиятельные сановники собрались на секретное совещание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ореи и оттуда отправили двух делегатов к Путяте. Последний, отклонив вопрос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вана вообще, ответил делегатам, что «он принимает на себя лишь ручательство в полном знании отрядом охраны своей службы, о чем и представлял ранее официальным порядком». Чле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знали эти гарантии достаточными и в тот же день явились к вану и подали коллективное прошение о переезде из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 свой дворец. Ван согласился выехать из миссии и в тот же день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указ о предстоящем 20 февраля переезде, который опубликовали 19 февраля[xlviii].

Вебер попытался было отговорить Коджона от переезда и добился даже опубликован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указа от 15 февраля, в котором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в виду неподготовленности помещений дворца, ван откладывает переезд туда на неопределенное время. Однако 19 февраля он неожиданно для Вебера заявил, что намерен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ереехать в новый дворец. Считая, что дальнейшие настояния принесут только вред, российский поверенный счел за лучшее не противиться твердо высказанному желанию вана и одобрил принятое им решение.

20 февраля 1897 г., рано утром, члены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 полном составе собрались чтобы проводить вана Коджона. Последний покинул здание миссии, не устроив даже прощальной аудиенции. Затем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ереезд вана во дворец, куда он проследовал при ликующих криках населения. В охране вана был батальон, обученный русскими инструкторами,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офицеров и унтер-офицеров в полном составе. Нижние чины были расставлены шпалерами от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до дворца, а у носилок – два караула от 4-й роты под командой русских

унтер-офицеров. У входа во дворец ван, увидев полковника Путяту, приостановил процессию и обратился к нему «с выражением горячей благодарности рус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за оказанное в течение года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в миссии и принятие мер по устройству войск»[xlix].

Закончилось 375-дневное пребывание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За период с 11 февраля 1896 г. до 20 февраля 1897 г. в Корее были предприняты шаги по наведению порядка, прежде всего, в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е и п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сперебойное поступление доходов в Сеул из провинций, безостановочную выдачу жалованья всем служащим, в особенности полицейским и военным чинам, соблюдение крайней экономии в расходах,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реформы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финансов. В результате уже к концу 1896 г. в казначействе было сосредоточено сэкономленных средств на сумму 1 600 000 иен, из которых 1 млн. пошел на уплату трехмиллионного займа Япони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ана после предстоящего переезда его в строившийся поблизости от миссии новый дворец,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роделали и русские военные инструкторы. В результате, по словам Вебера, в Корее, «после тревожных эпизодов китайского и японского владычества и разыгравшихся затем на кор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между соперничающими соседями, наступили тишина и спокойствие. Королю более не нужно было бояться за свою жизнь, придворным интригам, столь обычным на Востоке, не было места в нашей миссии, корейским сановникам не надоедали настойчив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и они, проникнутые смутным сознанием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еформ, сами принялись за их проведение»[l].

Из предпринятых в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ван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и нововведений Вебер отмечал еще следующие: учреждение 12

сентября 1896 г.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Ыйджонбу), который издавал новые законы, принимал чрезвычайные меры, рассматрив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росписи доходов и расходов, обсуждал вообще все важные дела (совет был устроен по образцу рус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ложения о котором служили основой корейского); введение в июле 1896 г. нового губернск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и разделения страны на 13 провинций и 342 округа и уезда; пересмотр в августе 1896 г. выработанного под японс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положения о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е и введение законами от 23 марта и 5 июня 1896 г. уложения о наказаниях; устройство первых современных почтовых станций в Корее и основательное исправление разрушенных во время японо-китайской войны телеграфных линий от Сеула на север, к реке Ялу, и в Вонсан и Пусан; открытие в Сеуле русской школы,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которой был приглашен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Н.Н. Бирюко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онцессий некоторым иностранцам (не японцам) на постройку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и разработку горных и растительных богатств страны (из них две концессии на эксплуатацию каменноугольных залежей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Корее и на рубку леса в бассейнах рек Туманган и Амноккан были даны русским компаниям); назначение С.П. Ремнева помощником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яющего арсеналом в Сеуле; расширение и приведение в порядок главных улиц в столице и её окрестностей[li].

За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 Корее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также целый ряд серьёзных мер, призванных подчеркнуть дарованную ей Симоносекским мирным договором независимость. 21 ноября 1896 г. состоялась закладка «Арк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ооруженной на месте «Ворот приветствия и благословения», где корейский ван прежде встречал послов китайского богдыхана, и

которы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поминали о подчин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Кореи. Весной 1896 г. возникло в Сеуле общество под наименованием «Тоннип хёпхве» («Общество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ачавшее играть довольно видную роль 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страны.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Коре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японской агрессии и сохран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ребывание ван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было явлением безусловно положительным. В этот период японское влияние в стране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было подорвано, был ослаблен военно-оккупационный режим Японии. Россия получила право содержать в Корее одинаковое с Японией количество войск, охранять вана и усилить, в случае надобности, свой десант в Сеуле, что было подкреплено Сеульским меморандумом 14 мая 1896 г. и Московским протоколом 9 июня 1896 г. Укреплен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ложения Кореи способствовал и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й союзный договор от 4 июня 1896 г.,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во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Кореи в случае нападения Япони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последствия переезда вана Коджона в свой дворец оценивались однозначно положительно.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Муравьев считал, что этот шаг вана «подымет престиж и авторитет короля в стране, отымет у враждебных ему элементов всякий повод упрекать его в подчинении иностранной опеке и даст ему хотя бы призра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ть присуща независимому главе государства»[lii]. В ответ на отправленное корейским ваном Николаю II письмо с выражением благодарности и объяснением причин, принудивших его покинуть миссию, Веберу было поручено передать Коджону, что его пребывание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 течение целого года служит «несомненным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к его личному положению, а равно и к судьбам корейского королевства» и что рус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надеется, что «он по-прежнему будет руководствоваться советами нашими и тем самым докажет искренность выражаемого им ныне чувст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оказанную нами поддержку»[liii].

После переезда Коджона из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о дворец Кённегун позиции России в Корее стали постепенно ослабевать, а враждебные ей влияния усиливаться. Усиленно работал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япон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Шпейер писал, что «единственным преданным на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человеком в Корее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короля, хотя и его преданность лишь относительная»[liv]. Примерно в таком же духе высказывался о Коджоне и русский военный агент в Корее полковник Стрельбицкий, находившийся там в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в Сеуле Путяты. По его мнению, личные симпати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Коджона к России были вне всяких сомнений,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этих чувствах едва ли можно видеть, - писал он, - какие-либо прочно выработан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убеждения, так что при другой обстановке, а тем более в минуту опасности, они легко могут принять совершенно неожида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оэтому Стрельбицкий считал вана для России «ныне искренним и могущественным, но едва ли надежным союзником»[lv].

Отъезд вана Коджона из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привел к уходу из лагеря сторонников России и некоторых видных корейских сановников. «Я не знаю ни од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мандарина, - писал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Шпейер в сентябре 1897 г., - которого бы я мог с легким сердцем рекомендовать королю для того или другого портфеля, если бы, паче чаяния, Его Величеству угодно было обратиться ко мне за таким указанием, между тем как до переворота 30 января (11 февраля – по новому стилю)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сле

него у нас было несколько солидных приверженцев как, например, Мин-юн-хуан (Мин Ёнхван-авт.), И-пом-цин (Ли Бомджин-авт.) и др.». Всё это Шпейер объяснял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обманутыми надеждами наших сторонников относительно той активной роли, которую мы должны были бы, по их мнению, здесь играть, а также состоявшимся между нами и Японией соглашением, цель которого они понимали лишь очень неясно, комментируя его далеко не в нашу пользу»[lvi]. В марте 1897 г. полковник Путята писал в Петербург, что «всё, что Мин Ёнхван видел в России, забыто»[lvii]. Многие корейцы с пребыванием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связывали свои надежды на полное изгнание японцев из Кореи и избавление от жестоких поборов. На это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современник событий, русский военный агент в Корее полковник И.И. Стрельбицкий, который писал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в Петербурге: «В свое время народ горячо приветствовал переезд короля в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видя в это залог избавления от непрошеной просвет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японцев и предстоящую эру чист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Однако почти годовой срок, как кажется, не вполне оправдал эти надежды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ов... Столь же мало сделано до сих пор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для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официальных и неофициальных поборов, установившихся в эпоху господства покойной королевы и фамилии Минов, а с ними вообще и всех янбанов. Поэтому-то вероятно, ныне все громче и громче начинают раздаваться голося, требующие, чтобы король возвратился, наконец, в свой дворец.. Народ, вследствие наветов правящих классов, просто начинает бояться чужого влияния на ход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траны, полагая,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жет склониться на путь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еи по иноземному образцу. За хором же этих убежденных сторонников старины скрывается целая плеяда разной придворной знати, недовольной исключительным влиянием на короля русского посланника, который препятствует свободе их дворцовых интриг и проведению разных дел. Как бы то ни был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беждение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стало положительно общим достоянием нации и с этим убеждением так или иначе придется считаться»[lviii]. Отмечая,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отъезд Коджона из русской миссии русское влияние все еще оставалось велико, Стрельбицкий призывал не отождествлять чувств, которые питают корейцы к России, с симпатиями их к Китаю. «Там видят духовного властелина всего Востока, - писал он, - проникающего своим культурным влиянием всю внутреннюю жизнь народа, на нас же здесь смотрят как на могучую и дружественную, но все-таки чужую силу, принявшую на себя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от ее внешних врагов. Наше влияние громадно во всех внешних вопросах, китайское же –всемогуще в делах внутренней,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нации...»[lix]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и несомненные признаки ухуд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Кореей, ван и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министров по-прежнему видели в России заступницу, достаточно могущественную, чтобы помешать происками Японии. Полковник Стрельбицкий, который в начале 1897 г., когда корейские сановники уговаривали Коджона покинуть русскую миссию, писал что у России в Корее есть «пока малоизвестный, но могущественный союзник – это масса простого земледельче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которая, как по моим личным наблюдениям, так и по свидетельству всех русских, путешествовавших по Корее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езде и всегда выказывала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и прочные симпатии к своим могущественным соседям и покровителям»[lx].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олжало считать своей главной задачей в корейском вопросе обеспечение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от Японии, для чего стремились сохранить за собой политическое влияние в Корее.

В инструкции назначенному в феврале 1897 г. посланником в Японию барону Р.Р. Розену цели рус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Корее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Мы не ищем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ореи к русским владениям, так как это присоединение не обещало бы России достаточных выгод, в особенности в виду бедности Кореи и трудности охраны ее обширной береговой линии от внешних покушений, тем не менее мы должны стремиться к упрочению в Корее наше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орея, подпав под влияние какой-либо другой державы, не сделалась для нас, если не опасным, то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таким соседом, с которым придется считаться в эпохи политических осложнений». Розену было дано предписание разъяснять япон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что рус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преследуя агрессивных целей в Корее, не может в то же время не желать, чтобы страна эта находилась под политическим влиянием России»[lxi].

Эта же мысль проводилась и в инструкции А.Н. Шпейеру, которому после назначения Розена в Токио предстояло отправиться в Сеул и принять дела миссии от Вебера, назначенного в Мексику. В ней были подтверждены сформулированные еще в инструкции Шпейеру при назначении его в 1895 году на пост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в Корее, основные начала, которыми он должен был руководствоваться в предстоящ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Корее: «Не питая сами против корейского королевства завоевательных замыслов, мы, конечно, не можем допустить таковых со стороны кого-либо другого. Нам, несомненно, предстоит бороться в Сеуле с преобладанием японцев, подобно тому, как мы боролись с Китаем до войны. Разница заключается лишь в том, что притязания токийского кабинета окажутся, вероятно, еще более серьёзными, чем китайские.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преследуя реш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задач, стоящих в связи с нашими интересами, мы будем, однако, в Корее, как и везде, избегать всяких рискованных и вызывающих действий, могущих вовлечь нас в нежелательные замешательства».

Обращая особенное внимание Шпейера на приведенные указания,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Н. Ламздорф считал необходимым дополнить их следующими соображениями:

«*Нет никакого сомнения, что нам в высшей степени важно упрочение влияния нашего в Корее и недопущение в оную какого бы то ни было постороннего влияния, в особенности японского и английского.*

Тем не менее цель эта не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ей среди задач, предстоящих нам на Крайнем Востоке, ибо выгода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даже преобладания нашего в слабой и бедной Корее не могу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равновесить того вреда, который могло бы причинить нам обостр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Японией, военны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илы которой получили теперь столь широкое развит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 Японией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является для нас ныне особенно желательным.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 таким положением дел, во исполнение вышеупомянутой Высочайше утвержденной инструкции, Вам надлежит, отнюдь не отказываясь от поддержания влияния нашего в Корее, соблюдать однако крайнюю осторожность и в сношениях Ваших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Японии в Корее руководствоваться вышеизложенной точкой зрения»[lxii].

Инструкции Р.Р. Розену и А.Н. Шпейеру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провергают версию о том, что целью рус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конце XIX века явился захват Кореи и что агрессивные планы России вынудили Японию вторгнуться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росс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ставила перед собой совершенно иные задачи. Она стремилась сохранить в Корее преобладающее политическое влияние

России, а ее позиция по вопросу о сохранени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ставалась неизменной. Одновременно Россия не хотела допустить обостр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Японией на почве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Это была противоречивая политика, чреватая серьёзными осложнениями в отношениях с Японией и Кореей.

Обострившееся в конце XIX в. соперничеств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целом, в Корее и Маньчжурии, в частности, когда в ходе борьбы в правящих кругах Ро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политики страны одержала верх «безобразовская шайка», приступившая к реализации экспансионистских план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ез учета тог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что Россия слаба и в военном, и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ях,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привело к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е 1904-1905 гг., одним из итогов которой стал захват Кореи Японией в 1910 г.

В заключение хотелось бы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Россия как и в конце XIX в. выступает за расширение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мир и стабильность в регионе и мирное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i] Примечания

Журнал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8 мая (25 апреля) 1888 г. // Красный архив. Т3 (52) С.54-61

[ii] См. Б.Б. Пак. Росс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и Корея. 1860-1888. Книга первая. С.185-188.

[iii] Донес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Сеуле А.Н. Шпейера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А.Б. Лобанову-Ростовскому от 2/14 января 1896 г.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493. Д.5. Л.5.

[iv] Частное письмо А.Н. Шпейера Д.А. Капнисту от 4 января 1896 г. – Там же. Д.44, 1895-1898 гг. Л.26.

[v] Телеграмм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обанова-Ростовского посланнику в Токио Хитрово от 11/23 января 1896 г. –Там же. Л.58, 71. Цит. по: В.П. Нихамин. Дипломатия русского царизма в Корее после японо-китайской войны… С.151-152.

[vi] Цит. по: Б.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С.126; Пак Чон Хё. Россия и Корея. 1895-1898. М., 1993. С.26-27.

[vii] Телеграмма посланника в Токио Хитрово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обанову-Ростовскому. от 20 января/1 февраля 1896 г.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5. Л.71.

[viii] Цит. по: Б.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С.126.

[ix]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Сеуле Шпейера. Сеул,21 января 1896 г. –АВПРИ. Ф. «Канцелярия МИД», 1896 г. Д.157. Л.5.

[x] В.П. Нихамин. Дипломатия русского царизма в Корее после японо-китайской войны… С.153.

[xi] См. подробнее: Б.Б. Пак. 375 дней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 Восток. 1997. № 5. С.27-37; Г.Д. Тягай. Король Коджон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99. № 3. С. 118-134.

[xii] АВПРИ. Ф. «Миссия в Сеуле». Д.365., 1896 г. Л.28.

[xiii] Копия с телеграммы министра-резидента в Сеуле Комуры маркизу Сайондзи. Подано в Фусане 4/16 февраля[1896 г.]. -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1896 г. Д.901. Л.72.

[xiv]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5. Л.27-29.

[xv] Выписка из частного письма состоящего при миссии в Сеуле Штейна. Сеул, 20 февраля 1897 г. -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7. Л.32-33.

[xvi] Рапорт Д.Д. Покотилова директору Общей канцеляр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П.М. Романову. Сеул, 4/16 сентября 1896 г. - РГИА.Ф.560.Оп. 28. Д.24. Л.47.

[xvii] Записка Вебера о Корее до 1898 года и после. Сеул, апрель 1903 г. -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1903 г. Д.14. Л.127-127 об.

[xviii] Королевское объявление от 4/15 февраля 1896 г. – Там же. Д.5. Л.49-50.

[xix] Донесение А.Н. Шпейера А.Б. Лобанову-Ростовскому. Сеул, 7/19 февраля 1896 г. – Там же. Л.43-46; H.B. Hulbert. The History of Korea. Vol. II. Seoul, 1905.P.304.

[xx] Донес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Сеуле А.Н. Шпейера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А.Б. Лобанову-Ростовскому. Сеул, 7/19 февраля 1896 г. - АВПРИ. Ф. «Миссия в Сеуле». Оп. 768. Д.365. Л.28-30; РГВИА. Ф. ВУА/с. Оп. 11. Д.96. Л.14-15; Б.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С. 127. См. также: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на заре XX столетия… С.139.

[xxi]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1896 г. Д.5. Л.37-41. Не дожидаясь ответа из Петербурга на просьбы корейского вана, Шпейер поручил полковнику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Карнееву, находившемуся в Сеуле, составить записку, излагавшую те основы, на которых должно быть поставлено дело создания русскими инструкторами корейского войска, если 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признало возможным исполнить просьбу Коджона. Карнеев предлагал на первое время обучить три батальона пехоты, одну артиллерийскую батарею полевых и горных орудий и пол эскадрона кавалерии, которые стали бы ядром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и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По плану полковника Карнеева, для обучения пехоты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отправить в Корею штат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трех капитанов, трех поручиков, 12 фельдфебелей, 24 унтер-офицера и трех горнистов; для обучения артиллерии – одного капитана из окончивших курс артиллер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двух подпоручиков (одного в полевую, второго – в горную батарею), четырех фейерверкеров, четырех наводчиков, одного трубача и одного кузнеца. Кроме того, для создания в будущем санитарной части Карнеев предлагал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омандировать одного инженера-капитана и двух унтер-офицеров, а для устройства военно-медицинской и санитарной частей – одного военного врача с двумя фельдшерами – медицинским и ветеринарным. Всего корпус русских инструкто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олжен был насчитывать 64 человека. Расходы, связанные с посылкой в Корею инструкторов, немного превышали в течение 5 лет 200 тыс. руб. серебром, не считая стоимости оружия и военных припасов (РГВИА. Ф.400. Д7317. Л.4-9)).

[xxii] Телеграмм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А.Б. Лобанова-Ростовского российскому поверенному в делах в Сеуле А.Н. Шпейеру от 6/18 февраля 1896 г. -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1896 г. Д.5. Л.87.

[xxiii] Телеграмм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А.Б. Лобанова-Ростовского российскому поверенному в делах в Сеуле А.Н. Шпейеру от 12/24 февраля 1896 г. – Там же. Л.8.

[xxiv]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дел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895-1905 гг. СПб., 1906. С.146-148.

[xxv] Б.А. Нольде.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СПб., 1915. С.246-247.

[xxvi]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обанова-Ростовского Шпейеру в Токио от 3 июля 1896 г. –АВПРИ. Ф.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кретный фонд министра». Оп. 457, 1896-1897 гг. Д.153/159. Л.15.

[xxvii] Проект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й инструкции Поверенному в Делах в Сеуле Веберу. 18 июля 1896 г. – Там же. Л.41-44, 49-50. На инструкции имеется помета царя: «Согласен», Петергоф, 2 июля 1896 г.

[xxviii] Рапорт военного агента в Корее полковника Стрельбицкого. Сеул, 3/15 июня 1897 г. –РГВИА. Ф.448.Д.10. Л. 195.

[xxix]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1689-1916 гг.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М., 1958. С.73.

[xxx] См. подробнее: Б.Б. Пак. Корейская миссия Мин Ёнхвана в Россию летом 1896 г. –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1997. Вып.2.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97. С. 213-224; Б.Б. Пак. Корейская миссия в Россию (1896): история одной фотографии - 100 лет Петербургскому корееведению.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столетию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14-16 октября 1997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97. С.80-83.

[xxxi]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кол. секр. Штейна, сопровождавшего корейское посольство из Сеула в Россию от 15 мая 1896 г. -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72. Л.Л.4-5.

[xxxii] Меморандум Мин Юнг Хуана от 24 мая/5 июня 1896 г.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147. Л.1-4.

[xxxiii]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72. Л.12-18.

[xxxiv] Запись беседы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 Мин-Юн-Хуаном 1/13 июня 1896 г. –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1896 гг. Оп. 493. Д.72. Л.25.

[xxxv] Проект доверительного письм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оверенному в делах в Сеуле. СПб., 2/14 мая 1896 г. - АВПРИ. Ф. «Секретный архив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Д.153/159. Л.41-44.

[xxxvi] Коджон сидэ са. Т.4. Сеул, 1971. С.135-136; Пак Чон Хё. Россия и Корея. 1895-1898. С.52; Sohn Pow-key, Kim Chol-Choon. The History of Korea. Seoul, 1970. P.220.

[xxxvii] Письмо Лобанова-Ростовского Корейскому Чрезвычайному посланнику. СПб., 1/13 августа 1896 г.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1896 г. Д.901. Л.38-39.

[xxxviii] The Independent. 1896. Vol. I. N 87. October 24th.

[xxxix] АВПРИ. Ф. «Секретный архив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Д.174/181. Л.91.

[xl]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военного министра Ванновского от 26 июля 1896 г. – РГВИА. Ф.448. Оп.9. Ед.хр.9. Л.13.

[xli] Телеграмма Духовского генерал-адьютанту Обручеву от 4/16 октября 1896 г. - АВПРИ. Ф. «Секретный архив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Д.159. Л.61-64.

[xlii] Авторы книги «Русские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1898 гг.» Афонасьев 1-й и Н. Грудзинский сообщали, что каждому русскому унтер-офицеру дали по 80 человек и те ужаснулись, как они справятся с таким количеством новобранцев. Тем более, что не было переводчиков,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од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офицера, плохо говорящего по-русски. После первой недели все унтер-офицеры потеряли голос, но добились того, что строй стал «виднее, поясные ремни некоторые стали подтягивать», хотя отдельные солдаты «лукавили» (по выражению учителей), т.е. «надувались», когда унтер-офицер подходил подтягивать ремень. По окончании второй недели полковник Путята произвёл осмотр пройденного и был поражён успехом. Он находил, что «маршировка своеобразная, но бег настолько хорош, что лучшего и требовать было нельзя». С учениками Хмелёва Путята приказал ускорить программу, найдя, что последние усвоили пройденное. Ежедневно проходили занятия по прикладке и прицеливанию. В результате ученики стали хорошо стрелять. 9 декабря батальон в первый раз заступил в караулы во дворце вана, хотя его там не было: он жил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 январе корейский военный министр просил дать ему (в другие батальоны) обученных унтер-офицеров. Как ни уверяли его, что унтер-офицеры еще не обучены, «а только умеют кое-как командовать», но министр настаивал на том, что «унтер-офицеры настолько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лены, что могут учить» (См.: Афонасьев 1-й и Н. Грудзинский. Русские военные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1898 гг. Хабаровск, 1898. С.17-25.)

[xliii] Шифрованное донесение полковника Путята начальнику Главного штаба. Сеул, 24 декабря 1896 г./ 5 января 1897 г. - РГВИА. Ф.448. Ед.хр.9. Л.42-43.

[xliv] Проект секретной инструкции Веберу от 9/21 мая 1897 г. –АВПРИ. Ф. «Китайский стол.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е доклады», 1897 г. Д.14. Л.33-34

[xlv] Копия с письма начальника эскадры в Тихом океане от 14 ноября 1896 г. управляющему Морски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 АВПРИ. Ф. «Секретный архив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Д.153/159. Л.67-69.

[xlvi]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7. Л.28-29.

[xlvii] Рапорт военного агента в Корее полковника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10/22 февраля 1897 г. – РГВИА. Ф.448. Оп.9. Ед.хр.10. Л.63-65

[xlviii] Там же. Л.66.

[xlix] Телеграмма находящегося в Сеул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лковника Путяты № 871. – Там же. Л.37; Коджон сидэ са. Т.4. С.328.; Ку Хангук вегё мунсо. Т.17. С.399.

[l] Записка Вебера о Корее до 1898 года и после. Сеул, апрель 1903 г. -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1903 г. Д.14. Л.132-132 об.

[li] Там же. Л.130-131.См. об этом также: Пак Чон Хё. Россия и Корея. 1895-1898. С.35-36.

[lii] Проект доверительного письм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Муравьева военному министру Ванновскому от 22 февраля/8 марта 1897 г.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Д.144. Л.128-138.

[liii]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Веберу в Сеул. С.Петербург, 13//25 февраля 1897 г. – АВПРИ. Ф. Канцелярия МИД, 1897 д.100. Л.80.

[liv] Донесение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Сеуле А.Н. Шпейера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М.Н. Муравьеву. Сеул, 13 сентября 1897 г.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1896 г. Д.7. Л.116-122.

[lv] Рапорт военного агента в Корее полковника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10/22 января 1897 г. – РГВИА. Ф.448. Оп.9. Ед.хр.10. Л.210-211.

[lvi] АВПРИ. Ф.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 493, 1896 г. Д.7. Л.146.

[lvii] Донесение полковника Путята в канцелярию военно-учёного комитета Главного штаба. Сеул, 5 марта 1897 г. - РГВИА. Ф.448. Ед.хр.9. Л.210-211.

[lviii] Рапорт военного агента в Корее полковника Стрельбицкого... РГВИА.Ф.448. Д.10.Л.80.

[lix] Там же.

[lx] Там же. Л.100.

[lxi] Инструкция посланнику в Японии барону Розену, март,1897 г. –АВПРИ. Ф. «Китайский стол.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е доклады», 1897 г. Д.14. Л.40-50.

[lxii] Проект инструкции поверенному в делах и генеральному консулу в Корее, статскому советнику Шпейеру. Царское село, 9 мая1897 г. –Там же. Л.67-69.

「아관파천 시기 러시아의 조선정책」에 대한 토론문

김종헌(동국대)

발표자이신 벨라 보리소브나 박(Бэлла Борисовна Пак) 선생께서는 본 발표문에서 아관파천의 과정과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대 조선정책, 니꼴라이 2세의 대관식에 파견된 민영환 특사의 임무 그리고 군사교관단과 재정고문의 파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 본인은 벨라 선생께서는 이 글을 작성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문서보관소를 섭렵하셨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역사학계 및 정치사학계에서도 이 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많은 글들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본 발표문은 한국 근대사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발표문을 작성하신 벨라 선생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글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러시아 대한정책 전반과 관련된 질문 등 총 두 종류로 나누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발표문에 따르면, 1888년 5월 8일에 개최된 특별회의(Особое совещание)에서 내려진 결정이 1896년까지 러시아 대한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은 일본 및 중국주재 러시아외교관들 그리고 동시베리아 및 연해주 총독부 소속 외교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 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조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한반도에서 일본 영향력의 강화에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아관파천 역시 단발령 등으로 나빠진 대일 여론을 등에 업고 이범진, 이완용, 박정양 등 친러파 세력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베베르는 이들을 도와 친일정부를 전복하고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과의 무력 충돌을 우려한 러시아 외무부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 일본주재 러시아공사 히뜨로보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럼 러시아 외무부가 슈뻬이예르를 러시아 대리공사로 임명하여 조선에 파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슈뻬이예르가 조선에서 보여준 행보는 전임자 베베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럼 이런 슈뻬이예르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한 둘째로, 발표자는 1896년 2월 2일 고종이 이범진을 통해 슈뻬이예르와 베베르에게 편지를 전달하여, 아관으로의 파천을 예고했으며, 이에 러시아의 두 외

교관이 동의하여 아관파천이 성립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고종은 2월 8일 경비대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 파천을 거부했다. 또한 러시아 수병이 상륙하는 날, 즉 2월 10일에 이르러서도 고종은 자신이 정말 러시아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는지 알렌에게 재차 물어보았다. 이것은 고종의 성격적 특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고종 스스로도 최후의 순간까지 파천과 관련하여 갈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아관파천이라는 것이 고종 자신만의 결정은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떤 견해를 지니고 계신가?

셋째, 전반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한다. 발표자는 당시 러시아의 대한정책이 '조선에서의 압도적인 영향력 확보'였으나, 조선의 독립을 유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900년의 의화단 사건 이후, 한반도 내에 중립지대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회담을 진행할 당시의 러시아 외교를 보면, 한반도 역시 머지않은 장래에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영토 중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들이 자주 발견된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추구한 대한정책의 근본적인 원칙은 무엇이었으며, 그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러일전쟁 시기 러시아의 대한정책의 변화와 양국관계의 성격

민경현(고려대)

I. 러일전쟁과 한러관계

러시아 정부는 전쟁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1904-1905년 러일전쟁 직전 러시아 자본가들은 적극적인 극동 정책에 반대했다. 한때 러시아가 극동 시장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선전하고 다녔던 '러시아 산업·통상 협력회'는 1903년 4월 "'황색 보스포로스 해협'을 단념하고 어떤 경우에도 일본과 해상 경쟁에 돌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언론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루스꼬예 바가뜨스뜨보(러시아의 부)』지의 대외정책 평론가인 유자코프는 대한제국이 러시아의 '사활을 건 이익'에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스끼예 베도모스찌(러시아 소식)』지와 『베스뜨닉 예브로쁘(유럽 통보)』지 역시 동일한 의견을 밝혔다.[1] 『노보예 브레먀(신시대)』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진실을 말하자면 러시아는 이미 폴란드와 카프카스, 핀란드 일부와 투르키스탄의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지쳐있다. 그런데도, 명목상의 만주 점령 및 대한제국과 청국 양국의 보호에 매년 수억 루블을 버리면서 영광을 얻고자 한다."[2]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선 후, 극동에서의 러시아 경제 팽창을 지지하는 '베조브라조프 일파'가 러시아 전제 정치의 대외정책에 대해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러일 전쟁의 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러한관계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일전쟁 전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관계에 결정적인 충돌이 불거진 것은 삼림채벌권과 압록강 하구 개방 문제였다. 고종황제는 일본의 보호에 의지해야 한다는 친일파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친러정책을 고수했다. 그는 러시아의 도움으로 일본인들의 행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고

1) А.Л.Попов. Кризис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политики царизма накануне революции 1905 г.//Историк-марксист.- 1935.- Книга XII.- С. 8-9 참조.

2) Новое время.- 1903.- 7(20) октября.

종황제는 측근을 통해 러시아 공사관과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 공사관에 전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실질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러시아 외교관들은 러시아 황실의 명령과는 별개로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음모와 간계에 대항하기 위해 행동했다. 이러한 러시아 외교관들의 행동은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또 고종과 그의 측근들이 한성주재 일본 공사관의 위협에 무력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했으며, 그들이 일본에 대한 의무 이행의 압박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파블로프 자신이 인정한 것처럼,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공격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시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대한제국 황제가 일본에 항복하지 않고 오래 버티기를 기대하기에는 곤란했다.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이 대한제국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행동들을 전적으로 지지했으며, 영·미 양국의 외교관들은 대한제국 정부에게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I. 러일전쟁 직전 한러관계

한국 및 만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 사이 첨예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러시아정부에 극동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1902년 5월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주재 일본 공사 구리노는 람스도르프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1901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제의했으나, 1902년 영일동맹체결 이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은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1903년 초에는 러시아 외무부에 한국에 관한 협약안을 제안했다. 이 협약안은 한국의 독립 및 영토 통일성을 보장하고 한국의 영토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호의무조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2개의 새로운 요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1. 한국으로 추가병력을 파견하여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일본에게 제공할 것
2. 한국 문제에 관한 기존의 러일협정을 폐기할 것.

일본의 이 제안은 1903년 1월24일 러시아 외무부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대한제국 문제에 관해 일본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협의하는 것은 새로운 협정이 기존 협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이를 보충하고 발전시킨다는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2. 러시아가 한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웃 국가의 안전보장과 불가침 원칙이 채택되어야만 한다. 이 경우 러시아가는 일본에게 한국에서의 이익을 일정 정도 양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외무부는 한국 문제에 관해 일정한 양보를 통해서 일본과 일시적으로 화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1896년과 1898년 협정에 따라 러시아에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회의의 이러한 기본 방침에 입각하여 외무부는 도쿄주재 러시아 공사 로젠에게 훈령을 하달했다. 본 훈령에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에 성공할 경우 러시아는 일본에게 '광범위한 자유'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철도 부설권, 우편 및 전신선 사업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양보에 대한 보상으로 러시아는 기존 협약에 의해 이미 승인된 권리, 즉 대한제국에서 일본과 동일한 수의 군사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도 러시아정부가 한국의 독립 및 영토적 불가침성의 상호보장과 관련된 조항을 협정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본 훈령에는 새로운 러일협약 안에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 의무로서 '대한제국 영토를 군사·전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의무로서 '모든 국가의 선박들이 대한해협을 순조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쓰시마와 한국 해안에 요새나 보루, 포대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언급되었다.[3)]

이런 모든 지시 사항은 한국 내정에 관해 상당한 혜택과 권리를 일본에게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피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미 개전채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압록강 유역에서 이루어진 러시아 삼림회사들의 활동 역시 일본 외교의 입장에서 러시아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였다. 압록강 문제는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교 수단이었다. 일본은 이 수단을 이용하여 필요할 경우 러시아에게 자

3) Всеподданней шая записк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т 21 марта(3 апреля) 1903 г.//АВПРИ. Фонд "Китай 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1, 1903 г. Дело 41. Листы 93 참조.

신의 요구를 확대하면서 한국 문제로부터 만주 문제로 자유롭게 넘어가거나, 혹은 한국 문제와 만주문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검토할 수 있었다.

1903년 8월12일 일본공사 구리노는 러시아 외무부 장관에게 러일간 협정의 기본 원칙이 기술된 문서를 전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제국과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불가침권을 존중한다.
2. 한국에서 일본의 이익과 만주철도 사업에서 러시아의 특별이익을 상호 인정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이 갖는 권리와, 만주에서 러시아가 갖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 인정한다.
3.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만주와 한국에서 행하는 산업 및 통상 활동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이 협약 제2조에 명시된 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폭동이나 무질서를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은 한국으로 러시아는 만주로 군대를 파병해야 할 경우, 파병된 군부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로 필요한 병력의 수를 넘지 않으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즉시 철병할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5. 불가피한 군사적 원조를 포함하여 개혁 및 호의적 통치를 위해 일본이 한국에 조언하고 원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러시아는 인정한다.
6. 이 협약은 한국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기존의 모든 협정을 대신한다.[4)]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의 협약안을 논의한 후, 일본 측에게 한국에서 우월한 영향력을 양보하는 대신 러시아가 만주 철도 사업에서 누리는 특별한 이익을 인정받고, 향후 한국철도가 압록강까지 부설될 경우 중국의 동청철도와 연결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은 몇 개의 협약, 특히 1896년 체결된 모스크바 의정서의 특별 조항을 폐기하고, 한국에서 행동의 자유 및 만주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러시아는 만주가 일본의 이익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단지 한국 문제에 관해서만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의 수정안이 작성되어, 1903년 9월 로젠을 통해 구리

4) Японская Белая книга. Маньчжурия и Корея. Издание канцелярии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Пб., 1904. С. 173-174;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на заре XX столетия... - С. 475; Пак Чон Хё.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г. и Корея.- С. 125-126.

노 공사에게 전달했다.

1.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불가침권을 존중할 상호 의무를 지닌다.
2.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우월한 이익을 지니며,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제국의 내정 통치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에 조언하고 원조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3. 러시아는 한국 내 일본 무역 및 산업 회사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회사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조치도 방해하지 않는 의무를 지닌다.
4. 일본은 위와 같은 목적에서 군대를 한국에 파병할 수 있으나, 먼저 러시아에 통보해야 한다. 단 병력의 수는 실제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임무를 완수한 즉시 본국으로 철병해야 한다.
5. 한국의 모든 영토를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6. 북위 39도선 이북의 한국 영토를 중립 지대로 인정하여, 그 지역으로는 양국의 군부대를 진주시키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7. 일본은 만주 및 그 연안이 일본의 이익범위 밖에 있음을 인정한다.
8. 이 협정은 한국과 관련하여 러일 간에 체결된 기존의 모든 협약을 대신한다.[5)]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한국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재차 양보하며 만주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수정안에 대한 일본의 수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11개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본인들이 한국 문제와 만주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주장하면서도, 러시아의 중립지대 설치에 대한 제안을 심각할 정도로 왜곡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한국과 만주의 국경을 형성하는 압록강에서부터 양측으로 각각 50베르스타의 거리를 중립지대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 군대는 압록강으로부터 50베르스타나 떨어져 있게 된다. 러시아 군사관계자들은 일본이 단 하나의 문제(5조), 즉 대한해협에서의 자유항행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시설을 한국해안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무만을 받아들였

5)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на заре XX столетия... - С. 478.

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본의 수정안을 논의한 후, 러시아는 이전의 결정을 고수하기로 했다. 러시아 정부는 1903년 12월11일에야 비로소 도쿄에서 일본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했다. 여기서도 한국 문제는 만주 문제와는 별개로 거론되었다. 답변은 다음과 같은 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1.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불가침권을 상호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2.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우월한 이익을 지니며, 한국의 내정 통치 개선을 위해 한국에 조언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3. 러시아는 한국 내 일본 산업 및 무역 활동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고, 일본이 그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4. 러시아는 일본이 위 조항에서 언급된 목적에서 또는 국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폭동이나 무질서를 진압하기 위해 한국으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5. 한국의 영토의 어떤 부분도 전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대한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시설을 한국 해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6. 북위 39도 이상의 한국 영토를 중립지대로 인정하며, 그 지역으로는 양국 중 그 어느 누구도 군대를 진주시키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7. 한국철도와 동청철도가 압록강까지 부설될 경우, 두 철도들의 연결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8. 한국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기존의 모든 협약을 폐기한다.[6)]

일본 원로원은 1903년 12월 16, 17일에 걸쳐 러시아의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들은 러시아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러시아 수정안 제2조를 '러시아는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우월한 이익을 인정하고, 대한제국의 정치를 개선하기 위한 조언과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권리가 일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고 개정했으며, 제5조를 '대한해협에서의 자유항행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 시설을 한국 해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로 바꾸었다. 또한

6) Цит. по: Пак Чон Хё.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г. и Корея.- С. 133.

러시아 협약안의 제6조를 생략하자고 제안했다.[7]

이 무렵 일본 외교관들은 서울에서 매우 무례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일본군이 한국에 상륙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소문을 유포한 목적은 고종을 위협함으로써,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 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만주 문제에 관해 도쿄와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회담의 결과를 미리 파악하려 노력했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지배권을 수립하기 위해 '도덕적 권리'를 보장 받으려했다. 하야시 곤스케는 한성주재 외국 공사들에게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다.[8] 열강 대표들은 한국 대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심각한 위험이 한국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그들은 고종과 그의 측근 고관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미리 일본의 보호 하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욱 분별 있는 태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러시아에게 보호를 청하기로 결정했다. 1903년 12월 3일 고종황제는 '위험한 시기에' 그가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하고, 그 후 러시아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파블로프 공사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게 발송했다. 파블로프 공사는 그러한 황제의 행보가 한국 문제에 관한 러일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히려 한국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파블로프의 전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그런 행보가 상황을 첨예하게 만들고 인민의 봉기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일본의 간섭을 정당화시켜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황제가 궁궐을 떠나려는 의지를 포기하도록 조심스럽게 권하고 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고종은 선대왕 철종(1863년 서거)의 미망인이었던 왕비의 유해를 우상당으로 이장하는 날을 이용하여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당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 담에 있는 크지 않은/작은 문, 즉 1896년 2월에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할 당시의/이용했던 그 문으로 다시 향하겠다고 재차 발표했다.[10]

극동총독 알렉세예프는 람스도르프에게 한국의 황제는 "자신과 한국의 인민들

7) Японская Белая книга. Маньчжурия и Корея... - С. 211.

8) Донесение посланника в Сеуле Павлова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амздорфу. Сеул, 8(21) января 1904 г.//А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1904 г. Дело 15. Лист 1.

9)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А.И.Павлова. Сеул, 20 декабря 1903 г. (2 января 1904 г.)//А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1903 г. Дело 190. Лист 66.

10) Донесение посланника в Сеуле Павлова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амздорфу. Сеул, 8(21) января 1904 г.//А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1904 г. Дело 15. Листы 2-3 참조.

이 오래전부터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 보고 있는 열강(러시아)의 대표에게 도피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전보를 타전했다. 동시에 알렉세예프는 파블로프공사에게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도피를 요구할 경우,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 향하겠다는 황제의 의사는 황제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향후 운명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보를 발송했다.[11)]

페테르부르크에서는 고종의 요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서두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4년 1월 파블로프는 고종황제가 서울주재 프랑스 대표를 상대로 위험한 순간에 프랑스 공사관으로 피신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고종황제가 외국 공사관 중 한 곳으로 도피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고 보고했다.[12)]

곧이어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러시아는 일본의 새로운 제안을 논의하며, 일본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만주 문제를 일본과의 논의 대상에 실질적으로 포함시킨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한 이익을 인정하는 문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무역 및 산업 활동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에 관한 문제, 일본이 한국으로 군대를 파병할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수정안에 기초하여 협약안을 작성하는데 동의했다. 러시아의 새로운 수정안에는 일본이 요구한 중립지대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만주에 관한 조항은 일본의 요구를 고려하여 삽입했다. 1904년 2월3일 도쿄로 발송한 러시아의 수정안 전문은 다음과 같이 러시아가 일본에 처음 제안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처럼 보였다.

1.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불가침권을 상호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2.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한 이익을 인정하며, 대한제국의 통치를 확립하기 위해 조언과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권리가 일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3.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산업 및 통상 활동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고, 이

11) Секретные телеграммы генерал-адъютанта Алексеева. Порт-Артур, 19 декабря 1903 г.(1 января 1904г.)//А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1904 г. Дело 42. Листы 264-265.

12) Донесение посланника в Сеуле Павлова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амздорфу. Сеул, 8(21) января 1904 г.//А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93, 1904 г. Дело 15. Лист 7.

런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다.

4. 러시아는 위 조항에서 제시된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적 혼란을 형성할 수 있는 폭동과 무질서를 진압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군부대를 파병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5. 한국 영토 중 어느 한 부분도 전략적인 목적에서 이용하지 않고, 대한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한국 해안에서 취하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6. 러시아는 타 열강들과 함께 중국과의 조약으로 일본이 획득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존중할 것이다. 반면 일본은 만주와 만주의 연안이 자신의 이익 범위 밖에 있음을 인정할 의무를 지닌다.
7. 한국철도와 동청철도가 압록강까지 부설될 경우, 이 철도의 연결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상호 의무로 한다.
8. 한국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한 기존의 모든 협약을 폐기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수정안은 일본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나가사키 전신소에서 의도적으로 발송이 지연되었으며, 2월 7일이 되어서야 로젠에게 배달되었다. 즉 고무라 쥬타로의 명령을 받은 구리노가 향후 회담을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통보한 뒤에야 러시아 측 수정안을 일부러 뒤늦게 수령한 것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와 일본 양측은 외교회담 과정에서 극동에서의 대립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가 군사적 충돌을 연장하기 위해 상당히 방어적 자세를 견지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러시아가 일본의 요구 조건을 수락했다면,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러일전쟁은 단지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서 일본의 자유행동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발했다는 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회담의 후반부에서 명백했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가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본에게 양보했다는 점이다. 협약안을 작성하면서 러시아 외교가 거둘 수 있었던 유일한 성과는 아무런 수정을 거치지 않고 1조(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 불가침권을 상호 존중할 의무)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도발을 준비하던 일본은 전쟁 준비에 착수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던 국제정세를 이용했다. 일본은 러시아 침략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영국뿐 만 아니라, 일본의 힘을 빌려 극동에서 러시아 세력을 약화시키고 만주 및 중국 북부 지역을 점진적으로 자신에게 종속시키기 위해 자본의 침투로를 확보하고자 기대했던 미국으로부터도 직접적인 지지를 받았다. 1904년 1월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는 일본정부와의 회담 중 미국이 일본의 대러전쟁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해주었다.[13]

러일전쟁(1904~1905년) 직전 대한제국에 관한 러일회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위 39도선을 따라 한국을 분할하여 세력권을 나누자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박종효는 회담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신의 압록강 삼림이권을 축소하는 것에서부터 일본에 의한 북위 39도 이남 지역의 점령에 동의한 것까지,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게 점진적으로 양보하는 전술을 구사했다는 사실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1903~1904년까지 진행됐던 회담에서 러시아와 일본 간에 북위 39도선을 따라 한국에 대한 영향권을 분할하려 했던 러시아와 일본의 협약안은 우연치 않게 1945년까지 이어져, 2차 대전의 결과로 38도선을 분계선으로 삼아 한반도가 분할되었다."[14]

여기서 말하는 북위 39도선을 따라 한국을 분할하는 협약안이란 과연 무엇일까? 러시아 고위층 사이에서는 이미 1899년부터 한국을 경제적 영향권으로 분할하는 문제가 러시아 경제에 끼칠 영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1899년 3월 18일 베조브라조프가 두만강과 압록강의 풍부한 삼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조직한 특별탐사대가 한국에서 귀환하자,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대공은 니콜라이 2세에게 일본과의 협약 체결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신에는 일본에게 한국의 남부를, 러시아에게는 한국의 북부를 각각 위임하자는 내용이 쓰여 있다. 그러나 '비밀서신에서 언급하는' 이런 분할이 실질적인 분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즉 일본이나 러시아 그 어느 쪽도 협약에 의거하여 한국에 자신의 통치를 구축하거나 군부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권 할당, 항구 건설과 철도 부설 등과 같은 단지 경제적인 분할이 러시아와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적혀 있었다.[15]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의 '비밀서한'은 무라비요프 외무장관의 결정을 받기

13) Подробнее см.: А.Л.Нарочницкий , А.А.Губер, М.И.Сладковский , И.Я.Бурлингас.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нига первая.- С. 224-228.

14) Пак Чон Хё.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г. и Корея.- С. 262.

15) Секретная записка Его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Высочества,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Александра Михай ловича от 6(18) марта 1899 г.//АВПРИ. Фонд "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ись 483, 1895-1899 гг. Дело 195. Лист 27.

위해 보내졌으나, 그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무라비요프는 “서한에 언급된 조건 하에서 한국에서의 영향권 분할이 군사력으로 러시아가 한국의 북부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남부를 일본이 점령하는 것을 준비할 경우에만 의미를 지닌다”고 답변했다.[16]

이 후 러시아 각 부처에서 한국의 경제적 영향권에 의한 분할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러일회담(1903~1904)에 관해 언급하자면,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회담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분할을 영향권 설정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북위 39도 이북을 러시아나 일본 모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는 중립지대로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러시아 국경 쪽으로 일본 군대의 진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2차 대전 후 38선에 따른 한반도 분할이 20세기 초 대한제국 분할에 관한 협약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1903~1904년의 러일회담 결과,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영향권 설정에 따른 한국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그러한 분할을 제안하지도 않았으며, 일본도 한국을 러시아와 나눌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을 완전하게 지배하려 했다. 둘째, 1945년에 38선을 따라 한국을 분할하자는 아이디어는 일본 군부 조직이 와해된 뒤 미국의 지도부가 제안했으며, 소련 정부는 주저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III.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전 러일회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을 하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았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음모로부터 보호받으려면, 한국을 중립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03년 10월 이미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한국의 중립화를 제안했으나, 러일회담이 지속되고 있었던 관계로 러시아 정부의 답변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의 전문을 서울주재 러시아 육군무관 포타포프 대위가 알렉세예프 제독에게 발송했다. 포타포프는 일본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종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전달했다는 보고도 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 무관에게 중립국 선포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16) Всеподданней шая записк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т 16(28) марта 1899 г.//Там же. Листы 32-35.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쉽게 약속해 줄 수 있을 것이나, 그만큼 쉽게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은 전쟁시 한국이 중립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선언해 왔습니다. 만약 어느 열강이라도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문제 삼는다면, 일본은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적 행동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중립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자신의 중립을 보호하려면, 충분할 정도로 부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황실의 평안을 유지해야 하며, 재정과 군대를 재조직해야 합니다. ”

본 전문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모든 대내외적 당면과제를 중립문제와 하나의 매듭으로 엮고 있다. 한국이 중립국가 선포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와 국내 평온 유지와 관련된 문제를 일본에게 맡기고 일본의 완전한 통제 하에 들어가야만 한국정부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일본은 먼저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 아래 두고, 이후 만약 러시아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때서야 대한제국의 중립을 선포하겠다는 것이었다.

고종은 중립국화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대한제국중립선언에 대한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04년 1월14일 파블로프 공사를 방문한 고종의 시종무관 현상건은 일본과 러시아간 수교가 단절될 경우, 대한제국이 엄정 중립을 준수할 것임을 열강들에게 선언하겠다는 황제의 결정을 통보했다. 그 자리에서 현상건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고종황제께서는 서울주재 열강 대표들에게 외부대신이 공식 통첩함으로써 대한제국이 중립을 선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대한제국 대신들이 일본공사관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일본공사관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현재의 상태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통첩은 의심의 여지없이 미리 일본정부에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정부는 그러한 통첩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수단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 현상건은 파블로프공사에게 고종황제를 대신하여 상하이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서울주재 프랑스 공사관이나 상하이주재 프랑스 총영사관을 통해 이런 내용의 전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블로프는 현상건에게 “당연히 대한제국은 정책을 결정하고 중립을 준수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열강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권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한국을 동맹의 의무에 동참시키려는 일본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그런 조치는 대한제국에게 매우 바람직하고 유익한 것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대한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원하는 국가들로부

터 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개인 의견을 전달했다.[17]

파블로프는 고종황제의 요구를 이행하여, 대한제국 중립선언에 관한 고종황제의 전문을 각지로 발송했다.

파블로프가 러시아 외무부에 전달한 '일본과 러시아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한제국은 중립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이범진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범진은 명령을 어기고, 이 성명이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우정과 호의'라는 성명과 모순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러시아 정부의 불만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중립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서울로 타전했다. 또한 이범진은 본인은 러시아 황제를 신뢰하며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한제국은 러시아의 동맹국임을 선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고종에게 발송했다. 실제로 1904년 1월15일 고종황제는 "본인은 일본과의 동맹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일본 및 일본 지지자들의 위협과 압력에 대항하려고 중립 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와 일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대한제국 중립을 이미 명백하게 위반했음을 구실로 삼아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동맹국임을 선포하기로 확고하게 결정했다."는 내용을 러시아황실로 보내달라고 파블로프에게 요청했다.

다음날인 1월16일 파블로프는 본국의 명령에 따라 람스도르프의 전보를 고종황제에게 전달했다. 그 내용은 "대한제국의 중립 유지에 관한 선언은 황실의 공감을 완전히 얻었습니다. 이에 러시아 황실은 기꺼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입니다."는 것이었다.

1904년 1월21일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의 외무장관들에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규와 평화적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는 당사국들이 난관에 봉착했음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황제폐하의 명령에 의거해, 협상을 진행 중인 상기 두 열강 사이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엄정 중립을 준수하기로 확고하게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한국 정부의 공식 전문이 발송되었다.[18]

일본정부는 한국의 중립이 현실적으로 일본 자신의 침략 계획을 저지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중립으로 인해 자신의 침략 계획이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고 명백

17) Донесение россий ского посланника в Сеуле Павлова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амздорфу. Сеул, 12 января 1904 г.//Б.Д.Пак(составитель). Ли Бомджин.- М., 2002.- С. 43-44.

18) Телеграма корей ского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Чифу, 8(21) января 1904 г.//АВПРИ. Фонд "Китай с кий стол". Опись 491, 1904 г. Дело 58. Лист 58. См. также: A. Nahm. Japanese Panatration of Korea.- p. 100.

하게 강제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대한제국의 중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야시 곤스케는 대한제국 중립에 관한 전문을 수령한 바로 다음 날,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에 관한 조약 체결을 승인하라고 고종에게 강요했다.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중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일본 극우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 극우파는 한반도를 침략하려 했으며 한반도를 러시아 공격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했다. 이러한 계획은 러일회담에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러일회담을 진행하는 중에도 러시아 침공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은 러시아가 극동에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러시아군(총 113만 5천명)과 예비군(총 350만명)의 수에 비해 극동에는 겨우 98,000명의 군사와 장교만이 주둔 주이었으며, 대포는 148문에 불과했다. 러시아 극동함대는 그 무렵 장갑함 7척, 순양함 4척, 수뢰순양함 2척, 수뢰정 35척 그리고 수 척의 포함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일본은 전쟁 전에 신식무기로 무장하고 잘 훈련된 정규군(15만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군대 동원령을 발령하면 일본의 군사력은 37만5천명(13개 사단 및 13개 여단)에 달하며, 이들 부대는 대포 1140문과 기관총 147정으로 무장하게 된다. 일본 전함은 약 90척에 달했으며, 그 중에는 장갑함 7척, 장갑순양함 8척, 약 17척의 경순양함, 구축함 27척, 소형수뢰정 19척, 11척의 포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1904년 1월부터 일본은 전국에 걸쳐 군사 작전 준비에 돌입했으며, 그와 동시에 이미 일본군대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한반도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2월 4일 일본 해군은 러시아 공격 및 일본군을 한국에 상륙시키라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 2월 5일 밤 구리노 공사는 한국 문제에 관해 러시아측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러시아와의 회담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 1904년 2월8일 일본 군함은 러시아 태평양 분함대 소속인 코레예츠호와 바랴크호를 상대로 전투 행동을 개시했으며, 인천(제물포)에 군부대를 상륙시켰다. 2월9일 밤, 일본 수뢰정은 뤼순 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분함대를 기습 공격했다. 그 후 일본군은 서울을 점령했다. 1904~1905년의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사회는 러일전쟁을 계층에 따라 다르게 해석했다. 부르주아-지주 계층은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고 지지했으며, 민주적 세력은 일본을 상대로 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나라를 몰아넣은 러시아 독재정권의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1904년 2월10일 서울주재 일본공사는 파블로프에게 일본이 서울과 그 인근 지역을 점령했으므로 지체 없이 서울을 떠나라고 제안했다. 2월12일 러시아 공사관 직원들은 프랑스의 파스칼호를 이용하여 한국으로부터 철수했다. 서울을 떠나기

전 파블로프 공사는 자신이 잠시 서울을 떠나 있는 동안 한국에 체류 중인 러시아인과 러시아의 이익을 한국주재 프랑스 대표에게 임시로 위임했다는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고종황제는 자신의 대리인을 비밀리에 파블로프에게 보내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확인해 주며, 조속히 러시아제국 공사관이 재차 서울에 입성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1904년 1월21일 대한제국 정부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군의 한반도상륙을 막지는 못했다. 1904년 중반에는 이미 인천과 압록강 사이에 10만 명 이상의 일본군과 장교들이 주둔하여,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영토를 점령했다. 1904년 4월말에서 5월초 일본육군은 압록강에서 러시아 군대를 대대적으로 공격한 뒤, 만주로 진군했다. 그 무렵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일본군을 정찰하고 일본군이 한국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18개 백인중대로 구성되어 한국 북부로 파병되었던 육군 소장 미셴코의 기병 분견대를 격퇴했다.

일본 점령군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다. 본 의정서는 체약 당사국은 상호 지원을 약속하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항하여 대한제국의 영토를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발행되던 친일 성향의 주간지 『대한제국 리뷰』는 일본과 동맹을 체결한 만큼, '대한제국은 러시아의 적이 되었다.'며 따라서 '한국인들은 일본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1904년 5월19일 일본인들은 영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고종황제에게 러시아와 대한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고종황제는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 지난 3개월간 일본의 요구에 대항하려 노력했지만 결국은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계속적으로 저항하게 되면 왕좌가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전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는 그 순간 일본의 강요에 의해 내려진 명령을 폐기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해달라고 퐁트네 자작에게 부탁했다.

1904년 8월12일 대한제국은 '고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본 협약에 따라 대한제국은 일본의 권고에 의거하여 재정고문, 외교고문 그리고 다른 분야의 고문들을 초빙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침략자들은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의 대외정책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했다. 그 덕분에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한국의 물적 그리고 인적자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일본이 대한제국에서 행하는 공격적인 행동에 항의했다. 이미 1904년 2월21일 해외에 주재하는 모든 러시아 대표들에게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행하는 '폭력적인 행보'에 주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본국 정부의 명령에 의거하여 외국주재 러시아 대표들은 일본정부가 '모든 조약'에 반하여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국 군대를 독립국 한국의 영토에 상륙시켰으며, 대한제국 황제에게 '이제부터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 하에 있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람스도르프 외무장관의 회람 전문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한국에서 권력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순간부터 황제의 정부는 한국 정부의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명령과 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러일전쟁 시기 러시아의 대한정책의 변화와 양국관계의 성격」에 대한 토론문

허동현(경희대)

민경현 선생님께서는 『신경제정책 시기 러시아 발전 논쟁의 귀결(a study on the debate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 in the NEP)』이란 연구로 Univ. de Paris I (Pantheon - Sorbonne)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대조선 정책」(『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006), 「연구주제의 다양화: 2005-2006 러시아사 연구동향」(『역사학보』, 2007),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조선정책과 조러수호통상조약」(『대동문화연구』, 2008), 「러시아 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동북아역사재단, 『유럽과 미국의 동아시아사 교육』, 2009) 등 러시아 역사와 한러관계사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학계의 중진 학자이십니다. 민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러일전쟁 시기 러시아의 대한정책의 변화와 양국관계의 성격」은 러일전쟁기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대한제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구명(究明)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입론 성격의 발표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몇 가지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써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허나 본 토론자는 주로 개화기 한일관계에 관해 연구해 왔기에 한러관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따라서 비전문가의 어설픈 논평이 될까 염려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가 제기하기 힘든 조언과 질문도 서슴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이 글을 읽으면서 든 첫 번째 생각은 기존 연구에 대한 연구사 정리가 거의 없어 이 분야에 정통하지 못한 토론자로서는 민 선생님의 견해가 어떤 점에서 학계의 관련 연구 진전에 보탬이 새로운 견해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가 있다면 본 발표문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I장 러일전쟁과 한러관계" 두 번째 문단에서 “20세기에 들어선 후, 극동에서의 러시아 경제 팽창을 지지하는 ‘베조브라조프 일파’가 러시아 전제 정치의 대외정책에 대해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고 서술해 '베조브라조프 일파'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좌우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는 "위떼·쿠로파뜨킨·람스도르프 '3인방(triumvirate)'이 베조브라조파의 계획--조선 북부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군사적 침투에 맞서, 압록강 이권과 제대병으로 구성된 작업장을 전략상 방어용으로 사용하려는--을 완벽하게 분쇄해 버렸다"는 말로제모프의 견해와 다릅니다.[19] 민경현 선생님의 견해는 선행연구인 말로제모프의 학설에 대한 반론제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와 함께 반론제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렇다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러시아 산업·통상 협력회'를 비롯해 『루스꼬예 바가뜨스뜨보(러시아의 부)』·『루스끼예 베도모스찌(러시아 소식)』·『베스뜨닉 예브로쁘(유럽 통보)』·『노보예 브레먀(신시대)』 등의 출판물에 보이는 평론가들의 대한제국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 평가절하에 대한 서술 보다는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려 했던 온건파인 "위떼·쿠로파뜨킨·람스도르프 '3인방(triumvirate)'의 입장을 서술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Ⅱ. 러일전쟁 직전 한러관계"는 내용상 한러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가 아니라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러일간의 교섭 내용에 관한 분석이 주된 내용이므로 제목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다음 서술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와 일본 양측은 외교회담 과정에서 극동에서의 대립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가 군사적 충돌을 연장(회피?)하기 위해 상당히 방어적 자세를 견지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러시아가 일본의 요구 조건을 수락했다면,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러일전쟁은 단지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서 일본의 자유행동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발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회담의 후반부에서 명백했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가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본에게 양보했다는 점이다." 먼저 러일의 협상과정에서 러시아에서는 강경파인 베조브라조프 측의 입장보다는 온건파의 입장이 협상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려 한 것이 러시아측 노선이며, 이와 달리 일본은 삼국간섭 이후부터 10년 동안 러시아와의 전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측이 이런 정책노선을 취하게 되었는지를 강온파의 노선 대립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민 선생님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으로 보신 두 가지 주장이 누구의 학설

19) A. 말로제모프 저, 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지식산업사, 2002), p. 303.

인지도 밝혀 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반박 노지를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1945년 미소간에 획정된 38선과 러일전쟁 직전 러일간에 논의되었던 39도선 분할안이 무관하다는 견해도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38선 획정에 대한 관련 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주 10)이 붙어 있는 문단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고종은 선대왕 철종(1863년 서거)의 미망인이었던 왕비의 유해를 우상당으로 이장하는 날을 이용하여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당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 담에 있는 크지 않은/작은 문, 즉 1896년 2월에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할 당시의/이용했던 그 문으로 다시 향하겠다고 재차 발표했다”는 서술에서 제2의 아관파천을 준비하는 고종의 입장에서 볼 때 “발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전문가이신 민경현 선생님께 비전문가인 논평자가 갖게 된 몇 가지 의문에 대해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는 것으로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소련)의 대(對) 한인정책과 한인들의 소련인식

반병률(한국외대 사학과)

1. 머리말

일제식민지시기 러시아(소련)의 한반도정책이라고 한다면 일러관계의 차원에서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피식민지상태에 있던 한인들에 대한 소련의 정책으로 간주하였다. 러시아(소련)당국이라 하면 중앙당국자와 지방당국자에 따라 다르고, 당국자 개인에 따른 차이도 상정할 수 있다. 정치적 상황 역시 유럽러시아지역과 원동러시아(Russian Far East)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글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한반도와 인접했던 원동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 지역 또는 한국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러시아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인들의 경우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할 터이지만, 이 글에서는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 특히 한국독립운동세력(러시아혁명이후는 한인공산주의자들)에 한정하였다. 이들이야말로 러시아(소련) 당국의 정책을 직접 경험하였고, 그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2. 한말시기(1905-1910)

1904-1905년의 러일전쟁에서의 군사적 충돌이후 만주지역의 두 라이벌, 러시아와 일본은 각자의 이익을 협상을 통해 조정하며 공존을 추구하였다. 1907년, 1910년, 1912년, 1916년의 4차례에 걸쳐 일련의 협약을 체결하여, 양국은 한반도, 남북만주, 몽골,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각자의 특수이해지역을 상호 인정하는데 합의하는 한편, 과거의 적대관계로부터 점차 실질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러시아지역 한인들의 항일운동은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서 추진되었다. 1908년 여름 동의회(同義會)가 중심이 된 연해주의병의 국내진공전 당시 연흑룡주(沿黑龍州) 총독, 연해주 군정순무사(軍政巡撫使), 그리고 남우수리 국경지역 커미셔너 등

의 러시아지방당국자들은 한인의병운동이 러시아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원(支援)'도 '금지(禁止)'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했다. 러일전쟁 당시 공헌한 이범윤 세력등 한인의병세력을 탄압하지 않기 위하여 러시아지방당국자들이 채택한 이러한 방관적 태도는 당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채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08년 가을이후 러시아지방당국자들이 이전의 '비지원(非支援),' '비금지(非禁止)'의 방관적 정책을 버리고 한인의병활동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러시아중앙정부는 연흑룡주 총독에게 이범윤이 다시 의병운동을 재개할 경우 그를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1] 그리하여 러시아당국은 국경지대인 두만강 일대에 군부대를 주둔지켜 의병부대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해주지역에서의 의병훈련과 무기소지를 단속하기 시작하였다.[2]

이후 러시아당국은 점진적이며 합법적인 교육,문화,언론운동, 즉 '완진운동(緩進運動)'은 허용하되, 비합법적인 무장투쟁, 즉 '급진운동(急進運動)'은 철저하게 금지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밀접해가고 있던 국제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을 전후로 한 시기에 많은 한인애국자들이 기대를 갖고 러시아로 망명하였는데, 여전히 열강 가운데서 러시아를 한국독립에 우호적인 국가로 상정한 때문이었다. 강재언(姜在彦)이 정리한 바, 원동러시아지역은 서북간도지역과 함께 유학자인 유인석(柳麟錫)이 북변지계(北邊之計)에서 구상한 바 근거지론(根據地論)에 부합되는 지리적 조건, 국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주체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4] 20세기초의 상황에서 현실적인 근거지로서 원동러시아는 청국 통치하의 서북간도에 비하여 한국의 애국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다. 유학자인 유인석(柳麟錫) 역시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지역을 현실적인 근거지로 상정했다. 청국과 러시아 모두 "모두 본국과 영토를 연(連)해 있어 러시아와 청의 양계(兩界)가 우(隅)할 만하나 청나라는 약하고 러시아는 강하기"때문이었다.[5]

---

1) 『공립신보』 1908년 9월 9일자; S.S. Grigortsevich, "Uchastie Koreitsev Russogo Dal'nevo Vostoka v antiiaponskoi natsional'no-osvoboditel'noi bor'be (1906-1916)," *Voprosy Istorii,* no.10 (1958), pp.144-145.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제12권, 259쪽.

3) 반병률, 「露領 沿海州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1905-1911)」 『한국근현대사연구』 7(1997), 한국근현대사학회, 84쪽.

4) 姜在彦, 「朝鮮獨立運動の根據地問題-1910年前後における二つの思想的對應」-『朝鮮民族獨立運動史硏究』 1 (朝鮮民族運動史硏究會, 1984), 25-27쪽.

5) 姜在彦, 위의 글, 20쪽.

그리하여 한말 일제초기에 많은 애국자들이 북간도를 거쳐 러시아연해주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서전『망명자의 수긔』을 남긴 항일혁명가 이인섭(李仁燮, 1888-1982)이 그 좋은 사례이다. 이인섭은 평안도 김관수 의병대에 참여하였다가 일본당국의 의병대검거를 피해 1910년 10월말 중국 압록강 건너 서간도의 임강현(臨江縣) 팔도구(八道溝) 한병화땅으로 망명하였다. 중국지방민들의 우호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외교적 압력을 받은 청국경찰당국은 의병들의 검거에 나섰고, 이인섭은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가 1911년 9월 훈춘으로 다시 망명하고 1913년 2월 러시아로 이주하였던 것이다.[6]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활동하던 한말 의병들이 대체로 이인섭과 같은 경로로 러시아로 망명하였는데, 이것은 일제당국이 이들의 검거를 위해 외교적 수단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때문이었다. 한인들 사이에서 중국의 서북간도에 비하여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항일투사들에게는 안전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1907년의 제1차 러일협약에서 러시아와 합의한 자신의 만주에서의 특수이해가 미국 국무장관 낙스(Knox)가 제창한 철도중립론에 위협받게 되자 제2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제2차 러일협약은 러시아와의 제1차협약을 재확인하고 상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공동으로 동원하다는 사실상의 공수동맹에 가까운 협약이었다.[7] 러시아의 한인들은 1910년 7월 13일자『신한민보』를 통해서 제2차 러일혁약 체결소식을 들었다. 즉,『신한민보』는 일본이 러시아와 제2차협약을 체결하여 제3국의 만주개입을 차단하고,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가로 일본의 한국병합을 승인받고 러시아내 한인애국자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범죄인인도조약(犯罪人引渡條約)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하였던 것이다.[8]

국내외를 통털어 1910년 여름 일본에 의한 한국강제병합에 반대하기 위한 조직적 저항운동이 그런대로 전개된 곳은 러시아지역이었다. 비록 외교적으로 일본과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지역은 유인석, 이상설, 이범윤을 중심으로 한 13의군(十三道義軍), 성명회(聲明會) 그리고 고종의 대러시아밀사파견 등 항일운동세력이 최후의 항일운동을 전개한 무대였던 것이다.

---

6) 반병률,「해제: 애국지사 이인섭의 혁명운동과 역사저술활동」『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 I-자서전-』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10쪽.

7) Ernest Batson Price, *The Russo-Japanese Treaties of 1907-1916 Concerning Manchuria and Mongolia*, Baltimore, The John Hopkins Press, 1933, pp.43-58.

8)『신한민보』1910년 7월 13일자.

3. 러시아혁명이전 1910년대

‘한일합병’ 반대운동은 유인석, 이상설 등 보수적인 근왕주의자들에 의한 최후의 거사였으나, 무력적인 국내진입과 서구열강의 외교적 지원 획득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1910년 7월의 제2차 러일협약과 1911년 6월 1일에 체결된 러일범죄인도조약으로 인하여 1910년 이후 러시아지역에서 의병투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합법적인 활동만이 허용되었다. 1911년 12월에 러시아당국의 승인을 받고 출범한 권업회(勸業會)를 중심으로 한 합법적 활동만이 허용되었으며, 그 외에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한인들의 활동은 철저히 통제되기에 이르렀다. 1910년말 의병장 이범윤을 비롯한 7명의 한인지도자들을 이르쿠츠크로 강제유배시킨 것이 그 좋은 예이다.

1911년에 부임한 연흑룡주총독 곤닷찌(N.L. Gondatti, 1911-1917)는 이주한인들을 이질적인 위험분자로서 간주했던 전임총독 운테르베르게르(P.F. Unterberger, 1905-1910)와는 대조적으로 한인이주민들이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유용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권업회 창립을 후원했던 곤닷찌총독은 1912년 2월 23일 신한촌을 방문하였는데, 3천명의 한인들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하였다. 곤닷찌는 연설에서 한인들의 도덕적이며 온화한 품성을 칭찬하고, 사회, 교육,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9] 권업회 사무실에서 행한 이 연설에서 곤닷찌는 “한국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러시아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한인들을 크게 감동시켰다.[10]

러시아당국이 허용하는 합법적 범위내에서 그나마 전개되었던 항일민족운동은 제1차세계대전의 발발로 불가능해졌다. 1914년 8월 1일 러시아당국이 블라디보스톡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권업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은 승전을 기원하는 기도회와 모금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연해주 한인 자치기관 권업회의 기관지『권업신문』은 한인들에게 러시아의 전쟁노력에 합심하여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11]

그러나 이러한 한인들의 노력은 동맹국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러시아의 탄압정책을 극복할 수 없었다. 한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연흑룡주총독 곤닷찌 역시 일본정부의 압력을 받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거부할 수 없었다. 마침내 8월 20일 권

9)『대한인정교보』1912년 5월 1일자.

10)『권업신문』1914년 2월 8일자.

11)「우리 동포의 의협심」『권업신문』1914년 8월 16일자.

업회는 해산되었고, 이동휘를 비롯한 36명 주요한 여호인(餘戶人, 비입적한인) 망명자들에게는 48시간내에 러시아영토를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9월초 권업신문 역시 폐간되었다. 최재형 등 원호인(原戶人, 입적한인) 지도자들 역시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는 제1차세계대전의 발발로 긴밀한 동맹관계로 들어간 일본이 러시아에 대하여 한인들의 항일운동 일체를 단속할 것을 요구한 결과였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한인들은 제1차세계대전에서 러시아의 전쟁노력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50여년 동안 동포들을 감싸고 보호해준 러시아정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취지였다.

4. 러시아혁명과 시베리아 내전시기(1917-1922)

제1차세계대전의 발발이후 2월혁명에 이르는 시기에 러시아지역의 항일민족운동은 그야말로 침체일로의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한인들은 2월혁명을 열렬한 환희로써 환영하였다. 민족차별적이며 억압적이었던 짜르체제를 붕괴시킨 2월혁명은 제1차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정부의 민족차별적 짜르체제하에서 시달리고 있던 한인들에게 민족적 각성의 기회와 함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1917년 2월혁명이후 시베리아내전이 종결되는 1922년말까지의 시기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변화무쌍했던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한인들이 친볼쉐비키적인 정치노선으로부터 친백위파적인 정치노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였다. 제정러시아시기에 잠재했던 정치적 지향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인들 가운데 볼쉐비키당이나 사회혁명당(에스에)에 가입하거나, 친볼쉐비키노선의 한인사회당과 고려공산당(상해파, 이르쿠츠크파)를 조직하기도 했다. 재러한인역사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혁명과 시베리아내전시기야말로 그 전후 시기인 1917년이전의 제정러시아시기나 1923년이후의 소비에트시기에 비하여 한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상대적으로 보다 공공연하게 표명하였던 시기였다.

러시아혁명이후 조성된 자유화된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서 주목되는 점은 제정시기에 민족운동에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었던 이른바 원호인(입적한인)들이 한인사회 조직과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원호인 활동가들은 중간파인 사회혁명계열이 많았는데 1917년, 1918년의 러시아한인사회를 주도하

12)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205쪽.

면서, 러시아내에서의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안정과 지위상승을 추구했으나 항일독립운동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들은 1917년 6월에는 전쟁계속과 서구연합국의 지지를 받고 있던 러시아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여호인을 배제하고 원호인들만으로 한인중앙기관(고려족중앙총회)를 조직했다.[전로한족대회] 10월혁명이후인 1918년 6월에 이르러 이들 원호인 주류세력은 중앙과 지방의 볼쉐비키정부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체코군의 봉기와 일본과 미국 등 연합간섭군의 무력개입으로 성립된 반볼쉐비키적인 시베리아독립정부(임시정부)를 지지했다.[제2회특별한족대표회의] 이들 원호인들은 시베리아내전기로 옴스크의 콜챠크정부(시베리아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러시아지역의 3.1운동을 주도했으며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여 상해의 임시정부와 전체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경쟁했다.

소비에트정부를 이끌고 있던 레닌은 러시아혁명과 시베리아내전기간에 백위파와 간섭외국군과의 전쟁에서 한인민족운동세력을 적극적인 제휴대상으로 상정했다. 이러한 식민지. 반식민지 혁명노선에 입각한 레닌의 한인포용정책과 관련하여 러시아10월혁명초기 친볼쉐비키세력은 한인사회당 등 일부 세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외국간섭군들이 철수하고 일본군이 자행한 4월참변(1920년 4월 4-5일)이후 친사회혁명당계열의 중간파 노선이 지배적이었던 한인사회 주류가 점차 볼쉐비키적인 노선으로 전환해갔다. 1919년 6월말에 종결된 파리강화회의에 기대를 걸었던 한인들, 특히 청년학생들이 미국등 서구열강에 실망하고 대거 소비에트정부에로 기울어졌다. 신흥소비에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소비에트러시아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국민에게 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3.1운동후인 1919년 7월 26일자로 된「한국 혁명조직 국민회와 모든 한국민들에게」이다. 레닌의 포용정책이 잘 반영된 이 문건을 통하여 소비에트정부는 시베리아와 원동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위파군과 이를 후원하고 있는 일본군과의 전투에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적군(赤軍)편에서 참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 한인들의 항일투쟁 경험을 통하여 이제는 소비에트러시아만이 한국혁명가들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에트러시아아와 한국독립운동세력과의 연대투쟁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에트정부 책임자들의 관심은 러시아영토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백위파 및 일본침략군과의 무력대결에 있었고, 한국혁명전체에 대한 관심은 2차적이었다.[13] 레닌의 한인포용정책은 그의 사후에도 이어

13) 반병률,「러시아(소련)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식」『역사문화연구』35(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10), 492쪽.

져 적어도 1929년의 당청결운동시기에까지 계속되어진다.

다음으로 3.1운동이후 상해에서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소비에트정부의 정책을 간단히 소개한다. 1919년-1923년의 시기에 소비에트러시아[1923년 이후는 소련]나 코민테른(국제공산당) 책임자들은 한국독립운동의 중앙기관으로서의 상해임시정부를 개조 또는 개편한 후 제휴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가 1921년 1월 한인사회당 위원장인 국무총리 이동휘의 탈퇴와 1923년 상반기 국민대표자회의 실패이후 우파 일변도의 독립운동단체로 그 위상이 축소, 약화되어가게 되면서 제휴·연대의 상대로서 크게 고려되지 못했다.

시베리아내전 당시 백군및 일본침략군과 대결하던 상황에서는 러시아혁명세력이 한인독립운동세력과의 연대와 제휴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지만, 1922년말 내전 종결이후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약화되었던 것이다. 1922년 11월이후 원동러시아에서 활동하던 한인빨찌산부대들의 무장해제와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한 탄압은 그 결과였다. 특히 1925년초 소련과 일본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게 된 소련정부는 자국 영토내에서 공공연한 항일독립운동을 허용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14)]

5. 소비에트사회 건설기-1920년대 한국공산주의운동

소비에트정부는 코민테른(Comintern, 국제공산당)을 통하여 정책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코민테른의 동양혁명책임자들의 결정이 한국공산주의운동의 향방을 결정하였다. 1918년 5월 13일 창당된 한인사회당이 크라스노쉐코프(Krasnoshchekov)를 비롯한 원동러시아지역의 볼쉐비키들의 지원을 받아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인사회당이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한 1919년 하반기이후 1920년말까지 지속되었다. 완충국인 원동공화국(Far Eastern Republic)의 주창자였던 온건파 볼쉐비키였던 크라스노쉐코프의 노선과 마찬가지로 한인사회당-상해파 고려공산당의 노선은 2단계 혁명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21년 코민테른 동양비서부(Far Eastern Secretariat)가 이르쿠츠크에 설치되고 그 책임자인 슈미야츠키(Shumiatsky)가 과거 반볼쉐비키노선-친서구적 노선을 걸었던 대한국민의회와 이르쿠츠크파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러시아어에 능통하던 한인2세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대한국민의회=이르쿠츠크파 연합세력은 경쟁자인 한인사회당-상해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슈미야츠키 등 시베

14) 반병률, 위의 글, 490쪽.

리아의 젊은 볼쉐비키들이 한국사회와 한국혁명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점을 활용하였다. 한인공산주의운동에서의 통역정치의 폐해에 더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동양혁명을 책임지고 있던 젊은 볼쉐비키들의 한인혁명가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태도였다. 이들 코민테른의 원동혁명책임자들은 러시아혁명의 경험을 그대로 한국혁명에 적용하려 하였고, 멘세비키, 사회혁명당세력을 비판하던 논리들을 자신들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한인공산주의자들에게 적용하여 배척하고 탄압하였다. 몽골혁명을 지도했던 슈미야츠키가 한국혁명을 몽골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1921년 6월말 아무르주에서 발생한 자유시참변은 슈미야츠키 등 시베리아강경 볼쉐비키들이 가졌던 한국혁명과 한인혁명세력에 대한 권위주의적이며 편향된 인식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던 것이다.

슈미야츠키의 이러한 인식은 그를 계승하여 동양혁명 특히 한국혁명을 책임지게 된 보이틴스키(Voitinsky), 꼬르뷰로(Korebureau) 책임자 파인베르그(Fainberg), 그리고 오르그뷰로(Orgbureau) 책임자 이델손(Idelson)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인2세이로 백위파 또는 반볼쉐비키적 경력을 가졌지만 자신들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랐던 한명세, 남만춘 등 국민의회=이르쿠츠크파 인사들을 신뢰하였다. 같은 꼬르뷰로위원이자 한민족혁명운동의 지도자이자였던 이동휘 등을 소외시키고 배제하였다. 이들에게 한국민족혁명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주류의식은 물론 한국혁명의 독자적 위치를 강조했던 이동휘 등의 상해파는 거추장스러웠던 것이다.

보이틴스키등 국내에서 조선공산당 창당작업을 지도했던 러시아볼쉐비키들은 국내외에서 성장한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여러 세력들을 연합하는 방식대신에 이르쿠츠크파와 그 국내표면단체인 화요회를 통한 조선공산당 건설을 추진하였다.(1925년 4월의 조선공산당 창립). 보이틴스키의 이러한 노선은 해외 파벌운동의 폐해가 국내로 전이된 원인이었다.

이러한 코민테른의 공산당 조직방식은 1926년의 제3차공산당(이른바 통합조선공산당)을 제외하고 4차공산당 창건과 승인과정에서 관철되었는데, 이는 이후 화요파, 서울상해파, ML파 등 파벌투쟁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고, 마침내 조선공산당은 1929년 12월테제에 의하여 해소되고 말았다.

시베리아내전이 종결된 이후의 원동러시아지역에서도 원동변강혁명위원회의 부위원장 프쉐니친(K.F. Pshenitsin, 1923-24)이 원동변강지역의 당,정,군의 한인관계 중요직책에 국민의회=이르쿠츠크파 인물들을 편파적으로 포진시켰다. 이러

한 상황은 1929년의 당청결운동때까지 계속된다.[15]

6. 당청결, 스탈린대탄압 그리고 강제이주(1929-1937)

1929년이후 전개된 위로부터의 사회주의화에 따른 전면적인 농업집단화와 당청결운동(反右派鬪爭)으로 제정러시아로부터 온존해온 이른바 한인토호(kulak)들의 청결(숙청)이 진행되었다. 국민의회파는 의장이었던 문창범을 비롯하여 한명세, 최고려, 김하석, 임호 등이, 이르쿠츠크파의 경우 남만춘, 채동순, 김동규 등이 청결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제정러시아시절에 원호인 토호인 경우도 있었고, 시베리아내전시기에는 반볼쉐비키적인 백위파나 사회혁명당에 가담하여 활동한 경력, 자파를 위한 종파적 활동이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인공산주의의 파벌 가운데에서 망명한 여호인들과 빈농출신의 원호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상해파의 경우는 청결대상이 된 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1929년이후 한인사회에서 진행된 당청결운동은 계급투쟁의 양상을 띠었는데 이는 당시의 소비에트사회에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 결과 한인공산당 파벌 가운데서 원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국민의회파와 이르쿠츠크파가 청결대상이 된 것이었다.

1930년대 전반이후 불어닥친 한인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은 1929년이후의 당청결운동과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스탈린대탄압으로 불려진 이 숙청은 파벌, 연령, 남녀를 불문하고 거의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시베리아내전에서 붉은 빨찌산에 가담하여 백위파및 일본간섭군과 투쟁하였던 한인혁명가들과 한인공산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이들은 '관동군 첩보조직'과 연결된 '일본 정탐,' '반소적 반역행위,' '테러활동 준비' 등의 '반혁명적' '반소비에트' 활동 등의 혐의로 출당, 체포되었다. 한인공산주의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종파에 참여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처형되었다.

소련 NKVD(내무인민위원회)는 한인공산주의자들을 종파별로 나누어 감금하고 조사하였는데, 상해파와 엠엘파는 하바로브스크에, 이르쿠츠크파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보로실로프, 현재의 우수리스크), 국민의회파는 블라디보스톡 정치범 감옥에 감금되었던 것이다.[16] 스탈린정권이 한인공산주의자들을 처형한 근거는 이

15) 반병률,「在露韓人 强制移住 以前의 한인사회의 동향(1923-1937)」『한국독립운동사연구』11(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154쪽.

16) 이인섭,『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 I-자서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661쪽.

들의 종파투쟁 문제였다. 한국공산주의운동에서의 발생한 종파투쟁이 오로지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책임인가는 의문이다. 이들을 지도했던 코민테른 동양혁명 책임자들을 비롯한 러시아볼쉐비키들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36년 1월 25일에 체포된 김아파나시, 김미하일, 장도정, 김진 등 한인공산주의자들의 경우, '상해파 반혁명그룹의 위원'으로 기타 반대파(민족주의 협조주의자, 이르쿠츠크파, 엠엘파)와 조선혁명의 지도권과 조선공산당 결성의 주도권 장악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이 내세운 조건을 무시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17] 김아파나시는 하바로브스크 감옥에서 스탈린, 드미트로프, 비신스키에게 자신의 체포에 항의하는 전보를 보낸 결과, 모스크바로부터 재심지시가 내려 우파(Ufa)시로 3년간 정배처분을 받았으나, 1937년 9월 20일 원동변강 NKVD의 결정으로 다시 체포되어 하바로브스크로 이송되어 1938년 5월 25일 사형판결을 받고 곧바로 처형되었다. 김아파나시에게는 1929년이후 일본정보기관에 매수되어 반소한인폭동을 조직하여왔다는 새로운 혐의를 들씌웠다.[18]

1919년이후 볼쉐비키 당원으로, 원동해방전쟁에서 빨찌산부대에서 활동한 이인섭은 NKVD 산하 그로데고보(현재의 포그라니치나야)역 국경수비대 정치부 소속의 선임국경통제관으로 일하다가 1936년 3월 20일경 하바로브스크에서 원동변강 NKVD 총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를 심사한 NKVD의 당표검열원은 이인섭이 참여했던 한인사회당을 반혁명당으로 규정하고 한인사회당이 "적위군을 조직하여 가지고 우수리전선에서 싸운 것은 쏘베트주권을 이용하여 조선을 독립하자는 것"이라고 비판을 받고, '일본정탐 혐의'로 5년간의 카자흐스탄 유배형을 받았다.[19]

이인섭이 하바로브스크에서 만난 한인혁명가들은 한결같이 NKVD이 강요하는 '일본정탐' '반혁명분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인섭은 자신과 한인혁명가들은 모스크바로부터 하바로브스크 감옥으로 이감되어온 수백명의 '죄수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회상했다. 즉, 모스크바로부터 이감되어온 이들은 "우리는 진정한 레닌주의자들이다. 우리한테 죄가 있다면 레닌이 상사나고 안 계신 것뿐이다. 만일 레닌이 계시었더면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당하는 것을 쓰딸린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절규하였다고 했다.[20]

17) 김블라지미르,『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조영환역), 국학자료원, 1997, 189쪽.

18) 반병률,「在露韓人 强制移住 以前의 한인사회의 동향(1923-1937)」, 163쪽.

19) 이인섭,『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 I-자서전-』, 661-663쪽.

20) 이인섭,『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 I-자서전-』, 683쪽.

이인섭은 이들 러시아인 레닌주의자들의 심정과 동일시하다고 했지만, 그는 시베리아내전시기 볼쉐비키편에서 백위파와 싸웠고, 시베리아내전이후 소비에트사회 건설, 1929년의 동중철도분쟁시 참전, NKVD 국경수비대 근무 등 러시아혁명과 소비에트방위를 위해 투쟁한 한인볼쉐비키로서 배신감이 더욱 컸을 것이다. 이인섭이 하바로브스크 감옥에서 만난 한인2세 김알렉세이가 "힌파[백위파]적에는 나를 붉은 파[적위파]라고 이 감방에 가두더니 오늘에는 나를 흰파라고 이 감방에 또 가두니 이 세상은 이렇게도 정의가 없고 무정하단 말인가?!"하고 절규했던 것이다.[21] 이인섭 역시 하바로브스크 감옥의 한인정치범들의 사건을 관찰하고는 "만일 이 감방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반혁명분자라면 진정한 혁명자는 어디서 얻어낸간 말인가?"고 탄식했다. 그러나 노골적인 탄식이 아닌 "벙어리 신음"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22]

흥미로운 것은 탄압의 와중에서도 이인섭은 궁극적으로 당중앙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는 점이다.[23] 한인엘리트들은 스탈린 대탄압의 시기에 살아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고자 조심했다. 이인섭은 1941년에 유배가 풀리면서 '앞으로는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장래를 지내자"고 다짐하고 "아무데도 가지 않고 채마전에서 살면서 바보같이 행동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한다.[24] 한인들에 대한 체포와 처형은 강제이주 과정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7. 맺음말

한말이래 러시아는 한인독립운동세력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대상이었다. 제국주의 열강들 가운데서 러시아가 한국의 독립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한말이래 1914년 제1차세계대전 발발에 이르기까지 한인정치망명자들이 몰려들고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17년의 러시아혁명은 러시아지역이 또 다시 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주목받았다. 1919년의 3.1운동이후 애국청년들이 몰려들었고, 중국의 상해와 맞먹는

21) 이인섭,『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 I-자서전-』, 676쪽.

22) 이인섭,『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 I-자서전-』, 698-699쪽.

23) 이인섭,『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 I-자서전-』, 725쪽. 이인섭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카스리스 꼴호즈 부회장 남청오를 위로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사변은 단지 조선사람들만 당하는 사변이 아니요 이전 레닌선생과 함께 사업하시든 늙은 볼세비크들 다수가 우리 조선당원들처럼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었고 정배를 가고 있으니 레닌선생은 아니 계시지만 당중앙간부가 있으니 차츰 이 문제를 고쳐 해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24) 이인섭,『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 I-자서전-』, 746쪽.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부상하였다. 1919년 6월말 종결된 파리강화회의는 독립운동 세력내에서 미국등 서구열강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가져다 주었고, 그에 따라 원동러시아는 1919년 여름이후 급격히 성장한 항일무장투쟁단체들에게 무기탄약의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1920년말 일본군의 만주출병이후에는 만주독립군들의 도피처로 되었다.

시베리아내전시기에 한인빨찌산들은 백위파와 싸웠는데 이는 소비에트러시아가 궁극적으로는 항일투쟁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다. 시베리아내전의 종결이후 러시아는 한인공산주의운동의 책원지였다. 한인공산주의자들에게 소비에트러시아와 코민테른은 한국혁명을 지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민족주의자들 가운데도 서구열강들보다는 신흥소비에트러시아에 기대를 갖기도 했다.[최소한 창조파의 국민위원회가 소련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받은 1924년 2월까지]

러시아혁명과 시베리아내전, 그리고 소비에트사회 건설과정에서 보여준 러시아 한인들과 한인혁명가들의 희생과 헌신은 1930년대 중반에 휘몰아친 스탈린대탄압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에 의하여 배신당하고 말았다. 스탈린정부는 한인지도자들을 일본정탐, 종파분자, 반혁명분자 등의 혐의로 처형하였던 것이다. 1945년 해방이후 소련정부는 북한에 파견하게 될 한인요원들을 선발하면서 과거 공산주의운동이나 혁명운동에 참여했던 혁명1세대들은 배제하였다. 제1세대 한인혁명가들에 대한 소련당국의 불신이 컸음을 말해준다.

‘일제강점기 러시아(소련)의 대(對) 한인정책과 한인들의 소련인식’ 에 대한 토론문

심헌용(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표문은 한민족 최대 비극의 시기인 일제강점기 러시아(소련)의 대한인정책과 한인(공산주의) 운동세력의 소련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조국을 잃은 식민지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지닌 러시아연해주에서 민족독립운동을 벌이고 혁명에 참여했던 역사를 양자의 인식과 정책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희망과 좌절로 점철된 한인독립운동세력의 풍운의 역사를 느끼게 하였다. 발표문은 기존 연구성과를 잘 정리하면서도 해당 분야에서 최근 발굴된 내용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려 학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 확인보다는 커멘트 위주의 토론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문은 원제목, 특히 영문제목과는 달리 연구범위를 매우 한정하여 러시아(소련)의 (중앙이 아닌) 지방당국의 (한국이 아닌) 한인 혹은 한국공산주의 운동세력에 대한 정책과 한인들의 소련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범위를 매우 구체적인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문제의식과 논지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에서 코민테른의 조선공산당 건설에 끼친 영향을 언급함으로써 소련 내에서 전개된 한인공산주의 운동을 넘어 한반도에서 전개된 한국공산주의 운동까지 연구범위에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문제의식은 범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주제로 연구대상을 설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 즉 과연 식민지 시기 한국(조선)이란 국가행위의 주체가 없는 시점에서 러시아(소련)의 대한정책이란 성립이 가능한지, 혹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표문은 장(chap.)을 시기구분 방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말시기’와 ‘1920년대 한국공산주의 운동 시기’가 설정됨으로써 러시아 영토 내 한인정책의 변천으로 구분할 시기에 혼선을 주지않나 생각됩니다. 한말시기→ 러일전쟁 이후 시기, 한국공산주의운동 시기→한인공산주의 운동시기로 바꾸는 것은 어떨런지요.

발표문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독립운동(한국공산주의운동)에 집중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대한인정책의 전체상은 한인과 관련된 당·정·사회단체 운동 전체에

대한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그려진다고 봅니다. 당조직 분야에서는 러시아공산당(볼)과 코민테른의 노선에서 오는 차이가 극동에서는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정부기관 분야에서는 내전기와 소비에트화 시기의 정책적 차이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권업회나 한인(노동자)연합회에 대한 러시아(소련)정부의 정책적 속성이 무엇이었는지가 종합적으로 규명됨으로써 대한인정책의 전체상이 조명되지 않을까 합니다.

발표문은 러시아지역 한인공산주의 운동의 계보(내지 종파)를 세밀히 정리해 줌으로써 소련 정부의 대한인 공산주의세력에 대한 탄압 양상을 잘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망명자의 수기」와 같이 격동기를 겪은 한인지식인 이인섭이 글로써나마 시베리아지역의 러시아볼세비키들이 지녔던 '통역정치', '권위주의'의 폐혜를 고발한 데 힘입은 것으로 봅니다. 이로부터 가지쳐 나오는 의문은 소련정부가 한인숙청 내지 강제이주의 근거로 제기한 세세한 종파성 분석과 불순성 의심이 탄압의 정당성을 갖는 것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래 주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소련)의 대한인정책은 일관성이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인, 특히 한인 공산주의 운동세력의 대러시아 인식은 어떤 사랑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대학교재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러시아의 조선인식

홍웅호(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Ⅰ. 머리말

러시아와 소련의 대외정책에 있어 동아시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역사는 이미 19세기에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걸쳐 진행되었던 영국과의 그레이트 게임에서 실제로 입증된다.[1)]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부동항확보와 이를 위한 남하정책이었다. 대외팽창을 목적으로 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당시 제국주의적 팽창과 세계 경찰을 자임하고 있던 영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1853년 크림전쟁과 19세기 중후반 중앙아시아,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극동에서 영국은 남경조약을 통해 중국으로의 진출을, 러시아는 1860년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한 사건이 그 예이다. 러시아는 영국에 의해 유럽과 흑해, 그리고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이 막히자 극동에서 대외진출을 꾀했다.

이제 1860년 베이징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영역 국가로 편입된 러시아는 이후 한반도와 만주로의 팽창에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부동항 확보를 통한 태평양으로의 진출과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을 통한 제국주의적 침탈을 구상한 러시아는 만주와 중국, 그리고 한반도를 그들의 상품 판매 시장이자 유럽이 필요로 한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공급처로 인식했다. 육지를 통한 동아시아로의 팽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한 러시아는 서구 열강 및 일본과의 경쟁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반도와 만주에서 자신들의 이권 확보와 팽창을 추구했다.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은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제국주의 팽창을 추진했던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와 동해에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만난 결과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팽창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반면 일본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를 강점할 수 있게

1) Peter Hopkirk, *The Great Game – The Struggle for Empire in Central Asia*, New York, Kodan America Inc., 1992(피터 홉커크, 정영목 옮김, 『그레이트 게임』, 사계절출판사, 2008.).

되었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러시아에게 극동과 한반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다가왔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가지는 핵심적인 목적은 전세계의 사회주의 혁명화와 식민지민족해방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곳 중의 하나가 극동과 한반도였다. 중국은 영국과 일본에 의해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고, 한반도는 일본이 강점하여 식민지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동과 한반도는 제정러시아의 대외정책과 비교할 때,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대상으로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러시아와 소비에트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에 기초하여 러시아가 일제강점기 조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러시아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러시아 연방시기 대학교에서 한국사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각 시기별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에 대한 주요한 서술 내용과 그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 시기별 인식과 인식의 변화 등이다.

Ⅱ. 러시아의 동아시아 인식과 정책

일제강점기 러시아의 조선 인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인식과 정책을 먼저 조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게 있어 조선은 동아시아의 일부분이며, 조선에 대한 정책과 인식도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인식의 틀 안에서 형성되고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혁명 직후 소비에트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은 1919년 3월 2일 지노비예프를 의장으로 한 코민테른의 결성으로 표현된다. 「코민테른강령」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적 투쟁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코민테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임무는 식민지, 반식민지 및 종속국에서의 혁명투쟁임무”라고 천명하였다.[2] 1919년 3월 18-23일 개최된 러시아공산당 제8차 대회에서는 코민테른 결성과 그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3] 결국 제3세계, 특히 동아시아의 조선과 중국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세계

2)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 в докутентах. 1919-1932. (Москва, 1982), С.60.

3) Восьмой съезд РКП(б). Марет 1919 года. Протоколы. (Москва, 1959), с.393.

혁명에 대한 사고는 레닌의 여러 연설과 사회주의혁명 강령에서 드러나고 있다.[4]

레닌은 1905년에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과 세계혁명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는[5] 한편, 1908년 6월에도 세계 사회주의의 발걸음은 부르주아와의 결정적인 투쟁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6] 그와 동시에 레닌은 1917년 9월에 "사회주의는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한 나라 또는 몇몇 나라에서 우선 가능할 것이며, 부르주아 국가들과 일정 기간 공존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7] 그럼에도 그는 세계혁명 사상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10월혁명 직전인 1917년 10월 8일에도 세계혁명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이다.[8]

이처럼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세계혁명의 불가피성과 부르주아 국가들과의 공존이라는 어쩌면 상호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10월혁명 직후 소련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된다. 과연 어떤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들이 자본주의 상태에 남아 있는가, 그렇다면 소비에트혁명정부는 곧 발생할 혁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이후 사회주의 혁명 대열로 참여할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또한 적대적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부르주아와 사회주의 주체세력인 노동자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리하여 각각 독자적인 정책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제국주의 지배 하에 놓여 있는 식민지 국가들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9]

소비에트 국가의 외교정책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세계혁명의 지지와 둘째, 평화체제 구축이 그것이다.[10]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은 소비에트 지도부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이후 건설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평화공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두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소비에트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소비에트 인민위원회는 정권을 수립한 직후

4) А. Ю. Сидоров, Н. Е. Клейменова, Исто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1918-1939. (Мосва, 2006), сс.312-316.

5) Ленин, ПСС. т.11. с.245.

6) Ленин, ПСС. т.17. с.182.

7) Ленин, ПСС. т.30. с.133.

8) Ленин, ПСС. т.34. с.385.

9) Советск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1917-1945 гг. (Москва, 1992), с. 10.

10) Советск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 19.

인 1917년 11월 8일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평화에 대한 법령'을 공포했다.[11] 이 법령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무조건적인 종식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혁명을 통해 소비에트 체제를 구축한 볼셰비키들이 러시아에서 자신들이 세운 정부의 안위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전쟁에 지쳐있던 인민대중들의 열망에 부응한 조치이기도 했다. 실제로 소비에트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선에서 무조건 이탈을 단행하였고, 1918년에는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제정러시아 시대에 짜르 정권이 여러 국가들과 맺었던 각종 비밀조약을 공개하고, 무병합, 무배상 및 민족자결 원칙을 주장했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법령은 지극히 현실적인 조치였다. 소비에트정부가 혁명직후 즉각적인 종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미국, 일본 등 열강들은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러시아 영토로 진군해 들어왔다.[12] 내부에서는 백군들이 극동과 흑토지대에서 반혁명을 꾀하고, 열강들은 소비에트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상황에서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전쟁이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공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13]

한편, 마르크스의 세계혁명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레닌은 후진국인 러시아에서 혁명을 성공한 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영국, 독일 등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14]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0월혁명에 영향을 받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핀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등지의 몇몇 도시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일어났으나, 결과는 모두 실패했다.[15] 볼셰비키들에게 그들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며 함께 자본주의 국가들에 맞설 사회주의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바로 이

11) Документ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ССР. т.1. (Москва, 1957), сс.15-17. 평화공존의 문제는 "2월혁명 승리 후에 레닌이 직접 저술한 저작,「먼 곳에서의 편지(1917년 3월)에서 레닌이 제시한 것이었다. Дипломатия 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Под. реж. Андрей Громико, (Москва, 1980), с.36.

12) 일본군은 연해주에서 1922년까지, 사할린에서 1925년까지 주둔하였다. 14개국이 개입한 내전에서 영국 4만명, 프랑스와 그리스는 각각 2개 사단병력, 미국은 약 1만 명을 파병하고, 이탈리아 등은 그 밖의 국가들은 대체로 소규모의 상징적인 병력을 보내는데 그쳤다. 그러나 일본은 7만 명이 넘는 대병력을 파견하였다.

13) Ленин, ПСС. т.31. с.457.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우리가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고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밝힌 적이 있지만, 우리는 전쟁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할 수는 있지만, 평화롭게 살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가운데 하나가 승리할 것이다. 결국 소비에트 공화국이나 세계자본주의가 그 마지막 장례식을 지켜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전쟁 휴식기이다. 자본가들은 전쟁을 할 구실을 찾을 것이다."

14) Ленин, ПСС. т.35. сс.2-3.

15) Jan F. Triska & David D. Finley,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1968), p.4.

러한 현실 상황이 소비에트 정부가 자본주의국가들과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레닌은 1920년 러시아 공산당 제9차 당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분명하게 드러난 모든 자본주의 열강의 급박하고 절실한 실질적 이해가 러시아와의 교역의 발전, 조정, 확대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비에트공화국과 여타 모든 자본주의 세계간의 정상적인 무역관계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계속 진전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또한 1920년 12월 21일에 열린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제 8차 대회에서 ‘대외무역 허용에 대하여’라는 논제를 통해 가능한 빨리 서구와 협력하여 국민경제를 복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레닌의 이러한 논제와 더불어 볼셰비키 정권이 수립된 초기의 취약했던 지지기반과 위상을 확립하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신경제정책에 의한 평화공존 정책이 제기됐다. 그리고 제10차 당대회에서 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사회주의가 처음에는 한 나라, 혹은 몇몇 나라에서만 승리하게 될 것이나, 나중에 가서는 자본주의 국가들도 내부의 투쟁에 의해 스스로 붕괴될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은 체제가 다른 국가들 간에도 불가피하게 상호접촉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자본주의에 둘러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적으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계산해야만 한다”[16]고 말했다. 이렇듯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공존을 모색했다.

이제 소비에트정부의 동아시아에서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서유럽 국가에서 믿었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에트 정부의 세계혁명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오히려 아시아였다. 조선은 3·1운동으로, 중국은 5·4운동으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얻기 위해 투쟁했다. 이러한 투쟁은 소비에트의 세계혁명론과 연결될 수 있는 민족해방투쟁이었다.

소비에트정부는 혁명직후에 이미 제국주의에 억압받는 민중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앞에서 언급한 평화에 대한 법령을 통해 밝혔다. 이 법령에는 모든 예속된 민중들에게 일체의 외부 간섭 없이 억압 세력의 완전한 철군을 조건으로 하여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법령에서는 박해받는 민중들과 그들의 정부에게 병합과 배상이 없는 조속한 평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법령은 병합

16) Ленин, ПСС. т.33. с.440.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병합이라는 것은 합방이 언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상관없이, 또한 강제적으로 합방되고, 강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민족과 국가의 후진성, 선진성과 관계없이, 약소민족의 합방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하며 자발적인 희망과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약소민족 국가의 강대국에로의 모든 형태의 합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유럽에서든 극동에서든 상관없이 이 민족은 생존하고 있다.”[17]

레닌과 볼셰비키들은 “공산당은 식민지의 해방혁명운동과 함께 피압박민족의 운동일반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원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18] 원칙에 근거하여 1919년 3월 2일 코민테른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코민테른을 통한 동아시아정책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1920년 7월에 있은 제2차 코민테른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레닌은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를 통해 민족문제에 접근하는 3가지 주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역사적, 구체적 정세, 특히 경제정세를 정확하게 고려할 것과, 둘째, 피억압계급·근로자·피착취자의 이익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의미하는 전 국민의 이익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명백하게 구별할 것, 마지막으로, 금융자본과 제국주의 시대에 고유한 특질을 은폐하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허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권리가 불평등한 피억압·종속민족과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억압·착취민족을 명백하게 구별할 것을 강조했다.[19] 「민족·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는 조선을 비롯한 중국과 인도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포하고 있는 테제였다. 제1차 대전과 러시아 10월혁명 이후 3·1운동과 5·4운동을 비롯한 식민지·반식민지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출현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위기를 초래했고 아시아의 민족운동이 점차 세계의 혁명운동을 좌우하는 주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테제가 제출된 것이다. 이 테제에서는 세계의 민족을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구분함으로써 선진국에서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혁명운동과 후진국에서의 외국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해방운동이 제국주의 타도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서로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논리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산당은 후진국의 혁명적 해방운동을 원조하여야 하며, 또한 민족해방투쟁을 위해서는 부르주아적 민주주의파와도 일시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후진국의 인민대중은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급의식의 발전

17) 김 게르만, 「10월 혁명과 재소한인」,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19, (1998), p.240에서 재인용.

18)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 в докутентах. 1919-1932. (Москва, 1982), С.60.

19) 전명혁, 「1920년 코민테른 2차대회 시기 박진순의 민족, 식민지문제 인식」, 『한국사연구』 134호, (2006), p.196에서 재인용.

에 의해 공산주의와 결합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20]

그러나 코민테른의 활동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코민테른은 창설 당시 전세계 혁명 세력을 결집시키는 조직으로 선포되었으나, 소비에트 정부가 외무인민위원인 치체린이나 코민테른 의장 지노비예프를 통해 이 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국주의의 대외 정치 수행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서는 레닌의 테제에 따라,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주의 부르주아에 의해 지도되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이 지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민테른은 적지 않은 일련의 실수들을 범하였다. 객관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국제적인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 간의 협력과 연맹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코민테른의 핵심부를 구성하고 있던 러시아 공산당 지도부는 국제 사회주의 운동에서 주도적인 노선의 성취를 제1과제로 삼고,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아시아각국의 민족주의 운동과의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결국 코민테른은 식민지·반식민지에서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세계혁명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에트정부의 대외정책에 종속되었다.

Ⅲ. 러시아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 경향

일제 강점기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서술 경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러시아 역사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회귀로 인해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역사 연구 방법 및 역사 서술 경향에서 시장경제로의 개편과 남한 학계와의 교류 등으로 인해 이데올로기적 제한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서술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일제 강점기 조선은 주권국가가 아닌 일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의 국제정치나 대외정책적 측면이 아니라 주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조선의 민족해방운동과 노동운동 등이다.

---

20) 이에 따라 아시아 각지에 공산당이 결성되기 시작(1920년 인도네시아, 이란, 터키, 1921년 중국, 1924년 필리핀, 1925년 인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코민테른은 조선의 공산주의 조직 건설에 매진하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러시아 한국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1. Б.Г. Гафуров, Ю.В. Ванин, И.С. Казакевич, Г.Ф. Ким, М.Н. Пак, В.Д. тихомиров, Ф.И. Шабшина, В.И. Шипаев(ред.), История Кореи,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Ии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ом I, Ⅱ, Мосва, 1974. том I 470 с. том Ⅱ 480 с.
2. История Кореи :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под редакцией А.В. Торкунова. Учебники МГИМО, 2003. 430 с.
3. Торкунов А.В., Денисов В.И., Ли Вл.Ф.,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й , Москва,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2008. 544 с.
4. Курбанов С.О.,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 СПб.: Изд-во С.Петерб. ун-та, 2002. 626 с.
5. Курбанов С.О.,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Пб.: Изд-во С.Петерб. ун-та, 2009. 680 с.

각각의 교과서에서 보이는 일제 강점기 조선에 대한 서술의 서지학적 특징들을 살펴보자.

먼저, 가푸로프(Б.Г. Гафуров)가 책임 편집한 1974년판『한국사』의 경우, 1,2권 전체 950 쪽 중에서 일제 강점기에 해당하는 서술은 149쪽이다.[21] 이는 전체 서술 분량 중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17년 러시아혁명 이전 일본의 조선 병합과 의병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 10월 혁명 이후 1919년 인민들의 운동, 조선에서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의 확산, 특히 1920-1925년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 1925-1929년 조선공산당의 설립과 민족해방운동, 세계 경제 대공황 시기 조선, 공산당 주도하의 빨치산 운동의 발전, 조선독립운동의 새로운 단계에서 조국광복회의 설립,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조선, 식민지 조선에서의 문화 등이 그것이다.

위의 서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교과서의 주요한 서술 경향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역사 서술 경향을 반영하여 민족해방운동과 이를 주도한 정치세력들의 분석을 주로 하고 있다.

21) Б.Г. Гафуров, Ю.В. Ванин, И.С. Казакевич, Г.Ф. Ким, М.Н. Пак, В.Д. тихомиров, Ф.И. Шабшина, В.И. Шипаев (ред.), История Кореи,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Ии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ом I, Ⅱ, Мосва, 1974. том I, сс.419-428. том Ⅱ, сс.19-158.

둘째, 토르쿠노프(A.B. Торкунов)가 편집한 2003년판『한국사』의 경우, 430쪽의 서술 중 일제 강점기 조선에 대한 서술은 약 50쪽을 차지 전체 분량의 약 12%를 할애하고 있다.[22] 주요한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군국주의 체제에서의 조선, 병합 이후 조선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으로 1919년 3.1운동, 해외 한국 임시정부, 양차대전 사이 해방운동,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군국주의 하에서 조선의 변화 등이다.

이 교과서는 러시아가 사회주의 몰락 이후 서술된 것으로, 1974년판 교과서처럼 조선에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의 보급과 발전, 공산주의 운동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민족해방운동 서술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러시아 역사 서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셋째, 토르쿠노프가 편집한 2008년『한반도 : 전후사의 변화』의 경우, 전체 544쪽의 서술 내용 중 일제 강점기 조선에 대한 서술은 35쪽을 할애해 상대적으로 적은 6% 정도만 자치하고 있다.[23] 주요한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일제 식민지 통치 말기의 조선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조선의 종속 상태, 수탈체제로서의 토지 문제, 식민지 산업화, 항일민족애국투쟁 등이다.

원래 이 교과서는 1945년 이후 한반도 역사를 서술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1945년 일제 강점기 조선에 대한 서술은 도입부에 해당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토르쿠노프의 한국사 서술과 관련하여 앞의 2003년판 한국사와 비교할 때 서술상의 경향이 상당히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3년판의 경우 여전히 민족해방운동에 주목했다면, 2008년판의 경우 토지, 공업, 민족해방운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술이 확대되었다. 즉 이데올로기나 운동사적 측면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한 서술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러시아 역사 서술의 경향이 이전 사회주의 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정정도 자유로운 역사 연구가 가능함을 반증한다 할 수 있다.

넷째, 쿠르바노프(Курбанов С.О.)가 서술한 2002년판『한국사 강의』의 경우, 전체 626쪽의 서술 내용 중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에 대한 서술은 63쪽을 차지해 약 1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24] 2009년 개정판『한국사』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22) История Кореи :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под редакцией А.В. Торкунова. Учебники МГИМО, 2003. сс.279-324.

23) Торкунов А.В., Денисов В.И., Ли Вл.Ф.,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й, Москва, О ЛМА Медиа Групп, 2008. 13-47.

24) Курбанов С.О.,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 СПб.: Изд-во С.Петерб. ун-та, 2002. сс.353-415.

서술 비용은『한국사 강의』와 유사하다.[25] 전체적인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조선 식민화와 반일 독립운동의 새로운 단계, 일본의 조선 병합 후 10년과 1919년 3.1운동, 1920-1930년대 국내에서의 조선 독립 운동으로, 1920-30년대 상황과 국내에서 독립운동의 기본적인 방향, 공산당 운동과 인민대중들의 봉기,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1920-1930년대 해외에서 조선 독립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임시정부, 만주에서 한국인들의 무장투쟁, 김일성(Ким ирсен)의 혁명 활동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의 조선과 관련하여 이 시기 조선의 상황과 독립운동을 서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사 서술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분석해보면,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와 1991년 이후 러시아 시기의 주요한 특징들은 시대적 성격과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1991년 이전 출판되어 대학교 교재로 사용된 교과서는 불행히도 1974년『한국사』한 권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이 교과서 서술에서 보이는 경향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민족해방운동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조선 상황과 국내외 한국인들의 공산주의 건설 및 독립투쟁과 관련하여 자세히 서술한 것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특징인 코민테른을 통한 식민지 민족해방 투쟁의 고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당시 한국인들이 일제의 탄압과 민족말살정책에 저항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만주와 연해주, 중국, 멀리는 미국으로까지 가서 활동했다. 특히 러시아와 연해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든 경제적인 이주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결합한 형태의 조선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미 사회주의 체제가 된 러시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를 배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경향이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에도 그러한 경향은 발견된다. 쿠르바노프의 교과서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쿠르바노프의 경우 일제강점기 한국사 서술과 관련하여 민족독립운동과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의 만주와 러시아에서의 활동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국사 역사 교과서의 일제강점기 한국사에 대한 서술과 경향이 민족

25) Курбанов С.О.,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Пб.: Изд-во С.Петерб. ун-та, 2009. сс. 339-396.

독립운동에 주로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황 그 자체를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 시기 조선의 상황은 일제의 침탈과 억압이었으며, 한국인들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지난한 투쟁을 수행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역사 서술은 당연히 일본의 억압정책과 한국인들의 독립투쟁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물론 사회주의 경향의 민족해방투쟁에 러시아 역사학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서술한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소비에트 러시아의 연구 경향의 유산을 들 수 있다. 사실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는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인 혼란으로 인해 인문학 연구는 상당한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신진 연구자들은 인문학 보다는 법학이나 경제학, 경영학 등 실제 그들의 경제적 삶에 직결되는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일반인들도 학문에 대한 관심 보다는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노동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진 연구자들에 의한 새로운 연구방법과 연구경향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오히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연구를 주도하거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류 연구자들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 소비에트 시기의 역사인식과 연구 방법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지 이들 역사학자들도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여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방법론 시도와 기존 연구에 대한 재해석, 새로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 및 기존에 무시되었거나 등한시되었던 주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새로운 역사인식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제강점기 한국사 서술은 여전히 기존의 서술 경향을 답습하는 차원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러시아 한국사 교과서의 주요 서술 내용과 조선인식

러시아 한국사 교과서의 주요 서술 내용과 일제강점기 조선인식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텍스트로 삼았던 사료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조선과 관련한 사료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 현지의 연구 사료와 이에 대한 연구 성과들과, 다음으로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등의 연구 경향을 받아들여 역사교과서를 서술한 것이 그것이다.

러시아 현지의 연구 사료와 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너무나 다양하여 특별히 언급하기는 힘들다.[26] 러시아의 한국사 연구는 한국과 한국인들의 연구 성과들을 주요 사료로 반영하고 있다. 소비에트 시기의 경우 북한의 연구 성과를 주로 반영했으며, 소련 해체 이후에는 남한의 연구 성과도 상당히 반영한 편이다. 특히 미국 연구 성과는 서대숙, 스칼라피노, 이정식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 한국사 교과서의 주요 서술 내용과 일제강점기 조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일제 강점기 조선에 대한 주요 서술은 크게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다.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면서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과 그 결과 한국인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 3.1운동을 계기로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민족 독립 운동, 3.1운동 후 민족해방운동의 여러 형태들, 예를 들어 해외 임시 정부의 구성과 활동, 사회주의 운동 확산 및 공산당 결성을 통한 민족해방운동과 독립운동,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기의 한국인들의 삶과 일본의 군국주의적 지배의 강화, 일본이 자행한 조선의 전통문화 말살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 친일파의 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러시아의 한국사 교과서는 대체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한반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역사 서술을 시작하고 있다.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식민지화는 영토 침탈과 경제적 침탈로 표면화되었다. 일본의 다양한 경제침탈, 특히 토지에 대한 침탈은 전체 한국인들의 85%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였다.[27] 조선 총독부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조선 전체 역사에서 가장 독점적인 토지 소유자가 되었다. 즉 한반도 전체 토지의 40% 이상인 8백 8십만 정보를 차지했던 것이다. 또한 동양척식회사는 1930년에 들어와 11만 정보, 약 5만 석의 쌀을 수탈해갔다. 토지 소작료는 보통 수확의 50-70%를 차지했으며, 2백만명이 넘는 빈농들이 소작농으로 고통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는 지하자원, 철도, 항구, 전신 등등 조선의 주요 산업과 기간시설을 차지했다. 그 출발은 1909년 서울에 한국은행 설립이었으며, 이를 통해 재정적 침탈을 수행했다. 그 결과 1920년대 초 조선의 수출은 거의 90%가 일본 자본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한국사 교과서는 식민지시기 조선의 민족자본과 식민지 자본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일본의 식민지 침탈의 현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병합하기 이전인 1909년에 민족

26) 이와 관련하여, 임경석, 「러시아 학계의 한국 근현대사 연구동향」을 참고하기 바란다.

27) История Кореи :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под редакцией А. В. Торкунова. Учебники МГИМО, 2003. с.280.

자본은 32만 5천원이었던 반면, 일본 자본은 1백 2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조선을 병합한 이 후 그 격차는 확연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14년에는 31만 3천원 대 1백 7십만원으로, 1918년에는 29만 9천원 대 2백 46만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일본 자본이 조선 민족 자본의 거의 8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조선 경제 침탈은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를 보다 본격화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일본의 탄압과 침탈을 피해 러시아와 중국의 만주, 미국, 심지어 일본으로 까지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은 러시아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비율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러시아혁명 이전 러시아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출신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농민들이 80%, 노동자들이 5%, 인텔리겐치야(지식인)가 5%, 도시 소자본가가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하와이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주로 하층민으로, 일본인들에 비해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노동자로 고용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러시아의 한국사 교과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서술의 특징은 3.1운동을 대중적인 민족해방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3.1운동 이전 의병을 중심으로 한 초기의 독립운동이 존재했음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초기의 독립운동의 성격을 쿠르바노프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첫째는 문화 계몽운동, 둘째, 의병을 중심으로 한 무력 투쟁이 그것이다. 그는 의병 운동을 크게 3 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는 1894-1895년, 제2단계는 1905-1906년, 제3단계는 1907-1911년으로 설명하고 있다.[28] 무력투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안중근(Ан Чжунгын)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로 파악한 것은 이 사건이 러시아가 조차한 하얼빈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지만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발생하여 양국의 동아시아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파악한 듯하다.[29]

3.1운동에 대해서는 모든 한국사 교과서들이 지대한 관심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30]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교과서에서 3.1운동을 민족 독립운동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공통적으로 성격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8) С.О.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Пб. 2009. сс.340-342.

29) С.О.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Пб. 2009. сс.340, 347.

30) Б.Г. Гафуров, Ю.В. Ванин, И.С. Казакевич, Г.Ф. Ким, М.Н. Пак, В.Д. тихомиров, Ф.И. Шабшина, В.И. Шипаев (ред.), История Кореи,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Иституте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Ⅱ, Мосва, 1974. сс.34-58; История Кореи :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под редакцией А.В. Торкунова. Учебники МГИМО, 2003. сс.284-289; Курбанов С.О.,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 СПб.: Изд-во С.Петерб. ун-та, 2002. сс.359-369; С.О.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Пб. 2009. сс.3444-353.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3.1운동의 지역별, 날짜별로 운동의 진행 경과에 대해 세밀히 다루고 있음은 러시아에서도 3.1운동을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대중 운동 차원을 넘어서 동아시아에서의 대중운동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소비에트시기의 한국사 교과서와 소련 해체 이후 교과서에서 3.1운동에 대한 서술 형식과 의미 부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74년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3.1운동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반도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을 포함한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대중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반면, 소련 해체 이후 서술된 한국사 교과서들의 경우, 3.1운동의 원인을 러시아혁명의 영향에서 찾기 보다는 1919년 이전 일본의 조선 침탈과 한국인들의 어려운 삶에서 그 원인을 찾고, 이에 근거하여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3.1운동을 외적인 영향 보다는 내부의 상황과 한국인들의 주체적 의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1운동의 결과 조선에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대중적이며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민족해방운동이 시작되었음은 이들 교과서의 공통된 평가이다. 따라서 이 교과서들의 서술은 자연스럽게 한편으로는 국내의 대중적 운동의 확산, 특히 민족해방을 위한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의 단체들, 여기에서는 대중적인 측면으로서 임시정부와 혁명적인 조직으로서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혁명정당들의 출현과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서술에서 코민테른을 통한 러시아의 물질적 지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사회당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이동휘(Ли Донхви)가 상해 임시정부와 결합하여 초대 국무총리가 된 사실과, 그가 러시아의 연해주, 만주의 간도, 상해에서의 활동 등에 서술하면서, 이 과정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코민테른을 통해 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동휘와 한형권(Хан Хен Гон)이 1920년 레닌으로부터 총 2백만 루블의 독립자금을 지원 받기로 했으며, 1차로 조선 독립자금 40만 루블을 지원받고, 1922년에 2차로 20만 루블을 추가로 지원받았다.[31]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코민테른을 통한 소비에트러시아의 조선 민족해방운동 지원의 성격이다.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에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소련

31) 이 사실은 러시아 문서 보관소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편의 연구 성과들이 있다. 이 독립자금은 한편으로는 임시정부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운동 단체의 내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해체 후에도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소련의 사회주의 확산과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지원이라는 대외정책에 대해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역사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러시아의 애국주의적 관점에서 이를 새로이 재해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민족의 창발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운동이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났다. 쇄국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조선의 문화는 다양한 단계와 내적 전환을 경험했지만, 1920년대 전반기 경향은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기반과 새로운 내용들이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이를 조선의 전통문화와 결합한 현상들이 문학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 문학이자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해방 사상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서해 '탈출기(1925)', 조명희의 '낙동강(1927)', 이기영의 '고향(1934)', 한설야의 '황혼' 등이다. 이와 같은 서술과 인식은 식민지 조선의 전통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소비에트 러시아의 영향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의 방향과 해외에서의 민족해방 투쟁에 대해 살펴보자.

1920-1930년대 조선 국내에서의 독립을 위한 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은 민족주의적인 신문 창간과 민족 고등 교육 실시, 전통 민족 종교의 독립활동, 그리고 학생운동 등 민족 계몽운동과 교육운동, 대중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측면의 분석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3.1 운동 이후 그 여파가 식민지 조선사회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무장 투쟁 형태의 민족해방투쟁은 러시아의 연해주와 만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지역에서 무장 독립운동이 전개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첫째, 한국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대거 이주했기 때문에 이들을 기반으로 이들과 함께 무장 투쟁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둘째,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과 군대의 검거를 피해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당시 만주는 중국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일정정도 자치지역이었기에 더욱더 가능했다.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무장 독립 투쟁 단체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고려혁명군 등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한 인물은 대한 독립군 지도자 홍범도(Хон Бомдо)였다. 러시아 역사학자들이 여타 무장 독립 운동 단체에 비해 홍범도를 주목한 이유는 명확치 않다. 아마도 홍범도의 무장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후 그가 카자

흐스탄으로 이주해 살았던 것이 한 원인이 아닐까 싶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민족해방 및 독립투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김일성의 혁명 활동에 주목한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김일성이 조선 독립 이후 소련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한 것이 이유일 것이며, 이들 교과서들이 북한에서 출판한 저작들을 참고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역사를 서술했던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에 출판된 교과서는 김일성이 1920-1930년대 만주에서 반일혁명투쟁 활동을 수행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초 이후 러시아 역사학계에서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는데, 즉 김일성이 반일저항투쟁에 참여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32] 그렇다 하더라도 김일성 개인의 이력과 이후 혁명 투쟁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김일성이 출생 시에 이름은 김성주였고,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아주 나중에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거나, 그의 아버지 김형직이 1926년 6월 5일 사망한 이후 혁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 등이다.[33] 또한 김일성의 활동을 단순한 독립 운동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 김일성에게 혁명이란 단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조국의 해방만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 농민, 노동 지식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1940년 12월 말 김일성은 동지들과 함께 소비에트 러시아 역내로 이동해 왔고, 거기에서 5년 동안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까지 조선은 일본 식민지 지배 전체 시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일본은 1937년 7월 7일 중국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이 시기 일본 경제는 서유럽국가들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다. 일본은 1938년부터 전시동원체제에 돌입했다.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물자와 노동력 징집을 의미했다. 그 결과 이 시기 식민지 조선에서는 경제활동과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말살정책과 강제동원으로 실질적인 고통을 받았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 학계는 이 시기 조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중일전쟁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조선의 상황과 둘째,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 즉 공산주의 사회주의, 평등권과 특히 국가의 역할 등의 사상적 측면을 새로운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32) С.О.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Пб. 2009. с.379.

33) Там же.

조선이 남북으로 갈라진 결정적인 원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조선 영내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왜 북한에서 강력한 사회주의 정부가 건설되었으며, 미국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만 정부 수립을 허용했는지, 그리고 해방 직후 남한보다 북한 지역에서 독립 상태가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시기 역사에 대해 러시아 학계에서는 충분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34]

이 시기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 학계에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강제동원의 한 형태로서의 '정신대(чонсинвэ)' 문제와 친일파 문제이다. 정신대 문제는 이데올로기나 체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944년 8월 23일부터 법령에 따라 정신대가 운영되었다. 정신대는 공식적으로 12세에서 40세의 조선 소녀와 여성들을 공장 노동자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군대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낮에는 군에서 필요한 노동을 수행했으나 밤에는 '성의 노리개'가 되었다. 이들 여성들은 평균 하루에 29명의 병사들을 상대했으며,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심지어 100여명의 병사들에게 짓밟히기도 했다. 조선에서 징집당한 이들 정신대 여성들의 숫자는 대략 1십 4만 명에서 1십 8만명에 달했다.[35]

친일파 문제는 일제강점기 조선 역사의 민족적 비극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친일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묘사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쿠르바노프는 윤치호(Юн Чхихо)를 들고 있다.[36] 그는 1938년까지 조선 독립운동의 주요한 지도자였으나 1941년에 '조선임전보국단(Чосон имчжон погуктан)'의 고문을 맡는 등 친일분자가 되었다. 조선이 독립한 후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37] 즉 국가와 사회의 명사들이나 정치가들의 행적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의 탄압 정책과 그 결과 조선 국내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도 연민의 감정을 담아 서술하고 있다.

34) С.О.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Пб. 2009. с.384.

35) С.О.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Пб. 2009. с.389.

36) Там же.

37) 쿠르바노프는 윤치호가 자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은 1945년 12월 6일 개성 고려정에서 뇌일혈로 사망했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러시아의 대학교재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러시아의 조선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은 자주적 외교권을 행사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와 조선은 공식적인 외교채널이 아닌 비공식적인 인적·물적·문화적 교류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특히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강압적인 침탈과 한국인에 대한 지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나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해갔다.

한편, 러시아는 1917년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갔다. 세계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세계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 그들은 사회주의 러시아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를 전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로 고통당하는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민족해방투쟁은 그들의 사회주의와 밀접하게 결합될 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주의 러시아와 조선의 인민들은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었다.

러시아의 대학교재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에 대한 인식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도, 비록 러시아 대학교재들이 시기적으로나 저자들의 관점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학교재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치·경제적 침탈과 구체적인 수탈 내용, 이에 대한 조선에서의 저항, 예를 들어 3.1운동, 국내와 해외에서의 민족해방운동과 독립투쟁 등을 시기적으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코민테른의 민족해방운동 지원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사실 코민테른은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해방운동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은 분명했다. 그러나 코민테른의 조선민족해방운동 지원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선의 자주적인 민족해방운동과 독립투쟁을 '구속'하는 측면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조선의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김일성의 활동에 특히 많은 관심을 드러내면서 교재 서술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시기에 서술된 한국사 교재와 1990년대 이후 교재에서는 일정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말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와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인 '정신대'와 '친일파' 문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사실이다. 최근 국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 성과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양국 역사학계의 교류를 통해서 교재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거대담론 논의가 주는 중압감과 미묘한 역사적 이해차이를 넘어서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러시아의 대학교재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러시아의 조선인식」에 대한 토론문

박상철(전남대 사학과)

발표자는 러시아의 대학교재 5종에 근거하여 러시아 학계가 “일제강점기”의 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발표자가 선정한 5종의 대학교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듯. 발표자는 우선 5종의 대학 교재들을 저술한 저자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한 듯. 왜냐 하면 발표자는 5종의 대학교재가 민족해방 투쟁에 많은 지면을 할당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연구 경향의 유산”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가 그런 유산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재 저자들의 학맥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여러 명이 집필한 경우에는 식민지 시대를 서술한 필자의 연령대, 출신대학 및 학문적 스승, 활동 영역 등을 설명해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2. 발표자는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민지 시기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궁금. 발표자는 앞의 세 종을 설명하면서 마치 그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서술. 하지만 나머지 두 종에 대해서는 비중에 변화가 없다고 서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

3.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가 일제강점기 한국사에서 특히 민족독립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로서 발표자는 두 가지를 제시. 하나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황 그 자체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연구 경향의 유산”을 지적하고 있음.

만약 첫 번째 원인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 만약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황에서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다른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

발표자는 러시아의 한국사 교재가 한국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 미국의 연구 성과로는 특히 “서대숙, 스칼리피노, 이정식의 연구 성과”를 많이 참조하고 있다고 지적. 이런 점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의 필자들이 이용, 교류하는 한국 학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듯. 혹시 러시아 측과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는 한국의 학자들은 민족해방 운동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 제 생각에는, 민족해방운동 연구자의 경우 사료 문제로 사회주의 진영의 연구자와 교류가 활발한 반면에, 사회사, 생활사, 경제사 등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은 국내 자료에 보다 충실하기 때문에 교류의 필요성이 적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도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가 민족독립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궁금.

4. 러시아의 한국사 대학교재들이 민족독립운동 중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비중으로 다루는지, 그리고 시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 이 문제는 ‘북조선’과 ‘남한’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듯.

The Images of Russians in Korean Colonial Literature: the 1930s

Vladimir Tikhonov/Pak Noja (Oslo University)

1. Introduction: Russia/USSR – good, bad or culturally cognate?

As is well known in culture studies, there is hardly anything stronger charged with diverse, often self-contradictory meanings in our social cosmos than space. Space – if we are to treat it as a socio-cultural reality which is produced, reproduced, defined and redefined in sync with the general discursive developments in the society as a whole[1] - is neither "neutral" in a culture-political sense nor ever described simply factually or "objectively". Of course, the descriptions of the spatial Others may be well based on "hard facts" – but they invariably overlap with the images from the given society's diverse "mental maps", partly inherited from the pre-existent epochs, and partly shaped by the contemporaneous political or cultural configurations.[2] And just in the same way as the craft of map-making, or mapping is essential for the socio-cultural production of nations and national identities, the imaginary geographies of "outer" space often play an important, constituting role in defining the position and status of a given society, as a collective subject of perception, vis-à-vis its diverse "significant Others" across the border. Could it be possible for the eighteenth- or nineteenth-century Western Europeans of the Age of Enlightenment, or the following Age of

[1] On the "social production of space", see Henri Lefebvre's (1901-1991) classical (1991 [1974]) *The Production of Space*, D. Nicholson-Smith trans., (Oxford: Basil Blackwell).

[2] Fabienne Michelet (2006), *Creation, Migration and Conquest: Imaginary Geography and Sense of Space in Old English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37.

Progress, to posit themselves as the centre of world's (supposedly "only authentic") "civilization", if not for the existence of Eastern Europe, placed conveniently "between civilization and barbarity", or "mystic and barbarous Orient", Europe's main "constitutive Other" in the common worldview of the imperialist era?[3] For colonial Korea (1910-1945), whose educated strata were keenly interested in the world outside of the Japanese imperial border – partly due to the easily understandable hope that some new constellation of international events would reshape the world in the way conducive to ending or assuaging their colonial predicament as such – spatial Others were too crucially important tools of identity construction. What was, then, Russia's place in the world as seen from colonized Korea?

Although hardly of any primary significance for post-Cold War South Korea, Russia/Soviet Union used to be an important point of reference for the colonial Korean intellectuals. In addition to being a mighty power bordering on the Korean Peninsula, Russia had a pre-colonial record of interfering in the Korean politics, while Soviet Union was seen, for bad or good, as a civilizational alternative of sorts for the entire capitalist world, Korea included. So, it was hardly surprising that some colonial publication even posed the dilemma of Korea's eventual future choice of the developmental path in terms of "America vs. Soviet Union", and analysed the political set-up of the colonial civil society in terms of "pro-American party" vs. "pro-Russian party".[4] In a way, such view prophetically anticipated the tragic post-1945 future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

[3] Larry Wolff (1994), *Inventing Eastern Europe: The Map of Civilization on the Mind of the Enlightenmen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49.

[4] Ch'angnang'gaek (1933), "Chosŏn hyŏnjae ch'inmip'a, ch'illop'a seryŏkkwan: kyŏngjejŏk, munhwajŏk, sasangjŏk ŭro" (The estimation of the strength of the pro-American and pro-Russian fractions in Korea now: economically, culturally, ideologically), - *Samch'ŏlli* 5/9: 22-25.

The Soviet issue was, expectedly , a very divisive one politically. A staunchly pro-Soviet attitude was *de rigueur* for any Communist, or even a Socialist intellectual vaguely sympathetic to the Communist cause. It may be said that a measure of approval of at least some aspects of Russian Revolution functioned as an ideological shibboleth of sorts: it was demanded from anybody claiming to be progressive. For example, a Protestant writer, Yu Kŭn, writing for a YMCA publication, depicted Bolsheviks as having resorted to extreme violence "inevitably, since there were no more grounds to believe in the efficacy of the social reforms".[5] Thus, even non-Communist progressives critical of the revolutionary violence in Russia, were trying hard to find also a positive side in the "Russian events" .

For the real, *bona fide* Communists the requirement of the "loyalty to the Soviet experience" was much stricter. For this group, any criticism of October Revolution and USSR was "reactionary" by definition. A Korean Communist, Yi Kang, writing for a Comintern publication, ascertained the "reactionary turn" in the views of Ch'oe Rin (1878-1958), a Korean nationalist religious leader, by quoting him as saying that he "saw many jobless people and beggars while travelling in the USSR"[6] For a Communist, it was possible to write in a sceptical tone about "arrogant military politician Trotsky", his "aristocratic airs" and overzealous speech and behaviour,[7] since Red Army's great founder was already excommunicated; the attitudes towards USSR's acting leaders were, however, to be much more reverent. Even these Communist intellectuals who privately voiced doubts about the forced deportation of the Soviet Koreans in 1937, or the Soviet-German Pact of 1939, like the

[5] Yu Kŭn (1922), "Kongsanjuŭi ŭi sajosa" (The History of the Communist Thought), - *Ch'ŏngnyŏn*, 10: 23.

[6] Yi Kang (2006 [1933]), "O national-reformizme v Koree" (On National Reformism in Korea), - *Materialy po natsional'no-kolonial'nym problemam* 1. Reprinted in Yu.Vanin (ed), *Kolonial'naya Koreya. Iz publikatsiy v SSSR 1920-1930-kh gg.* (Colonial Korea. From the Soviet Publications of the 1920s-1930s) (Tula: Grif), pp. 146-180.

[7] Im Wŏn'gŭn (1932), "Nae gap on Rosŏa ŭi T'ŭroch'ŭk'I" (Russia's Trotsky, as I saw him), - *Samch'ŏlli* 4/7: 7.

brilliant literary scholar Kim T'aejun (1905-1949), never aired these doubts publicly. At the same time, a denunciation of the "Comintern and Soviet red imperialism" was a required part of the "thought conversion" ritual for these leftists who decided to join the Japanese Imperial "mainstream" in the late 1930s or early 1940s.

It is interesting, however, that this rigid "pro-Soviet - anti-Soviet dichotomy" was, to a degree, being overcome in the Korean novel – and, generally, Korean literature - of the 1930s. It is as true for the original Korean novels dealing with Russia and Russians, as for many Russian novels translated into Korean and published in this period. In both cases, Russian personages there were often able to avoid politization. They were represented in neither explicitly pro-Soviet nor necessarily anti-Soviet way. At the same time, they stood somewhere between the "West" as essential locus of modern civilization and Korea – a faraway place on the margins of the modern world , often painted by colonial authors themselves as belonging rather to the realm of "nature", "the local", "the traditional". To begin with the translations, a typical example of such a representation of Russians is the fragments from Nikolai Baikov's (1872-1958) *V debryakh Manchurii* (*In the Thickets of Manchuria,* 1934)[8] serialized in the monthly *Chogwang* (December 1942 – February 1943) by his close Korean friend, Paek Sŏk (1912-1995) under a slightly different title, *Millim Yujŏng* (*The feelings of the Thickets*). The Russian protagonists there, the saw mill manager Gravinsky and his wife Evgeniya Stepanovna, are warm-hearted enthusiasts of the forestry and devoted nature lovers pictured against the backdrop of Manchuria's primitive forests. However, they also represent the forces of "civilization and order" in their confrontation with the "wild" Chinese gangster boss, Wang Bading, who in the end avenges Evgeniya Stepanovna's refusal of his untamed passion

[8] The English translation was published two years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original: *Big Game Hunting in Manchuria* (London: Hutchinson, 1936).

for her by kidnapping her sweet child Yurochka.[9] Russians in this story are romantic forest-dwellers – but certainly not the wildest among various forest-dwellers of Manchuria.

As it was also the case with the introduction of Russian literature to the contemporaneous West, the bulk of the translations from Russian in colonial Korea consisted of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classics seen as aesthetically superior and (in most cases) politically neutral. According to Kim Pyŏngch'ŏl's calculations, for the period of 1920-1929 colonial periodicals carried 69 translations of Russian prose, the most translated authors being Tolstoy (20 translations), Chekhov (13 translations) and Turgenev (13 translations, including the rendering of *Nakanune* [*On the Eve*, 1860] by renown novelist Yi T'aejun).[10] However – just as in contemporaneous Japan[11] – one of twentieth-century Russian poets who evidently enjoyed considerable recognition in 1920s-1930s Korea, was the archetypical "peasant poet", Sergei Yesenin (1895-1925). Yesenin, a widely popular and often controversial lyrical poet of peasant origins and upbringing, whose support for the October Revolution arguably indicated that this upheaval combined the features of a proletarian revolt and peasant uprising against the inimical, exploitive city,[12] was posthumously presented to the Korean reader by Ham Taehun (1907-1949), a Russian-majoring Tokyo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9] See Kim Haktong, ed. (1988), *Paek Sŏk Chŏnjip* (Complete Works of Paek Sŏk) (Seoul: Saemunsa), pp. 168-202.

[10] Yi T'aejun's translation, entitled *Kŭ chŏn nal pam*, was published in journal *Haksaeng*, 1:5, August 1929. See: Kim Pyŏngch'ŏl (1980), Han'guk kŭndae Sŏyang munhak iipsa yŏn'gu (The Study of the History of Transplantation of the Modern Western Literature to Korea) (Seoul: Ŭryu munhwasa), pp. 707-708.

[11] The poetical grouping of "imagists" to which Yesenin belonged, was studied, among others, by Waseda University's Katagami Noburu (1884-1928), a famed expert in Russian and, generally, European, literature. See his: *Saikin Rosiya bungaku no igi* (The Meaning of the Recent Russian Literature) (Tokyo: Sekai Shichō Kenkyūkai, 1922). Yesenin was also popular among China's progressive intellectuals of the 1920s and 1930s – typically, highly regarded by Lu Xun (1881-1936). See: Leo Ou-fan Lee (1976), "Literature on the Eve of Revolution: Reflections on Lu Xun's Leftist Years, 1927-1936", - *Modern China*, 2:3: 277-326.

[12] See, for example, Wada Haruki's argumentation (1978): *Nōmin kakumei no sekai: Yesenin to Mafuno* (The World of the Peasant Revolution: Yesenin and Makhno) (Tokyo: Tokyo Daigaku Shuppankai).

graduate, novelist and a well-known translator of Russian classics. A left-leaning author in the late 1920s – early 1930s, Ham, however, characterised Yesenin as a lyrical, rather than revolutionary, poet. Yesenin, as Ham saw him, was a nature-loving bard of the countryside, whose works were just as full of "deep love for his motherland's fields and forests" and patriotic indignation about rural poverty as they were permeated by all-penetrating sorrow (*aesu*).[13] "Sorrowfulness" was not exactly the quality normally ascribed to "dynamic", "active", "masculine" West in the age of imperialism and Orientalism: it was rather a feature typically attributed to "passive" and "feminine" East by the Orientalist gaze. Famously – or rather, notoriously, - it was the "essentially Korean" trait Japan's great folk art (*mingei*) theoretician, Yanagi Muneyoshi (1889-1961), built his exquisitely Orientalist theory of "Korea's beauty of sadness" on.[14] Thus, describing Russia's representative contemporaneous poet as a "bard of countryside sorrow" had necessarily an effect of narrowing the discursive distance between Yesenin's beloved homeland and the miseries of colonized Korea, of putting Russia somewhere "between" the quintessentially "civilized" and affluent West and more "primitive", "natural" conditions of "backward" East on the mental map of the world. Vis-à-vis Russia, this "piece of East in the West", the Orientalizing colonialist gaze dominating the representations of colonized Korea by its masters, could be re-negotiated and somehow nuanced.

[13] Ham Taehun (1929), "Chŏnwŏn siin Yesssenin ron – saugi rŭl aptugo" (On a Countryside Poet, Yesenin: On the Eve of the Fourth Anniversary of his Death), - *Chosŏn Ilbo*, 7-11 December. Yesenin's well-known utopic vision of a new paradise for peasants, poem *Inoniya* (1918) ,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Chungoe Ilbo* on 11 November, 1927. Another lover of Yesenin among the colonial poets was O Changhwan (1918-1951), later a prominent early North Korean poet. He published a collection of Yesenin's translated poems one year after Korea's liberation, in 1946: *Yesenin sijip* (Yesenin Poetry Collection) (Seoul: Tonghyangsa). See an analysis of similarities in the motifs and symbols of Yesenin's and O Changhwan's poetry in Mun Sŏgu (2008), "Yesenin kwa O Changhwan: si e nat'anan kohyang ŭi mot'ibŭ" (Yesenin and O Changhwan: The Motif of Birthplace in their Poems), - *Segye Munhak Pigyo Yŏn'gu*, 22: 235-262.

[14] Yanagi Muneyoshi (1984), *Chosen o omō* (Tokyo: Chikuma Shōbō).

In this presentation, however, I will mostly deal with the representation of Russia and Russians in the original works of colonial fiction rather than colonial translations from Russian. I will primarily focus on the works by a female writer of Communist background, Paek Sinae (1908-1939), whose autobiographical novel and travelogue based on her thwarted attempt to illegally enter the Soviet Maritime Province, demonstrate both a romantic infatuation with "tough, but noble" Russians and frustration at the rigidities of the Soviet statehood. Another object of my analysis is Yi Hyosŏk (1907-1942) and his belletristic writings of late 1930s-early 1940s on Harbin-based Russian emigrants. Cultured but impecunious, essentially "western" and at the same time reduced to the status of helpless exiles in the "eastern" Japanese Imperial territory, they symbolized both the inherent tragedy of the human life and the ambiguities of what Yi understood to be the new, coming "world order" in Asia. The officially negative attitude to the USSR notwithstanding, the Russians were the only "Western"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the part of the civilizational West thought to be the closest and most available for the Korean colonial intellectuals.

2. Russia/USSR – remote and close, foreign and alluring

Paek Sinae (1908-1939), together with somewhat better known Kang Kyŏngae (1906-1944), is recognized as one of colonial Korea's foremost leftist female writers. In contrast with Kang, a poor tenant's daughter whose early experiences were largely defined by economical and social misery, Paek, a native of Yŏngch'ŏn County (North Kyŏngsang Province) grew as a daughter of a rich merchant-turned-textile factory owner, whose prosperity even allowed him to take a Japanese concubine, thus challenging the ethno-national demarcation lines of the colonial society. Educated at the provincial pedagogical college – again, by contrast with Kang, whose academic career was thwarted already on the high school stage (she participated

in a school strike and was expelled) – Paek returned to her native country in 1924 as a certified high school teacher, a coveted job in the colonial Korean countryside. Influenced, among others, by her elder brother Paek Kiho, a Protestant youth activist-turned-Communist who was arrested in June 1926 on the grounds of his Party membership,[15] she became an activist in the leftist women movement. The organization she was active in, Korean Women's League (*Chosŏn Yŏsŏng Tonguhoe* , organized on May 10, 1924), was deemed "subversive" enough by her school authorities to have the young teacher fired by January 1926.[16]

Undaunted, she moved to the colonial capital of Kyŏngsŏng (Seoul) and continued her "subversive activities" there before suddenly disappearing from sight in the beginning of 1927. It became later known that she attempted to illegally enter Vladivostok (Soviet Maritime Province) – according to her own version of the events, by hiding herself in the toilet of a Soviet passenger ship which called into the northern Korean port of Unggi . Then – if her later memoirs, *Na ŭi Siberia Pangnanggi* (*The Account of my Wanderings in Siberia*, - *Kungmin Sinbo*, 23-30 April 1939), are to be believed – she was apprehended by the local OGPU (political police), detained for a month for background check and interrogations, and then deported back to colonial Korea through the thick forest-covered Soviet-Korean border, crossing this, rather wild, area on foot being the most physically demanding part of the whole adventure.[17] Another version – cautiously supported by some later researchers - was that her

[15] His brief biography is available here: Kang Man'gil & Sŏng Taegyŏng eds. (1996), *Han'guk sahoejuŭi undong inmyŏng sajŏn* (The Dictionary of the Korean Socialist Movement Personalities) (Seoul: Ch'angjak kwa pip'yŏngsa), p. 226.

[16] Yi Chunggi, "Paek Sinae, kŭ miro rŭl ttarakada" (Paek Sinae – following this labyrinth),- Yi Chunggi ed. (2009) *Paek Sinae Chŏnjip* (The complete works of Paek Sinae) (Seoul: Hyŏndae Munhak), pp. 469-487.

[17] Yi Chunggi ed. (2009) *Paek Sinae Chŏnjip* (The complete works of Paek Sinae) (Seoul: Hyŏndae Munhak), pp. 457-468.

trip to Russia could have been somehow connected to either her or brother's radical activities, in which case the story of "detention and deportation" appears to be a fruit of literary fantasy, possibly intended also for the eyes of the colonial police. It appears that the colonial police suspected exactly this, since on her return to the Korean side of the border Paek was cruelly tortured under interrogation. The torture left her with broken health, and permanently unable to give birth.[18] Her enthusiasm for the Russian Revolution and radical cause was, however, undiminished: she was reported to make a public speech at a commemorative meeting for Russian Revolution's tenth anniversary, organized by the (Communist-led) Youth League (*Ch'ŏngnyŏn Tongmaeng*) branch in her native Yŏngch'ŏng, on 7 November the same fateful year.[19]

While Paek paid a tremendous personal price for her Russian adventure, it also eventually became a springboard of sorts for her literary career. The novel *Kkŏraei* (*The Koreans*[20] - Monthly *Sinyŏsŏng* January-February 1934), based on what she claimed was her 1927 Vladivostok experience, was her literary breakthrough, followed then by a formidable array of novels (on average, three-four publications annually) until the author's premature death in 1939. By 1934, Paek was no longer active in any radical movement, but did retain what may be called a "radical worldview": much of subject-matter in her novels was derived from the realities of rural impoverishment, injustice and class conflict, many novels dealing additionally with gender issues in a subversive, anti-patriarchal way. In a word, Paek's authorship is often treated as "poverty literature" – definitely distinctive from the contemporaneous proletarian literature currents, but also comparable with them in a range of

[18] Yi Chunggi, "Paek Sinae, kŭ miro rŭl ttarakada", p. 479.

[19] "Yŏngch'ŏn Ch'ŏngnyŏn Tongmaeng Rŏ hyŏngmyŏng kinyŏm" (Commemoration of the Russian revolution by Yŏngch'ŏn Youth League), - *Chungoe Ilbo*, 7 November, 1927.

[20] Based on the Russian pronunciation of the word for "Koreans" – *koreitsy*.

thematic and stylistic aspects.[21] Thus, the ways of representing Russia in *Kkŏraei* hardly could be uninfluenced, at least to a degree, by the admiration of the "Soviet experiment" common for the whole "progressive" spectrum in the colonial socio-political life.

Still, in the novel's plot Soviet Russia's role is far from that of an internationalist ally of Korea' suffering masses. The novel focuses on the experiences of the illegal Korean immigrant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the USSR. Soviet Russia figures there as, first and foremost, an enforcer of the nation state-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this order is visibly detrimental to the impoverished Korean peasants vainly trying to obtain a plot of land and freer life in what they sought was the "state of all the world's poor". The "proletarian state" of their hopes, however, suspected them of being "Japanese spies", detained them in a rundown, shabby, overcrowded facility without a trace of modern amenities, and then summarily expelled all of them – the walk towards Korean border being so physically demanding, that a weakened elder, the grandfather of the main female protagonist, "Suni", died there of exhaustion, cold and despair. What is even worse is that some of the border guards enforcing this decidedly "un-proletarian" immigration regime are recruited from among the Russian Koreans – the compatriots of the impoverished "illegal immigrants" seeking asylum in the "proletarian homeland". The regime of the nation state-enforced border control tears into pieces not only the hopes of finding a happier, "proletarian" country somewhere, but also the most natural feelings of ethnic solidarity. The protagonists came to nickname the Russified Koreans serving as the Soviet border guards "ŏlmauja" ("half-Russians" in Hamgyŏngdo dialect), feeling even more estranged from them than from their "purely" Russian comrades.

[21] Pyŏn Sinwŏn (1994), "Paek Sinae Sosŏl Yŏn'gu" (The Study of Paek Sinae Novels), - *Yŏnse ŏmunhak* 26: 133-167.

"Russia" of the novel *Kkŏraei* , however, encompasses a broader range of discursive points of reference than simply a "normal" nation state, with its "normal" repressiveness against the impoverished outsiders. In its "primitive backwardness" it looks "exotic" even to impecunious Hamgyŏngdo peasants – their detention facility had no toilets, while it is understandable from the context that the detainees were accustomed to using toilets at home.[22] The same feature – absence of toilets – was noticed by Paek Sinae in her *Na ŭi Siberia Pangnanggi* as well.[23] Then, in all its "backwardness" and "repressiveness", Russia demonstrated also a sort of "noble savagery" often associated in the nineteenth- century European literature with the "mystical" East, both "terrifying" and simultaneously "spiritually lofty". An ethnic Russian soldier is described as first annoying and frightening "Suni" with his unwanted sexual attention (which "Suni" firmly rejected), but then showing his "noble heart" by giving "Suni" some badly needed pieces of warm clothes.[24] While it was the heartless system those soldiers had to serve that was at least partly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the grandfather of "Suni", the image of a Russian soldier standing nearby grandfather's dead body in a silent prayer[25] was to give an impression of a "noble heart" under the uniform. Interestingly enough, Paek's *Na ŭi Siberia Pangnanggi* also contains some romantically coloured images of a Russian border guard (whose bugs-infested head greatly frightened the author in the beginning!), who gave the author a ride on his horseback on the torturous way back to the Korean border, and went to great length to ensure that she arrived safely to the nearest Korean farmhous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26] Especially

[22] Yi Chunggi ed. (2009) *Paek Sinae Chŏnjip*, pp. 32-56.

[23] Yi Chunggi ed. (2009) *Paek Sinae Chŏnjip*, p. 464.

[24] Yi Chunggi ed. (2009) *Paek Sinae Chŏnjip*, pp. 51-54.

[25] Yi Chunggi ed. (2009) *Paek Sinae Chŏnjip*, p. 55.

[26] Yi Chunggi ed. (2009) *Paek Sinae Chŏnjip*, pp. 465-468.

given the general dearth of the positive male personages in Paek's works – many of them dealing with male violence towards women[27] – the relatively approving view of the Russian soldier is noteworthy. In a word, "Russia" and "Russians" represented to Paek Sinae an exotic, challenging and at the same time somehow attractive piece of a "non-European Europe", a problematic *topos* on the mental map of the world comparable, in Paek's own words, to the "wild West" of the Hollywood westerns.[28]

Problematic and contradictory as it was, Paek's "Russia" is still a masculine *locus* of power – the place which possesses the power to accept or reject the miserable Korean refugees depicted as feminine figures per excellence. Yi Hyosŏk (1907-1942) case is directly opposite – his Russian personages, many of them women in inferior socio-economic positions (prostitutes, "entertainers", wondering actresses etc.), are in most cases exactly refugees themselves. A successful graduate of the most prestigious Kyŏngsŏng (Keijō) Imperial University (English Department) and then a well-off professor at Pyongyang's Sungsil (1934-1938) and Taedong Industrial Colleges (1938-1940), Yi never found himself in a position of unwanted immigrant in Vladivostok: his "Russia" was the settlement of "White" (anti-revolutionary) Russian émigrés in Harbin, which he used to frequent as a comfortable tourist. While Yi's earlier writings are often seen as "fellow-traveller" literature, broadly sympathetic to the cause of "proletarian arts movement",[29] he, in contrast to Paek, was never implicated with any radical organization – and never suffered the obvious consequences of such implication, namely arrest and torture. While Paek was initially fascinated with the Russian

[27] Yi Sumi (2002), "Paek Sinae Sosŏllon" (On Paek Sinae Novels), - *Tongdŏk Yŏsŏng Yŏn'gu* 7:103-119.

[28] Yi Chunggi ed. (2009) *Paek Sinae Chŏnjip*, p. 465.

[29] Kim Chech'ŏl (1999), "Yi Hyosŏk chŏn'gi chakp'um yŏn'gu" (The Study of Yi Hyosŏk's Early Writings), - *Hanyang Ŏmun* 17:201-222.

Revolution, Yi was trying to search for the traces of "Europe" in Harbin or Russia's Maritime Province – the most accessible part of the civilizational "West" for colonial literati.

Russia as "Europe" held not only the abstractly "civilizational", but also a very personal erotic appeal for Yi. Russian women were fitting into the newly imported Western canons of female beauty – and, in addition to this, they were within the accessibility reach of a colonial-era Korean middle-class intellectual, unlike the European or American beauties mostly seen on the film screens. Fascination with Russian women is visible already in Yi's earlier writings. *Pukkuk sasin* (*Personal Letter from the Northern Lands*, first published in monthly *Sinsosŏl*, September 1930), one of Yi's first published stories, features, for example, certain Sasha, a daughter of the owner of a Vladivostok café, *Ussuri,* with her "beautiful skin, of the particular Slavic kind", "refreshing looks", "eyes as clean as the heaven in the Northern lands" and "soft, beautiful lines of the body". Expectedly, the (Korean) protagonist of the story immediately falls in love with the "Slavic beauty", whom he was prepared to treat like a religious object, wishing "to look at her whole days, enjoying her refreshing fragrance and clean looks without touching her once by a finger". Evidently, if "Russia" is eroticized here, the type of eroticism still differs to a large extent from the ways of sexualizing "mysterious Orient" well-known from a variety of Euro-American Orientalist discourses. Sasha, a scion of a revolutionary family, an ardent Komsomol (the Communist Union of Youth, the youth wing of the ruling Communist Party) member and a secretary in the Maritime Bureau of OGPU (the State Political Directorate, the Soviet political police), was a direct opposite of the stereotyped "feminine and obedient Oriental woman" eroticised in the typical Orientalist narratives.[30] Russia's erotic attractiveness, on the contrary,

[30] On the eroticized Orientalist images of non-Western women as both "submissive" and "sexually available", see, for example: Reina Lewis (1996) *Gendering Orientalism: Race, Femininity and Representation* (NY: Routledge), pp. 167-177.

epitomizes here the canonized aesthetics of the "West", coming closer to which remained a dream for a modernist intellectual of Yi's type.[31] At the same time, "new Russia" in the midst of unprecedented social experiment is one of the very few parts of the civilizational "West" to treat Koreans as equals. The protagonists emphasises in his letter to the comrades at home that Vladivostok workers he met at the café *Ussuri* never harboured any sort of "racial prejudices", beautiful Sasha even granting him a kiss he so much aspired to.[32] In fact, contemporaneous Korean travelogues contain more stories of colour-blind Russian female kindness: Yi Chŏngsŏp, for example, fondly remembered a "beautiful and intelligent" Russian lady, who brought him to the railway station when he got lost on a Manchurian city, conversing with him in perfect French.[33] Being a part of the "West", Russia represented the best of what Yi and his Korean contemporaries could find in the cosmopolitan Western cities, namely the openness towards the non-European "Others".

Harbin, as described in Yi's well-known short story, *Harbin* (first published in *Munjang*, October 1940), is a recognizably European city – with the daily delivery of milk to the wealthier private houses every morning, a Western-style hotel serving bread and coffee for breakfast, cabaret "Fantaziya" full of Russian-speaking "dancing girls", elm-lined broad alleys, Russian-style two- or three-storied stone buildings, Orthodox churches and luxurious dinners served at the yacht-club restaurant. It was, on the surface, a piece of "West" – but the

[31] Yi Hyosŏk (2003). *Yi Hyosŏk chŏnjip* (Complete Works of Yi Hyosŏk), Vol. 1 (Seoul: Ch'angmisa), pp. 184-211. Cited in: Kim Miyŏng (2007), "'Pyŏkkong muhan' e nat'anan Yi Hyosŏk ŭi iguk ch'wihyang" (A Study of Yi Hyosŏk's Exoticism as Exhibited in the Novel 'Pyŏkkong muhan'), - *Uri Malkŭl* 39:239-267.

[32] Yi Hyosŏk (2003). *Yi Hyosŏk chŏnjip* (Complete Works of Yi Hyosŏk), Vol. 1, pp. 194-196. Cited in Cho Myŏnggi (2004), "Yi Hyosŏk sosŏl ŭi pyŏnhwa yangsang yŏn'gu – 'Pukkuk sasin' ŭl chungsim ŭro" (A Study of the Transformation of Yi Hyosŏk's Novels – with Focus on 'Personal Letters from the Northern Lands'), - *Hyŏndae Sosŏl Yŏn'gu* 23: 227-245

[33] Yi Chŏngsŏp (1931), "Ich'yŏjiji angnŭn oeguk ŭi myoryŏng yŏsŏng (The Unforgettable Foreign Women of the Blooming Age), - *Samch'ŏlli* 14/4: 68-70.

"West" which was already domesticated by the Japanese Empire, which already have turned into a pocket of "European" exotics in the imperial borderland, good for consumption by the richer Japanese – or even Korean – guests. In a reversion of the "normal" racialized imperialist order, white inhabitants of Harbin are shown in the novel as hotel boys, "dancing girls" or prostitutes keen to eke out their miserable living serving their non-white (mainly Japanese, to a much less degree Korean) clients. And as the very symbol of the new powerlessness of the erstwhile white "overlords of the universe", there stood the deserted, closed French consulate building – with the German occupation of France its once proud diplomats being reduced to selling their jewelleries to buy the foodstuffs. Harbin, as Yi saw it, looked more like a "European" theme park of the Great Japanese Empire, a reminder of Imperial Russia's – or France's – pasts as "great powers" lording it over East Asians.[34]

While Russia's imperial power was nowhere to see any longer in Harbin, what came instead was the sentimental code of "sorrow" – the same code Ham Taehun a decade earlier sensed in Yesenin's peasant poetry. Now, this sorrow of the emasculated, feminized, by-gone empire was embodied in the figure of an old hotel servant, Stefan, whose job was to wash the hands of the drunken guests as they emerged from hotel's restroom, asking them for tip with a pathetically sycophantic smile, and in the multitude of other older Russian servants Harbin was seemingly populated with. Stefan, at least, could dream of gathering enough money and returning to Soviet Russia, while Yulia, the Russian dancer of Polish origins the first-person Korean protagonist of the novel seems to be romantically involved with, was

[34] Yi Hyosŏk (2006). *Yi Hyosŏk tanp'yŏn chŏnjip* (Complete Collection of Yi Hyosŏk's Short Stories), Vol. 2 (Seoul: Karam kihoek), pp. 390-404.

dreaming mainly about death as the last refuge from meaningless life while starring at the flowing streams of Sungari River.[35]

To which degree Yi Hyosŏk's representation of Harbin Russians as "destitute and sorrowful" is faithful to the historical truth, is a moot point. To begin with, Harbin's Russian population was simply too large and diverse to successfully paint a portrait of an "average" Russian refugee. By 1923, Russian refugee population in China as a whole was ca. 400 thousands, and by the end of the decade, it shrank to ca. 300 thousands, as the rank-and-while were amnestied by the Soviet Government – allowed in most cases to collect Soviet passports and repatriate back to "new" Russia.[36] The majority of these people lived in Harbin and its vicinities – ca. 200 thousands by 1922, although afterwards the number was gradually decreasing.[37] While a sizeable part of the refugee population including a good number of the people from among the ranks of Tsarist Russia's middle and higher classes, ended up in penury, the community as a whole was relatively well-off – at least by the standards of the post-revolutionary Russian emigration worldwide, in which the share of Harbin Russians was ca. 20% by 1930.[38] Ca. 18 thousands of Manchuria-based Russians were Chinese Eastern railway employees in the beginning of the 1920s; together with their dependants, these relatively well-to-do people, classifiable in most cases as either middle or lower middle class, constituted almost one-fourth of Harbin's Russian population. Then, in sharp contrast with the case of the Russian refugees in Western Europe, mostly newcomers pushed over the border by revolution, hunger and chaos, well-established Russian colony in Manchuria, with

[35] Yi Hyosŏk (2006). *Yi Hyosŏk tanp'yŏn chŏnjip*, Vol.2, pp. 401-404.

[36] Georgiy Vasilyevich Melikhov (1997), *Rossiyskaya emigratsiya v Kitae: 1917-1924 gg.* (Russian Emigration in China: 1917-1924) (Moscow: Institute of Russian History), pp. 116-117.

[37] Georgiy Vasilyevich Melikhov (1997), *Rossiyskaya emigratsiya v Kitae: 1917-1924 gg*., pp. 57-58.

[38] Nikita Struve (1996), *Soixante-dix ans d`emigration russe. 1919-1989* (Paris, Fayard), pp. 300-301

its solid pre-revolutionary roots, possessed also a sizable entrepreneurial and managerial class. By 1925, Harbin Russians owned ca. 1200 businesses in Harbin, including five commercial banks, four power plants and sixty-six middle-sized or large factories. Russian managers were also a typical feature at the Western European businesses in Manchuria, especially trading companies or mineral concessions.[39] Lumping together all the Russians of Harbin – rich and poor, relatively well-educated and peasants' children, those for whom the revolution meant downward social mobility and those who preserved their social standing – was a matter of author's intention rather than simply factual truth. It seems obvious that, by the end of the 1930s – beginning of the 1940s Yi Hyosŏk needed the image of pitiful, sorrowful ethno-cultural "Others" – and Russians, with their "Euro-Asian", middle-of-the-way civilizational position, were good candidates.

It is not that the theme of "sorrow" dominated Yi's descriptions of émigré Russians from the very beginning. One of his first novels, 1929 *Pukkuk chŏmgyŏng* (The Gradual Descriptions of Northern Landscapes), includes a depiction of Noviny, a Russian resort founded by the émigré Yankovsky clan, originally one of Vladivostok's powerful enterprising families, in 1926.[40] The émigré Russians taking the spa bathes there – energetic, vigorous, athletically built, enviably able to enjoy the luxuries of resort life even after being "thrown away from their own country" – were no pitiful sight, rather the opposite. They evinced almost animal-like vitality – to the point of being dubbed "white-skinned animals" by Yi.[41]Noviny's

[39] Georgiy Vasilyevich Melikhov (2003), *Belyi Harbin – seredina 1920-kh.* (White Harbin in the mid-1920s) (Moscow: Russky Put'), pp.6-68, 81-84, 291-294.

[40] On the history of Noviny, see the autobiographical account by one of its owners, Valery Yur'evich Yankovsky (1911-2010): Valery Yankovsky (2000), *Ot Groba Gospodnya do Groba GULAGa* (From the Grave of Jesus to the Grave of GULAG) (Kovrov: Mashteks).

[41] Yi Hyosŏk (1929), "Pukkuk chŏmgyŏng" (The Gradual Descriptions of Northern Landscapes), - *Samch'ŏlli* 3/11: 35-40.

descriptions of this kind may be found in other contemporaneous accounts as well: Russian women in bathing suits or short skirts, with big towels on their shoulders, indulging in bathing or open-air sportive games with almost "primitive" passion, obviously presented an exotic and inspiring sight. [42]

In a decade, however, both Yi's vantage point and his position vis-à-vis the objectified Russians he was so enthusiastically observing, underwent important changes. Yi became much more interested in Harbin, with its large concentration of relatively destitute refugees from Russia, than in Noviny, where mostly well-to-do émigré elites used to spend their vacation time; and colonial Korea, in the midst of Pacific War mobilization, saw much higher degree of activist governmental interference – subjectively seen as "high-speed modernization" by many educated middle-class Koreans – than in the late 1930s. Harbin was, by the late 1930s, seen as a part of the "continent", expansion into which the "imperialized" (assimilated into the Japanese imperial structures and ideology) Koreans, proud of their relatively high position within the Japanese imperial hierarchies, regarded as an extension of their *mission civilisatrice*.[43] Harbin Russians, relatively remote from the Japanese "core" of the "new East Asia", had all the reasons to exhibit sorrowful pessimism. Korean newspapers were regularly reporting on the attempts of the pro-Japanese and fiercely anti-Soviet Russian

[42] See, for example,: Anonymous (1934), "Sŏyangin pyŏlchang chidae p'unggyŏng" (The Sight of the Areas of Westerners' Summer Cottages), - *Samch'ŏlli* 6/9: 170-175.

[43] On the degree to which the "imperialization" (assimilation) of the Koreans was positively assessed by a large part of the intellectual elite, as a "shortcut to modernization" of sorts, see: Ch'a Sŭnggi (2010), "Hŭndŭllinŭn cheguk, t'alsingmin ŭi munhwa chŏngch'ihak: hwangminhwa ŭi t'k'ŭnoloji wa kŭ yŏksŏl" (The Shaken Empire – Cultural Politics of Post-Colonialism: the Technology of 'Imperialization" and their Paradoxes), - Han'guk-T'aiwan Pigyo Munhwa Yŏn'guhoe (ed.), *Chŏnjaeng ira nŭn munt'ŏk: Ch'ongnyŏkchŏn ha Han'guk, T'aiwan ŭi Munhwa Kujo* (The Threshold Called War: The Structures of Culture in Korea and Taiwan under the Total War Regime) (Seoul: Kŭrinbi), pp. 143-173.

émigré associations in Northern China to unite into a pan-Russian anti-Soviet block,[44] on the "large and solemn" anti-Communist gatherings by the émigrés,[45] or on their "voluntarily contributions" to Japan's defence,[46] but it was more than obvious that less than 300 thousands-strong Russian community in China hardly was in a position to exert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pochal events unfolding on the "continent", where Japan was waging an all-out war in a megalomaniacal attempt to restructure the regional – and further, the whole international – order. The Manchurian Russian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epoch-making war to a much less extent than even Koreans: the typical annual quotes for Koreans volunteering to join the Japanese army after 1938 (when the army began to accept them) were three thousand in 1941 and four thousand five hundred in 1942,[47] while the only Russian unit of the Japanese Manchuria-based Kwantung Army, the "Asano Brigade", numbered only three thousand five hundred soldiers and officers, its existence being much less public than the Korean volunteers in the Japanese army, since one of its primary functions was to commit the acts of sabotage inside the Soviet territory.[48] Russians, in the backwaters of Harbin, could be seen as excluded from the dynamic flow of the current history – at least, from its mainstream. They were strictly peripheral for the new, Japan-centred order in East Asia. At the same time, it was not that their "sorrowfulness" did not resonate with

[44] Anonymous (1937), "Pukchi Paekkye Noin Panggong Chibu Kyŏlsŏng" (White Russians in Northern China Form a Branch of Anti-Communist Alliance), - *Tonga Ilbo*, December 11.

[45] Anonymous (1939), "Paekkye Noin Panggong Taehoe Sŏngdaehi Kŏhaeng" (White Russians Solemnly Conducted an Anti-Communist Gathering), - *Tonga Ilbo*, May 2.

[46] Anonymous (1940), "Paekkye Noin Hŏn'gŭm" (White Russian Contributions), - *Tonga Ilbo*, March 8.

[47] Kim Yerim (2010), "Chŏnjaeng sŭp't'ŏk'ŭl kwa chŏnjaeng silgam ŭi tongnyŏkhak" (War Spectacle and the Dynamics of the Real-time War Experience), - Han'guk-T'aiwan Pigyo Munhwa Yŏn'guhoe (ed.), *Chŏnjaeng ira nŭn munt'ŏk: Ch'ongnyŏkchŏn ha Han'guk, T'aiwan ŭi Munhwa Kujo* (The Threshold Called War: The Structures of Culture in Korea and Taiwan under the Total War Regime), pp. 63-95.

[48] Vladimir Yampolsky (1997), "Russkie emigrant na sluzhbe Kwantungskoi armii" (Russian Emigrants in the Employ of the Kwantung Army), - *Voenno-Istoricheskiy Zhurnal* 5: 60-64.

Yi's own psyche – notwithstanding all the "imperialization" achieved by Koreans, they still remained Japanese Empire's colonial subjects, exposed to discrimination and "otherised" as "pitifully backward" compared to "real" Japanese.[49]

Sorrow of the émigré Russian destines lost in the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s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dominates also another "Russian" novel by Yi Hyosŏk, tellingly entitled *Yŏsu* (*The Sorrow of the Wanderings*, - serialized in *Tong'a Ilbo*, 29 November – 28 December 1939). Here, the plot is built around a Korea tour by a Harbin-based "Serbian show" – a group of wandering actors who were to entertain the cinema-goers before the demonstrations of the trendy Western films, mostly consisting of Russian émigrés but also including other poor, displaced Eastern Europeans (Jews, Hungarians, Poles etc.). They were "cheap Westerners", whose white, Caucasian looks – to compliment the glamorous images of the renowned French or Hollywood actors on the screen – were rented at a relatively inexpensive price by the Korean cinema owner. The first-person narrator in the novel – a Korean employee of the cinema owner, asked to "take care of the guests" since he could speak some Russian – felt from the very beginning sorry about these "beautiful people reduced to the role of third-rate artists" for the undemanding Korean public, and solacing themselves by playing Chopin's waltzes "permeated with the Oriental sorrow". One of them, Mary, was described as a daughter of a former Tsarist infantry general, now a destitute refugee in Harbin, desperately trying to eke out family's livelihood by participating in "Serbian show" and singing *Arirang* in an unbelievably pitiful voice, in Korean original.[50] An impoverished "blue-eyed" Russian woman from Harbin singing the Korean national

[49] On the continuous discrimination of and mistrust towards Koreans even in the height of the official wartime "imperialization" policy, see: MarK Caprio (2009), *Japanese Assimilation Policies in Colonial Korea, 1910-194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 161-170.

[50] Yi Hyosŏk (2006). *Yi Hyosŏk tanp'yŏn chŏnjip*, Vol.2, pp. 283-300.

"song of national grief (*han*)" was perhaps the best symbol of Russia's place on the mental map of the Korean intelligentsia of the late 1930s – a European country fully acquainted with the taste of poverty and pain so well-known to the colonial citizens of the Japanese Empire. In fact, since the puppet state of Manzhou-guo which encompassed Harbin, was *de facto* colony of Japan, the status of Russian denizens of Harbin differed from that of Korean Peninsula's colonial subjects in form (the Russians were officially either stateless or Manzhou-guo citizens) but not in substance.

The powerlessness of Harbin Russians in the face of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 or even richer colonial subjects in Korea – coloured the ending of the novel with even thicker tint of "sorrow" than the beginning. As the "Serbian show" finally lost its attractiveness, the actors were grossly underpaid by the Korean cinema owner, while one of them, a former Cossack officer, was detained by the Japanese police – without any clear charges being laid down, on a vague "suspicion". In addition, Mary and her lover, Akim, ran away from their colleague, while an underage dancer, Anna, fell ill – all imaginable troubles came to beset the wandering exiles at once. And still, amidst all the thinkable humiliations the itinerant Eastern Europeans had to go through, the Korean protagonist continuously keeps his admiration of their "tolerant , liberal customs derived from the richness of the cultural legacy of Europe", and sympathises with their deeply-felt nostalgia about their European homeland, "the cradle of modern civilization". One of the reasons why Russian – or Eastern European – "European-ness" was so easy to sympathise with, was probably the demonstrative openness of Harbin's European denizens towards the non-European "Others". The head of the wandering actors' band, Victor, was described as a Japanese speaker, and the band members seemed to be unusually well-disposed towards Korean clothing or food - neither able nor inclined to

display the benchmark "Western arrogance" towards the things non-Western.[51] Harbin was not simply the small piece of Europe most available for the Korean colonial intellectuals territorially or politico-geographically. Impecunious Russians of Harbin, with their "Oriental" grievousness, legal helplessness, statelessness and death wishes, stood also closest to Korea's own colonial sufferings – and were seen as most able and willing to come across the borderline dividing them from their non-Western interlocutors.

One of the last novels by Yi Hyosŏk, *Pyŏkkong Muhan* (*Endless Blue Sky*, - serialized in *Maeil Sinbo,* 25 January – 28 July 1940 , published in book form in 1941), again utilizes Harbin, simultaneously "Western" and "close", as the scene for its actions. One of the main motifs of this full-length novel is the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the central protagonist, Ch'ŏn Ilma, a "cultural entrepreneur" of sorts, who travels from the colonial capital of Kyŏngsŏng (Seoul) to Harbin to arrange a Korea tour for a Harbin-based symphonic orchestra, and Nadya, an orphaned Russian émigré girl who has to eke out her meagre living by dancing at cabaret *Moskva*. Harbin's allure, as researchers have already noted, is decidedly "modern" and "European" – Yi depicted it as a city of department stores, dancing halls, cabaret music, lotteries, racing courses and glamorous European buildings, the city of feverish consumption, commerce and money. [52] "Modern" and "European" did not, of course, necessarily mean "positive" – and Yi's Harbin is also a city of brisk opium trade, into which, he assures, many Koreans were intimately involved, a city of gangs, kidnappings and extortions. Kidnapping of one of Ilma's friends in Harbin constitutes, in fact, one of the *sujet* lines in the novel.[53] As we will see below, Harbin's image as colonial Korea's own "wild

[51] Yi Hyosŏk (2006). *Yi Hyosŏk tanp'yŏn chŏnjip*, Vol.2, pp. 301-365.

[52] Kim Miyŏng (2007), "'Pyŏkkong muhan' e nat'anan Yi Hyosŏk ŭi iguk ch'wihyang" (The Study of Yi Hyosŏk's Exoticism as Exhibited in the Novel 'Pyŏkkong muhan'), pp. 248-251.

[53] Yi Hyosŏk (2003). *Yi Hyosŏk chŏnjip* (Complete Works of Yi Hyosŏk), Vol. 1, pp. 78, 247-255.

West" is also reflected in many contemporaneous Korean travelogues, which routinely focused on gang violence and drug trade in Manchuria, thus indirectly emphasizing the relative "calmness" and "orderliness" of Japanese-ruled Korea. Harbin Russians, however, are favourably depicted as "untypical" Westerners, whose manners, behaviour and attitudes exhibit a high degree of affinity with Koreans. Nadya, one of novel's main protagonists, is presented from the very beginning as a woman of a "different sort", who does not necessarily fit into the decadent atmosphere of Harbin the cosmopolitan hub: she is described by one of Ilma's friends as a "person dissimilar with other women, who should not be thought as akin to everybody else although she does dance at a cabaret".[54] She then is depicted as "possessing much less of a troublesome character than an average woman", and "having somewhere a calmer spot, just like an Oriental person".[55] The Russian woman is further "Orientalized" by portraying her as kind and loving towards parents and friends – she visits her mother's grave and prays there before leaving Harbin for good together with Ilma,[56] an act of filial piety Koreans, with their long tradition of sacrificing to the ancestral spirits could not but praise. Her face is described as "almost Oriental", with "eyes, eyebrows and nose just like those of gentle and docile Koreans", white skin and hair colour being the only facial differences.[57] Eager to learn Korean and dress as a Korean once she married a Korean man,[58] she is depicted also as a kind and unselfish friend of a helpless drug addict, Emiliya, a fellow dancer to whom she provides essential support, barely keeping the poor girl,

[54] Yi Hyosŏk (2003). *Yi Hyosŏk chŏnjip* (Complete Works of Yi Hyosŏk), Vol. 1, p. 52.

[55] Yi Hyosŏk (2003). *Yi Hyosŏk chŏnjip* (Complete Works of Yi Hyosŏk), Vol. 1, p. 53.

[56] Yi Hyosŏk (2003). *Yi Hyosŏk chŏnjip* (Complete Works of Yi Hyosŏk), Vol. 1, pp. 132-135.

[57] Yi Hyosŏk (2003). *Yi Hyosŏk chŏnjip* (Complete Works of Yi Hyosŏk), Vol. 1, p. 184.

[58] Yi Hyosŏk (2003). *Yi Hyosŏk chŏnjip* (Complete Works of Yi Hyosŏk), Vol. 1, p. 194.

weakened by disease and drugs, in life.[59] Both Nadya and Emiliya are to be pitied as orphans – "orphanhood" being the trademark quality of the pitiful Russian émigrés, so alluringly European and so affectionately Eastern.

Harbin's symbolic meaning as a site of plight, degeneration, destruction and death was not necessarily limited to its Russian populace only. While Yi Hyosŏk mentions Manchuria-based Koreans involved in profitable opium trade, another important prose writer of the 1930, Ch'oe Myŏngik (1903-?), a master of psychological realism at that point deeply interested in the European "decadent" literature, features Korea's own Harbin-based opium addicts in his 1939 novel, *Simmun* (*The Patterns of Mind*). Novel's protagonist, deeply shattered by his wife's death, attempts to resuscitate himself by visiting his old friend and lover of student days in Tokyo, Yŏok, in Harbin where she was living at that time. The Yŏok of the old days, an aspiring literary girl, is gone, however: the protagonist is met by a professional "teahouse manager", a cold and misanthropic woman deeply tired of life, whose only solace, opium, has been gradually destroying her health. Yŏok's lover, Hyŏnhyŏk, is an erstwhile leftist theoretician, whose Marxism is gone now, just like Yŏok's literary passions: he is a helpless opium addict with masochistic leanings, and Yŏok plays a sadistic part in their relationship. While the main protagonist is still present in Harbin, Yŏok, completely devoid of the inner strength need for regeneration, finally takes her own life. The main protagonist fatalistically witnesses her demise, her pitiful helplessness reflecting eventually his own.[60] While Harbin Russians play no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novel's narrative line, the "kimono-

[59] Yi Hyosŏk (2003). *Yi Hyosŏk chŏnjip* (Complete Works of Yi Hyosŏk), Vol. 1, pp. 77-79.

[60] Ch'oe Myŏngik (1939), "Simmun" (The Patterns of Mind), - *Munjang*, 6: 12- 50; Yi Chumi (2002), "Ch'oe Myŏngik sosŏl e nat'anan hwansang kwa hyŏnsil ŭi kwan'gye yangsang"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Fantasy and Reality in Ch'oe Myŏngik's Novels), - *Hanminjok Munhwa Yŏn'gu*, 10: 199-220; Yi Mirim (2001), "Ch'oe Myŏngik sosŏl ŭi 'kich'a' konggan kwa 'yŏsŏng' ŭl t'onghan chaa t'amsaek" (A Study on the Self-Reflection through 'Train Space' and "Women" in Ch'oe Myŏngik's Novels), - *Kugŏ Kyoyuk*, 105: 345-367.

dressed white women" (presumably Russian exiles), "Western women in red and blue" on the streets and the general atmosphere of lasciviousness and degradation the eroticised low-class Eastern European females create, serves as an important background motive to the sad story of Yŏok and Hyŏnhyŏk, which obviously was to symbolise the plight of these among the colonial-era intelligentsia who were unwilling to fully submit to the colonizers' assimilation demands, but simultaneously unable to resist them. In Harbin, the tragic, self-destructive outsiders of colonized Korea could spend their last pitiful days among the stateless and degraded Russians, whose deplorable fate resonated with their own.[61]

Feelings of pity towards the stateless Russian exiles permeate also some of the non-belletristic writings of the late 1930s – early 1940s dealing with Harbin and Manchuria in general, notably travelogues from Korean periodicals. Travelling to Manchuria was a popular form of leisure – combined with learning on imperial Japan's new frontier, with heavy Korean presence – among the well-to-do colonial citizens, and a good number of the better-known Korean literati of the late colonial times (the 1930s and early 1940s) left to us their impressions of Harbin and its vicinities, which often highlighted émigré Russians and their plight. A typical example is Harbin travelogue by Hong Chongin (1903-1998), then daily *Chosŏn Ilbo*'s editorial bureau chief (*p'yŏnjip kukchang*), who then rose (in 1959) to become *Chosŏn Ilbo*'s chief executive (*sajang*). The travelogue, originally published in August 1937 issue of *Chosŏn Ilbo*'s popular monthly, *Chogwang*, was evocatively entitled *Aesu ŭi Harŭbin* (*Sorrow's Harbin*), and "sorrows" expectedly referred to the predicament Russian émigrés found themselves in after moving to north-eastern China, to the site of Tsarist Russia's "unfinished [colonial] city". An ardent admirer of Russian classics, Hong

[61] Kim Surim (2008), "Cheguk kwa Yurŏp: Salm ŭi changso, ch'ogŭk ŭi changso" (The Empire and Europe: The Place of Life, the Place of Overcoming), - Sanghŏ Hakhoe eds., *Ilche Malgi ŭi Midiŏ wa Munhwa Chŏngch'i* (Media and Cultural Politics in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oul: Kip'ŭn Saem), pp. 139-185.

saw Harbin, that colossal "exhibition of races" where Russians – while a tiny minority numerically – attracted most attention, as a "city of Raskol'nikovs". Raskol'nikov was a tragic hero of Dostoevsky's *Crime and Punishment* (1866), a kind-hearted young man driven to crime by poverty and maniacal belief in the "right of the strong men". Harbin Russians, as Hong viewed them, were equally tragic figures. "Aristocrats, high-ranked officials and rich men of the bygone days", they were reduced to such "ignominious occupations" as small-time street peddling – and had to swell up the humiliation of being forced to cater even to the "Red Russians", that is, the Soviet citizens serving at Chinese Eastern Railway. In 1934, when the railroad was sold to Manchukuo, most of them had actually to leave Harbin, and Hong mentions that "loss of their spending power" affected Harbin's impoverished Russian traders in an extremely negative way. Of course, the most "pitiful" of what Hong observed in Russian Harbin were the teenage waitresses in a café, lost in an ecstasy while listening to a folk song about their long-lost, unreachable Motherland – and unable to hear more than one song since their cruel manager was immediately calling them back to their duties. Russian damsels in distress was what symbolized "Russia in exile" to Hong – especially Russian female dancers in a night cabaret, who obviously had "to prostitute themselves once presented with an opportunity to do so". In one of such cabarets Hong spent a night flirting with a professional dancer of mixed Russo-Chinese origin – one more indication of Russia's "essential closeness" to Asia.[62]

It is not that the meanings of Harbin in the Korean travelogues of the late 1930s – early 1940s are limited exclusively to a place of "sorrow". All in all, the city was "exotic" in the broadest possible sense of the world – alluring and in the same time "immoral and dangerous". As a 1936 Manchuria travelogue by certain Chŏn Mugil (presumed to be a journalist; the

[62] Ch'oe Samnyong & Hŏ Kyŏngjin eds. (2010). *Manju Kihaengmun* (Manchurian Travelogues) (Seoul: Pogosa), pp. 227-235.

travelogue was serialized in daily Tong'a Ilbo throughout January 24-31, 1936) put it, it was a "cosmopolitan city", and "absence of morality and restraint" was seen as a "condition of cosmopolitanism".[63] Be Russian émigrés called "cosmopolitans", or as Hong preferred to refer to them, "stateless people" (*mugukchŏkcha*), their undeniable connection with "decadent" Western modernity, in addition to their "pitiful" lack of nation-state belonging, could not but be seen as "conducive to moral downfall" in the increasingly conservative atmosphere of late 1930s colonial Korea, with its ongoing total mobilization for the war of aggression in China and consequent emphasis on "Oriental morality" and state-centred "patriotism".[64] In fact, much of Harbin-related travel writing dwells on the issues of drugs, crime and prostitution – seen as endemic and, indeed, "immanent" to a place with such a concentration of "decadently" modern, stateless Westerners.

While being an object of pitying, Russian cabaret girls were simultaneously seen as commercially motivated "professional seductresses" – exactly the type of women colonial Korea's official discourse of the late 1930s –early 1940s, centred on the model images of "patriotic mothers and wives", would most strongly disapprove of. [65] Chŏn Mugil, for example, gives a vivid description of the Russian nude dancers in a night cabaret, ruthlessly demanding that he pay rather inflated price for their "services", and remarks that they did not fit the image of "Tolstoy's nation".[66] There is no doubt, however, that Chŏn's emphasis on Harbin's immanent immorality did fit into the general stereotype widespread in the Korean

[63] Ch'oe Samnyong & Hŏ Kyŏngjin eds. (2010). *Manju Kihaengmun*. P. 199.

[64] On the fascistic "public sphere" of the late colonial Korea and its ideological conditions, see: Cho Kwanja, "'P'asijimjŏk kongkongsŏng' ŭi naep'a wa chaegŏn" (Implos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Fascistic Public Domain'), - Yun Haedong & Hwang Pyŏngju eds., (2010), *Singminji Kongkongsŏng* (Colony's Public Sphere) (Seoul: Ch'aek kwa hamkke), pp. 156-189.

[65] On the "approved" images of the "wives [assisting the war efforts] in the rear" (*ch'onghu puin*), see: Kwŏn Myŏnga (2005), *Yŏksajŏk P'asijŭm* (Historical Fascism) (Seoul: Ch'aeksesang), pp. 157-205.

[66] Ch'oe Samnyong & Hŏ Kyŏngjin eds. (2010). *Manju Kihaengmun*. Pp. 199-200.

periodicals of his days. Some of Harbin travelogues, in fact, tended to deal with the seedy or "decadent" sides of Harbin life exclusively. For example, a journalist who wrote under a pseudonym, Pukkuk yuja ("A traveller in the northern lands"), devoted almost the whole space of his 1937 Harbin travelogue, *Haŏlbin Yahwa* (*Harbin's Night Tales*: monthly *Paekkwang*, No. 1), to the issues of gangs and sex – since "only fool would try to search for justice or humaneness in Harbin, a city inhabited by more than forty different races, where even the compatriots of the same race sometimes fight and kill each other". Russians are represented in this travelogue as singularly lascivious – the Russians of opposite sexes dared, after all, to kiss each other on public and stroll the streets hand in hand, something "we Oriental people would never be able to imitate"! It is not however, that the heavily eroticized images of the travelogue – bathing suits-clad Russian women with partly bared breasts, or girls winking to a foreign visitor on the streets and inviting to a "stroll together"[67] – were necessarily presented in a negative light only. Harbin's exotic eroticism was definitely described as something a (suitably voyeuristic male) visitor from "civilized" Japan or Korea could also enjoy. Some travelogues, in fact, conjure up the pictures which were definitely to erotically excite a (male) reader: "Women, freely selling themselves, are winking to several men in turn. Sleepless nights in the [City] Park [of Harbin] lead to a variety of erotic plays, bringing the men into a sweat world of sensual pleasures. (…) Women clad almost as lightly as if they were wearing bathing suits, are sitting down on men's laps, and touching men's shoulders and chests".[68] Russian "decadence" was morally reproachable, but still sweet and inviting – the pleasures of Harbin, were, after all, "unthinkable in Korea".[69] Russian

[67] Ch'oe Samnyong & Hŏ Kyŏngjin eds. (2010). *Manju Kihaengmun*. Pp. 458-463.

[68] Ch'oe Yŏnghwan, *Haŏlbin ŭi pam* (*Harbin's Night*), - Ch'oe Samnyong & Hŏ Kyŏngjin eds. (2010). *Manju Kihaengmun*. Pp. 467-470.

[69] Ch'oe Samnyong & Hŏ Kyŏngjin eds. (2010). *Manju Kihaengmun*. p. 470.

"wildness" and "closeness to nature" – the "less civilized" qualities of the Eastern Europeans, which were to make them appear more "culturally consanguine" to Koreans, - fitted well into the eroticized picture of "decadent and dangerous" Harbin, tingeing it with a romantic, alluring colour.

3. Conclusions

"Russia" meant diverse things for different people as the world was going through the "dark valley" of the 1930s – in Korea as elsewhere. For Communists as well as for many other self-styled "progressives", Soviet Russia was either "beacon of hope" or, at the very least, the site of an important modernizational experiment. The doubts – if any – were to be either suppressed or marginalized. On the opposite end of the spectrum, fascist – and generally extremist right-wing – propaganda made the Soviet Union into the main "enemy of humanity". In colonial Korea too – as well as in Japan proper - in the time of the all-out war mobilization after 1937-1938, anti-Communism and anti-Sovietism became very essential elements of the official ideology. In between those poles, however, the image of Russia in the eyes of less politically engaged intellectuals was often defined by more general configuration of their mental maps of the world. In the Korean case, Russia seemed to be a piece of "different West" – geographically as well as economically and culturally standing somewhere between the European "homeland of civilisation" and its colonial periphery, like Korea itself. Russians certainly were "Westerners" – and in the puritanical moral climate of colonial Korea in the time of total mobilization for war in China in the late 1930s – early 1940s, Russian Harbin was seen as just as "decadent" and "immoral" as any "Western" city, or even worse: after all, those stateless Russian exiles did not bear "patriotic obligations" to any nation-state and thus were "morally suspect". Bu at the same time, the Russians were "atypical Westerners" – "wilder", "closer to nature", more nostalgic, pessimistic and

sorrowful than a stereotyped "European" should be, and in this way closer also to the discriminated Korean colonial subjects of Japanese Empire, with their endless miseries, frustrations and tragedies. To a degree, their supposed "closeness to nature" fitted into the eroticized image of "decadent" Russian Harbin – the image explicitly devoid of "morality" but simultaneously connoting "unthinkable" pleasures, almost "primitive", unconstrained sensuality. At the same time, Russian women as individualities rather than parts of the faceless crowds of dancers and prostitutes on Harbin streets, were viewed from a more positive angle. In some of the early stories by Yi Hyosŏk, one of the most popular fiction writers of the 1930s, they display vigorous, athletic eroticism of the "European" kind the author themselves seemingly idealized at that point. In Yi's later writings, and especially his 1940 *Pyŏkkong Muhan* (*Endless Blue Sky*), he, however, emphasises their imminent "Orientalness", especially visible in their presumably high ethical standards. In the increasingly culturally conservative milieu of late colonial Korea, with its strong positive validation of the "Oriental morals", the evaluation of this sort sounded laudatory.

Whether these, rather idiosyncratic, images were fitting descriptions of 1930s' USSR – in the throngs of unprecedented social upheavals, but also a society marked by very high levels of social mobility – or whether it accurately described late 1930s' Russian Harbin, with its still sizeable entrepreneurial and managerial classes, predominance of transnational commerce and growing influence of the extreme right-wing anti-Soviet and anti-Semitic politics,[70] is highly questionable. But, after all, the stereotypes are not meant to be the accurate descriptions of reality. What is important that those images of Russians were a way

[70] By 1932, ca. two thousands of Harbin's Russian denizens were members of the "Russian Fascist Party" (in 1925-1932, was known as "Russian Fascist Organization"), but the number of those who passively sympathised with the radical right-wing ideology was much higher. Fascist gangs secretly collaborating with the Japanese army were responsible for a series of brutal kidnappings and murders of the Jewish Russian inhabitants of Harbin. See: Mikhail Nazarov (1993), "Russkaya emigratsiya I fashizm – nadezhdy I razocharovaniya" (Russian Emigration and Fascism – Hopes and Disillusionments), - *Nash Sovremennik*, 3: 124-137.

more positive than the official Japanese Imperial propaganda suggested – and that was an important cultural precondition for a positive attitude many colonial cultural figures assumed about the Soviet-imposed regime in North Korea after 1945.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입장
- 유엔 안보리 불출석과 '드러나지 않은' 개입 -

기광서(조선대 정치외교학부)

1.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은 한반도 분단이 낳은 산물이었다. 이 전쟁의 기원을 살펴볼 때 분단의 원인에 눈을 돌리는 것도 분단과 전쟁이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하는데 미·소의 대립과 같은 국제적 요인을 기본 구조로 설정하는 것은 해방 후 한반도 내 사회정치적 상황과 세력관계를 무시하는 발상임이 틀림없다. 한국전쟁의 출발점이 내전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물론 강대국들의 한국전 개입은 전쟁의 양상과 성격을 크게 변화시켰다. 우선 내전이 미·중·소 등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국제전으로 전화되었고, 이는 전쟁의 기간, 승패, 피해, 국내외적인 영향 등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변수를 제공하였다.

한국전쟁은 김일성 지도부의 주도로 개시되었음에도 소련은 전쟁의 전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다. 세계사적으로 자국의 군대가 개입하지 않는 전쟁의 주도권 장악을 설명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바로 소련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련이 이 전쟁에서 수행한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북한군대는 소련제 무기와 장비로 무장하였고, 둘째, 군사작전 계획과 실행은 소련군 장교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이루어졌으며, 셋째, 북한과 중국 지도부에 대한 스탈린의 지시와 충고, 조언은 대부분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곧 스탈린의 입장을 뜻한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전쟁에서 스탈린의 독점적 리더십은 다른 정책 사안보다도 훨씬 더 은밀하면서도 폐쇄적으로 실행되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전제로 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입장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 구체적으로 소련이 보여준 한국전 이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 변화와 소련의 전시 전

1) 이 글은 필자가 쓴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軍史』 第63號, 2007)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새로 발굴된 사료를 통해 이를 보충, 보완한 것이다.

쟁 지도와 입장 등 주요 논점을 검토, 분석할 것인데, 특히 개전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회의 불출석 문제를 '고트발트 서한'의 검토를 통해 자세히 해명하고, 이 전쟁에서 소련의 보여준 '드러나지 않은' 개입의 실상과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이 글의 작성에는 최근까지 입수된 러시아문서보관소[2]의 북·중·소 지도부의 교신 문건들을 비롯한 한국전 관련 자료들에 의존하였고, 일부 최신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2. 전쟁 이전 한반도 통일과 개전에 대한 시각

1948년 8월과 9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한반도 내 두 개의 권력체제의 등장을 의미하였다. 분단국가 수립은 미소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와 한반도 내 좌우 세력의 분열과 대립에 기인한 것이었지만[3] 분단 극복을 위한 시도는 남북 양쪽 모두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양정권이 통일문제를 각자의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단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 절대 다수의 의사와 배치되었고 이를 간과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적 방식이든 혹은 무력이든지 간에 분단 극복과 남북통일은 남북 정권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절대적이고도 초미의 문제였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북진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하였고, 김일성 지도부 역시 무력에 의한 통일 준비를 진행한 것은 권력의 운명과도 관련되었다. 남북한 정부 수립 후 본격화되어 개전이 이르기까지 38도선상에서 지속된 남북한 군대간의 무력충돌은 한반도 정치세력들의 의지와 목표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4]

소련은 한반도 전체를 '우호국가'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북한 국가의 수립에 의해 극동에서 소련의 국가이익을 실현할 최소한의 전략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맹국' 북한의 통일을 위한 시도 및 개전을 위한 준비는 여러모로 소련에 부담감을 안겨주었다. 우선 남한을 점령할 만한 북한 무력의 준비 정도가

2) 러시아에서 각 기관별로 생산된 한국전 관련 자료는 그 주체와 성격에 따라 АПРФ(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ГАРФ), АВПР(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ЦАМО(러시아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РГАСПИ(러시아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등 다양한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

3) 분단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그간 계속되어왔지만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양한 견해를 일치시키는 작업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제에 대한 서술에서 사실의 오류 및 왜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것들을 걸러내고 검증하는 부단한 노력일 것이다.

4) 한국전 발발이· 그 이전 38도선상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남북 군대간 무력충돌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 연구로는 정병준『한국전쟁. 38선충돌과 전쟁의 형성』(돌베개, 2006)을 참조할 것.

부족하였고, 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미국의 참전 및 그에 따른 미·소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한 소련은 북한의 전쟁 시도를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무력통일 방안을 내놓았을 때 그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다만 김일성은 그 대신에 2억 1,200만 루블에 해당하는 차관과 각종 경제원조를 약속받아 본격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후 38도선상에서 남북간의 국지적 충돌은 계속되었고, 그 가운데 북한지도부의 개전 희망과 이에 대한 소련의 승인 및 지원 요구는 점차 강도가 더해졌다.

한편으로 북한은 무력에 의한 통일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비무력적 방식의 통일 방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분단 직전 그들이 남측이 주장한 '인구비례에 의한 전국 총선'을 거부하고 내놓았던 방안은 사실상 '지역비례에 의한 총선'이었다. 이 방안은 정부 수립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북한측이 이 방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만일 그같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좌파에 던져지는 표는 북한 80%, 남한 65~70%에 달해 좌파의 승리를 예상한 데 있었다. 소련 역시 미국과 남한이 이 방안에 반대할 것으로 관측하였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좌파의 정치적 승리를 점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통일 방안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5]

1949년 6월 25~2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식에서 김일성이 남북총선거 동시 실시 제의는 이승만 정부를 인정한다는 점 등을 들어 조선로동당과 우당 일부 간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6] 그들의 반발은 김일성의 해명에 의해 설득되었는데, 그것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소한 1949년 9월 시점에서 김일성 지도부는 평화적 방식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음은 확실하며, 개전을 향한 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북한지도부는 2주에서 많으면 두 달 안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조기에 전쟁을 끝내고자 계산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이듬해 개전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북한과 소련은 내전이 발발할 시 남한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북한이 먼저 군사행동을 시작한다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공히 인지하였다.

---

5)「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1949.6.5」АПРФ, ф. 6, оп. 9, п. 14, л. 63.

6)「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1949.6.28」АПРФ, ф. 6, оп. 9, п. 14, лл.. 78-79.

1949년 9월 시점에서도 소련은 북한에 의한 개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여기에는 대남 군사력 우위의 미확보와 남측 인민의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당시 형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희망이 충분치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었다. 소련 외무상 몰로토프는 인민군이 남쪽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유엔 총회에 이 문제를 제출할 것이며, 북한 정부의 침공을 비난하고, 동시에 유엔 총회에 미국 군대의 남한 진주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았다.[7] 그렇게 되면 남한 점령은 지연될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시점에서 소련은 개전 시 미국이 유엔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소련은 이러한 사전 인식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5일과 이후 소집된 소련의 안보리 회의에 불참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조직과 참전을 방조한 셈이 되었다.

한편으로 스탈린은 조선인민군이 선제공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택동의 견해에 동의를 표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 중·소간에도 공조를 유지하였다. 그는 북한이 군사, 정치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당장은 "유격운동을 발전시키고 조선 남부지역에 해방구를 설치하며 조선인민군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하였다.[8] 남한 내 유격투쟁의 강화 등 혁명 역량의 기반 확충에 더욱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개전에 대한 북한의 희망을 제어한 것이다. 하지만 1950년 초 스탈린의 개전 동의는 남한 유격운동의 성장과는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그 시점에서 유격운동은 남한 당국의 진압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었다.

알려진 대로, 1950년에 들어서면서 스탈린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었다. 1월 말 그는 김일성의 개전 요청을 승인하는 듯 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중국혁명의 성공으로 동아시아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었고, 중소동맹조약 체결이 뒤따랐다. 그런데 중국의 한국전쟁 전문가인 심지화((沈志華)에 따르면, 중소조약은 소련의 안전지대를 확대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1945년 국민당 정부로부터 획득한 대부분의 정치, 경제적 이권들을 신중국에 반환해야 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스탈린은 이러한 손실을 한국전을 통해 보충하고자 했다는 것이다.[9] 그런데 이 가설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1948년 소련군대의 철수 이후 스탈린이 북한 영토 내에서 정치, 경제적 이권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

7) 「주북한 소련대사에 보내는 훈령 초안, 1949.9. 23」, АПРФ ф. 3, оп. 65, д. 776, лл. ?,

8) 「스탈린이 코발료프에게, 1949.10.26」, АПРФ, ф. 45, оп. 1, п. 332, лл. 47-48.

9) 션즈화(沈志華)/최만원 역, 『마오쩌뚱,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215~216쪽. 이를테면 인천과 부산이 소련의 부동항으로서 중국의 뤼슌과 따리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를 찾아야 한다. 그는 '내정 간섭'으로 비춰지는 행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듯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권 취득'을 멀리하였다.

소련은 핵무기 개발 성공에 힘입어 대내외적인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여기에 1949년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10] 이러한 주객관적 정세 변화는 스탈린의 상황 판단에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모택동과 논의한 후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1950년 3~4월 김일성·박헌영 지도부의 모스크바 방문은 스탈린의 전쟁 승인을 최종적으로 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 그는 잊지 않고 미국의 개입 여부와 중국의 동의를 개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자는 소련이 변함없이 제기해온 전제조건이었고, 후자는 외부의 개입시 자국을 대신한 역할을 중국에 떠넘긴 것으로서 중국혁명의 성공이 가져다 준 여건이었다.

김일성·박헌영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개전 준비는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즈음 북한의 무장력은 소련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남한보다 앞서게 되었고, 남은 것은 개전 시기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3. 소련의 유엔 안보리회의 불참 이유와 효과

1) 개전과 유엔 안보리 불참 결정

6월 25일 새벽 한국전쟁은 북한 인민군의 공격으로 시작되었고, 남북한 군대간의 교전은 모든 전선으로 확대되었다. 주북대사 슈티코프의 개전 전후의 상황에 대한 보고는 북한의 선재 공격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주고 있다.[11] 북한의 전면전 개시는 분단 이후 통일 방안의 하나로 굳어진 무력통일 노선을 이행한 것이었지만 선제 전면공격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성을 간과한 채 침공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정권적 차원에서 개전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12]

---

10) 러시아 학자 만수로프는 스탈린이 미국의 전쟁 개입을 예상할 수 있었던 공산권의 봉쇄전략을 담은 미 정부의 정책문서인 NSC-68을 읽었지만, 이것은 그에게서 미군의 전쟁 개입 가능성을 심사숙고하게 하는 경고가 아닌 "점증하는 미국의 침략성"의 마지막 시위로서 간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lexandre Y. Mansourov, *Communist War Coalition Format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h.D disser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1997), pp. 290-291.

11) 이에 대해서는 「슈티코프가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에게, 1950.6.26」, ЦАМО, ф. 5, оп. 918795, д. 122, лл. 9-14 참조.

내전의 형태로 개시된 한국전 양상은 스탈린이 원했던 방식이기도 했다. 소련군대의 북한 철수 이후 조선 인민만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내정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해온 점에 비추어보면 소련의 눈에 보이는 개입은 자신의 주장에 모순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소련은 개전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자국 군사고문들에게 북한 인민군 지휘부의 작전 계획 작성과 부대 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스탈린은 자국의 전쟁 개입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인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소련 최고권력 기관인 당정치국원들조차도 전쟁 관련 비밀보고 문건들을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정책 결정에는 거의 배제되었을 정도였다.

개전과 동시에 미국은 참전을 선택하였고, 나아가 유엔을 활용하여 북한의 공격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소련은 미국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의 선택 여하에 따라 전황은 다르게 전개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기에 소련의 선택은 안보리 회의에 불참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미국의 참전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볼만한 근거와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그는 미국의 참전에 대비하고자 했지만 참전하지 않을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둔 것 같다. 설사 그것을 예측했더라도 김일성의 주장처럼 참전 이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다. 어쨌든 전쟁 발발과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침공에 대책을 세우려는 목적, 즉 유엔을 통한 직접 개입을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였다.

소련의 안보리 회의 불참 결정은 당연히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그의 결정은 소련 지도부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진영에서조차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었다. 소련의 외교 수장인 그로미코 외무상조차도 스탈린에게 만일 안보리가 북한이나 또는 북한과 소련 모두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토권을 행사해야 하고, 안보리가 유엔군의 남한 파견을 포함하여 일체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지만 스탈린의 반응은 회의에 참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13] 스탈린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한국전쟁 전체의 판도를 바꾼 사건으로 인지되었다.

12) 김일성은 1949년 9월 12일 주북 소련대사관 공사 툰킨과의 대담에서 “만약 북쪽에서 먼저 군사행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는 인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며,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한 바 있다. АВПР ф. 059а, оп, 5а, п. 11, д. 3, л, 49.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전면공격을 감행한 것은 그것을 나중으로 미룰 경우 더욱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기에 남한 내 유격운동의 쇠퇴와 남로당의 약화는 그 선택을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13) Громыко А. А. Памятное(회고록). Т. 1. М., 1988, с. 206-207.

2) '고트발트 서한'에 나타난 스탈린의 본심

최근의 공개된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고트발트에게 보낸 서한은 소련의 안보리 불참 이유에 대한 스탈린의 직접적인 답변을 최초로 전해주고 있다. 소련의 입장에 대한 고트발트의 이견에 답장 형식으로 된 이 서한은 당시 소련의 안보리 불참에 대한 의문이 국내외적으로 폭넓게 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2쪽으로 이루어진 이 서한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6월 27일 소련의 안보리 불참 문제와 이후 전개된 사태에 관해 고트발트 동지보다 약간 다르게 보고 있다.

우리는 4가지 목적 때문에 안보리에서 나왔다. **첫째, 소련과 신중국과의 연대를 시위하고, 둘째, 안보리에서 중국 대표로 국민당 허수아비를 인정하고 중국의 진정한 대표를 안보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 정책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강조하며, 셋째, 두 강대국 대표들의 부재에 의거하여 안보리 결정을 비법화하고, 넷째, 미국 정부를 자유롭게 하여 안보리에서 다수를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즉 사회여론이 미국 정부의 진정한 면모를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리석음을 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은 우리가 이들 모든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중략) 그밖에도 미국이 지금 유럽에서 극동으로 벗어난 것은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세계의 세력균형의 견지에서 우리에게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가? 의심할 나위 없이 주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극동에서 앞으로도 헤어나지 못하고 조선의 자유와 자주를 위한 투쟁에 중국을 끌어들일 것이라 가정해보자. 이로부터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 미국은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무력을 준비 중인 중국을 물리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이 투쟁에서 녹초가 되어야 한다. 둘째, 여기서 지친 미국은 가까운 시기에 제3차 세계대전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3차 세계대전은 무기한 연기될 것이고, 이는 유럽에서 사회주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줄 것이다. 나는 미·중간 투쟁이 전극동아시아를 혁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세계의 세력균형의 견지에서 우리에게 이점을 주지 않는가? 의심할 나위 없이 주고 있다....

필립포프. 1950년 8월 27일(강조는 인용자)[14]

서한의 전체 맥락은 스탈린이 자신의 궁색한 논리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자 애쓴 흔적으로 가득하다. 평상시 자신감에 차 있고 당당한 그의 표현력은 이 서한에는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변명에 가까운 논조가 흐르고 있다. 여기에는 스탈린과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듯한 외교적 수사가 마구 등장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는 소련의 안보리 불참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중국공산당 정부와의 연대를 시위하기 위한 것을 들었다. 소련은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이후 안보리상임이사국을 대만으로 도피한 국민당정부로부터 중국공산당 정부로 옮기고자 노력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항의의 표시로 1950년 1월 13일부터 안보리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개전 이후 겨우 한 달이 조금 지난 8월 1일에 안보리에 복귀한 것은 모택동과의 연대를 포기한 것인가? 더구나 스탈린이 6월 25일 한국전 개전 일자에 대해 몰랐을 리도 없다. '미국 주도의 집단적 군사개입'이라는 군사적 위기 상황을 '중국 지지의 명분 획득'에 양보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만한 논리는 아니다. 이 때문에 "신중국과의 연대 시위"라는 언사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미국의 '어리석음'을 방조하기 위해 안보리에 불참했다는 것인데, 역으로 소련이 출석했더라면 그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소련의 거부권이 '유엔군' 파견을 성사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리란 점은 스탈린 스스로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미국의 '어리석음'이란 소련쪽 진영의 시각이지 미국편을 든 다수 나라들의 관점이 될 수는 없었다. 또한 그것은 소련의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셋째 소련의 불참에 의해 안보리 결정을 비법화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듯이 안보리 결정은 결코 '비법화'되지 않았고 반대로 소련의 불출석으로 인해 '합법화'되었다. 북한의 무력공격을 '침략행위'로 선언(6월 25일)하고, 미국에 최고지휘권을 위임하여 유엔군의 파견을 결의(7월 7일)한 안보리의 결정은 - 소련의 참석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 결코 '비법화'되지 않았다.

14) 「스탈린이 프라하 주재 소련대사에게, 1950.8.27」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62, лл. 71-72. 이 문건은 김동길 교수가 발굴하여 공개한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필립포프는 당시 스탈린이 사용한 필명이다.

넷째, 미국에 자유로운 행동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어리석음'을 범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미국의 군사개입을 사실상 방임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소련 자신이 미국과 당장 대결할 준비를 갖추었고, 미국의 개입에 의해 한반도를 '제국주의 진영'에 넘겨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또한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협적 상황을 원치 않았던 스탈린의 입장을 감안할 때 단순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동시에 그의 언급은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없었던 소련의 처지를 '미화'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안보리 불참에 대해 스탈린이 제시한 4가지 이유 모두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만한 근거가 매우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개전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이 전쟁이 소련과 유럽 사회주의진영에 주는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당장 한국전에 몰두해야 하는 미국이 유럽에 주목하는 것을 연장하여 유럽 사회주의권을 강화시킬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보았다. 미리 언급하자면, 이후 스탈린이 종전에 대해 완강한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스탈린은 그 시점에서 미·중간의 충돌을 예상하고 있었다. 개전 이전에 이미 그는 미군이 개입할 경우 중국군의 파견 문제를 북한측과 논의한 바 있었고, 개전 직후에도 그는 "적이 38선을 넘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조선 국경에 9개의 중국 사단을 신속히 집결시켜 북조선 의용사단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15] 위 서신에서도 스탈린은 중국의 파병을 전제로 세계정세를 예상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에서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 없이 북한 인민군의 신속한 남진에 의해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1차적 목표로 삼았다. 그야 말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무너뜨릴 더 없는 기회로 본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개입에 의해 장기전이 될 경우 중국의 참전을 통해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 놓고 시간을 벌어 유럽 사회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것은 제1차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소련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 이익으로서 유럽의 안보를 보장받기를 원한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이 이러한 '이점'을 개전 이전에 이미 생각하였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더구나 그가 중국의 참전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미국의 개입 후 전세의 변화가 그와 같은 판단을 이끈 것은 아닌지 추측될 뿐이다.

15)「스탈린이 주중대사에게, 1950.7.5」АПРФ, ф. 45, оп. 1, д. 334, л. 79.

소련이 안보리에 불참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보리 참석이 자칫 자국의 전쟁 개입에 대한 인상을 미국에 심어주어 북한과의 공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다. 소련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다면 당장 취해야할 조치로 남한의 비난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것 일터인데, 그렇게 될 경우 소련의 개입 의혹을 낳을 뿐 아니라 북·소는 공개적으로 한편으로 공인 받을 것이었다.[16] 스탈린은 내외로부터의 의구심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우려하여 안보리에 출석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이 틀림없다.

소련은 미국 정부가 6월 27일 북한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군대를 철수해달라고 요구하자 29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사건' 책임을 남한 정권과 그 배후로 돌리면서 "소련 정부는 지금도 조선의 내정에 외국이 간섭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한다"고 발표하였다.[17] 이 성명은 소련의 불출석 명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대외관계의 원칙으로 내세운 '내정불간섭'은 소련의 한국전을 둘러싼 활동에 제약요건이 되었다. 소련의 유엔 안보리 불참이 보여준 것은 전쟁 기간 동안 자신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드러나지 않는 개입'[18]으로 명명할 수 있는 이 행동 방식은 종전까지 지속되었고, 전시 북소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를 규정지었다.

4. 전시 스탈린의 태도와 입장

개전 이후 시간이 갈수록 전황은 공산측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전황의 불확실성은 인민군의 남진으로 남한을 신속하게 접수할 것으로 내다 본 북·중·소 3국 지도부를 긴장시켰다. 애초 미국이 참전할 것인지를 놓고 이들 국가 수뇌부의 판단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김일성은 본심으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을 것임을 확신하였다. 모택동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대비하여 경계해야함을 강조하는 편이었

16) 이에 대해 와다 하루끼는 안보리에서 소련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을 크게 자극하여, 소련과 북한은 일체가 되어 공격 받게 되고 전쟁이 확대될 우려 때문에 안보리 회의 불참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와다 하루끼/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34쪽.

17) 「프라우다」 1950년 6월 30일 자.

18) 앞의 글에서 필자는 이 개입 형태를 '비밀개입(secret intervention)'이라 불렀다. 두 개념의 차이는 별반 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은 개입(undisclosed intervention)'이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하였다.

다. 반면 스탈린은 미국의 참전은 없을 것으로 보았지만 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 경우 이에 대항하는 책임은 중국이 맡아야 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 스탈린이 기대한 전쟁 시나리오는 북한 인민군의 속전속결을 통해 신속하게 전쟁을 마무리하는데 있었다. 남한의 '해방'이 빠를수록 미국의 군사적 간섭의 기회는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었다.[19]

유엔 안보리 불참으로 나타난 소련의 소극적인 행태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시 기간 많은 실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전쟁의 전체적인 특징을 규정지을 정도로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주둔 소련 군대가 1948년 12월까지 거의 대부분 본국으로 철수한 이후에도 소련군사고문들은 북한 인민군 부대에 배속되어 무장과 훈련을 지원하였고, 개전 직전에는 이들의 참여하에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개전 후 스탈린은 군사고문들의 참전을 숨기기 위해 그들의 전선 파견을 금지시켰으며, 불가피한 경우 민간복을 입히도록 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종국적으로 북한군대의 전투력과 작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개전 초 전황을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 소련의 활동은 대한반도 외교를 고찰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7월 13일 스탈린은 북한 인민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에 대한 영국의 요구를 몰염치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소련과 중국이 참가하는 안보리를 통해서 비로소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조선의 대표를 초청하여 그들의 의견도 청취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20] 또한 인도 수상 네루는 미·소 양국에 중국인민정부가 참석한 대화의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군사작전 중지를 제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련은 즉각 찬동하였다. 소련의 접근 방식은 중국의 안보리 진입이 허용된다면 군사작전의 중지를 모색해볼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직접 개입이 가져다준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소련은 그와 같은 반응보다는 미국의 내정 간섭과 군사간섭 중지에 더욱 주목했을 것이었다. 불확실한 전황은 소련의 대외적 태도를 위축시킨 것이다.

한국전쟁 시기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을 역임한 흐루시초프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국전을 둘러싼 스탈린의 태도와 방침에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스탈린의 미온적인 군사원조를 탓하면서 이를 북한이 승리하지 못한 원

19) 이에 대해서는 기광서「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軍史』第63號, 2007), 98쪽 참조.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간 '스탈린의 음모론'에 입각하여 널리 퍼진 한국전쟁에 관한 여러 가설들, 이를 테면, '미·중 대결유도 음모설', '압력분산설', '미·일조약견제설' 등을 무력하게 만들 뿐이다.

20)「스탈린이 스티코프에게, 1950.7.13」 АПРФ, ф. 45, оп. 1, д. 346, лл. 149-150·

인으로 보았다.[21] 그러나 스탈린은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유엔군의 북진으로 북한이 파멸적 타격을 받은 위기상황에서도 직접 개입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극동으로 우리 이웃을 거쳐 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로 올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들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22]

그렇다면 소련을 대신한 중국의 책임이 부각되어야 했지만 중·소간의 그 같은 약속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다. 전쟁 전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미군이 참전할 경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지만[23]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두에 불과한 것이었다. 인천상륙작전 후 북한의 절박한 지원 요청이 있자 스탈린은 중국의 파병을 종용하였다. 소련지상군 파병은 애초부터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더욱이 중국 지도부의 참전 결정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음에 중국은 오히려 참전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아갔고, 이에 스탈린은 북한을 '포기'하고 북한지도부에 망명정부를 준비할 것을 일렀다. 이 위급한 국면에서 중국지도부는 파병 결정을 내렸고, 북한은 패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소련의 태도와 입장은 북한 지도부의 적지 않은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미공군의 위세에 눌린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련에 '국제항공력'으로 명기된 소련 공군의 지원을 기대하였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소련군대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직접 개입 의사가 전혀 없는 소련은 무기 및 군수기재 제공이나 중국 군대의 파병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취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북한 내부의 반발은 상당히 축척되어 갔다. 특히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 출신인 민족보위성 문화부상 김일(金一)이 소련고문과의 대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문들이나 그들의 조언이 아닌 실질적 지원이다"라고 거칠게 표현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24]

---

21) Хрущев Н. С. Воспоминания. Время, люди, власть. Т. 2, М., 1999, с. 85.

22) Там же, с. 86.

23) 모택동은 1949년 5월 북한 민족보위성 부상 김일 및 1950년 4월 주중대사 이주연과의 대담에서 전쟁 개시 이후 중국의 대북 지원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24)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조선의 정치정세에 대하여,1950.10.13)」 ЦАМО, ф. 5, оп, 918795, д. 124, лл. 137-138. 소련측의 항의를 받은 이 사건으로 김일은 자신의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강요받았다. 그러나 그가 파격적으로 1952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용된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1950년 10월 중순 우여곡절 끝에 소련 군대를 대신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북한은 위기에서 벗어났다. 중국의 파병으로 한국전쟁은 완연하게 국제전으로 변모되었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모택동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전쟁에 대한 스탈린의 지도적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모택동에게 이전되었다. 전쟁 기간 스탈린과 모택동의 관계는 견고했고, 전자는 후자에게 우의적인 태도를, 후자는 전자에게 충실함을 보였다. 이 관계는 스탈린-김일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택동에 비해 나이와 혁명 경험이 적은 김일성이 보다 충실한 태도를 보였을 뿐 표면적으로 당시 소련에 대한 충실성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스탈린은 북·중 사이에서 '혁명의 스승'으로서 변함없이 자신의 위상을 지킬 수 있었다.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 등 군수 물자에 대한 원조를 지속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스탈린은 제공되는 군사원조의 대부분이 유상판매의 형식을 띠기는 했으나 무기를 비롯한 전쟁 수행 물자에 대한 북한과 중국측의 원조 요청을 대부분 주저 없이 수용하였다.

소련 지상군의 파견 불가 방침은 북한과 중국 지도부도 너무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항공력 지원은 별개의 문제였다. 전쟁 초기부터 북한은 이를 절실히 기대하였고, 중국의 참전 결정에서 부가 조건 역시 소련 공군력의 지원이었다.

1951년 1월 초순 공산측은 서울을 다시 점령하였지만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彭德懷)는 1월 8일 남진을 중단하고 두 달 간 휴식을 취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은 신속한 승리를 원했던 북한 지도부의 강한 불만과 반발을 불러왔다. 이때 스탈린은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용군은 38도선 이북을 통제하고 북한인민군이 남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로 북·중간에 이견이 도출되었고, 결국 북한지도부는 단독의 남진을 모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중국측 의견에 따라 두 달간의 휴식과 정비를 받아들였다.[25]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스탈린의 지시가 그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가 자국의 개입뿐 아니라 중국군대의 참전에 대해서도 국제 여론을 의식하고, '방어적' 자세를 고수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 후 중국군은 공세를 전환할 때에도 남쪽을 점령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전쟁은 진지전의 모습을 띠어 갔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스탈린의 전쟁 목표는 앞의 고트발트에게 보낸 서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즉, 미국이 이 전쟁에서 녹초가 되고, 이것은 유럽사회주의의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전망과 맞아 떨어진 것이다. 스탈린은 1951년 6월 5일 모택동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쟁을 가속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25) 션즈화(沈志華)/최만원 역, 『마오쩌뚱, 스탈린과 조선전쟁』, 392~399쪽 참조.

에서 그와 동일한 견해를 표했다. 그는 그 이유로 장기전이 첫째, 중국 군대에 현대전을 습득케 하고, 둘째, 트루만 체제를 동요시키고 미·영 군대의 위신을 실추시킬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26] 동시에 그는 김일성·고강과의 회담을 통해 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다만 그에 대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했다.

1951년 7월에 시작된 휴전 협상을 주도한 것은 모택동이었다. 그는 회담의 구체적 진전에 따라 수시로 지시를 내렸고 스탈린에게 정기적으로 협상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27] 스탈린은 필요한 경우 조언과 지시를 통해 협상을 지휘하였다. 계속된 휴전회담에도 유엔과 공산 양측은 포로문제 등에 대한 공방으로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쟁의 장기화 문제는 조기 종전을 원했던 북한지도부의 입장과는 상충되었으나 휴전 협상의 난항과 더불어 스탈린의 견해에 대한 중국측의 공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쉽게 해소될 수 없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그해 3월 스탈린 사망 이후의 일이다. 스탈린은 장기전을 통해 특히 유럽에서의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그가 빠진 소련지도부는 포로교환에 관한 그간 주장을 양보함으로써 종전을 선택하였다.[28] 이것은 소련 내에서 사실상 스탈린 단독으로 지휘한 한국전의 지속을 거의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었다.

5. 맺음말

한국전쟁은 김일성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여기서 스탈린은 지도와 원조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참전으로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이 역할이 변함없이 지속되었음은 물론이다.

전쟁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은 그의 조언과 지시에 매우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 모국' 소련의 리더십에 대한 신생 사회주의국가들의 충성을 들 수 있다.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로서 '살아 있는 화신'인 스탈린의 권위는 모든 사회주의권의 상징과 다를 바 없었던 시기였다.

26) 「스탈린이 크라솁스키에게(1951.6.5)」, АПРФ, ф. 45, оп. 1, д. 339, л. 24.

27)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149쪽.

28) 말렌코프를 위시한 소련지도부의 종전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문건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둘째는 신생국가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 대한 소련의 원조를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북한과 중국으로서는 소련제 군수장비 없이 전쟁을 치르기는 불가능하였다. 소련의 무기 원조와 전쟁 지도에 의지하는 처지에서 그 권위에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1950년 초 스탈린이 김일성의 개전 요청에 동의하게 된 주요 계기는 동아시아에서 중국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사회주의진영의 확대에 힘입은 것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조건에서도 북한의 진격 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면 스탈린은 개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였다.

한국전쟁 기간 소련이 견지한 초지일관한 원칙과 태도는 '자국의 드러나지 않는 개입'이었다. 그것은 개전 직후 유엔의 한국전 개입을 막을 수 있었던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소련 군사고문들의 전선 파견 금지, 낙동강 전선 교착 시기 및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소련군 파견 거부, 중국과 북한 비행기로 위장한 소련 공군 항공대의 제한적 참전 등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입장에서 소련 공군의 방어적 참전과 군수기재 지원만으로 그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못했다.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개입'은 전쟁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비능동적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소련이 '드러나지 않은' 개입을 수행한 주된 이유는 바로 미국과 직접 충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미국측 계산과 마찬가지로 미·소의 군사적 충돌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대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스탈린이 본 전쟁 시나리오는 북한군의 신속한 진격과 속전속결을 통한 남한 점령에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을 위시한 관련 공산권 모두가 바라는 최상의 목표 실현 방안이었다. 하지만 '고트발트 서한'에 나타난 대로 그는 이 시나리오가 미국의 군사개입으로 실패할 것에 대비하여 중국의 참전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북한이 위기에 처할 경우 소련의 책임 역할을 중국에 떠넘길 예정이었다. 중국과의 대결은 미국을 지치게 하여 유럽의 안보와 사회주의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2차적' 구상은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적중되었다.

소련은 전쟁 승리를 위해 북한과 중국측에 아낌없이 무기와 군사장비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전쟁 초 소련의 제한적인 지원 및 직접 개입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를 좌절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북한의 피폐는 조속한 종전을 원한 북한과, 장기전 속에서 미국에 대한 견제 수단을 찾은 소련 사이에 보이지 않은 갈등의 씨앗을

뿌렸을 것이다.

전쟁 기간 불거져 나온 북한의 대소 불만이 전후 이들 나라의 관계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였다. 전쟁 시기에는 북한이 '혁명의 스승'인 스탈린의 권위에 맞서는 행동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그의 사망은 북소관계에서 이전 양상을 변화시킨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입장: 유엔안보리 불출석과 '드러나지 않은' 개입」에 대한 토론문

정병준(이화여대 사학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개최되는 뜻깊은 한러수교 20주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전쟁 전문가이자 러시아 관련 자료·연구의 국내 최고전문가인 기광서교수님의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광서교수님은 러시아에서 새로 발굴·공개된 러시아문서에 기초해서 한국현대사, 북한현대사, 한국전쟁사에 대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함과 동시에 중요한 연구사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저 역시 한국전쟁사를 연구함에 있어 기광서교수님의 러시아문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견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오늘 기광서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소련·스탈린의 정책적 입장이 어떠했는가 하는 점을 추적한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다양한 쟁점들과 논란들이 있는 주제들이며 이에 대해 개괄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전쟁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뜻깊은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으므로 管見에 따라 몇 가지 지엽적인 소감 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 전쟁은 내전으로 출발해 국제전으로 전화된 것인가?

이 발표문의 저류에 흐르는 학문적 판단은 한국전쟁이 내전으로 시작되어 국제전으로 전화했다고 보는데 있다. 북한의 공격에 의해 내전이 시작되었고, 미국·중국·소련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으로 전화되었다는 판단이다.

한국전쟁의 성격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내전, 국제전, 내전에서 국제전으로의 전화, 내전적 국제전) 중의 하나이지만, 역시 핵심은 공격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토론자의 입장은 북한이 공격을 시작하고 전쟁을 주도했지만, 역시 행위의 실행자였지, 정책적 결정을 책임진 결정자는 아니었다는 쪽에 있다. 즉 북한은 전쟁 개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주도자였지만, 개전의 결정자는 아니었다. 먼

저 정치적으로 스탈린은 개전의 최고 결정·책임자였으며, 개전 이후 벌어질 모든 상황에서 소련을 감추는 특권을 향유하는 한편 중국이 위기에 처한 북한을 구원할 책임을 지녀야한다고 결정할 정도의 특권을 가졌다.

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이 공격을 개시하면서, 남한의 선제 공격에 맞대응하는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격전을 내세운 부분에 있었는데, 이는 1949년 3월 스탈린이 김일성·박헌영과 회견했을 때 제시한 가장 중요한 개전의 원칙 중 하나였다.

군사적으로 개전당시 북한군은 소련의 무기·장비, 소련군사고문단의 작전계획·지휘에 예속되어 있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정찰지령이 러시아문서로 작성된 것은 북한군 지휘부·참모부가 작전지휘·참모능력이 현저히 부족·결여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1)]

개전 당시 전장에서는 북과 남이 싸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군은 북한제라기 보다는 소련제, 혹은 소련이 북한에서 현지 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전의 결정권, 개전의 방식, 주요군사 요소의 구성에서 북한의 주체·자주적인 면모보다는 소련의 결정·영향력이 보다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독자적 개전결정과 군사력 준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스탈린의 역할은 이와 관련해서야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탈린은 무엇을 우려했는가?

발표자는 북한이 비무력적인 방식의 통일방안을 완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냉정하게 보자면 이런 제안은 공격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和戰兩面전술의 일환이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 내부의 평가도 그러했다.

스탈린이 1949년 내내 북한의 공격을 제어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 선제공격 불가, 둘째 북한군의 병력·무기·훈련의 부족, 셋째 미국의 개입가능성이었다. 그중에서도 스탈린이 가장 중심을 둔 것은 미국의 개입가능성이었다. 1949년말 1950년초 스탈린이 입장을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공산화와 미국의 불개입때문이었다.

유럽우선주의자였던 스탈린은 마오쩌둥 등을 마가린공산주의라고 부른데서 알

1) NARA, Record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Entry 300C, box.24, ATIS Document no.200686. <공격작전용 조선인민군 정찰계획(Intelligence Plan of the North Korean Army for a Attack Operation)>(1950. 6. 20.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장)의 영어번역을 한글로 重譯. 정병준, 2006 ≪한국전쟁≫ 돌베개 755~760쪽.

수 있듯이 중국의 공산화에 높은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되었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는 쉽게 공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아마도 스탈린의 내심 최고의 목표는 일본이었을 것이다.

스탈린이 중국의 공산화로 중국에 반환한 이권을 한국전을 통해 대신 보충하려고 했다는 센즈화(沈志華)의 가설은 흥미롭지만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 한국전쟁 시 미군이 노획한 소위 '북한노획문서'에 따르자면 이미 1947년 7월 10일부터 30년간 청진·나진·웅기항과 관련시설은 조쏘해운주식회사(모르크란쓰)에 양도된 상태였다. 조쏘해운주식회사와 함경북도인민위원회가 1947년 4월 해당 항구와 시설에 대한 양도수(讓渡受)협정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2] 즉 이미 소련은 북한의 주요 부동항에 대해 30년간이나 사실상의 조차권을 획득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3. 유엔안보리 보이코트와 '고트발트 서한'

스탈린의 6월 27일 유엔안보리 보이코트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즉 가장 중요한 목표가 소련의 배후·개입 은폐였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다른 한가지 사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스탈린이 소련의 개입을 방지하는데 골몰했을 뿐, 미국의 결의와 태도에 대해서는 오판을 갖고 있었고, 개전 초기에 낙관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이 발표에서 거론되지 않았지만, 한국전쟁에 대처하는 미국의 결의는 이 전쟁을 북한의 남한 공격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남한/미국 공격으로 판단한데 있었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 전 미군이 개입했으며, 항공공격에 이어 지상군 개입까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미 7월 5일 미24사단의 1개 대대가 대전 북방 오산에서 북한군과 대면했고, 그후 9일 뒤인 7월 14일부터 미24사단이 금강, 대전, 영동에서 북한군과 싸웠다. 미군은 패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개전 후 10일만에 미군 대대급이, 20일 뒤에는 사단급이 한국의 최전선에 나타나 북한군을 저지했다는 사실이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미군의 해외참전사에서 이런 기록은 전무후무할 정도의 빠른 속도였으며 이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미국의 이런 결의는 한국 자체의 전략적 중요성보다는 역시 중국공산화

2) NARA. RG 242, ATIS Document no.204559B <중국동북물자북조선통과협정의 附件>(1947. 11. 6). 정병준, 2006 ≪한국전쟁≫ 돌베개 300쪽.

에 대한 교훈에서 비롯되었으며, 일본실함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기초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장에서 소련군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소련을 상대한다는 결의와 위력을 과시했던 것이다.

사실 종심 400km가 안되는 전선에서 10개 사단, 2개 군단으로 구성된 북한군을 운용하는 것은 2차대전 중 독소전쟁을 치룬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손쉬운 일이었다. 문제는 북한군의 준비, 능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강력한 결의와 공중폭격, 해상봉쇄가 연이었다는 것이다.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고트발트서한은 개전 초기의 은폐와 낙관주의가 모두 실패로 귀결된 뒤 이해하기 힘든 스탈린의 태도(개입 은폐, 안보리 보이코트)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중국백서를 통해 마오쩌둥의 민족주의를 자극해 티토화시키려 한 것처럼, 소련이 중국을 이용해 미국의 힘을 소진시키고 유럽에 가해지는 압력을 약화시키며 활동의 자유를 얻고자 했을 수도 있겠다.

역시 한국전쟁의 발발은 1949년 중국대륙의 공산화와 직결된 것으로, 미국·소련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은 한국 자체보다는 중국사태의 영향 하에 놓여져 있었으며, 최종 목표는 일본의 향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전쟁에 임하는 미국·소련의 태도와 입장을 설명해주는 감춰진 요소였다고 생각된다.

미국이 전쟁으로 녹초가 되고, 이로 인해 유럽사회주의가 강화된다는 전망은 맞아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소련이 책임과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방기하고 은폐하는 비겁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총지휘부·지도자로서 소련·스탈린의 권위는 아시아에서 현저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교재에 나타난 한국전쟁 인식: 전쟁 발발의 원인을 중심으로

기계형(한양대)

I. 머리말

한국전쟁은 한국 현대사에 깊은 음영을 드리운 사건으로서 그 성격의 해명을 둘러싸고 국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다. 한국 전쟁은 그동안 발발의 원인, 경과과정, 결과 등에 있어 많은 쟁점이 오가는 연구 주제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전쟁 발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1950-60년대의 '전통주의' 해석, 1970-80년대의 '수정주의' 해석,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신전통주의' 해석 또는 '신수정주의' 해석 등 다양한 입장이 전개된 바 있으며, 국내외 한국전쟁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쟁이 진행 중이다. 전쟁발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원론(외적, 내적 기원)과 개전론(북침설, 남침설, 남침유도설)으로 나뉘어, 한편에서는 전쟁이 공산주의 진영을 확대하려는 스탈린 책략의 하나로서 소련에 의해 미리 숙고되고 소련의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내키지 않는 찬성을 얻은 김일성과 그 후 1949년 겨울과 1950년 봄에 탱크와 중포 등 소련에 의해 행해진 지원역할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확실히 끝장내는 전쟁을 하게 만들려고 1950년 5월에 이승만대통령이 전쟁준비를 한 상태에서 북한의 도발을 일으켰다는 입장에서부터, 전쟁발발 전 거의 9개월 동안 38선을 사이에 두고 분계선을 따라 군대가 배치되고 계속해서 산발적인 소규모 전투가 일어나는 등 긴장감이 돌았던 점을 고려해 한국전쟁을 이러한 전투들의 연장선으로 보는 입장까지 여전히 논쟁 중이다.[1)]

그런데 한국전쟁 연구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전환점은 페레스트로이카 초기에 부분적으로만 공개되었던 스탈린시대의 비밀문서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거 공개되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40여 년 동안 문서고의 뿌연 먼지 속에 파묻혀있던 한국전쟁 관련 사료들에 기초해 새로운 사실들과 그에 대한

1) 기밀해제문서를 분석한 위더스비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B. Cumings로 대표되는 수정주의학파의 문제점에 대한 위더스비의 발표문 참조. Kathryn Weathersby, "The Decision to Attack: Reflections on the Context in Pyongyang, Moscow." 북중소 3각관계가 6.25전쟁 과정과 전후 북한외교 형태에 미친 영향: 기밀해제 문서를 중심으로, 2010년 제 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p. 15-24. 83-98.

해석이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4년 6월 2일 모스크바 한-러정상회담을 마친 후, 옐친대통령이 김영삼대통령에게 그 중 일부 사료를 넘겨주었고 7월20일 언론에 공개되면서 한국전쟁의 발발기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북침설,' '남침설,' '남침유도설' 논쟁은 러시아 정부 측이 제공한 공개자료에 의해 '남침'으로 일견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2)]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연구자들의 저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특히 2000년대에 러시아에서 출간된 대학교재들과 초중등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해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2009년 5월말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러 포럼에서 발표한 쿨마토프(К. Н. Кулматов) 교수의 짧은 기조연설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쿨마토프교수는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산하의 현대국제관계연구소(ИАМП)의 부소장이자 키르기스스탄 학술원 위원으로서 2009년 봄 한-러포럼에 참가하였다. 그는 "러시아의 새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역사: 한-러 협력을 위한 제안"이라는 발표문에서 역사해석의 변화에 따른 교과서 개정의 문제를 다루었다.[3)] 그는 다음과 같이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역사해석의 이데올로기적 편중과 주관주의가 교재에서 삭제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대학과 초중등학교(школа)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들 교재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객관적, 역사적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에 뒤 이어, 그는 "최근 수년 동안 러시아에서 새로운 세대의 교재가 많이 출간되었으며 이들 교재들은 균형감각이 있고 객관적인 역사분석인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예컨대 "한반도: 전후 역사의 변형"에 대해 이러한 변화를 따르고 있는 중요한 교재의 예로 꼽고 있다. 실제로 이 교재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 각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4)]

쿨마토프는 본론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여러 주제들을 지적하는 가운데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즉, "러시아

2) 해제된 러시아 문서자료에 기초한 토르쿠노프의 저작 Загадочная вой на: корей ский конфликт 1950—1953 го дов (М., Росспэн. 2000)은『수수께끼의 전쟁: 한국전쟁(1950-1953)』으로 번역되었다(김종서 옮김, 에디터, 2003). 러시아문서자료는 이미 번역되어 상당부분이 우드로윌슨센터의 '국제냉전사 프로젝트(Korean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r, KWIHP)의 한국전 배너에 영어로 번역되어있다.www.cwihp.org 「러시아 제공 한국전쟁 관련문서: 6.25의 기원은 이렇다」,『통일한국』, 1994년 9월호(통권 제129호), 82~89쪽; 김학준, 「6·25전쟁은 스탈린이 일으켰다」,『국제정치논총』제 42집, 1호(2002), 297-307쪽.

3) К. Н. Кулматов, "Новые россий ские учебники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 - Вклад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осс 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Россий ско-Корей ский Форум Чечжудо (2009년 5월 26일~5월 31일)

4) Торкунов А. В., Денисов В. И., Ли Вл. Ф.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2008.

의 역사학자들과 국제관계 학자들은 한국전쟁의 주요 발발 원인 및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북한 측의 시각을 크게 탈피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문서보관소 자료공개를 통해, 한반도의 무력통일에 대해서는 모스크바와 베이징 당국의 승인을 받으려 노력했던 북한지도부에 전쟁발발의 주요 책임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 비극적 전쟁에서 승리자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 러시아 학자들의 평가이다."[5]

통상적으로 교과서, 다시 말해 교육용 교재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의 차원, 학문적 차원, 정치적 차원 등 복잡한 차원을 가진다.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전쟁의 차원이라 부를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며, 특히 초중등교육을 비롯해 대학교육을 위한 역사교재는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역사교재와 관련된 논의는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논의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쿨마토프의 언급은 러시아 사회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언명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한국 역사교육의 현 단계를 성찰하도록 해주는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대안교과서' 논의를 둘러싼 뜨거운 '열전'의 주제들 가운데 해방 전후사, 전쟁, 분단의 주제들은 아직도 해명되지 않는 과제로 남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학자들 가운데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쓰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아가 한국전쟁과 같이 지금도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서술의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은 한러간 상호 역사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러시아(당시 소련)에 대한 인식은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인해 러시아라는 실체 그 자체보다는 왜곡된 '타자'로서의 러시아일 가능성이 농후했으며,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성립된 한국사회에 러시아는 낯선 '타자'로 존재해왔으며, 그것은 분단의 시대를 살면서 한국인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의도적으로 또는 필요에 의해 러시아를 낯선 '타자'로 설정하게 된 역사적 맥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6]

---

5) К. Н. Кулматов, 위의 발표문, cc. 2~6.

6) 타자는 민족과 국가 내부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 대외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중심주의 사고에서 나온 오리엔탈리즘이나, 일본에서 단일민족주의론을 강조하기 위해 재일한국인을 타자화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러시아 인식에서는 역시 자본주의/공산주의, 서구/동구 등의 이분법을 통한 타자화의 방식이 적용되고 확대된 측면이 있다. ,

역사인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관련연구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최근 10년의 상황에 주목하여 러시아의 한국전쟁 인식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2000년 이후 러시아 한국전쟁 연구의 성과들이 반영된 대학교재 5권과 슈콜라 11학년 세계사 교과서 4종을 분석대상으로 국한하며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을 중심으로 각 교재들에서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교재에서 확인되는 러시아의 한국전쟁 인식은 단순히 교육과정에서 교재의 내용이 약간 가감된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역사학계에 나타난 더 깊은 학문적, 정치적 차원의 변화들이 반영되어 있는 복합적 상황의 결과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러시아의 한국사 교육용 대학교재들과 슈콜라 11학년 교과서의 특징에 대한 개관

1990년 한-러수교 이후 양국의 이해증진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초중등 교과서 분석' 학술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으며, 교과서분석을 다룬 연구논문들도 중요한 성과로 남아있다.[7] 그런데, 적어도 필자의 기억으로는 대학의 수업에서 사용되는 역사교재에 대한 분석의 예는 없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각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사료에 따라 연구내용의 편차가 클 수 있으며, 따라서 주제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국제관계학, 역사학(현대사, 최근세사) 분야를 공부하는 학부 학생들의 참고문헌과 대학원 진학시험을 위한 필독서에 속하는 교재라면 분석을 위한 중요한 문헌의 표본으로 삼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모스크바 대학, 상트 페테르부르그 대학,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대학의 국제관계학, 한국학, 역사학 관련 학과들에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읽히는 책들을 조사한 후, 주로 2000년 이후에 출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5권의 교재를 선별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고전적 커리큘럼에 포함되는『한국의 역사: 고대부터 현대까지』(1974년 판)를 이용하였다.[8] 각 교재의 내용을 간략하게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7) 박상철, 「러시아의 역사 교육과 교육목표」,『역사교육』, 제100집(2006), pp. 131~160; 박상철, 「러시아 역사교과서 속의 러일전쟁 」,『역사교육』, 제90집 2004.6, pp. 23~50(28pages); 동북아재단

8) ①『한국의 역사: 고대부터 현대까지』 (История Корей : с древней 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vol. I~II, 1974). ②『러시아의 한국학 연구: 역사와 현재』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ответ

우선, 1974년에 출간되었으며 총 2권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역사』는 광범위한 자료에 기반한 통사로서 한국의 고중세사와 근대사에 대한 서술은 독보적인데, 특히 해방이후 현대사에 대한 서술은 철저히 북한이라는 창을 통해 바라보는 역사인식이 깔려있다. 현대사에서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걷게 된 남북한 역사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지점은 바로 한국전쟁 장이다. 이 책에서 한국전쟁은 남한의 침략에 의해 발발한 "조국해방전쟁"으로 서술된다. 전쟁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책은 냉전 시기 소련의 한국전쟁 인식의 기본 틀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3부의 제 2장 '조국해방전쟁'은 주로 김일성의 저작들과 북한에서 출간된 전쟁관련 사료집, 그 외에 마주로프와 마추렌코 등의 글에 기초하고 있다. 이 책은 미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군사전략기지로 보았으며 이승만정부 수립이후 미국의 침략정책은 표면화되었다는 인식을 밑에 깔고, 이승만은 북한침공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지배층도 남한의 공격준비를 공공연히 지지하고 후원했다는 설명이 주를 이룬다.[9] 결국, 이승만은 북한에 대한 침공준비와 아울러 38도선에서 군사스파이활동을 확대하여 1949년 1년 동안 무려 1836건의 무장봉기를 북한영토에서 전개하고 1950년 5월 하순경에 38도선에서 도발행위를 계속하였다가 결국 6월 25일에 북한을 침공했다는 설명이다.[10]

다음으로,『러시아의 한국학연구』는 1999년에 초판이 출간된 이후 2004년에 러시아의 한국학총서 제 2권으로 수정 간행되었다. 러시아의 한국학 총서 시리즈는 1995년 당시 모스크바에 소재한 동방학연구소의 한-몽골과 학과장이었던 유리 바닌이 러시아 한국학의 성과를 각 분야별로 종합정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여 현재까지 6권을 간행하였다. 그 중에서 제 2권 집필에는 바닌을 포함해 짜가이, 그랴즈노프, 마주로프, 시니찐 등이 참여했는데, 남북한 자체에 대해 각각 돌립적으로 고유한 설명을 시도한다는 인상을 남긴다. 러시아의 한국학 동향에 관한 자료로서 한국에 소개된 최고의 수작으로 손꼽을 만하다. 바닌은 한국전쟁 연구를 크게 4단계, 즉 ①1950-1953, ②1953년 이후, ③1960년대 말, ④1990년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1960년대 말 이후부터 북한의 전쟁해석과 동일했던 소련의 해석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90년 한러 수교 이후에는 본질적으

ственный редактор, Ванцн, Ю. В. 2004). (기광서 번역, 『러시아의 한국연구』, 1999) ③ 『한국의 역사: 새로운 독해』 (История Кореи :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под редакцией А. В. Торкунова. Учебники МГИМО, 2003). ④『한국사 강의: 고대에서 20세기 말까지』 (Курбанов С. О.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 :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ека, 2003년판과 2009년판). ⑤『한반도: 전후 역사의 변형』(Торкунов А. В., Денисов В. И., Ли Вл. Ф.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2008).

9) История Корей : с древней 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 vol. I~II, 1974.

10) История Корей : с древней 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 **특히, vol. II, 한국전쟁 단원.**

로 변화하였으며, 한국전쟁의 세부주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간신히 출발점에 서게 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11] 이 책은 새로운 이념적 상황에 맞춰 조급하게 서술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한국전쟁의 원인, 성격, 과정, 미국과 소련, 중국의 참전수준과 형태, 유엔의 역할 등 한국전쟁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와, 전쟁 당사국들의 문서보관소 자료에 입각한 진지한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쟁 연구사를 조망하며 내린 이러한 결론은 냉전시대의 서술과 철저히 비교되는 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역사: 새로운 독해』는 토르쿠노프의 책임편집 하에, 그 자신이 서론과 본론을 맡고, 볼코프, 란코프, 블라디미르 리, 데니소프, 트카첸코, 그리고 수히닌이 필자로 참가했다. 특별히 국제관계와 지역학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교과서용으로 권고된다는 표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국제관계 대학에서 주요 수업교재로 채택되고 있다. 토르쿠노프는 1990년대 이후 개방된 스탈린관련 문서들에 기초하여 『수수께끼의 전쟁: 한국전쟁, 1950-1953』을 비롯해, 우핌쩨프와의 공저인 『한국문제』 등 다수의 저작을 남긴 바 있다.[12] 『한국의 역사: 새로운 독해』는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의 타결에 대한 준비가 어떠했는지, 소련과 중국은 군사적 방법에 의해 조선통일을 이루려는 김일성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밝힘으로써,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스탈린의 관련성, 다시 말해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김일성의 남침에 대한 스탈린(과 모택동)의 승인과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13]

아울러 상트 페테르부르그대학에서 한국사 교재로 채택된 쿠르바노프 교수의 저작『한국사강의: 고대에서 20세기 말까지』는 2000년 이후 러시아 한국학 연구자들의 변화된 시각,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확인하게 해준다. 쿠르바노프 교수는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 남한이나 북한, 미국이나 소련, 중국 등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서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전쟁은 불가피했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짓는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전쟁의 기본적이고 객관적 원인은 한국이 서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련과 미국이라는 양립하는 2개 블록의 지원을 받는 2개의 적대적인 국가로 ‘분리’되었던 데 있다.[14] 그런 맥락에서 전쟁 발발의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짓는 다수의 원인들이 있

11)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ответственный редактор, Ванцн, Ю. В. 한국전쟁 단원.

12) А. В. Торкунов, Загадочная вой на: корей ский конфликт 1950—1953 годов (М., Росспэн. 2000); А. В. Торкунов, Е. П. Уфимцев, Корей ская проблема: новый взгляд (М., Анкил. 1995).

13) История Кореи :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под редакцией А. В. Торкунова. сс. 338-343.(뒤에서 История Кореи로 약칭)

다고 적고 있다.

마지막으로『한반도: 전후 역사의 변형』은 1945년 해방 이후의 한국현대사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을 보여주는 책이다. 토르쿠노프, 데니소프, 그리고 블라디미르 리가 함께 저술한 이 저작은 두 개의 한국을 수평적으로 놓고 중요한 국면마다 어떻게 변형을 겪는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한 기술은 기본적으로『한국의 역사: 새로운 독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3장에서 전쟁의 전개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의 '위대한 제한전'은 내전(1단계), 유엔 깃발 아래서 충돌의 격화(2단계), 중공의용군의 전쟁 개입(3단계)으로 급변을 겪었다. 그는 한국전쟁에 대해 대다수 주변 국가들을 참여시킨 비극적인 전쟁이지만, 한국전쟁은 핵무기 충돌로 나가지 않았으며, 대규모 세계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대한 제한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5)]

III. 러시아 교재에 나타난 한국전쟁 발발원인

앞에서는 러시아 교재의 일반적 성격을 주로 언급하였는데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 연구자들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은, 토르쿠노프가 책임편집한 저작『한국의 역사: 새로운 독해』(2003)와 『한반도: 전후 역사의 변형』(2008)과 쿠르바노프의 저작『한국사강의: 고대에서 20세기 말까지』(2009)을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전자는 모스크바대학에서 후자는 상트 페테르부르그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및 한국학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토르쿠노프가 부분 저술 및 책임편찬하거나 토르쿠노프, 데니소프, 블라디미르 리의 공동저술의 형태를 띠는 공동저작이라면, 후자는 쿠르바노프 한 사람이 고대사에서부터 최근까지의 장시간의 흐름을 혼자서 집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 각론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토르쿠노프는 우선,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책의 출간은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관련이 있으며, 현재의 우리의 지식에 기초해서 그리고 세계의 한국학이 도달한 성과들에 입각해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민족의 역사가 해

14) С. О. Курбанов.,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 :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ека, 2009년 판, с. 422. (이후 Курс лекций로 약칭)

15)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뒤에서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로 약칭. с. 123.

명되어 있다. 저자들은 새로운 교과서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트 페테르부르그에 이르기까지 거의 10여 개 대학에서 한국문제를 직업으로서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한국과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대학원생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문명을 지니고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 민족의 역사, 문화, 전통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이해를 부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책은 한국의 운명, 그리고 이주민의 형태로 이미 2세기 이상 러시아의 운명과 깊은 관련을 가진 고려인들, 그리고 거주민들을 포함한다."[16] 토르쿠노프를 비롯해 『한국의 역사: 새로운 독해』의 저자들은 한러수교 이후 일어난 한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라는 현실의 필요에 의해 책을 출간하였는데, 한국학 연구의 주요 성과들에 기초하여 한국학 연구자들을 위한 교과서일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고무시키는 대중서로서의 기능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토르쿠노프는 이 저작이 소비에트시대의 전통적 역사학과는 선을 긋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업을 하게 만든 중대한 동기들 중 하나는, 학생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배우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점에 있었다. 한국전쟁, 분단, 50~80년대 북한의 정치발전 등 현대사의 어떤 사건들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운동, 50~60년대 북한의 분파간 투쟁 등에 대해서도 공백이 있다. 고대사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의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고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미권에서 출판된 영어문헌과 남한에서 출판된 문헌과 완전히 다르기도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토르쿠노프는 예컨대 한국전쟁의 원인과 과정 등 현대사의 사건을 해명할 때, "당의 '영웅적 노선'에 대한 반대를 불허하려는 소련의 '상부기관' 쪽에서 역사서를 전체적으로 통제"할 뿐 아니라, '역사적 진리'라고 승인하는 것은 당과 국가이며, 그와 다를 때 그것에 대해 "지극히 병적으로 반응하는 평양과의 관계에서 복잡해지는 것을 불허하는 상층부의 바램"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련에서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7]

이러한 주장은 다른 학문에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한국사 연구가 역사학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 있었다는 점에 대한 뼈아픈 지적일 수 있다. 여타의 다른 해석을 불허하며, 연구주제를 통제하고, 국가간 관계에 따라 역사적 진리가 바뀌는, 다시 말해 역사의 객관성이 결핍된 연구상황에 있는 기존의 소련 역사학계에 대한 철

16) А. В. Торку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3

17)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4.

저한 비판이자 반성일 수 있었다. 아울러 전쟁, 분단 등 현대사의 뜨거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동안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에 대한 뼈아픈 고백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의 여러 장 가운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대한 서술은 의미심장하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국전쟁 연구에서 심증은 있으나 사료가 없어서 논거가 부족했던 주장들에 대해 사료를 제시해주는 측면도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토르쿠노프, 데니소프, 블라디미르 리(이하 토르쿠노프 2008)가 공동으로 쓴 『한반도: 전후 역사의 변형』(2008)의 도입부에서 토르쿠노프는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18]이 2차세계대전에서 반(反)히틀러 연합국의 역사적 승리 이후, 전후처리, 힘의 균형, 국제질서에 관한 얄타와 포츠담 회의의 결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의 깊은 내적갈등으로 인해, 군사적 격돌은 전세계의 20개국이 참가하는 “거대한 제한전(Великая ограниченная вой на)”으로 전환했다.[19]

그런데, 토르쿠노프에 따르면(2008), 오랜 세월동안, 소련 역사학계에서는 전쟁 발발의 시점과 책임에 대해 평양에서 나온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것은 1950년 6월 25일 『프라브다』지에 실렸다. 즉, 10개 사단의 남한군대가 38선의 모든 전선을 따라 북한으로 “진격하여” 38선에서부터 2-3킬로의 지역까지 깊게 들어왔다. 그러나 북한 인민군의 일부가 성공적으로 격퇴시켰고 대대적인반격에 나섰다. 그 후 인민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대전, 대구 그리고 멀리 남쪽까지 갔다고 이야기 되었다. 그렇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북의 반격”은 갑작스런 “공격에 대한 반격”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다른 의문도 꼬리를 물었다. 즉, 공격력의 집중과 전환을 포함해 식량과 무기보급, 전략적 군사행동 계획안 등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없이 대규모 군사작전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전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도 던져졌다.[20]

토르쿠노프(2008)는 그동안 한국전쟁에 대하 설명에서 북한의 해석이 지배적이었던 이유,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과 냉전이 자라나던 당시 상황의 디테일한 측면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문서고 사료, 군사 외교상의 생생한 증거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전쟁의 중요한 배경으

18) 토르쿠노프는 ‘한국전쟁(Корей ская вой на)’이라는 용어보다는 ‘한국에서의 전쟁(Вой на в Корее)’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전쟁의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완범, 「6.25전쟁의 명칭과 복합전적 인식」, 2010년 제 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p. 105-124.

19) А. В. Торкунов,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 123.

20) А. В. Торкунов,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 124.

로서 ①해방 이후 미·소간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 ②단일정부 수립의 실패, ③38선을 중심으로 한 충돌의 문제를 제시한다. 38선은 원래 일본 관동군이 항복하면서 생긴 임시적인 선으로서 동맹국에 의해 정해졌지만, 지금은 고착된 분단의 메타포가 되었다.

첫째, 전쟁의 배경으로서 해방 이후 각자 뒷편에 강력한 동맹을 두고 있던 남북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토르쿠노프(2003)는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 이후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그 뒤에 강력한 동맹이 있는(북한 뒤에는 소련, 대한민국 뒤에는 미국) 사회-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다른 두 국가의 수립은, 북과 남 사이의 긴장을 심화시켰으며, 미국과 소련은 갖은 방법으로 북한과 남한체제의 강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예컨대, 1948년 미국과 남한은 남한군 창설시에 미국협조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다. 남한에는 30만명의 무장군이 형성되었고, 미국으로부터 5억달러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았으며, 남한군에는 약 2500명의 미국 군고문관이 있었다. 그와 함께, 이미 1949년 6월에 미국은 임시행정협정에 기초해, 5만정 카라빈 엽총, 2천정의 로킷총, 4만대의 자동차, 소형무기와 박격포, 7만개의 탄환 등 총 560만 달러에 해당하는 무기를 남한에 건네주었다. 이러한 도움은 경찰력을 포함해 한국의 군사력을 10만 4천명까지 강화시켰으며, 그 외에 보조적인 부대(20만명), 예비역(20만명)가 설치되었다.[21]

한편, 김일성이 지도하는 북한도 전투준비를 강화했다. 1948년 10월, 북한에서 소련군의 일부가 철수한 후에 사실상 모든 군장비와 전투기술은 조선인민군에게 남겨졌다. 소련의 군교관과 군고문관은 인민군 형성에서 큰 도움을 주었으며, 전쟁 전야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군사기술상의 도움을 받았다. 해제된 문서보관소 사료에 기초해 토르쿠노프는 한국전쟁 초기에 남과 북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군력 차이가 있었다. 즉, 육군의 수 1:2, 대포 수 1:2, 기관총 1:7, 자동총 1:13, 탱크 1: 6.5, 비행기 1:6이 그것이다.[22]

둘째, 통합적인 단일정부 수립 실패와 연관해 김일성과 이승만이 취한 노선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1948년에 북쪽에 개별적인 단독정부를 세운 김일성은 한반도 영역 전체를 통일하겠다는 입장에서 전쟁을 선택했으며, 스탈린의 승인을 받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더. 토르쿠노프는 북조선의 지도부와 김일성이 결국 남조선 “해방”에 “호의를 보이도록” 스탈린을 설득했다고 주장한다. 스탈린은 어떤 시간엔가, 즉 1950년 1월 전에는 망설였지만,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입장을 바

21) А. В. Торкунов,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 124.

22) А. В. Торку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338-339.

꾸었다. 1949년 봄에 김일성과 만났을 때, 스탈린은 “남한을 총검으로 시험해보겠다”는 김일성의 제안에 대한 대답에서 이러한 생각의 모든 측면들을 숙고하고, 모든 필요한 계산을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모스크바로 오도록 조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1950년 4월,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의 새로운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상황이 변화하여” 자신은 통일을 착수한다는 김일성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때, 스탈린은 중국도 한국 통일문제의 군사적 해결이라는 의견을 지지하도록 주장했다.

1949년 9월에 김일성과 박헌영은 다시 모스크바에 갔는데, 토르쿠노프의 해석으로는 그들이 남한으로 진격하여 통일할 수 있도록 소련에 군사적 지도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즉, 전쟁시 첫 공격의 성공은 전략적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스탈린은 중앙위원회 정치뷰로에 이 문제를 부쳤는데, 당시 정치뷰로는 평양의 제안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후 북한 지도부는 남한으로 진격하는 문제를 또다시 스탈린에 타진했지만, 부정적 대답만을 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1950년 5월 베이징에서 김일성과 접견하는 시기에, 마오쩌뚱은 북조선 지도부들의 계획을 승인하고, 중국의 지지를 약속했던 것이다.[23]

스탈린은 왜 갑자기 무력에 의한 조선통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토르쿠노프는 4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에서 전쟁은 이미 1949년 봄부터 일어났으며, 미국은 “북으로 진격”하려는 이승만을 억누르지 못했다. 둘째, 미국은 우선적 이해관계의 영역에서 남한이 제외된다는 ‘에친슨 성명’을 발표했다. 셋째, 중국 공산주의의 승리와 소련의 핵폭탄의 제조 성공은 세계무대에서 힘의 균형을 본질적으로 바꾸었다. 넷째, 베이징이 타이완을 해방한다는 분위기가 충만한 상황에서 크레믈린 입장으로는 한국전쟁이 그보다는 차악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왜냐하면 스탈린의 시각으로는 북한과 남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컸기 때문이었다--필자 주.) 결국, 스탈린은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였으며, 그러한 요소들은 스탈린으로 하여금이 김일성에게 한반도를 통일할 군사적 기회가 생겼다고 확신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24]

셋째, 한국전쟁의 중요한 배경으로서 38선 근처에서 일어나는 전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 시기는 38선을 둘러싸고 놀라울 만큼 첩보행위가 이루어졌던

23) А. В. Торку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340.

24) А. В. Торку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340-341.

시기였다. 남한에서 군대 준비를 한다는 소식은 1949년 7월 13일 슈티코프가 모스크바로 보낸 서신(즉, “이승만은 남한이 북한을 눌러야 하며, 7월에 진격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는 1950년 9월 2일 이승만은 미국정치가 오버트 올리버와 주고 받은 서신에서 (“우리는 김일성의 사람들 일부를 산으로 몰아넣고 그들을 굶겨죽일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방어선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 구성되어야만 한다”) 보듯이 서로 대결적 국면에 있었다. 실제로 38선에서 긴장이 고조되어, 1949-1950년 이 사이에 38선 근처에서 일어난 군사적 충돌은 1800건이나 되었다. 그와 함께 1950년 6월 17일, 미국대통령의 특별대표 달라스는 의회에서 자유의 이름으로 남한정부 지지연설을 하였는데, 워싱턴과 서울은 적어도 이러한 지지연설이 한반도 안에서 큰 지역전쟁으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는 “예방행위”라고 보았다.[25)]

이처럼 1950년 전쟁 전에 남북한 모두 광범위한 선동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승만정부가 “남조선이 북으로 습격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든가 “평양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격퇴계획이 조성되었다”라는 호전적인 성명을 발표했다면, 북의 지도부도 한국을 통일할 목적으로 “평화적 이니셔티브”를 제기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전쟁 개시 1주일 전에 평양은 통일한국 헌법 작성을 위해 북남 의회의 결합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토르크노프는 사실상 남북한 모두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49년 말과 1950년 초에 38선 지역의 상황은 지나치게 긴장이 첨예화되었다. 북과 남의 군 종사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작은 전투(перестрелки)가 발발했다. 무장충돌에서는 소총과 대포를 사용되는 진지전의 성격을 띠었다.[26)]

이와 달리, 쿠르바노프는 『한국사 강의』에서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에 대해 다소 다르게 설명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1949년 말~1950년 초에 한반도에서 남북한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토르쿠노프의 북한 남침설 주장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말해 한국전쟁 관련 사료들이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전쟁 발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쿠르바노프는 ①1949년 중엽 중국의 공산화, ②1949년 6월 장개석의 대만으로 피신, ③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형성-뒤에서는 중공으로 약칭), ④1949년 8월 소련의 핵무기 실험 성공, 그리고 ⑤1950년 2

25) А. В. Торкунов,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 127.

26) А. В. Торку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339.

월 14일 소련-중공 사이에 우호 및 협조회담 서명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쿠르바노프는 남한과 서방의 문헌들을 인용해, 1950년 1월 22일 모택동과 스탈린의 모스크바 회견에서 이러한 회담준비가 이루어졌으며, 일찌기 1945년에 스탈린은 얄타회담을 거부하고 모택동에게 미국과의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쿠르바노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냉전'이 시작된 조건에서 소련-중공 간 동맹은 자동적으로 미국과의 대립을 의미하며, (미국도) 1948년부터 미래의 동맹국으로서 일본 부활계획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곳에 자신의 군사적 기초를 남겨놓으려고 계획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쓰고 있다. 아울러 1950년 1월 12일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미국무부 장관 에치슨은 태평양에 이른 바 '미국방어선'을 정하였는데, 한국과 대만이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남한의 반이승만 세력의 소요를 불러 일으켰고 남한은 당시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었던 북한공격의 사정거리 안에 놓였다.[27]

쿠르바노프는 1949년 말과 1950년 초 북한수뇌부는 한반도의 무력통일계획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에 원동지역에서 그런 식의 문제해결은 상당히 "일반적이고 보통이었다"고 쓰고 있다. 그는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무력으로 장개석 정부(미국의 지원)로부터 권력을 찬탈한 것이 바로 그런 예라고 쓰고 있다. 그는 북한 수뇌부의 무력통일 계획에 대해, 남한과 서방의 문헌,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문헌을 빌어, 다음의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즉, 1950년 3월 30일~4월 25일 김일성의 소련 비밀방문에서 김일성이 스탈린과 한국의 무력통일가능성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전한다는 점, 스탈린은 "중국동무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권고했다는 점, 그리고 5월 13~15일에 이르면,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택동을 회견한 자리에서 남한과 대만에서 군사행동이 존재할 때 상호협조 가능성 문제를 회담하였고, 이때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5월 14일자 전언에서는 "한국인들에 의해 제안된 한반도 통일계획"은 중국 쪽이 지원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쿠르바노프가 토르쿠노프 등의 연구에 기초해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열거하면서도, 이러한 설명에 대한 사실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쿠르바노프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가 일단 한반도의 무력통일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북한-소련-중공 사이의 협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1945년에 일본섬에 이미 미

27) С. О. Курбанов., Курс лекций , с. 423-424.

국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남한대통령 이승만은 일찍부터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이용하던 차였다. 따라서 만약에 미군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중공과 소련의 지원이 부재한다면 충분한 군사작전 경험이 없는 북한 신생군대의 패배는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 5월에 결국 북한-소련-중공의 군사동맹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쿠르바노프의 이러한 서술은 스탈린 관련설을 매우 부차적으로 보는 입장이며, 무엇보다도 '냉전'의 구조에 들어선 이상 북한-소련-중공의 동맹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28)]

더욱이 쿠르바노프는 북한은 최후까지 평화적 해결을 이루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평가한다. 즉, "그러나 위에서 말한 모든 것(군사적 해결---필자)은 1950년 초에 북한이 '오로지 전쟁만 준비했고,' 북한의 지도부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다른 수단을 얻으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쓰고 있다. 예컨대, 1949년 6월에 평양은 남쪽대표들도 참여하는 통일 '민주조국전선'을 구성했으며, 그것의 목적 중 하나는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평화통일의 달성이었다. 분명 '민주조국전선'은 좌편향이었으며 소련과의 우호 강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50년 6월 7일, '민주조국전선'은 전 한민족선거를 제안하였으며, 6월 19일에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남한의 국회를 하나로 통일시키자고 제안했다. 분명히 유토피아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발전하고 있던 좌익운동은 남북대화의 이러한 평화적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주장한다. 즉, 쿠르바노프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무력에 의한 통일을 고려했다는 토르쿠노프의 주장을 반격하고, 적어도 북한은 평화적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쿠르바노프는 남한이 무력도발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준비했다고 주장한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한반도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안을 지지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권력이 북한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쿠르바노프는 또한 남북한 헌법 모두 한반도의 모든 영토를 자신의 영토로 정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영토에 대한 어떠한 군사행동도 합법적이며, 결코 '공격'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1950년 1월 26일 남한-미국 상호방위조약이 서명되었는데, 미국의 남한에 대한 전방위 원조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즉, 남한에 대한 군사·경제원조는 연합국들에게 이 지역의 불균형성을 선전하고, '북한의 공격' 위험으로 부터 남한군을 지키는 데 미국이 더욱 힘을 기울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득이 되었다는 것이다.

28) С. О. Курбанов., Курс лекций , с. 424.

게다가 쿠르바노프는 남한이 38선에서 몇 번의 군사도발을 수행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는 1949년~1950년 초에 38선에서 1274건부터 1836건의 무력충돌이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르스 커밍스(B. Cummings)의 주장을 상기시켜준다. 커밍스는『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남한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가운데, 한국전쟁은 분계선에서 상당한 수준의 무력충돌이 발전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바 있다. 쿠르바노프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자신의 영토에 국가를 세운 첫해에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문제에 주력했고,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분단을 해결할 군사적 수단을 준비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29]

한편, 토르쿠노프도 남북간의 군사적 경쟁을 언급하고 있다. 즉, 1950년 한-미간 상호어 및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은 남한의 군사적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이미 1949년 6월에 미국은 임시행정협정에 기초해, 5만정 카라빈 엽총, 2천정의 로킷총, 4만대의 자동차, 소형무기와 박격포, 7만개의 탄환 등 총 560만 달러에 해당하는 무기를 남한에 건네주었다. 이러한 도움은 경찰력을 포함해 한국의 군사력을 10만 4천명까지 강화시켰으며, 그외에 보조적인 부대(20만명), 예비역(20만명)가 설치되었다.[30]

토르크노프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의 김일성이 전략적 일격을 가할 기회를 얻기 위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오가며 전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던 순간에도,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수색팀은 1950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북한이 38선으로 군대를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었던 순간에도 북한군이 남으로 진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했다. 더우기 중공 자체도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 매우 허약해져 있었으므로 전쟁에 개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간주되었다. 소련의 경우는, 1949년 나토성립이후에 중부와 동부유럽지역에 친소비에트체제를 확립하기 어려운 투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토르쿠노프는 전쟁발발의 원인과 관련해 매우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세계 한국학연구에서 가장 논쟁적인 문제는 여전히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라는 점을 부각시키며1950년 6월 25일 그 순간에 북한은 군사력, 기동력, 동원력 등 모든 것에서 공격준비가 훨씬 잘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의 대부분이 바로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에서 나왔다고 강조한다.[31]

29) С. О. Курбанов., Курс лекций , с. 427.

30) А. В. Торкунов,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 124.

31) <표2> 남북의 군사력의 비교(1950년 6월 25일)

VI. 전쟁에 대한 11년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내용 분석

2000년대 이후 한국학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성과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11학년의 세계사 교재에 등장하는 한국전쟁 서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32] 최근 1-2년 사이에 출간된 11학년의 세계사 교과서는 그 특성상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곧바로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선, 2008년판 계몽사에서 출간된 『러시아사』에서 한국전쟁은 "서방블록과 소련 사이의 군사력에 최초로 빗장을 채웠다"고 쓰고 있다. 특히 식민지로부터 해방-미소분할점령-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전쟁 이전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즉,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과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한국을 분할했으며, 북쪽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고, 1948년 한반도는 남과 북이라는 2 개의 나라로 분할되었다." 2008년판 『러시아사』 교과서는 소련이 과거에 특별했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소련은 한국농민대중 가운데 좌익사상이 인기가 있다고 예상하고, 북한의 완전한 독립과 소련군대의 철군을 천명했다. 모든 군사력을 남쪽에서 철군하기를 거부하는 미국에 대한 대답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받는 반란이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5일에 김일성은 스탈린과 협의한 후에(после консультаций) 남한으로 자신의 군대를 보냈다"고 기술된

정규군	남한		북한	
육군	8사단	67,414명	10사단	120,880명
	의용부대	27558명	의용부대	61820명
해군	군함 3		-	
	7수비대	7715명	3수비대	4700명
보병	2대대	1166명	상륙부대	9000명
공군	1비행중대, 7비행기지	1897명	1비행사단	2000명
총계		**105750명**		**198400명**
탱크	-		242	
장갑차	27		54	
그외	유탄포, 박격포, 대전차용무기, 비행가, 고사포 등		우세	

출처: Вой на в Корее 1950-1953: взглял через 50 лет (М., 2001), с. 41-43.

32) А. И. Уткин, А. В. Филиппов, и др., История России 1945-2008 гг. 11 класс учеб. для учащихся обще образоват. учреждении, 3-е изд. (М., Просвещение, 2008); Всеобщая история Новей щая история. 11 кла сс учеб. для учащих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 учреждении, В. П. Смирнов, Л. С. Белоусов, О. Н. Докучаева (М., Просвещение, 2009); Н. В. Загладин, Н. А. Симони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и Мира: в XX - начале XXI века. 11 класс. 7-е изд (М., Русское слово, 2008); Л. Н. Алексашкина, Новей шая история: XX век - начало XXI века. 11 класс учеб. для учащих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 учреждении, 4-е изд. (М., Мнемозина, 2007).

다.[33]

다음으로 2009년판 『최신세계사』는 한국의 전쟁이 북대서양조약 서명과 독일 분단 이후에, "냉전"이 훨씬 더 강화되어 곧 한국에서 군사적 갈등으로 이끌었다고 적고 있다. '한국전쟁을 냉전의 결과'로 이해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최신교과서 역시 어떻게 남북이 분열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쓰고 있다. 즉, "1945년, 한국은 일본침략으로부터 해방된 시기에 북부는 소련에 의해, 그리고 남부는 미군에 의해 점유되었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고, 1948년 그들의 지도하에 북한의 영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KNDR)이 수립되었으며, 남한에서는 미국과 관련된 정치활동가들이 대한민국(RK)을 세웠다." 그들 사이의 국경은 38선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전체를 자신의 권력 아래에 두고 통일하기를 바라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소련과 1950년에 건설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비밀스러운 찬성(негласное одобрение)을 얻자, 남한의 북한 공격준비를 비방한 다음에 한국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предпринялинаступление)." 교과서는 매우 짧은 시기에 강행군을 하는 북한의 총력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2달 보름 동안에 북한의 군대는 남한영토의 90%를 점령했으나, 남한정부를 돕기 위해 미군이 들어왔다."[34] 유엔은 북한을 침략자로 선언했으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15개 국가가 유엔군에 포함되었다. 교과서는 전쟁이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유엔군-중공군"의 한국 진입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즉, "유엔군은 북한군을 공격해, 1950년 10월 23일에는 북한의 수도 평양을 점령했다. 이틀이 지나 10월 25일에 북한군을 돕기 위해 의용군의 모습의 활동한 백만 이상의 중공군 병사와 장교가 전진해왔다." 소련 비행사들은 북한쪽을 위해 싸워주었다. 1951년 1월 즈음, 중공군과 북한군은 상대편을 남북한의 예전의 경계선으로 격퇴시켰다. 군사행동은 중단되었다. 긴 외교적 협약이 시작되었다.[35] 1953년 7월 27일에 서울에서 열렸다. 이미 50년이 계속되었다.

한편, 출판사 러시아의 말(Русское слово)이 출간한 『러시아와 세계의 역사(2007)』는

한국에서의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 매우 자세히 쓰고 있다. 이 교과서는 8차 인

33) История России 1945-2008 гг., 24.

34) Всеобщая история Новей щая история. 11 класс учеб. для учащих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 учреждении, В. П. Смирнов, Л. С. Белоусов, О. Н. Докучаева (М., Просвещение, 2009)

35) Всеобщая история Новей щая история. с. 175-76.

쇄에 들어갈 만큼 잘 알려진 11학년 교과서인데,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수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내용이 풍부하다. 우선, “아시아대륙에서 가장 큰 갈등은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서, 미국이 일본군과의 전쟁과정에서 점유한 한국의 남쪽에서 1948년 5월에 선거가 이루어져 서울을 수도로 하여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북부지역에서는 1948년 8월에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쓰고 있다. 교과서는 쿠르바노프 책의 한 귀절이기도 한 “북한 정부도 남한 정부도 그들이 모든 한국 인민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대표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자신의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으며, 부분적으로 북한에서는 400명 이상의 외국 군사전문가들이 일을 하였다.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1912-1994)은 남쪽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전체의 점령을 준비한다고 확신했다. 교과서는 한국전쟁 발발이 스탈린-마오쩌뚱-김정일의 책임임을 잘 보여준다. “1950년 6월 25일에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군인은 남쪽으로 진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규모 전쟁은, 비록 오랫동안 소비에트 역사학에 의해 이것이 부정되기는 했지만, 바로 북한이 시작했다.”[36]

교과서는 냉전체제 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념이 서로 다른 단독정부가 수립되며, 유엔군과 중공군에 의해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정부가 일시적으로 유엔 안보리 작업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고, 북한을 침략자로 선언하는 결의를 얻어냈다. 1950년 9월에, 미국의 군사력과 그 연합국이 유엔의 깃발아래 북한군의 후방으로 상륙했고, 거의 북한 전체를 점령했다. 교과서는 “소련이 한국전쟁과 꽤나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자 한다. “1950년 10월 25일, 중공정부는 한국으로 의용군을 보낸다는 결정을 채택했다. 11월에, 소련은 엄호를 위해 중공과 북한으로 공군을 보냈다(321대의 비행기, 26,000명의 군인). 처음에는 공중전에서 소련과 미국의 공군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미국쪽은 군사작전에 비행기가 2400대까지 참가했다. 미국의 통수부는 핵무기 적용에 대한 문제를 고려했다. 1951년 2월 즈음에 전선은 38선을 따라 형성되었다. 휴전결의 전에 전투(군사행동)는 진지전의 성격을 지녔다. 교과서는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전체적으로 전쟁동안에 북한은 250만명의 인명손실이 있었고, 중공은 100만명, 남한은 150만명, 미국은 14만명(3만4천명은 사망, 10만 3천명은 부상). 소련은 335대의 전투기를 잃었고, 중공군은 600대의 전투기를 잃었고, 미국은 1182

36)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и Мира: в XX - начале XXI века. с. 277.

대를 잃었다.”

한편, 무네모슈네 출판사에서 찍어내는 『최신역사』는 한국 전쟁에 대해 비교적 적게 설명하는게, 단순히 사실만 전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소련군은 일본으로부터 북쪽을 해방하고, 남쪽에서는 미국이 차지했는데, 38선을 따라 경계가 그어졌으며, 고려인민민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일어났다. 그들 간에 1950-1953년에 걸쳐 일어난 전쟁에는 외부세력이 참가했지만, 어느 것도 우세하지 않았다. 각 국가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갔다. 북한에서는 국가중심의 경제가 확립되고, 남한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기초 위에 있는 시장경제가 확립되었다[37]

<표1> 한국전쟁에 대한 11학년 교과서 서술

서술 내용	2008러시아사 (계몽출판사)	2009최신세계사 (계몽출판사)	2008 러시아와 세계의역사 (러시아의 말 출판사)	2008 최신역사 (무네모슈네출판사)
성격	서방블록과 소련의 군사력에 제동을 건 최초의 전쟁	북대서양조약서명,독일분단 이후 냉전의 강화가 한국에서 갈등 야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갈등 두개의 군사블록체제의 군사상의 충돌	
배경	-1945년 미소 분할점령 -1948년 남북 단독정부 수립	-1945년 미소 분할점령 -1948년 남북단독정부수립 -38선이 국경	-1948년 남한 5월 선거후 단독정부수립 -북한 8월 단독정부수립 -남북한 각각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	-소련은 북한을 해방-미국은 남한을 차지 -38선을 따라 경계가 그어짐 -남북 단독정부 수립 -두 체제는 각기 자신의 길을 감
발발 시점 책임	-1950년 6/25 전쟁 발발 -김일성은 스탈린과 **협의**한 후에 남한으로 군대 보냄	-소련과 중공의 **비밀스런 찬성** **-김일성은** 남한의 공격준비를 비방한 후에 6월 25일 남한으로 진격개시	-김일성은 남한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점령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신 -스탈린과 마오쩌뚱의 **승인을 받고 북한은 6월 25일** 남한진격 개시 -북한이 전쟁을 시작	
초기 과정		-1950년 9월 전까지 북한이 남한영토의 약 90%를 점령		
전쟁 확대	-유엔군의 참가와 중공군 전쟁에 개입 -내전에서국제전으로 전환	-유엔은 북한을 ‘침략자’로 선언하고 유엔군 파병 -1950년 10월 23일 유엔군 평양점령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여	-전쟁에는 외부세력이 참전 -어느 것도 우세하지 않음
군대 규모	-소련군5개사단 파병 -소련비행기가 중공과 북한의 상공 엄호비행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 1백만여명 파병 -소련비행군 지원	-1950년 11월 소련은 엄호를 위해 중공과 북한 상공으로 공군 보냄 -소련군 321대 비행기, 26,000명의 군인 보냄 -소련전투기 MIG-17이 미국전투기보다 우세	
손실			-북한은 250만 명의 인명손실, 중공은 100만 명, 남한은 150만 명, 미국은 14만명(사망자 3만4천 명, 부상자 10만 3천 명) -소련군(335대), 중공군(600대) 미군(1182대) 전투기 손실	
분단	-1951년 여름 무렵 38선	-1951년 1월 즈음 분계선	-1951년 2월 즈음에 38선을	

37) Новей шая история: XX век – начало XXI века. с. 223.

형성	근처에서 분계선 조성 -진지전의 성격	조성	따라 전선 형성 -전투는 진지전의 형태	
휴전	-1953년 7월 17일 강화회담	-1953년 7월 17일 강화회담		
결과			-소련지도부는 한국갈등에서 소련개입 규모를 줄이고 양 동맹체계 간 전쟁확산을 막으려고 함 -미국정계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양 블록의 글로벌한 충돌이 격렬해진다는 확신 퍼짐	-경제적으로 다른 체제로 발전 (북한 국가중심의 경제/남한 시장경제) -정치적으로 남북한 권위주의 정치라는 유사성 존재

V. 결론에 앞서

이상에서 러시아의 교재에 나타난 한국전쟁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기원론과 개전론으로 나뉘어 설명되었으며, 기원에 대해서는 외적 기원론(스탈린의 지시와 모택동, 김일성의 치밀한 논의)과 내적 기원론(좌우익 대립), 그리고 전쟁 개전에 대해서는 남침설, 북침설, 남침유도설 등 다양한 논쟁이 있었다. 2000년 이후 러시아에서 설명되고 있는 한국전쟁관련 서술을 살펴보면, 1974년 간행된 『한국의 역사』의 설명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창을 통한 설명방식에서 벗어나 사료에 근거하여 한국전쟁에서 소련의 역할과 관련성에 대해 치밀한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르쿠노프는 특히 소련붕괴 이후 제한적으로 해제된 스탈린문서에 기초하여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미소 양국이 각각 남북한을 지원했고, 전쟁 직전까지 남북한 양국의 군사행동이 존재했으며, 북한지도부의 전쟁설득과 스탈린의 지원이 전쟁발발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는 한국전쟁에 대해 소련은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과 외적 기원론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며, 전통주의 시각에서 주장되어온 남침설에 방점을 찍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달리, 쿠르바노프는 남침설에 대해 다소 유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표현해 본다면 그는 오히려 수정주의 시각의 남침유도설에 좀더 가까운 입장으로 보인다. 이미 냉전이 구축된 상황에서 소련-중공-북한의 동맹은 불가피했으며, 남북한 양국이 각각 국가를 세우고 북한지도부나 남한정부나 모두 한반도 영토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분단을 해결할 군사적 준비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북한 지도부가 군사적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6월 19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남한 국회의 입법기관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남한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토르쿠노프와 쿠르바노프의

상이한 이러한 해석은 그러나 러시아에서 한국전쟁 연구가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4종의 교과서에서도 확인되듯이 상당히 개관적인 서술을 하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제 과거의 교조적 해석이 아니라 사료에 기초해 끊임없는 학문적 검증이 요구되는 한국전쟁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표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Александр Воронцов,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Кореи и Монголи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Новые подходы в России к оценке режима Пак Чжон Хи

Личность Пак Чжон Хи, безусловно, яркая, неординарная. Его роль в ис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реи в целом – глубока, противоречива, многомерна и весома. Оценки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до сих пор зачастую полярны и эмоциональны. Он относится к разряду тех исторических деятелей, для осмысления вклада которых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историю и его адекватной оценки необходимо достаточно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Здесь уместно известное изречение великого русского поэта Сергея Есенина: «Лицом к лицу лица не увидать, большое видится на расстоянии».

Автору этих строк на память приходит аналогия с высказыванием еще одного яр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российской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элиты, крупного совет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и ученого М.С. Капицы в адрес другого знаменитого корейца, современника, но постоянного антагониста Пак Чжон Хи, руководителя КНДР Ким Ир Сена. Когда М.С. Капица (бывши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в ранге директора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АН СССР впервые посетил РК,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журналисты атаковали его с вопросом «Когда умрет Ким Ир Сен?». На что россиянин ответил: «Печально, что вы не в состоянии оценить масштаб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И не понимаете того, что когда негативные эмоции остынут, корейская нация будет гордиться тем, что дала миру такого выдающего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еятеля». Думается, что подобный подход абсолютно уместен применительно и к Пак Чжон Хи. Уж чего-чего, а нелицеприятных оценок и в своей стране, и за рубежом, и при жизни, и после смерти он встретил массу. Время,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 расставляет по своим местам.

В этой связи, возможно, наиболее показательным является серьезный сдвиг в восприятии режима Пак Чжон Хи, произошедший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тране, где он долгое время демонизировался. Автору данных строк вспоминается его лич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опыт, когда он был стажером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Ким Ир Сена в Пхеньяне в 1979 – 1980гг. Его поражало тогда, что в музее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под фотографией из американского журнала, на которой президент Пак играл с двумя породистыми собаками, была подпись: «здесь изображены три самые злобные собаки в мире, а та которая посередине – наиболее гнусная». Вспоминается, что когда Пак Чжон Хи был застрелен, всегда строгие и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ые «тонсуксены» в нашем общежитии собрались отдельно от нас – студентов-иностранцев, крепко выпили и радостно объяснили свое нестандартное поведение тем, что у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егодня великий праздник, так как погиб его главный враг.

Насколько же серьезные должны были произойти сдвиги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в сам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умах ее политической элиты, чтобы в начале нынешнего десятилетия руководитель КНДР Ким Чен Ир начал

признавать за Пак Чжон Хи несомненные заслуги, позитивно оценивать 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достиж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движение за новую деревню»,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ать роль «чэболь»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м типе хозяйства и применимость таких бизнес-структур в процесс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форм в сам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имечателен факт, что Ким Чен Ир тепло принял дочь Пак Чжен Хи, одного из ведущих политиков современной РК Пак Кын Хе летом 2002г.

Отражением подобных метаморфоз может служить и другой эпизод, с которым автор данного доклад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сенью 2002г. в период предвыборной президентской гонк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 посещении музея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в Мёхянсане. Там, экскурсовод живо 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нашими оценками расклада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канун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шансами различных кандидатов. Видимо, в силу воспоминаний о визит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олитика в КНДР и встрече с Ким Чен Иром, а, возможно, и в силу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прекрасному полу её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овало, насколько вероятна победа дочери бывш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Пак Чжон Хи – Пак Кен Хе. Нам пришлось разочаровать приятную собеседницу.

Процесс переоценки деятельности Пак Чжон Хи происходит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и академической среде многих стран. Не является исключением и Россия.

Ряд росси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лагает, что «После развала СССР резкая неприязнь к Пак Чон Хи сменилась интересом к основному архитектору 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 со стороны наших либеральных экономистов и историков, однако репутация Пака как нарушител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не позволяла "открыто восхищаться им". Сейча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СМИ периодически проводят

аналогии между действиями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ранее ненавистных Пиночета и Пак Чон Хи, стараясь заострять внимание не столько на том, какое влияние оказали эти правители на экономику своих стран, сколько на применяемых ими "не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методах.

Серьезный, настоящий интерес к генералу Паку и его политике проявляется только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когда перед российскими аналитиками встает вопрос о соотношении цели и средств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ильной руки",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ой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крепл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мощи государства, но при этом будет сопровождаться мерами, которые принято воспринимать как ограничение гражданских прав или свободы личности. Попытки объективного анализа стали предпринимать, в основном, молодые ученые, свободные от штампов как недавнего, так и давнего прошлого.»[1]

Приведенный пассаж до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отражает поворот интереса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к рассматриваемым нами в данном докладе проблемам. Отнесем последнюю фразу цитаты к радикализму молодости, поскольку, как мы увидим в нашем обзоре, об обозначенных темах в России всерьёз задумывались и ученые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пример, М.Е.Тригубенко, Г.Д.Толорая) значительно раньше.

Характер эволюции оценок режима Пак Чжон Хи можно проследить на основе сравнительного анализа исследований ведущих совет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й кореведов, осуществленных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40 лет.

[1] К. Асмолов. «Генерал Пак Чон Хи. Очерк политической биографии».// газета «Сеульский вестник», Сеул, 2003, №№ 77-80.

Естественно, что научные изыскания, проводившиеся в различные эпохи: периода СССР и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не могут не нести на себе отпечаток противоположных идеологий, их определяющих. Тем не менее, серьезные ученые всегда старались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дань политической моде, но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линии объективного анализа.

Первым в ряду рассматриваемых нами научных работ в данном контексте предстает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ный труд советских кореeвед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в двух томах, выполненный Институтом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АН СССР в 1974г. Приход Пак Чжон Хи к власти описан в рамках марксистск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но отражает в целом реальность. «…Выступив под флагом антикоммунизма и национализма, они прибегли к более замаскированной апологии капитализма и к искусному затушевыванию классовой сущности политических явлений. Присвоив единоличное право на истолк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цессов, они окрест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и последовавшие за ним мероприятия «военной революцией»…Ярко выраженные кризисные явления побуждали военных лидеров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методы маскировки, усиливать социальную демагогию. Отсюда – стремление военных лидеров предстать перед массами носителя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оли, некой «внепартийной», «надклассовой силой», которая якобы руководствуется общими интересами нации. Свое внешне обособл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военных они использовали для усиления ложного, но очень живуче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будто б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армии от политики…»[2]

[2]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Том II, Москва, 1974, с.390, 391.

Анализ начала «движения за новую деревню» также дает читателю достаточно адекват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происходящем. «С помощью кооперативов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ак Чонхи (а ранее – лисынмановская) пытается внедрить в деревню новые формы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Вместе с тем создание широкой сети кооперативов и органов управления ими, бдительный надзо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д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ооперативов ставит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на путь превращения в своего ро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й сектор»[3].

Известны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eведы М.Е.Тригубенко и Г.Д.Толорая в работе «Очерки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ходят к интересным выводам о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пыта модерниза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времен Пак Чжон Хи рядом других стран.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 большой выгодой для себя использовала уродства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и «великого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двух мировых систем. Тем не менее, развитие ею открытой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и не утратило своего значения в наши дни. Зарождение рыночных структур и механизмов в условиях тоталитарных, диктаторских структур правления применим в странах с подобными режимами, не исключая 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последней в развитии открытой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и как единственно реального пути для выхода из затяж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прояви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опыт может име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значение и для пост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и для тех, кто стремится придать собственному социализму «новый облик». Аспектами изуч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могут бы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процесс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3]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Том II, Москва, 1974, с. 423.

финансовая политик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в том числе крупного бизнеса, эк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в стартовый период и в ходе развития по пути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Наиболее действенным средств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стается *планирование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на макроуровне.* Начиная с 1962г.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зработало семь пятилетних планов. В условиях рыночной,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частно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 функ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ланов входит определение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и реализация крупных программ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значения, а такж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помощь важнейши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проектам частных фирм».[4]

Лидер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офессор С.О.Курбанов в основательном труде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есьма критичный подход к диктаторским проявлениям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ежима Пак Чжон Хи и позитивную оценку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К в тот период. При этом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й из основ успеха выделяется реш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привнести в экономику элементы планирова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конце 1972г. в Южной Корее установилась так называемая «диктатура реформ» (юсин токчэ) и фактически «вечная власть» (ёнгу чипквон) президента Пак Чжонхи»[5].

«…Несмотря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жесткой и страшной диктатуры, о которой южные корейцы до сих пор вспоминают с содроганием, сила сопротивления

[4] Тригубенко М.Е., Толорая Г.Д. «Очерки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 1993, с. 7, 8, 9.

[5] С.О.Курбанов.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ека», Спб., 2002, с.501.

ей была настолько велика, что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в совокупности с указанными причинами объективного характера, сумела сокрушить ее.»[6]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 стране Пак Чжонхи начал с того, что, используя рычаг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появившиеся благодаря диктаторской форме правления, ввел систему **планирован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Уже через два месяца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в июле 1961г.,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Первый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а 1962-1966гг. Одновременно был создан Сов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с практически неограниченны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и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принимаемые решения. Трудно сказать, почему Пак Чонхи пришел к иде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лановой экономики. Возможн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ыграл роль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пыт соседней Японии, использовавшей элементы планировани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страна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практика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ятилетними планами в то время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известные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Иными словам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1970-х гг. Движение за новую деревню стало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движением, основанным на традициях коллективизма и ставшим одной из социальных составляющих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в условиях диктатуры Пак Чонхи».[7]

Характерно,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российск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вают практику использов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

[6] С.О.Курбанов.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ека», Спб., 2002, с.502.

[7] С.О.Курбанов.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ека», Спб., 2002, с.506-507, 517.

(индикативного, а не директивного как в СССР)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деревни, осуществленных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ак Чжон Хи. Эти элементы называются в числе краеугольных камн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 РК.

Весьма интересен анализ,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К.В.Асмоловым в вышедш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ниге «Коре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традиции и трансформация». «…режим Пак Чжон Хи можно назвать прагматическим консерватизмом, при котором модернизация в экономик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и сохранении авторитар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стоя. Шесть основных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установок, объявленных Пак Чжон Хи в начале его правления, включали антикоммунизм,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ориентированную на Запад, США и ООН, объединение страны через силу (обрет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ом мощи), уничтожение коррупци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 прочих социальных зол, создание «свежей морали» и установ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способной самой себя поддерживать.

…Антикоммунизм и силовая формула объединения снова не подлежали обсуждению, но отношение к США стало более взвешенным, а Япония из врага превратилась в союзника. Кроме того, добавился новый и очень важный лозунг – «модернизация». …именно Пак сделал это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и экономики, и идеологии. Лозунги модернизации родины, националь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были заметным новым элементом в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того времени.»[8]

«…Помимо анализа собственно эволюции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попыток провести исторические аналогии между

[8] К.В.Асмолов. «Коре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традиции и трансформация». М., 2009, с.182.

определенными аспектами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и Кореи, итог данной работы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несколько выводов общего характера, выходящих за означенные рамки корейской ил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й тем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о том, всегда ли плох авторитариз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а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точка зрения вообще отказывает этому варианту построения общества в праве на существование. Между тем корейский опыт дает важный пример соотношения демократии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мы не можем уйти от признания того факта, что стремительный прорыв из бедности и развала к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процветанию был невозможен без «мобилизации нации» и связанного с ней усиления роли государства, неизбежно сопровождающегося ограничением свобод отдельных граждан».[9]

На наш взгляд, заслуживают внимания попытки К.В.Асмолова провести определенные параллели между развитием РК в период авторитаризма, в том числе при Пак Чжон Хи и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Заметным явлением не только в корееведении, но и общественно-научной жизни страны стал выход в свет в 2008г. труд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выполненного извест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о Корее А.В.Торкуновым, В.И.Денисовым, Вл.Ф.Ли.

Авторы пр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режима Пак Чжон Хи используют уже иные термины, например, «авторитарн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в действии», указывают, что, так сказать, «в сухом остатке», сбалансировав все плюсы и минус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9] К.В.Асмолов. «Коре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традиции и трансформация». М., 2009, с.462-463.

лидера, народ РК вынес свой, весьма положительный вердикт. «…Постепенно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Юга сложился образ весьма сурового, жесткого, но честного, правдивого и трудолюбивого правителя, которому удалось пережить не одну политическую бурю и оставаться на вершине власти целых 18 лет. И отнюдь не случайно,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опросы, проведенные в Сеуле много лет спустя – в марте 1995г., - показали, что более 2/3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Пак Чжон Хи «самым выдающим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деятелем» со времени созд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10]

Говоря об оценках героя нашего доклад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авторы выделяют следующее: «Сочетание жесткого авторитаризма в политике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в постколониальном обществе рядом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науки в России был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но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просвещенный авторитаризм», или «авторитаризм модернизации». Согласиться с такого рода оценками можно, но лишь с большой оговоркой, ибо возникает другой ключевой вопрос о социальной цене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торая не может достигаться любой ценой, за счет невероятных жертв и наступления на права человека».[11]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они дают весьма полож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реформам «юсин» Пак Чжон Хи,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в предшествующую советскую эпоху. Да и в самой РК, как мы знаем, это явление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не всегда со знаком «плюс». «…Еще одна важ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во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Пак Чжон Хи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выработкой…доктрины «юсин», в которой органически синтезированы нацио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и

[10] А.В.Торкунов, В.И.Денисов, Вл.Ф.Л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 2008, с.248.

[11] А.В.Торкунов, В.И.Денисов, Вл.Ф.Л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 2008, с.253.

интегристские и мобилизационные элементы иностранной, прежде всего, японской и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Доктрина «юсин» сыграла огромную мобилизующую роль в претворении в жизнь основных идеалов «во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Высокие и благородные цели модернизации, возрождения и прогресс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в. были провозглашены и другими военно-бюрократическими режимами (Бирма, Египет, Индонезия, Пакистан и др.). Но только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возможно, частично в Чили) военно-бюрократический режим добился столь впечатляющ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достижений мирового класса. И объяснить успехи «во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на Юге Кореи можно только тем, что ее лидерам удалось на базе самобытной идеологии сцементировать в едином русле все ключевые задач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12]

На наш взгляд, изуч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Пак Чжон Хи дает богатую пищу для размышления в русле главной темы нашей конференции: углубление взаимопознания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В рамках такого изучения более выпуклыми видятся элементы взаимовлияния,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и пересеч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их путей развития наших стран в тех периодах и на тех траекториях, где этого, казалось бы,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меньше всего можно было бы ожидать.

Не секрет, что марксистская политэкономия, когда она развивалась и применялась творчески и талантливыми людьми, обогатила мировую науку и практику. Не случайно недавно на фоне последнего глобаль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Карл Маркс был признан одним из опрос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в Германии самым великим немцем.

---

[12] А.В.Торкунов, В.И.Денисов, Вл.Ф.Л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 2008, с.264, 268.

По иронии судьбы, а точнее в силу комплекса объективных и субъективных факторов сложилось так, что оптима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ак основ плановой экономики, разработанных К.Марксом, так и ленинского плана кооперирован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изошло не в первой стране победившего социализма – СССР, а в ряде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зачастую стоявших на позициях непримиримого антикоммунизма.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вскоре после смерти В.И.Ленина в силу вышеназванных причин талантливые, новаторские разработки и дискуссии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и пресечены,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приобрело жестко директивную форму, добровольное постепенное кооперировани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вернуто и трансформировано в русло ускоренной тотальной коллективизации с известными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А вот идеологически непримиримо враждебный не тольк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но и любым левым теориям режим Пак Чжон Хи (конечно, не только он один) рациональные элемент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блестяще внедрил и использовал. Такой же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и ряд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ученых «Опыт Пака говорит и о том, что многие элементы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которые мы привыкли чохом выбрасывать на свалку истории, живут и побеждают при их правильном применении и очистке от лишней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шелухи. Так, большинство методов, примененных Паком для вывода страны из кризиса, включая госзаказ, пятилетние планы, чучхесон или не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сти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идеологии и культуры, отражали его увлечени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идеями, которое он сумел творчески приспособить к требованиям времени в своей собственной стране, заимствовав у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способа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и управл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лезные элементы.»[13]

[13] К. Асмолов. «Генерал Пак Чон Хи. Очерк политической биографии».// газета «Сеульский

Нечто похожее мы можем найти и в основ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 другого 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ого дракона – Тайваня. Отцы-основатели Кита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Тайване Чан Кайши и его сын Цзян Цзинго бывали в СССР (последний особенно долго прожил в нашей стране) и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али советский опыт. Отвергну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е идеалы, они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и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ли советский опыт партийного и во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некоторы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Возможно, немногие знают, что, по мнению ряда экономистов, в том числе российских, единственной страной в мире, где в полной мере и с бесспорно положительны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был реализован сорванный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явно тотальным переходом к сплошной коллективизации ленинский план коопера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тал Тайвань. Именно здесь была создана и получила широкое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и иных форм коопераци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поспособствовавшая возникновению нынешней структуры мелки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тавшая сегодня объектом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го внимания со стороны экспертов многих соседних стран.»[14] Ведь благодаря этим, как считают некоторые эксперты, «лучшим в мире» малым и средним предприятиям, тайваньская экономика сумела сохранить свою устойчивость в двух послед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кризисах.

Все это подводит нас к поддержке утверждений о широкой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и интегрированности нашего мира не только сегодня в эпоху глобализации, но и на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ее ранних этапах.

вестник», Сеул, 2003, №№ 77-80.

[14] А. Воронцов. «Дракон» готовится к прыжку» // журнал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М., 2003, № 6, с.50.

Невозможно обойти стороной еще одно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ное достижение Пак Чжон Хи – его вклад в дело налажива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Парадоксально, но при нем,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бе Кореи в тот период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ходились на грани войны, были заложены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е элементы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Ведь три принципа объединения, сформулированные во время перв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встреч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евера и Юга в 1972г. – одно из немногих достижений, признаваемых в обеих корейских столицах во все времена и при люб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ах. Трудно не согласиться с выводом патриарха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Ю.В.Ванина, который отмечал в статье 2007г.: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35 лет знаменитому Совместному заявлению Севера и Юга от 4 июля 1972г. – первому документу, положившему начало формированию основных принципов будуще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мир,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и вели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консолидация».[15]

Как уже отмечалось,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малое число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задумываются о созвучности проблем, стоящих перед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на определен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этапах, и делаю порой весьма смелые выводы. «Мног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лозунги Пак Чон Хи актуальны и для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национальное возрождение, укреп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и подъё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уха, установление основ здоров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этики, революционное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человека.

И мно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действ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похожи на то, что 40 лет назад делал Пак. Насколько это возможно, он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 боеспособность армии и

[15] Ю.В.Ванин. «Через призму времени. К 100-летию Гаагск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ир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М., № 6, июль 2007 г., с.17

спецслужб, жестко стремясь положить конец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уголовн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проводит частые совещания с экспертами, стремится "равноудалить" с политической арены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лигархии, потихоньку подрывая их экономическую власть и подбираясь к "семь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опыт дает и важный пример соотношения демократии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мы не можем уйти от признания того факта, что форсированный вывод страны из кризиса невозможен без определенного закручивания гаек. Но максимум, что могут обеспечить подобные методы правления - это резкий прорыв, после которого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ходить к иным способам выхода из кризиса. Задержка чревата перерождением в диктатуру, а военные методы правления вне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так же мало приемлемы, как гражданские методы во время войны или остр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кризиса.

Анализ деятельности Пака в который раз ставит вопрос о сочетаемости западной демократии и особенностей конфуциан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региона, о том, насколько народные Кореи массы готовы воспринять идеи демократии в том понимании, в котором их воспринимают люди европейской культуры.»[16]

Произведенный обзор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трудов (они, на наш взгляд, отражают “мэйнстрим»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строений в России) позволяет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при всем многообразии оценок определился вектор к более спокойному, позитивному восприятию наследия Пак Чжон Хи. Если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положительные оценки режима Пак Чжон Хи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полностью, то в

[16] К. Асмолов. «Генерал Пак Чон Хи. Очерк политической биографии».// газета «Сеульский вестник», Сеул, 2003, №№ 77-80.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еобладают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е и, при всех оговорках об издержках репрессив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ежима, в целом сдержанно-позитивные суждения.

「러시아 교재에 나타난 한국전쟁 인식:
전쟁 발발의 원인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태균(서울대학교)

-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개인 및 박정희 시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보론쪼프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 감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 그러나 그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평가 모두 일면적 또는 정치적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안에는 전략적 평가 / 정치적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 부정적 평가의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로 주로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개발독재 또는 발전국가의 필요악으로서 강력한 지도자의 필요성, 이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 독재를 합리화하는 모델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아스몰로프 “우리는 빈곤과 혼란으로부터 안정과 번영을 이룩해 낸 급속한 돌파가 ‘국가 동원’ 및 이와 연관된 국가 역할의 강화(이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평가는 매우 정치적인 것. 신자유주의 하에서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 이는 박정희에 대한 국가중심적/시장중심적 평가가 전혀 다른 미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의 대립은 이제 시장/공산주의 => 시장독재/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 실상 박정희 스타일은 시장/공산주의의 틈새시장을 노린 것이었다면, 시장독재/개인주의 구도에서 적합한 스타일, 또는 틈새 스타일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함.

- 문제는 긍정/부정의 평가가 아니라 박정희 시대에 대한 객관적인 재조명. 가치관이 개입된 섣부른 평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 모델로서의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대안적 모델, 예컨대 브라질의 모델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growth with 독재 or growth with 민주주의. 속도 vs. 비용(cost)의 문제.
- 독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governance의 문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 또한 발전국가 이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부적 요소, 분배 문제에 대한 방기.

예컨대 “러시아의 저명한 한국학 학자인 트리구벤코와 톨로라야는 자신들의 저서인 『대한민국 경제 개관(Очерки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에서 이웃한 다른 나라들이 박정희 시기 남한의 근대화 경험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흥미로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양극체제의 ‘냉전’과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는 기형적 상황을 막대한 이익을 얻어내는데 활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언급에서 보이는 것처럼.

- 쿠르바노프, “박정희가 왜 계획경제의 효과성에 착목했는지를 설명하기는 간단치 않다. 한편으로는 계획적 요소를 활용했던 이웃 일본의 긍정적인 경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당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서 5개년 계획에 의거해 수행했던 경제발전의 실제경험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 1950년대 아시아 경험, 박정희의 러시아, 북한(미국 문서들), 동남아시아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관심. 박정희 경제고문들의 인도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 등. 그의 책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는 이집트, 일본(메이지), 독일(비스마르크)의 예를 들고 있다.

“운명의 아이러니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칼 마르크스가 창조한 계획경제의 기반 뿐 아니라, 레닌의 농업 협동화 계획 역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주의가 승리를 거둔 최초의 나라인 소련이 아니라, 비타협적인 반공주의의 입장에 서 있던 일련의 다른 나라들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또 다른 아이러니. 박정희는 다른 한편으로 소련의 모델을 모방하려 한 것이었다. “박정희의 경험은 우리가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리는데 익숙했던 사회주의적 유산의 많은 요소들이 그것들의 올바른 적용과 쓸모없는 이데올로기적 외피를 벗어던진 채 엄연히 살아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두 가지의 과제와 분석해야 할 내용

1) 객관적인 실체의 분석: 국내 정책적 요소와 해외 요소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정책에 대한 평가 이전에 실체를 먼저 밝혀야 한다.

2) 정책적 분석: model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공이라는 결과에 의한 사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진정한 model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한계의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야 하며,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

- 외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부분: 베트남 전쟁. 전쟁을 통해 돈을 번다. “남북대화 분야에서 박정희가 이룩한 또 하나의 특별히 중요한 업적을 간과할 수는 없다.” 전쟁 기간 남북 긴장의 고조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공존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박정희 모델을 생각하기 이전에 러시아 자체의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상황은 1960년대나 1970년대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다. 또한 영토 및 자연적 조건 역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러시아는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 한국적 모델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러시아 사회의 discourse는 무엇인지. 러시아 사람들은 무엇에 익숙한지. 등등의 문제.
-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개발 독재 시기 한국현대사 서술을 통해 본 러시아의 한국 인식과 자기 인식 - 한국 현대사 인식 속에 투영된 현대 러시아의 자화상 -

구자정(한양대)

I. 들어가는 말

한국과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이지만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현실 속에서 해방 이후의 양국 관계는 한소 수교 이전까지 거의 교류가 없는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였다고 할 수 있다. 동서 냉전의 최전선에 자리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대소련 봉쇄 전략의 최전선에 서 북한과 대결하던 한국과, 사회주의 진영의 수장이자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분단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이던 소련 간의 관계는 결코 우호적일 수 없었고, 특히 1980년대 초반 한-소 관계는 소련 공군기에 의한 한국 국적기의 피격 사건으로 최악의 수준으로까지 치달았던 바 있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상황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그리고 1989년 한소 수교 이후부터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소연방의 해체 및 냉전의 종식, 그리고 한국에서는 군사 독재의 몰락과 더불어 “민주화된” 한국과 “탈소비에트화한” 러시아 간의 관계는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였고, 오늘날 양국 간 관계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과거 냉전 시기에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을 만큼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유지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었다.

이렇듯 “대결”로부터 출발하여 결과적으로는 동반자적 “우호” 관계로 귀결되는 한국-러시아 관계의 굴곡은 러시아 학계의 한국 인식의 변화 속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는 박정희 체제와 박정희 체제를 계승한 전두환 정권의 시대이다. 주지하듯이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치하 대한민국은 동서 냉전의 최전선에서 북한과 대치하던 이른바 “개발 독재”의 지배 하에 있었다.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만들어낸 당사자인 동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불럭 간 동서 냉전에서 사회주의 진영을 이끌던 소비에트 연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기 군사 독재 치하의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준위성국가로서 간주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척점에 자리했고, 이

시기의 한국은 민중이 억압되고 민주주의가 압살된 군사 파시즘 체제로서 “해방”의 대상에 불과했다. 한국의 “개발 독재”에 대한 현대 러시아의 인식이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소비에트 체제의 후계자임을 자임하며 실제로도 이를 계승하고 있는 오늘날의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이른바 “개발 독재” 시기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탈소비에트화(化)의 경험은 오늘날 러시아의 한국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러시아 연방의 한국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현재 러시아의 대학에서 한국사 강의 교재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3종의 교과서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을 위해 선택한 교재는 A. V. 또르꾸노프의 주도 아래 러시아의 한국 학계를 대표하는 7인의 한국 연구자가 참여하여 공동 집필한 “한국 역사: 새로운 읽기”[1]와 꾸르바노프의 “한국사,”[2] 마지막으로는 또르꾸노프와 제니소프, 블라디미르 리의 총 3인의 한국학 전공자들이 공동 집필한 해방 이후의 한국 현대사 개설서, “한반도”[3]이다. 세 권 모두 현재의 러시아 연방 정치 체제가 소련 붕괴 이후의 혼란을 벗어나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들고 한국-러시아 관계가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는 2000년대 뿌띤 체제 등장 이후, 러시아의 한국학계를 대표하는 역사와 정치, 경제 연구자들에 의해 집필되거나 수정/증보되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러시아 한국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와 동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저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들 교재들을 현대 러시아의 한국 인식을 가늠하는 나침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 3종의 저서가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라는 사실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교과서, 특히 “역사” 텍스트로서의 교과서가 가진 특수한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역할 및 상징성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 간, 또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가들에 의해 서술 속에서 재구성되는 진실” 간 일치를 부인하고, “역사적 서사(Historical Narrative)”와 “문학(Literature)" 간 경계를 허물며, 텍스트와 컨텍스트 간 연결의 자의성을 주창하는 "언어로의 전환(Linguistic Turn)[4]” 이후, “있는

1) S. O. Kurbanov, *Istoriia Korei s drevnosti do nachala XXX v.* (St. Petersburg: Izdatel'stvo Sankt Peterburskogo universiteta, 2009)

2) A. V. Torkunov, ed. *Istoriia Korei: Novoe proshtenie* (Moscow: Moskovskii gorudarstvennyi institut mezhdunarodnykh otnoshenii, 2003)

3) A. V. Torkunov, V. I. Denisov, V. F. Li, *Koreiskii poluostrov: Metamorfozy poslevoennoi istorii* (Moscow: Olma Media Grupp, 2008)

4) “언어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Richard M. Rorty, ed. *The Linguistic Turn: Essays in*

그대로의 과거를 서술한다"는 랑케식의 실증적(Positivist) 역사학은 도전받기 시작했다.[5] "언어로의 전환" 이후부터 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실(史實) 추구를 지향하던 "역사 과학(*Geschichtswissenschaft*)"으로서의 역사학은 해체되기 시작했고, 근대성에 도전하는 "탈근대(Postmodern)"와 국민 국가를 해체하는 "초국가(Transnational)"를 이야기하는 현대 역사학계에서, 과거 국민 국가에서 국민 만들기 작업의 정점을 이루었던 "역사 교과서[6]"는 더 이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의 역사학계에서 역사 교과서는 정부 또는 지배적인 정치체제, 그리고 지배 엘리트가 대중을 상대로 보급하고 대중화시키고 교육시키길 원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서술 속에서 체계화되어 "내면화"되어 있는 언어적이고 담론적인 감옥, 이데올로기적 프로젝트, 푸코(Foucault)의 표현을 빌자면 일종의 "팬옵티콘(Panopticon)"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한국사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국사 교과서 논쟁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한, 중, 일 관계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 분쟁, 그리고 최근 한, 중 관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동북 공정"에서 볼 수 있듯이,[7] 역사 교과서가 표방하는 객관성은 고도로 주관적으

Philosophical Meth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를, "언어로의 전환"이 20세기 역사학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Georg G. Iggers, *Histori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From Scientific Objectivity to the Postmodern Challenge* (Wesleyan, 2005), Joyce Oldham Appleby & Lynn Hunt, *Telling the Truth about History* (Norton, 1995), Beverley Southgate, *History: What and Why?: Ancient, Modern and Postmodern Perspectives* (Routledge, 2001)를 참조하라.

5) 역사적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모토로 한 이른바 "독일 역사 과학"의 등장과 이 역사과학이 내면화한 독일 역사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논의는, Iggers & James M. Powell, *Leopold Von Ranke and the Shaping of the Historical Disciplin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0)에서 찾을 수 있다.

6) 이러한 역사 창조 작업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프랑스"라고 하는 최초의 유럽 국민 국가 "발명"해 낸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이 희박하던 옥시땅, 브레똥, 코르시카, 알사스-로렌 등의 여러 지역들을 프랑스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고, 프랑스적이기보다는 향토적 정체성이 지배적이던 농민들을, 공화주의적 가치를 준수하며 프랑스어만을 사용하는 국민(Nation), "프랑스인"으로 창조하는 것에는 국민 국가로서의 프랑스 역사, "상상된 공동체"로의 프랑스의 과거를 주입하는 역사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프랑스사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수연, "프랑스의 프랑스사 만들기," 『역사비평』 2003년 여름호를 참조하라. 프랑스 제 3공화국 시기 프랑스 농민들이 프랑스 "국민"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유진 웨버의 기념비적인 고전, Eugen Weber, *Peasants into Frenchmen: The Modernization of Rural France, 1870-1914*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9) 이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이러한 역사교육 과정을 통해 역사적으로 신성 로마제국에 속했고 일상생활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했으며 인종적으로는 독일인에 다름아니던 알사스-로렌인들은 알퐁스 도데가 "마지막 수업"에서 창조해 낸 가상의 기억을 통해 프랑스 애국주의의 신화적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7) 이러한 역사 분쟁은 우끄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도 벌어지고 있으며 한 때 러시아가 승리한 것으로 보이던 이 "전투"는 우끄라이나의 독립 후 여전히 안개 속에서 진행 중이다. 예컨대, 현대 우끄라이나의 수도인 끼예프를 중심으로 출현하여 한 때 모스끄바 러시아의 역사적 선조로 공인되었던 끼예프 루시(Kievskaia Rus')의 역사는 도대체 누구의 역사이며 어느 쪽의 선조인가? 국가주의 학파를 계승하는 러시아의 주류 역사학계에서 끼예프 루시는 모스끄바 러시아의 역사적 선조로 간주되며 이는 러시아사 학계에서는 공인된 정통적 의견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1918년 독립 우끄라이나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우끄라이나의 국민 역사가, 미하일로 흐루쉡스끼(Mykhailo Hrushevsky)와 같은 역사학자들에게 끼예프 루시는 모스끄바 러시아를 구성하는 대러시아인과는 연관성이 희박한 "우끄라이나-루시"의 역사적 선조였다. 미완성으로 끝난 흐루쉡스끼의 10권 짜리 역작, "우끄라이나 루시의 역사(Mykhailo Hrushevsky, *Istoriia Ukraïny-Rusy* 10 Vols. [Lviv-Vienna-Kyiv, 1898 - 1936; reprints: New York, 1954 - 58; Kyiv,

로 구성된 진실이며, 이 진실은 지배 엘리트가 원하는 가치체계와 논리, 관점이 객관성의 이름으로 재구성된 “만들어진 진실”에 다름 아니다.[8)]

역사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은밀하게 내포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은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민 국가의 역사를 다루는 자국사 서술에서 가장 두르러지게 부각되고 있지만, 타국의 역사, 특히 자국의 역사와 밀접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관련성을 가지는 인접 국가의 역사를 기술하는 경우에도 역사 교육의 본질 속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타국에 대한 관찰이야말로 자국사에 내면화된 가치를 더욱 은밀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타자”를 보는 시선과 이 “시선”의 바탕이 되는 이데올로기와 담론은 결국 “자아”가 구성되는 방식의 반영물이기 때문이다. 어떤 역사적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통해 만들어지는 “타자”의 재구성 속에는 “자신”을 어떻게 구성하고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과 기대가 무의식 속으로 내면화되어 있으며 또한 이 고민과 기대를 재구성된 “경험 공간(*Erfahrungsraum*)”을 통해 독자에게 내면화시키는 것이 바로 역사 교과서의 역할이다.[9)]

아이러니하게도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3종의 대학 강의 교재들이 러시아의 한국 인식을 이해하는데 더더욱 적절한 분석 시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과서들이 “역사 과학(*Istoricheskaia nauka*)” 교재로서 가지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 즉 교과서의 “이데올로기적 객관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국민 국가의 역사를 다루는 교과서이든 역사 교과서에는 한 사회 공동체가 상상하는 “경험 공간”과, 저자가 내면화하고 독자에게 정당화하거나 부인하고, 설파하거

1991 - 94])”는 우끄라이나인을 위한 역사 교재인 동시에 제정 러시아와의 “역사 전쟁”을 위해 집필되기 시작했는데, 이 우끄라이나 역사 교과서의 목적은 명백히 이데올로기적이다. 흐루쉡스끼의 집필 의도는 안떼스(Antes)에서 우끄라이나 루시-모스끄바 러시아-제정 러시아로 이어지는 러시아사의 정통적 역사 계보도를 “해체”하고, 이를 대안적인 새로운 “우끄라이나 역사”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8) 현 시점에서 역사 교과서를 둘러 싼 논쟁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인종의 도가니를 자처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인종과 성, 종교, 계급에 따라 "분리(Segregated)"되어 있는 미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딜레마는 미국 교과서에서 전달해야 할 미국적 가치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지의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다. 예컨대 백인, 남성, 양성애자, 개신교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전통적인 미국 역사 교과서는 여성사, 흑인과 라티노(Latino) 비롯한 소수민족, 동성애자, 카톨릭의 시각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진보주의 진영의 공격을 받았고, 이러한 소수의 목소리를 교과서 서술에 담아내려는 시도는 역으로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기존의 미국의 역사 교육과 교과서를 통열히 “해체”하고 비판한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Bruce VanSledright, “Narratives of Nation-State, Historical Knowledge, and School History Education,”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February 1, 2008을 참조하라.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가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 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을 둘러 싼 미국 사회 내부의 논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9) 역사 교과서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필자가 사용하는 중추 개념, “경험 공간(*Erfahrungsraum*)”과 “기대 지평(*Erwartungshorizont*)”은 독일 개념사의 거장으로 이 개념의 창안자인 라인하르트 코젤렉에게서 차용해 온 것이다. 이 두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젤렉 자신의 논문, Reinhart Koselleck, “‘Erfahrungsraum’ und ‘Erwartungshorizont’-zwei historische Kategorien,” in Koselleck, *Vergangene Zukunft: Zur Semantik Geschichtlicher Zeit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79)를 참조하라.

나 논박하고자 하는 현재와 미래의 "기대 지평(*Erwartungshorizont*)"이 스며들어 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역사 과학" 교과서는 단순히 "과거"를 가르치는 저작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이는 역사가가 다루는 과거는 과학적으로 재현 불가능하며 오로지 텍스트의 화자가 올바르다고 믿는 과거 현실의 이데올로기적 재구성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사 교과서는 "상상된 공동체"의 "만들어진 과거"를 빌어 진행 중인 현재와 기대되는 미래의 상을 이야기하기 위한 고도로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며 편향적인 기술이다. 자아가 아닌 타자, 자국이 아닌 타국을 다루는 역사 서술 역시 그 타자 자체의 순수한 이해를 목적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과서는 자국의 "경험 공간"을 타자의 역사 속에 투사시키고 이를 통해 자국이 직면한 현실을 위한 "기대 지평"을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필자가 러시아의 대학 교재 분석을 통해 읽어내려는 것은 단순히 러시아의 "한국 인식"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필자는 3종의 역사 교재에 나타난 박정희, 전두환 체제 서술로부터, 현 러시아의 한국 인식을 규정하고 있는 현 러시아의 소비에트적 "경험 공간"과 탈소비에트적 "기대 지평"이 교차하는 이데올로기적 지점에서, 현대 러시아의 자기 인식의 행간 속에 내면화된 가치와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박정희 체제: "한국적 특수성" 또는 "한국적 유형의 민주주의"

러시아의 대학 교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박정희 체제를 상당히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또르꾸노프를 비롯한 3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예컨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요약문은 "한반도"가 가지는 교과서적 가치와 저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반도의 역사를 다루는 러시아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서로서 남한의 '경제 기적'의 비밀과 ... 남한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기저에서 일어난 '한국적 유형의 민주주의'의 탄생과 발전 [과정] ... 에 대해 서술한다...."[10]

10) Torkunov, *Koreiskii poluostrov,* 4

다시 말해,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의 역사를 다루는 이 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남한의 이른바 "경제 기적"의 기원을 한국의 군사 독재에 두고, 이 독재가 성취한 "권위주의적 근대화"[11]를 해명해 보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다른 두 권의 저서보다도 산문적이며 간략한 연대기적 기술과 사실의 나열이 주 내용을 이루는 "한국 역사"에서도,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 서술을 담당한 제니소프(V. I. Denisov)와 뜨까첸코(V. P. Tkachenko)의 표현을 빌자면, 박정희의 주된 업적은 "한국의 경제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었고, 그의 치세는 군사 독재로부터 "한국적 형태(*Obrazets*)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기[12]라고 규정되고 있다. 밑에서 상술하겠지만, "한반도"와 "한국 역사"의 이러한 전반적인 시각은 꾸르바노프의 "한국사"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박정희 체제에 대해 내리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 자체는 결코 특기할 만한 사실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박정희 시대에 성취된 한국의 경제 성장 때문에, 인권에 대한 탄압과 헌정 질서의 유린, 정치 공작 등과 같은 박정희 체제의 반(反)민주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사가들이나 정치학자들은 박정희 체제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13] 그러나 박정희 체제에 대한 러시아 교과서의 긍정적 평가는 단순히 이 시기에 이뤄진 경제 발전에 근거하여 나온 것이 아니기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는 많은 현대사가들이 박정희 체제를 한국의 경제적 도약이 이뤄진 시기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민주적 헌정 질서의 "퇴행"이 일어난 "개발 독재"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러시아의 교과서에서는 박정희 정권을 "민주주의의 퇴행"의 반대급부로 이뤄진 "경제 성장"이라는, 기존의 양비론적 틀로서만 박정희 체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러시아의 한국사 교과서가 일반적인 박정희 체제론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한국사의 "특수성 테제"라 할 수 있다.[14]

---

11) *Ibid.*, 252

12) Torkunov, ed. *Istoriia Korei: Novoe proshtenie,* 360

13) 예컨대, Lee Byeong-Cheon & Pyŏng-ch'ŏn Yi, co-ed.,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The Park Chung-Hee Era: The Shaping of Modernity in the Republic of Korea* (Homa & Sekey Books, 2005) 를 참조하라. 개발 독재의 본질적 속성인 "정치적 탄압"에 통한 국민의 동원과 이른바 "경제 기적"의 간 상관 관계를 해명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 책의 기고자들은, 박정희 체제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박정희와 체제의 동원 기제의 기여 자체를 의심하거나 부인하지는 않는다.

14) 역사학에서 "특수성 테제"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의 과거 슬라브주의 계열의 역사학자들이나 인민주의 역사가들에게 "러시아사의 특수성"은 서구화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러시아의 고유한 슬라브적 발전의 길을 옹호하거나, 서구의 자본주의적 발전 단계를 우회하여 러시아식의 고유한 사회주의에 이르는 "제 3의 길"을 옹호하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반면 현대의 독일 역사가들에게 "특수성 테제"는 독일 나치즘의 등장을 영국이나 프랑스의 "정상적" 자본주의 발전 경로에서 이탈한 비스마르크 시대 이래 독일 근대화의 "非정상적" 발전 과정 속에서 설명하려던 "독일의 특수한 길(*Sonderweg*)" 개념에 다름 아니다. 러시아의 한국 인식 속에서 "특수성 테제"는 러시아인 자신의 "특수성 테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후자보다는 전자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러시아

예컨대, 꾸르바노프는 박정희 체제를 민주주의를 희생하여 경제 발전을 일군 단순한 "개발 독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한국적 특수성"이 배태한 시대적 요구가 만들어 낸 필연적 체제로서, 유럽 역사에 기반한 보편적 발전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경제 발전 모델을 제시한 고유한 대안 체제로서 제시한다. 이 시대를 경험한 한국인에게는 친숙한 박정희/전두환 체제의 슬로건,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시각이 꾸르바노프의 서술 속에서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어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꾸르바노프가 한국 현대사를 보는 기본적인 인식 틀은 박정희 체제가 한국 역사 발전의 어떤 "특수한 조건"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특수성이 박정희 체제를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일종의 "특수주의," 즉 "한국적 특수성" 담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꾸르바노프에게 한국적 발전 모델의 배경이 된 이 특수성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꾸르바노프는 이 "특수성"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이 특수성을 기본 전제로 삼아 박정희 체제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꾸르바노프의 서술의 행간에서 이러한 특수성 테제를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박정희 체제에 대한 서술을 시작하는 장의 서두에서 꾸르바노프는 장면 정부의 실패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물론, ... 이른바 서유럽적 형태의 민주주의는 ... 연소자와 연장자 간 관계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 전통 문화 때문에 남한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 전통이 존재하는 한 ... 아마도 훗날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15]

다시 말해 박정희 체제의 등장 배경을 보는 꾸르바노프의 기본 입장은, 한국사회에는 전통 속에 내재된 권위주의 문화 때문에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문화적, 역사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 역사적 요소에 기반한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이야말로 박정희 체제의 등장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정권 이후 붕괴 후 등장한 장면 정부의 "민주 체제"의 실패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되는

의 한국 인식과 대비되는 아이러니는 한국사의 특수성 테제에 비판적인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학계 주류의 관점이다. 근대로의 이행이 한국의 내재적 조건 속에서 가능했었다는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은 한국 근현대사를 "특수한 경로"를 따르는 고유한 역사가 아닌 "보편적 근대"로의 세계사적 발전 과정 속으로 편입시켜 이해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15) Kurbanov, *Istoriia Korei,* 454-455

데, 꾸르바노프의 설명을 다시 직접 인용하자면,

"장면의 민주당 정부는 남한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절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경제발전의 높지 않은 수준과 한국 국민 대다수의 낮은 생활 수준으로 인해 한국에는 민주적 체제의 모든 장점을 이용할 만한 가능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16)

그렇다면 이 시기, 꾸르바노프의 표현을 다시 빌자면, "남한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절망을 만족시킬" 한국의 대안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꾸르바노프가 제시하는 해답은 분명하다. 그것은 박정희 체제였다. 물론 그는 이 대안이 바로 "박정희 체제"였다고 노골적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박정희 체제를 서술하는 장 서두에서 이 체제를 민주적이지만 무능한 체제로 묘사하는 장면/윤보선의 제 2공화국과 대비시킴에 의해, 박정희 체제와 박정희 체제를 낳은 5.16 군사 쿠테타를 단순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적 특수성에서 배태된,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며 당연하기까지 한, 한국 현대사의 객관적 발전 수순임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논증보다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으로 합의된" 해석을 소개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을 표방하는 대학 교재로서의 속성 상, 그의 서술 속에서 이러한 "친(親)개발독재적" 시각은 노골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으며, 예컨대 꾸르바노프의 5.16 군사 쿠테타의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에 대한 서술 자체로만 본다면 "한국사"의 기술은 시중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한국 통사의 현대사의 그것과도 일견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의 설명이 가지는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차별성은 그가 5.16 군사 쿠테타의 성공 요인을 선거를 통해 확인되는 쿠테타 주도 세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비(非)헌정적 조치에 대한 국민의 추인 속에서 찾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꾸르바노프에게 장면 민주 정부의 붕괴와 5.16 군사쿠테타로 시작되는 군사 독재는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역사적 사건에 다름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대중적 지지에 주목함으로써 꾸르바노프는 군사 독재의 독재적이고 탄압적인 성격을 역사적으로 "상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꾸르바노프에게 박정희가 이끈 남한의 "독재"는 - 적어도 최소한 제 3공화국 시기까지는 - "절대적인 의미의 독재"가 아니었다. 꾸르바노프가 이처럼 "독재"를 상대화하는 표면적 이유는 야당 세력이 계속 존재했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16) *Ibid.*, 454

선거를 통한 헌정적 형식의 지배가 유지되는 "형식 상의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인데, 꾸르바노프는 이 형식상의 민주주의에서도 박정희와 그의 지지 세력이 여러 차례의 선거, 즉 대선에서 유신 헌법 개정 투표에 이르는 일련의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 승리했음에 주목한다. 달리 말하자면, 꾸르바노프는 박정희 체제가 상당한 "대중적 동의"를 얻었던 상대적인 의미의 독재, 일종의 "대중 독재 체제"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꾸르바노프가 서술한 것처럼 "인민들이 진정으로 박정희를 지지했다면"[17] 독재를 지지하게 되는 이러한 대중적 자발성의 기반이 되는 "동의"를 꾸르바노프는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인가?

얄궂게도 바로 이 시점에서 꾸르바노프의 설명은 "한국적 특수성"을 떠나 박정희 체제의 야누스적 성격에 주목하는 기존의 설명으로 돌아간다. 그가 보기에 권위주의적 독재가 한국 인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주 요인은 박정희 시대에 이뤄진 일련의 "성취(*Dostizhenie*)," 즉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었다. 꾸르바노프는 한국의 경제적 도약과 관련해서 박정희가 이뤄낸 주된 정치적 업적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 두 번째는 베트남전 참전 결정이다. 꾸르바노프는 특히 한국인들의 반일감정과 국내 야당 세력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박정희 정권이 이뤄낸 남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 일본 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건설된 포스코(포항제철)와 같은 중공업 기반 기업 건설에서 볼 수 있듯이 - 한국의 경제적 도약의 바탕을 제공한 일본 자본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일본 자본의 유입과 일본 기술의 도움 없이는 박정희 체제가 구상한 경제 개발 계획, 장기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원문에서는 '한국의 기적')"이 결코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18]. 꾸르바노프가 보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또 다른 원동력은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으로, 그의 견해에 의하면 역시 국내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이뤄진 이 단안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원조 - 예컨대, 1966년-70년 사이만 집계해도 최소 6억 2천 5백만 달러에서 최대 17억 달러로까지 추산되는 - 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꾸르바노프가 보기에 미국의 원조는 일본 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견인한 또 다른 원동력이었다.[19]

17) *Ibid.*, 469

18) *Ibid.*, 464 - 466

19) *Ibid.*, 468

이러한 급격한 경제 성장은 또 다른 부산물, 즉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 세력"의 성장을 가져왔고, 꾸르바노프가 묘사하는 1960년대의 한국은 다른 한편으로 독재에 대항하는 야당세력과 박정희 정권 간의 격렬한 대결로 점철된 무대였다. 이 대결이야말로 꾸르바노프의 견해에 따르면 "유신체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개인 독재"가 등장하게 된, 행간에 숨겨져 있는 꾸르바노프의 실제 관점을 조금 과장해서 추론해 내자면 "등장했어야 하는" 이유였다. 꾸르바노프에 의하면 유신체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 기반이 되는 인민들의 복지를 항상적으로 증진시키는 조건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박정희는 자신의 통치를 더욱 강화시키는 수단에 의존해야만 했기[20]" 때문이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꾸르바노프가 주목하는 박정희의 정치적 결단이 바로 10월 유신이다. 꾸르바노프는 일본 근대화의 획을 그은 사건이었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유래된 "유신"의 본래의 의미, 즉 "개혁"에 주목하면서 제 4공화국의 수립으로 귀결되는 10월 유신이 마치 메이지 유신처럼 한국의 근대화에 필수적인 진정한 "개혁적" 시도였던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꾸르바노프가 일관되게 주목하는 것 역시 이 "개혁"에 대한 대중의 지지이다. 91.9%의 유권자가 참여하여 그 중 무려 91.5%의 찬성을 얻은 유신 헌법 국민투표의 득표율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꾸르바노프는 박정희 "개인 독재"의 수립이 박정희 정권이 시작한 경제 발전 과업의 완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는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누린 헌정 상의 변화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21]

이러한 박정희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꾸르바노프의 한국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유사한 관점은 "한반도"의 저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한반도"의 저자들은 제 2공화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헌정파괴적 사건엔 다름 아니던 5.16 군사쿠테타를 전통적 맥락에서 불법성을 가진 사건으로 이해되는 "쿠테타"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반도"의 저자들은 쿠테타 주도세력들이 스스로에게 붙였던 명칭인 "군사 혁명"이라는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면서,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는 견해를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사용하는 "군사 혁명"이라는 표현 속에는 "괄호"가 붙기는 했지만 "한반도"의 기본적 관점은 박정희 체제가 진정한 혁명적 성격을 띠었으며, 이 "혁명"이 만들어 낸 정치 체제인 3공화국과 이의 연장인 70년대의 유신 체제를 기본적으로 한국적 특수성에 기반한 "한국적 유형의 민주주의"로 규

20) *Ibid.*, 472

21) *Ibid.*, 475

정함으로써 박정희 체제가 가진 독재적 성격을 꾸르바노프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저자들이 보는 “한국적 유형의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한반도”의 저자들은 한국에서는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꾸르바노프의 “한국적 특수성 테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이는 이들이 “한국적 유형의 민주주의”를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문화적 독립성 및 국민의 계몽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한국의] 전통적 유산과 서구 민주주의의 성취물 간 ‘종합’”[22]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합"은, 한반도의 견해에 따르자면 해방 후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광범위한 교육 체계의 수립과, 이 교육이 만들어 낸 새로운 젊은 세대, 그리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낸 정부의 전략에 의해 가능했고, 이 전략이야말로 한국의 “권위주의적 근대화”를 이끈 동인이었다. 여기서 “한반도”의 저자들은 꾸르바노프처럼 한국의 유교적 전통, 특히 권위주의적 전통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데, 예를 들면 연장자를 우대하는 전통적 효(孝) 사상을 여전히 견지한 덕택에, 근대화의 주역이 된 한국인들은 “정치”라는 “위험한” 그물 속으로 끌려들어가지 않는 “이상적 한국인”으로 교육될 수 있었다고 “한반도”는 서술한다.[23] 한반도의 저자들은, 한국의 역사 속에 내재된 이러한 유교 전통의 권위주의적 유산 덕분에 한국의 유신 정권, 한반도의 표현을 다시 그대로 빌자면, 한국의 “군사-관료체제”는 이집트나, 미얀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존재하던 유사 독재 체제와 달리, 성공적이며 인상적인 경제적, 사회적 성취와 진보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다.[24]

III. 박정희 체제 하 경제개발에 대한 서술과 견해

러시아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 중 하나는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사 혁명가”의 리더쉽이다. 예컨대, “한반도”의 저자들은 박정희의 저서인 “우리 민족의 길”이라든가 “국가와 혁명과 나” 속에 체화된 유교적 가치 및, 자기 규율 및 조국과 가족에 대한 헌신 등의 원칙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원칙들이 강한 정부와 권력의 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적 형태

22) Torkunov, *Koreiskii poluostrov,* 266

23) *Ibid.*, 267 - 268

24) *Ibid.*

의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었다고 서술한다.[25]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적 형태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경제 기적 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한반도"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해답이, 위에서 언급한 "군사 혁명가" 리더쉽이 "이상적 한국인"의 동원을 이끌어낸 4차례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속에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었다면, 꾸르바노프의 "한국사"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동인을 사회 경제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박정희 "독재" 권력의 완벽한 통제에서 찾고 있다. "국민 경제 독립을 위한 기반 창출"이라는 목표 속에서 경공업 발전에 주력한 1차 5개년 계획(1962년-1966년)에서부터 중공업 발전의 초석을 놓은 제 2차 5개년 계획(1967년-1971년), 중화학 공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자본 투자를 통해 이 중공업 발전을 이어 나간 제 3차 5개년 계획(1972년-1976년), 이상의 여러 개발 계획을 통해 건설된 산업 분야에 기반하여 원료를 수입하고 완성품을 수출하는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완성한 제 4차 5개년 계획(1977-1981년)에 대해 서술하면서, 꾸르바노프는 박정희 체제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정부에 의한 "통제 경제 모델," 저자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국가 자본주의"로부터 찾고 있고 있는 것이다.[26]

이러한 "통제 경제"의 역할은 "한반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한반도"의 저자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던 한국에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한국의 국가 자본주의 발전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던가에 주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반도"의 저자들은 특히 "시장"과 "정부" 간의 관계, 특히 이 관계를 규정하던 박정희 시기의 제도 및 정책,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사회경제적 구성체의 역할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1962년 처음으로 설립되어 경제 발전 전략 수립과 조정 기능을 이끈 경제기획원은 일견 소련의 고스플란과 유사해 보이지만, 오로지 시장 경제에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시장과, 조세, 재정 정책 가격 정책을 통괄했다는 점에서 국가 기관이 세부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소련이나 북한의 유사기관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서술하면서[27], 여기서 "한반도"의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와, 일견 배타적인 강력한 정부의 개입 속에서도 자본주의 시장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었던 "한국적 통제 경제"의 작동 방식이다.

"한반도"의 저자들이 이 작동 방식에 보이는 비상한 관심의 기저에는 아마도

25) *Ibid.*, 266

26) Kurbanov, *Istoriia Korei,* 480-484

27) Torkunov, *Koreiskii poluostrov,* 253 -254

시장을 없애고 국가가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던 구 소비에트 시절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경험이 자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 저자들의 견해에 따르자면, 한국의 통제 경제는 정부가 시장을 조정하는 통제자인 동시에 자신이 “공기업”이나 “국책 은행”의 형태를 통해 개별적인 시장 참여자였다는 점에서 구 소련 시절의 계획 경제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한국식 통제 경제 모델이 한국의 경제 도약을 가져온 디딤돌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의 저자들은 특히 정부가 한국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등등의 국책 은행이나 국영 및 관영 은행 수립을 통해 금융과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고,[28] 한국전기공사라든가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수립과 같이 정부가 공기업의 형태로서 시장 규제자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로서도 개입하는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고, 외환의 유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한 1960년대의 철저한 시장 통제 경제 정책이 한국의 “국민 경제(*Narodnoe khozaistvo*)”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한다.[29] 또한 이러한 정책을 과감히 밀어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과, “국가와 나”와 같은 그의 몇몇 저서들, 여기에 표명된 발전 전략 및 박정희 개인적 기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한반도”의 저자들 역시 박정희의 발전 전략을 시장에 대한 “국가 자본주의적 통제”로 명명했다.[30]

그렇다면 한국의 이러한 “국가 자본주의적 통제”는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고 “한강의 기적”에 기여했던 것인가? “한반도”의 설명은 이 부분에서 구체적이며 “한반도”가 묘사하는 박정희 정권의 발전 전략의 큰 그림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친숙하다. 그것은 특별한 자본과 인적 자원,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경공업을 먼저 육성하고 경공업 기반 구조로부터 국민 경제 건설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으로 이행한다는 전략이었다. 아마도 경공업을 등한시한 소련 체제의 경험 때문인지 “한반도”의 저자들은 박정희 정권이 수립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의 이행 발전 전략을 아주 높이 평가하며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으로 서술하는데, “한반도”의 저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성공은 지속적인 높은 경제 성장률 수치에 대한 경공업 분야의 기여에 의해 예증된다. 예컨대, 일차 5개년 계획의 7.8%의 성장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바로 15.1%의 고속 성장을 한 경공업 분야의 발전이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저자들은 이러한 경공업 기반의 발전은 교육과 보건 체제의 확립에도 도움을 주어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였던

28) *Ibid.*, 254

29) *Ibid.*, 255

30) *Ibid.*, 256

것에도 주목한다.[31] 경공업 분야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박정희 정권은 제2차와 3차 5개년 계획에서 중화학 공업의 건설에 착수했는데, 정치적 반대파가 지적하던 기술 역량과 자본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중공업 건설에서도 큰 성취를 이루었다.[32].

이 성공의 동인을 "한반도"의 저자들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한반도"의 저자들이 주목하는 성공의 동인 중 하나는 당대의 한국에 처음 등장했고 자발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 참여자인 동시에 정부의 철저한 통제/감독 하에 있었던 특수한 "재정-산업 그룹"의 존재였다.[33] 이들의 존재와 역할은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하기에 "한반도"가 언급하는 이들 "재정-산업 그룹"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반도"가 주목한 한국의 특수 "재정-산업 그룹"은 바로 "재벌"이었다.

"한반도"는 "재벌"의 존재가, 자본주의적 시장이 정부의 통제와 함께 성공적으로 병존하며 효과적인 자본의 투입과 자원의 분배, 인적 자원의 동원이 이뤄지는 "한국식 통제 경제," 또는 한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특수한 사례인 동시에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음을 시사한다. 주지하듯이 과거 국가가 직접 경제 영역에 자본을 투입하고 경영에 직접 관여했던 소련식 사회주의 통제 경제와 달리, 표면적으로는 "시장 경제"임을 표방하는 한국의 "통제 경제" 체제에서 자본은 정부에 의해 산업 영역으로 바로 투하될 수 없었다. 또한 개발 독재 하의 한국 경제는 자본의 활동이 정부의 개입에 제약받지 않거나 개입이 최소화되는 미국식 자유 시장 경제와도 성격을 달리했다. 개발 독재 치하의 한국이 특수했던 것은 시장 경제 하에서 법적으로 엄연히 민간 자본인 재벌이, 바로 정부에 의해 육성되고 발전되며 통제되었던 사실과, 바로 이 재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투자를 위한 자본이 시장으로 투입되고 생산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한국의 고유 자본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차입된 자본은 삼성, 현대, 럭키금성, 한진과 같은 재벌 그룹을 통해 투자되었고, 이러한 재벌들은 금속공업, 자동차산업, 화학, 전기전자 등의 각종 산업 분야의 발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반도"는 또한 한국 정부가 재벌 그룹들의 내부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적 기술적 통제를 가하였음을 서술한다. 예컨대, 한때 삼성에 뒤이은 재벌 순위 2위이던 삼호그룹이 1973년 정부에 의해 일순간에

31) *Ibid.*

32) *Ibid.*, 257

33) *Ibid.*, 258

청산/분해된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재벌이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엄격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였음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벌의 존재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 자율적인 민간 기업의 장점과 타율적인 정부의 통제가 맞물린 독특한 "한국적 통제 경제"의 산물로서, 이러한 "통제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야말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의 동인이었음을 "한반도"의 저자들은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34]

"한국식 통제 경제"를 강조하는 "한반도"의 이러한 시각은 꾸르바노프의 "한국사"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바, 꾸르바노프 역시 유례없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한국적 특수성"의 틀로서 설명하고 있다. 꾸르바노프가 보는 한국적 특수성의 첫 번째 의의는 "국가 경제 발전 모델"의 변화이다. 꾸르바노프의 견해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국가 통제 경제 모델"의 대표적 성공 사례였다. "한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꾸르바노프는 이 성공의 배후에 전자산업과, 화학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적 집중과, "재벌"과 같은 인위적 "민간 자본 키우기"로 대변되는 자원과 자본 배분의 "불균등성"이 있었다고 서술한다. 즉 정부 개입에 의한 산업 발전의 의도적 불균등 전략, 그로 인한 자본과 자원의 선택적 집중, 이의 결과물인 "재벌"의 성장을 꾸르바노프 역시 "한국적 특수성"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저자들처럼 그 역시 한국의 재벌은 서구의 일반적인 대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었고, 재벌의 생사여탈권을 쥔 한국 정부는 1990년대까지도 재벌을 통해 자원과 자본의 선택적 집중과 배분을 관할했던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한국 경제의 특징을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조되고 자원의 배분과 투자를 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국가 자본주의"의 한 형태,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발전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35]

꾸르바노프의 설명이 한반도의 저자들과 다소 차별성을 가지는 지점은 그가 이러한 국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해 보다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한국적 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꾸르바노프는 한국에서 이러한 "국가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던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강력한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형식상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박정희 독재 체제의 "한국적 민주주의"였는데, 꾸르바노프는 이 "한국적 민

34) *Ibid.*, 259

35) Kurbanov, *Istoriia Korei,* 480-485

주주의"를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끈 "한국적 특수성"의 또 다른, 그의 견해에 의하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던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 "국가 자본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은 외국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은 1950년대의 "무상원조"에서 1960년대 이후에는 "투자"의 성격을 띄기 시작했다. 꾸르바노프는 이러한 해외자본 유입의 성격 변화 역시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 속으로 편입되는데 일조하여 한국 경제의 수출지향적 성장에 기여했던 것으로 제시한다.[36] 박정희 체제 하에서 국가 자본주의 발전을 이끈 또 다른 주요 동인은 박정희 체제가 심혈을 기울인 "국민 교육"의 발전으로 꾸르바노프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우수한 노동력을 동원하고 공급함에 의해 한국 경제의 효율성에 기여했다.[37]

IV. 전두환 체제 - "한국적 민주주의"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전환기?

박정희 시대의 "개발 독재"에 대한 러시아 대학 교과서의 긍정적 평가는 12.12 사태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기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박정희에 대한 서술에서 그러하였듯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이어야 할 교과서로서의 의무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들 교과서의 서술이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내용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꾸르바노프의 "한국사"와 "한반도"의 저자들, "한국 역사"의 제니소프와 뜨까쵸프는 모두 전두환 정권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였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성과 비헌정적 절차를 묘사하는데도 인색하지 않다.[38] 더구나 제니소프와 뜨까쵸프는 박정희 체제가 자신이 거둔 과실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일종의 성장의 "질곡"에 도달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표현을 직접 빌자면, "시민의 복지와 시민적 권리 및 자유의 보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 수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39] 꾸르바노프의 "한국사" 역시 박정희의 사망 이후 민주 체제의 수립에 대한 기대가 지배했던 이른바 "서울의

36) *Ibid.,* 486

37) *Ibid.*, 486-487

38) *Ibid.*, 491-496; Torkunov, *Koreiskii poluostrov,* 290-299; Torkunov, ed. *Istoriia Korei,* 362-363

39) *Ibid.*

봄"에 대한 기술과 이 무렵 민주체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역시 누락하지 않았으며, 이를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전권의 반(反)민주성, 예를 들자면 전두환 정권이 집권 시 자행한 탄압과, - 예를 들어 광주민주 항쟁에 대한 탄압 - 일련의 반(反)민주적 조치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술은 역사 개설서, 교과서로서 이들 저서들이 갖추어야 할 객관성과 서술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러시아 교과서의 기본적 입장은 개발독재를 우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박정희 정권 하 "한국적 특수성" 또는 "필요악"으로서의 시각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꾸르바노프가 전두환 정권의 이른바 제 5공화국에 대해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설명은 - 비록 노골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 이 시기가 경제의 "양적 성장" 뿐만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 성취된 시기였다는 것이다. 꾸르바노프에게 전두환 정권은 "비록 집권 과정은 명백히 非헌정적이었지만 그의 정당(민주정의당)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조건의 창출을 목적으로 했던"[40] 정권이었다. "한반도"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꾸르바노프의 "한국사"와 다소 차별화된 보다 "자발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한반도"의 저자들이 민주화 운동의 시작은 물론이고 훗날 이뤄지게 될 정치적 민주화의 기반을 박정희 정권 시기 이뤄진 경제 성장의 산물인 "신중산층"과 "지식인 식자층" 등장과 성장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41] "한반도"에 의하면 이들 새로운 중산층은 국가의 통제에 무조건으로 순응하는 수동적인 집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분출하는 집단이었고 이들의 목소리는 광주 민주 항쟁과 같은 민주화 요구로 분출되었다. 학생들의 시위와 시민들의 가담으로 시작된 비극적 사건이었던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 항쟁은 체제에 불만을 가진 이들 신중산층들이 주도한 점증하는 민주화 요구가 폭발한 결과였다. 물론 전두환 정권은 이를 "철권"으로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시켰다.[42] 반면 꾸르바노프는 이른바 민주화 조건의 창출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기여를 "명목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전두환 정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지속된 시기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꾸르바노프는 전두환 정권의 집권 슬로건인 "대통령 단임제"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목표에 주목한다. 비록 노골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5개년 계

40) Kurbanov, *Istoriia Korei*, 498

41) Torkunov, *Koreiskii poluostrov,* 292-293

42) *Ibid.,* 293-298

획과는 달리 “사회적 발전”을 명시한 제 5차 5개년 계획을 언급하면서 꾸르바노프는 전두환 정권이 이 슬로건을 진정으로 추구했고 전두환 정권의 집권기는 이 슬로건이 “진정으로” 실현된 시기였다는 관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암시하고 있다.[43]

이러한 측면에서 꾸르바노프가 주목하는 것은 독재적 정부 아래에서도 민주적 “형식”을 유지하는 여러 야당의 존재였다.[44] 이러한 야당의 존재는 “한반도”의 저자들이 전두환의 제 5공화국을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간 표류의 시기”로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45] 두 책의 저자들 모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전두환 정권이 출범시킨 “민주정의당” 이외에도 “민주한국당”이라든가 “한국국민당”과 같은 야당세력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지만, 두 책 모두 이 소위 “야당”들이 군부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수기 정당이었다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실체적 진실, 또는 실제 반정부 인사들의 절대 다수는 정치참여가 금지되거나 봉쇄되어 있었다는 이면의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는 않는다. 대신 두 책 모두 이러한 “형식 상 민주주의”의 존재와 작동을 어느 정도는 실제적인 진전이 이뤄진 민주주의 상 성취로 인식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이러한 인식은 전두환 체제의 진정성에 주목하는 꾸르바노프의 책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물론 꾸르바노프는 이들 야당들이 참여했던 1981년의 선거 자체의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나 그 이면의 정치적 탄압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감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정강이 유권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어필했고 5공화국 집권 세력이 실제로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폈으며 이 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는 관점을 시사하고 있는 바, 꾸르바노프가 암시하는 제 5공화국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기반의 근저에는 박정희 시대 이래 작동해 온 “국가 자본주의”와 그 통제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경제 성장에 반영되었다는 관측이 깔려 있다.

꾸르바노프의 설명에 의하면 박정희 정권 이래 일련의 경제개발 계획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도 계속되었는데, 전두환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해 가지던 차별성은 이 정권이 “인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목표를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점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시대 이래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

43) Kurbanov, *Istoriia Korei*, 500-501

44) *Ibid.*, 498

45) Torkunov, *Koreiskii poluostrov,* 299

시에 무역수지 균형과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던 것으로 설명되는데, 꾸르바노프가 보기에 제 5공화국의 경제적 성공은 이 정권이 수출지향적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기존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꾸르바노프는 정부가 재벌을 비롯한 사기업들의 성장이 국가의 경제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한 이들 기업을 위한 우호적 지원을 계속했던 반면, 국가 경제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저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1986년 1월부터 9월 사이 무려 50개 이상의 대기업들이 정부의 직접 개입하에 문을 닫거나 다른 기업들에게 넘겨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두환 정권은 한국의 국민 경제에 대한 완벽하고 철저한 통제력을 가졌다.[46] 이 통제의 결과로, 꾸르바노프는 제 5공화국이 경제 성장을 위한 성공적인 자원의 배분과 노동력의 동원을 성취할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할 것을 강요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노동할 의무를 가졌다."[47] 국가 통제의 강화는 경제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른바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제 5공화국의 또 다른 비상 조치인,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도 꾸르바노프는 우호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평가, 심지어 묵시적인 공감을 숨기지 않는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 조치에 대한 한국 학계의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적어도 이 시절을 경험한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삼청교육대를 "만족스럽게 회고하는 데" 이는, 비록 인권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꾸르바노프의 관찰에 의하면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실제적으로 범죄율을 대단히 낮추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48]

전두환 정권에 대한 "한반도"의 설명은 꾸르바노프의 "한국사"와 대동소이한 관점과 기조를 유지하기에 동일한 내용을 여기서 굳이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한반도" 저자들의 설명은 박정희가 주춧돌을 놓은 "권위주의적 근대화"가 전두환 정권 시기에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갔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저자들이 시사하는 이 "권위주의적 근대화"의 진화의 종착지는 무엇이었던 것일까? "한반도"의 저자들은 전두환 정권을 박정희 체제를 계승하는 "군사-관료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며, 동일한 맥락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1970년대 말 1980년 초 "한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국민경제의 새로운 구조적

46) *Ibid.*, 501

47) *Ibid.*

48) *Ibid.*, 502

개선을 성취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한다.[49] 1980년 초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한국의 수출 지향적 통제 경제는 전두환 시대에도 더욱 빠른 템포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50] 개발 독재에 대한 장들을 이어 계속되는 노무현/김대중 정권 하 "민주화된 한국"에 대한 예찬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저자들이 암시하는 결론은 일종의 아이러니에 다름 아니다. 한국에서 김영삼 정권의 이른바 "문민정부" 이후 꽃피우게 되는 민주주의 체제와,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완성되는 "시민 사회"의 초석을 놓은 것은, 바로 그 민주주의와 민권을 탄압하던 개발 독재 군사 정권이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통제를 통해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추진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과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권위주의적 근대화"였다는 것이 "한반도" 저자들의 서술 속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논점이기 때문이다.

V. 맺음말을 대신하여: 한국현대사에 투영된 러시아의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

과거 냉전 시기에 씌여진 소련의 한국현대사 서술에 친숙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냉전 시기 소비에트 연방과 한국 간 관계를 고려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암흑기인 1960년에서 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소위 "군사 개발 독재"의 시대 한국과 냉전의 최전선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대결하던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 러시아 교과서들이 서술의 행간 속에서 내면화하고 있는 우호적인 시선은 어떤 이들에게는 일견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 러시아 대학교재들이 내리고 있는 한국의 "개발 독재" 발전 모델과 "권위주의적 근대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기저에 깔려 있는 "한국적 특수성" 테제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극히 예측 가능하며 당연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대학 교재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 인식의 기저 속에 반영되어 있는 오늘날의 러시아 연방의 정치적 지형 및 지배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적어도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대, 다시 말해 한국의 "권위주의적 근대화"의 시기에 대한 관찰로 한정한다면, 대학 교재로서 개발된 이들 저작의 역사 인식 속에는 러시아인들 자신들이 경험해 온 "권위주의적 근대화"에 대한 과거의 "경험 공간"과 현대의 러시아가 당면한 현실

49) Torkunov, *Koreiskii poluostrov,* 301

50) *Ibid.*, 304-305

과 미래에 대한 “기대 지평”이 교차하여 투사되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주지하듯이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러시아를 가로지르는 근현대 러시아의 역사는 국가와 정부, 지도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실제로도 중요했던 “위로부터의 근대화”에 가까웠고, 과거 제정 러시아의 “국가주의 학파” 역사가들은 물론이고 보다 최근의 소비에트 역사를 다루는 역사가들 역시 러시아의 역사에서 국가의 역할, 또는 당 및 지도자의 의지,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만들어낸 러시아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강한 정부의 필요성을 러시아 자국사 서술을 위한 인식의 공통 기반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반 4세나 뾰뜨르 대제, 에까쩨리나 여제와 레닌,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지도자의 전통과 이들이 이끌었던 “강한 정부”의 전통에 친숙해 있는 러시아인들의 과거 “경험 공간”이, 박정희/전두환 체제로 대변되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근대화”라는 과거사 인식에 어떠한 시선과 이데올로기를 투영하고 있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더구나 푸틴 집권 이후의 러시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른바 “개발 독재”와 “권위주의적 근대화” 시대의 한국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해 규제되는 “자유” 시장, 정부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인 국민 경제, 정치적으로는 권력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지만 정부에 도전하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는 독점적인 무한 성장을 담보받고 있는 러시아판 재벌, “올리가르히,” 강력한 경찰 권력의 존재,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 사회, 그리고 엄연히 야당과 선거가 존재하는 다당제 기반의 형식적 민주주의,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에 비견되는, 사실상의 일당 독재에 기반한 일인 정치권력의 존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의 러시아 연방에서 지배적인 정치 경제 상황은 제 3공화국 이래 90년대 민주화 이전 시기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개발 독재 시기의 정치, 사회, 경제 체제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러한 “의사(擬似) 민주주의(Quasi-Democracy)”를 정당화하는 현 러시아 집권세력의 주 논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러시아에는 바로 러시아만의 전통과 문화가 존재하고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발전 역시 이러한 러시아적 경로를 밟아가야 한다는 “러시아적 특수성”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과거 박정희 정권 시대와 제 5공화국을 경험하고 이 시기의 “국민윤리”를 풍미했던 “한국적 특수성” 테제와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에 친숙한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논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분석한 3종의 교사서는 역사 속에서 내면화된 현재의 이데

올로기를 타자와 과거사의 인식 속에 투사시키는 “역사 과학” 교과서로의 역할에 지극히 충실한 저작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박정희, 전두환 체제에 대한 서술에 한정하자면 러시아 대학 교재의 한국 현대사 서술은 러시아의 현실을 한국의 역사라는 타자의 거울에 투영시키면서 현 러시아의 특수한 발전 경로를 한국의 개발 독재와의 무의식적 비교를 통해 합리화하고, 이 교훈을 교과서의 독자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교육적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이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개발 독재에 대한 긍정적 서술을 통해 이들 교과서는 러시아의 독자들에게 이른바 “러시아적 특수성”에 기반한 권위주의 체제의 존립 정당성과 더불어 그 권위주의 체제가 가질 수 있는 러시아의 “민주적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른바 “한국적 타입의 민주주의”에 대한 꾸르바노프의 평가와 표현을 빌어, 필자 자신의 러시아에 대한 “내면화된 시선”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러시아 대학 교재를 다루는 담론 분석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이른바 서유럽적 형태의 민주주의는 강한 국가와 강한 정부, 강한 지도자로 대변되고 역사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때문에 러시아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 전통이 존재하는 한 아마도 훗날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구자정 -

「개발 독재 시기 한국현대사 서술을 통해 본 러시아의 한국 인식과 자기 인식 - 한국 현대사 인식 속에 투영된 현대 러시아의 자화상 -」 에 대한 토론문

정일준(고려대)

구자정의 논문은 역사교과서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러시아 한국 현대사 교과서에 표상된 박정희·전두환 체제에 대한 서술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이나 일본 나아가 중국 교과서에서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소개되어있다. 러시아교과서는 처음이다. 흥미롭게 읽었다.

평자는 러시아어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박정희 체제와 전두환 체제에 대한 서술과 해석을 필자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간단한 논문평과 문제제기를 하기로 한다.

먼저 국가를 막론하고 역사 교과서의 “이데올로기적 객관성”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

둘째, 러시아 교과서에 투영된 한국 현대사 그 중에서도 박정희 체제와 전두환 체제를 현대 러시아의 ‘타자’로 설정하여 러시아의 ‘자기 인식’으로 접근한 것도 적절하다.

셋째, 러시아 교과서에 재현된 한국 현대사의 이미지를 매우 적절하게 요약정리하고 나아가 평가를 곁들이고 있다. 세 편의 교과서에서 해당 시기를 솜씨 있게 다루고 있다.

넷째, 러시아 교과서의 저자들이 한국의 사례를 방패삼아 러시아를 서구 민주주의와 구별짓고자 하는 욕망을 적절히 지적해내고 있다.

끝으로 러시아의 정치상황, 경제상황, 그리고 역사를 한국의 그것들과 병치시키면서 러시아 정치지도자와 러시아 지식인의 정치적 무의식을 설득력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본격적인 연구논문이라고 보기에는 연구대상이 매우 제한 되어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국정교과서와 대학교재는 다르다. 분석한 3종의 대학강의 교재들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 또 정치적 영향력을 기지고 있는 지 의문이다.

둘째, 2000년 뿌띤 체제 등장 이전과 이후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서술이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필자는 러시아 정치지도자의 현실적 필요를 러시아 교과서가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듯하다. 바로 그 점을 논증하려면 러시아 정권의 변화에

따라 역사서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여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체로 교과서는 많은 실증연구가 축적된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집필된다. 현재 러시아에서 한국사 연구는 활발한가? 연구를 주도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자료에 입각해서 연구를 진행하는가? 등등의 의문이 떠오른다.

넷째, 필자의 박정희 체제나 전두환 체제에 대한 평가 또는 한국 학계의 평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 교과서에서 두 체제를 이러이러하게 본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또는 어떤 해석이 정통/이단 또는 다수설/소수설 인가를 탐색적으로나마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평자는 필자의 서술을 보고 왜 "러시아의 대학교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박정희 체제를 상당히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러시아의 한국사 교과서가 '일반적인 박정희 체제론'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한국사의 '특수성 테제' "라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연 러시아 저자들의 박정희 체제 해석이 '러시아적인 특색의 해석'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외국학자들의 해석'인지 분명하지 않다. 과연 '일반적인 박정희 체제론' 한국 학자들의 설인가 아니면 러시아 이외의 외국학자들까지 포함하는 범주인가?

여섯째,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외국사례를 연구할 때는 대체로 비교사회적인 틀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어진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건의 명칭이나 중요도에 대한 가치판단, 그리고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이를 해당 사회의 '정치적 무의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느 정도는 비교역사연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평융합의 문제 아닌가?

일곱째, 필자는 결론에서 "러시아 대학교재의 한국사 서술은 러시아의 현실을 한국의 역사라는 거울에 투영하면서 현 러시아의 특수한 발전경로를 한국의 개발독재와의 무의식적 비교를 통해 합리화하면서 이를 독자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교육적 역할에 충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도'와 '효과'는 다르다.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수용자 분석이 필요하다. 과연 한국 사례에 대한 '러시아 특색의 해석'이 러시아의 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국 시각에서 바라본 자기준거적 해석은 아닌지?

끝으로 필자의 인식론적 입장을 확인해두고 싶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역사적 사회과학이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이념과잉, 해석과잉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간 연결의 '자의성'을 주창하는 '언어로의 전환'이 반드시 랑케류의 실증역사학을 폐기하거나 넘어서는 우월한 존재론적, 방법론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필자가 들어가는 말에서 이런 논의를 끌어들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

С.О. Курбанов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осточного факультета СПбГУ,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СПбГУ

Изменение восприятия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в 1990 – 2010 гг.

Период с 1990 по 2010 гг. – это двадцать лет, за которые изменились не только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о и сами рассматриваемые страны, произошла смена поколения ученых,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изучением Кореи в России и России в Корее. За это время в России вышло из печат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монографий, сборников статей, научных журналов, в которых были широко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зличные аспекты истории как «традиционной», так и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Из печати вышло большое число учебников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переводов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классической, так и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предлагаемой читателю статье будет дан *краткий* обзор *основных* тенденций в изменении подхода в рассмотрении вопросо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в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последних 20 лет. Хотелось бы обрат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настоящая статья не является полным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м обзором росси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за период 1990 – 2010 гг. Поэтому отдельные, возможно значимые работы, могут не войти в поле зрения автора настоящей стати.

1. Теор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зменения в СССР 1980-х гг. и восприятие Кореи

Вплоть до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конце 1991 г. господствующей теорие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торой воспринимались и описывались два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 был истор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изм, которы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пирался на философскую концепцию диалект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изма. Согласно этой концепции, во-первых, истор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 считалось неоспоримым законом. (Иными словами, деградацион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на занимали какого-либо заметного места в теор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о-вторых, в истор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всех обществ обязательными стадиями объявлялись первобытнообщинный строй, рабовладение (которое, в качестве исключения, могло считаться не всегда обязательным для всех социумов), феодализм, капитализм (с его высшей стадией – империализмом), а также социализм с неизбежным для всех обществ движением к высшей стад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коммунизму.

С эт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разногласия и несовпадения в видении перспектив развития, имевшиеся между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по умолчанию путь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целом, признавался за «правильный» и «прогрессивный», в то время как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ыла не только вражески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ССР государством, но и страной, еще не пришедшей к очередной стадии «прогрессив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 к социализму.

Указанные выше две тенденции в восприятии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можно с легкостью проследить в сов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зданной до конца 1970-х годов[1].

[1] См., например: Грязнов Г.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я в КНДР (1945 – 1960 гг.). М., «Наука», 1966; Нам С.Г.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родн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в КНДР. М., «Наука», 1970. В последней работе, например, писалось: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культур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КНДР – одно из наглядных свидетельств великой и жизнеутверждающей силы марксистско-ленинских положений о культурной революции…» (с. 3).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о глав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стал М.С. Горбачев, начавший политику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всей советско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получившей название «перестройка», советские ученые начали постепенно пересматривать марксистско-ленинскую теорию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олного отказа от нее еще не произошло, но был поставлен под сомнение тезис о том, что социализм и коммунизм являются высшей стадией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тв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апитализм (или в более мягких формах и выражениях – «общество с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ой») постепенно перестал критиковаться, и стал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закономерный и весьма прогрессивный этап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а, следующим этапом развития которого может быть совсем даже не социализм, а некая нова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стадия, например,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постиндустриальное» общество.

С эт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можно нагляд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те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начали появляться в сов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конца 1980-х гг. в описании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уже не признавалась за общество, идущее хотя и по «странному»,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му, но, в принципе, «верному» пути развития. Хотя и жесткой критики все еще не был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ритическое восприятие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общества, находящегося на «неправильной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й» стадии развития, тоже стало постепенно сходить на «нет». Критика ситу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стала сокращаться, и все больше положительных моментов в «соврем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и замечать отечественные корееведы[2].

Примером крайне критической оценки ситу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может быть монография В.М. Мазурова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1950 – 1970-е гг.» (М., «Наука», 1971). В указанной монографии, в частности, писалось о «вырождении буржуазной демократии», «возрастании социального гнета» и «усилен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реакц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с. 11).

[2] См., например, монографию В.И. Шипаева «Южная Корея в системе мирового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М., «Наука», 1986). В ней, говоря о Южной Корее, автор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стал использовать такие выражения как «развитие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с. 234), «экономические успехи страны» (с. 244), что наглядно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о процесс переоценк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ути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днако постепенному изменению восприятия Южной Кореи в поздних советских изданиях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не только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и переход на рыночные рельсы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но и кор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происходившие в самой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юньские демонстрации 1987 г., принятие нов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Конститу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9 октября 1987 г.,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16 декабря 1987 г., Сеульская олимпиада осени 1988 г. и последовавшее затем установл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формально ещ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 все это привело к тому, что как в странах Восточного блока в целом, так и в самом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имидж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ым, нежели за десятилетие до этого, когд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ыла сотрясаема драматическими событиями в Кванчжу.

Что касаетс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о перед самым распадо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26 декабря 1991 г.), можно сказать, наблюдалось некоторое «затишье»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КНДР. Социализм как перспективная формация уже не привлекал заметного внимания ученых, однако и жесткой критики это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еще не было.

2. Восприятие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ей в 1990-е гг.

Российская историография 1990-х гг. мож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историография «переходного» этапа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Этот период характеризовался проведением ряда основ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нацеленных на переход России к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е. Именно в это время, когда вплоть до 2000 г. у власти находился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Н. Ельцин, в стране в целом была реализована программа приватизации, изменился характер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финансовая система страны (через дефолт 1998 г.) пришла к состоянию относите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И сама Россия из страны, ориентировавшейс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ую помощь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превратилась в страну, которая уже могла выступать как в общем и целом рав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артнер в системе глобальны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о все это было достигнуто лишь к началу XXI столетия.

Начало и середина 1990-х годов характеризовались рядо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в России, из которых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ми для нас можно обозначить следующие. Первое: политика активного отторжен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страны.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эта политика реализовалась, в частности, в массовом переименован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названий, связанных с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ей страны (Ленинград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2 июня 1991 г. и т.п.), активной критики советской политики и т.п.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е проводилась политика отказа от механизмов план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перехода к рыночным отношениям.

2.1. Новые подходы к изучению КНДР в середине 1990-х гг.

В контексте указанной выше политики, вполне логичным и закономерны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следование российскими корееведовами 1990-х гг. указанной выше тенденции «отторжения социализма» и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оказалась одной из немногих стран мира, «продолживших построение социализма».

Кроме того, «отторж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акже совпало и с нов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о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ую олицетворял тогдашний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А.В. Козырев, проводивший в 1992 – 1993 гг. курс на сближение с Западом, на сближение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 от КНДР. В 1994 г. Б.Н. Ельцин заявил, что положение Статьи 1 Договора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от 7 июля 1961 г., в которой говорилось о военной помощи одной из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сторон в случае военного нападения – является недействительной. Тогда же Россия прекратила поставк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овейших образцов оружия[3].

Новые тенденци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не замедлили отразиться и в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

[3] Чичин Д.В.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КНДР в 1990 – 2000 гг.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Кореи 2004. СПб., 2004, с. 186.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научных* работ 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рит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стала монография Н.Е. Бажановой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КНДР. В поисках выхода из тупика» (Москва,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3).

Уже во введении к монографи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курс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КНДР определялся как «недостатки и ошибк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которые «проистекали из ложных концепций и посылок, родившихся в Москве, и прижившихся затем на корейской почве»[4].

В своей монографии Н.Е. Бажанова представляет только тот период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КНДР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который приходился на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СССР и Восточного блока. Однако в описании этих отношений впервые появляются такие оценк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бы возможными еще за 3 года до выхода этой монографии из печати. В частности, говоря 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КНДР с СССР, Н.Е. Бажанова пишет: «В деятельности [северо]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сматривались иждивенческие настроения»[5].

К середине 1990-х годов критика и негативное восприят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ало отражаться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все большего числ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ееведов.

В 1996 г., впервые за годы, последовавшие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московские кореееведы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дготовили к изданию *первый*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л комплексно осветить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начала – середины 1990-х годов: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рассматривалась в нем в статьях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КНДР» (В.И. Андреев),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современ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КНДР» (Е.И. Петро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между прошлым и будущим» (А.З. Жебин), а также ряд других статей, затрагивавших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целом.

---

[4] Бажанова Н.Е.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КНДР. В поисках выхода из тупика.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3, с. 3.

[5] Указ. соч., с. 65.

Как видно уже из названия статей, их авторы переоценивали ситуацию в КНДР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ов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само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И. Андреев в стать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КНДР» объясняет причины всех трудностей, с которыми КНДР столкнулась в 1990-е гг., изжившим себя «концептуальным подходом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к развитию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6], а именно – чрезмерная концентрац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ычагов в руках государства, попытка создать полностью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экономику в отдельно взятой стране, имеющую всего 22 миллиона населения и площадь, «лишь в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раза превышающую Московскую область»[7], отрицание рынка и закрытость страны[8]. При этом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как в статье В.И. Андреева, так и в статьях других участников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го сборника статей, писавших 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есмотря на общий критический подход к реалиям КНДР 1990-х гг., в форма критики, в целом, была достаточно сдержанной и корректной.

Однако не всегда кр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в середине 1990-х годов была сдержанной. Еще в 1995 г. в Москве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е» из печати вышел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А.Н. Ланькова, объединенный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который стал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серии критических *научных* работ, посвященных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написанных в заметной эмоциональной манер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 предисловии к своему сборнику статей сам автор выступил с критикой относительно «гиперкритического уклона» в описа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против «насмешек и довольно дешевого зубоскальства»[9].

Согласно А.Н. Ланькову, Ким Ирсен оказался у власти «случайно», однако затем «стал входить во вкус такой жизни и привыкать к власти»[10] 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оказывал себя неплохим мастером политической интриги»[11].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российского читателя создавался крайне

---

[6] Андреев. В.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КНДР //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М.,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96, с. 29.

[7] Указ. соч., с. 30.

[8] Указ. соч., с. 35, с. 43.

[9] Ланьков А.Н.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5, с. 3.

[10] Указ. соч., с. 23.

[11] Указ. соч., с. 27.

негативный образ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как диктатора, не слишком образованного[12], но хитрого и крайне властолюбивого, для которого единоличная власть, «интенсивная кампания самовосхваления»[13] была важнее интересов собственного народ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 отнош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читателя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целом, в которой народ был не в состоянии свергнуть диктатора, также не могло не быть крайне отрицательным.

Какие-либо объектив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которые привели к созданию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пецифиче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Н. Ланьковым не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что вполне объяснимо. Как уже отмечалось выше, в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произошел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ый отказ от методолог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изма, а никакой другой (общепринятой) теории, которая могла бы заменить истор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изм, так и не появилось. В результате, осознанно или нет, на смену подходу,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истор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происходят исходя из объективных закономерностей, пришел подход, гипертрофировавший роль личности в истории и объяснявшей многие истор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сильной волей и особыми искусствами той или иной личности.

2.2. Новые подходы к изучен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1990-е гг.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изучением КНДР в 1990-е гг., изменение ситуации в самой России, а именно – поиск новых путей развития в русле концепции рыночны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 также отказали влияние на восприятие Южной Кореи в новой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Как известно, при социализме ведущая роль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принадлежит государству. В России и ранее, традиционно, роль государ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бюрократического аппарата была достаточно велика. Новая Россия 1990-х гг. также получила в наследство от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огромную, неповоротлив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машину, которая,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во многом как бы «осталась не у дел» (ибо еще не были созданы механизмы

[12] Указ соч., с. 27-28.

[13] Указ соч., с. 38.

эффектив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бюрократии и новых рыночных субъектов),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 продолжала существовать как некий тормоз, и в то же время – потенциальный участник новы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Роль государства в экономике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же была достаточно велика. Именно [военная] *диктатура* президента Пак Чонхи стала той силой,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ла Южной Корее, оставаясь в системе рыночны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овершить так называем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чуд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пы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ог стать в известной степени образцом для России, которая находилась в состоянии поиска новых, подходящих ей путей развития в условиях перехода к рынку.

Так, в уже упоминавшемся выше *первом* сборнике статей, посвященном проблема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1990-х гг., изданном в Институт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в 1996 г., *первой* статьей (что само по себе немаловажно)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статья В.Д. Андрианова «Роль государства в создании динамичной модел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этой статье, в отличие от предшествующего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едставляла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 положитель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а ее опыт – достойным для перенимания новой Россией, все еще имевшей тот же мощный механиз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что и Южная Корея: «Весьма показателен… - писал В.Д. Андрианов, – пример Южной Кореи, где государство играло и играет основную рол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динамичной модел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14]. Статья кратко, но достаточно емко описывает и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пы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плановых механизмов регулирования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и (хорошо знакомых России – *С.К.*), и не менее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пы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 финансово-промышленными корпорациями *чэболь* (для России их аналогами могли бы стать крупные совет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ставшие частными после приватизации – *С.К.*), и ориентац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оссия в то время еще обладала мощно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ой, доставшейся в наследство от

[14] В.Д. Адрианов. Роль государства в создании динамичной модел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Южной Кореи //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М.,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96, с. 7..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 *С.К.*),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 возможность успешной сочетаем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 механизмов саморегулирования рынк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чиная с 1990-х годов,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новится для России некоей «страной-образцом», опыт которой следует изучать, становится страной,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заменившей собою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сфер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интересов России.

В целом, для середины 1990-х гг. характерн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российской корееведче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к вопросам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 которой, как уже указывалось выше, при желании можно было найти некоторые примеры, небезынтересные России в ее поиске новых путей развития

В 1997 г.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из печати вышла монография С.С. Суслиной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 постиндустриальной стадии развития (конец 80-х – начало 90-х годов». В предисловии к своей монографии С.С. Суслина так оценивала актуальность своей работы: «Автор надеется, что проведенный анализ процесса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современной постиндустриальной стадии – *структурной перестройки* (выделено мной – *С.К.*)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выводы и обобщения мог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интерес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нимающихся аналогичными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выделено мной – *С.К.*), а также для организаций и фирм, стремящихся к экономическим контактам с Южной Кореей»[15].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гляд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то, насколько *кардинально* изменилось восприятие Юж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приведем для примера монографию того же автора – С.С. Суслиной – изданную еще в 1979 г. (то есть еще до начала «перестройки», в эпоху нахождения у власти Л.И. Брежнева) и имевшую весьма показательное для того времени название: «Экспанс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капитала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Южной Кореи».

[15] Суслина С.С.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 постиндустриальной стадии развития (конец 80-х – начало 90-х годов).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7, с. 13.

Исходя из названия монографии и времени ее издания, легко понять, что оценк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1945 – 1970-х гг. были крайне негативными. Так, С.С. Суслина писала, «что экспанс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капитала в Южную Корею» - это «неоколониализм», некая «модификация колон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о которой писали еще «классики марксизма-ленинизма»[16].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правдать эту политику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в Южной Корее, с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ономисты зачастую прибегали «к различным манипуляциям со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материалом»[17], а западные ученые умалчивали «о подлинном характере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мощи'»[18].

Шесть лет, прошедшие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позволили С.С. Суслиной – ведущему российск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в области изучения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полностью переосмыслить процессы, происходившие в эконом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плоть до середины 1990-х гг., и не только познакомить читателя с *положительным* опыт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о и представить Южную Корею как возможный образец для перенимания опыта в некоторы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обное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пут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м корееведении 1990-х годов происходило не только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но и в сфере политики. Южная Корея, которая с совет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раньше шла по «неправильному»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му пути развития, да и к тому же находилась в сфере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развитых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в 1990-е гг. стала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как страна, которая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не только оппозиции, но и *самих правящих кругов* встала на путь построения подлинн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Наиболе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ой работой, иллюстрирующей указанные выше тенденции изменения восприят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является монография В.М. Мазурова «От авторитаризма к демократии (практ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и Филиппин), вышедшая в 1996 году также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

[16] Указ. соч., с. 5.

[17] Указ. соч., с. 9.

[18] Там же.

Согласно В.М. Мазурову, приход Южной Кореи к демократии явился закономер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литический режим прошел процесс *эволюции*[19](выделено мной – *С.К.*). Сначал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авящие круги проводили политику, благоприятствовавшую развитию бизнеса, ч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ивело к изменениям в систем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к определенному успеху в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20]. Так была создана материальная основа к переходу к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устройству общества. К тому же, – и это положительный момент в ис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репрессивный по своей природе режим оказался способным проявлять гибкость, склонность к поиску согласия»[21], оказался способным к компромиссу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партией и оппозицией[22]. Таким образ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вариант модернизации свел воедино,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рынок и демократию. … Развитию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ой демократии предшествовало расшир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вободы»[23].

Таким образом, к середине – концу 1990-х гг.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представляться в российском кореееведении как некая, в известном смысле, «идеальная страна», которая смогла преодоле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и достичь заме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достойного для подражания 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При это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наоборот, неким символом «неправиль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ути.

До конца 1980-х гг. – 1990 г. Россия (СССР) поддерживала тесные активные отношения только с одним из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механизмов *одновреме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двумя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Поэтому когда в начале 1990-х гг. Северная

---

[19] Мазуров В.М. От авторитаризма к демократии (практика Южной Кореи и Филиппин).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6, с. 153.

[20] Указ. соч., с. 151.

[21] Указ соч., с. 155.

[22] Там же.

[23] Указ соч., с. 164.

Корея ушла из сферы активн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ее место *полностью* занял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итуация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и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изменилась в 2000 г., оказав влияние и на подходы к изучению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йском кореееведении.

3. Восприятие Кореи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ей в 2000-е гг.

В конце 1990-х гг.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в целом уже завершившая 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 начала – середины 1990-х гг., начала предпринимать шаги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актив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с одновременным продолжением развития все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9 февраля 2000 г. в Пхеньяне был подписан новый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19-20 июля 2000 г. впервые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осет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В.В. Путин. В июле – августе 2001 г. и в августе 2002 г. Россию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посещал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ир.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 26 по 28 февраля 2001 г.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 нанес официальный визит в Сеул, а в сентябре 2004 г. Россию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посетил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Но Мухё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уже с 2000 г.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означилась новая линия – попытка налаживания, по возможност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обоими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Подобн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е замедлила отразиться и на российском корееведении, в котором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тенденции, и в частности – новый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й» подход в описании «соврем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3.1. Новая тенденция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опис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в 2000-е гг.

3.1.1. Общие работы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Уже 2002 год ознаменовался появлением в России нескольких монографий, в которых проявилась попытк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еведов найти новый,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й, как бы «нейтральный» подход при описании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что объективно отражало новейшие тенденции росси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Корее.

В издательств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з печати вышло *учебно-научное* издание – монография, авторо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автор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Курс лекц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 века». Название «курс лекций» было избрано не потому, что монография была «учебником», а по причине того, что это было первое и пока еще не опробованное комплексное сочинение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вышедшее впервые за четверть века[24], и автор посчитал себя не в праве давать монографии весьма ко многому обязывающее название: «История Кореи»[25].

При написании разделов, посвященных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автор старался отразить следующие основные моменты 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двух указ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

[24] Последня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коллективная монография, описывавшая всю историю Кореи – с древности до 1970-х гг. – вышла в свет в 1974 г. (История Кореи. Т. 1-2. М., «Наука», 1974).

[25] Исправленное и дополненное переиздание этой монографии, выдержавшей 7 лет акти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 конструктивной критики, было опубликовано уже под новым названием: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ека».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9).

- *Концепц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 2002 году автор «Курса лекци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уже не следовал принципам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изма,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подчеркивал, что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происходят *закономерно* и воля отдельной личности *ограничена* объективными тенденциям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 «диктатура»[26] Ли Сынмана и Пак Чонхи, или особый характер власти Ким Ирсена и Ким Ченира были обусловлены не только (и не столько) какими-либо «амбициями» или «интриганством» со стороны той или иной личности, а *во многом* исходя из объективных предпосылок, сложившихся в каждом из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к определенному историческому рубежу (в каждом отдельном случае о причинах говорится отдельно).

- *Подчеркивание <u>восточного</u> характера обои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При изложении истории новейшего времен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многие авторы, а в особенности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падного мира, часто забывают о том, что имеют дело с *восточ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Это нередко приводит к лож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тех или иных событий или тенденций в развитии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Автор «Курса лекций…» постарался учесть известные ему *восточ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культур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для более коррект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 *Избегание эмоциональных выражений в оценке* деятельности тех или и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персонажей, при анализе различ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 *Представление различных точек зрения* на одни и те же события новейшей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Все это было сделано авторо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близиться к как можно более «нейтральному», «объективному» изложению событий истории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ледующем 2003 году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ыпустил «первый в отеч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учебник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27],

---

[26] Термин «диктатура» в отношении периода власти президентов Ли Сынмана или Пак Чонхи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сам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27]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М., РОССПЭН, 2003, с. 2.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коллективом авторов[28]. Он был озаглавлен как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Собственно изложению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 (после 1945 г.) в этой книге было отведено не столь много места – всего 72 страницы. Зато довольно подробно рассматривалась как проблема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так и современная культура двух Корей (аспект – недостаточно изученный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и весьма сложный для изложения).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указанной монографией С.О. Курбанова, в «Истории Кореи» МГИМО также можно было проследить попытку более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нейтрального» изложения истории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Так, говоря об истоках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 – 1953 г., авторы учебника[29], хотя и не отрицают факт того, что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начал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ишут о том, что «война в Корее уже практически шла с весны 1949 г. Американцам не удалось удержать Ли Сын Манна от идеи 'похода на Север'»[30] и что «фактически, обе корейские стороны готовились к военному конфликту»[31]. Подводя итоги войны авторы пишут, что «война принесла огромные страдания населению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32], подчеркивая, тем самым, что для них нет преференций в выборе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и оба являются одинаково важными для авторов.

Изложение собственно истории КНДР с 1953 по 2000 г. – и достижения и трудно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все представлено достаточно нейтрально, научно обосновано и без лишней эмоциональности.

То ж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и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изложения ис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1953 – 2000 гг. Наиболее острые моменты в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были объектом самой жесткой критики, подаются в «Истории Кореи» МГИМО достаточно взвешено, а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получают новую оценку.

---

[28] А.В. Торкунов, С.В. Волков, А.Н. Ланьков, Вл.Ф. Ли, В.И. Дениов, В.П. Ткаченко, В.Е. Сухини.

[29] Авторами раздела, посвящ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были В.П. Ткаченко и В.И. Денисов.

[30]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М., РОССПЭН, 2003, с. 340.

[31] Указ. соч., с. 339.

[32] Указ. соч., с. 342

Так, говоря о военном перевороте Пак Чонхи и его последующем нахождении у власти авторы «Истории Кореи» всего лишь пару раз употребляет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оенная хунта»[33], в то время как общая оценка нахождения у власти президента Пак Чонхи достаточно положительна. «Его 18-летнее правление ознаменовалось большими переменами в жизни страны и населения. Главным его достижением было то, что впоследствии получило назва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 … За время своего правления Пак Чжон Хи прошел путь от военной диктатуры до 'демократии корейского образца'»[34]. Достаточно обоснованно определяет «История Кореи» МГИМО *объективные* причины падения власти Пак Чонхи: «Автократический и репрессивный режим президента все более вступал в противоречие с рос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траны»[35] (которы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и был обеспечен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ой президента – *С.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История Кореи» МГИМО создает у читателя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не вызывает у читателя неприязн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внушает уважение к достижения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ледует также учесть то, что рукопись «Истории Кореи» МГИМО готовилась к печати в 2002 – начале 2003 года – времени последнего года нахождения у власти президента Ким Дэчжуна, проводившег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литику солнечного тепла». В указанном контексте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изложение истории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представлялось вдвойне логичным. (О ново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й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начале 2000-х гг. уже упоминалось выше).

Однако, как уже было упомянуто выше, изложение важнейшего и насыщенного событиями периода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 в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м учебнике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было предельно кратким. Поэтому в 2008 г. часть коллектива авторов,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подготовке учебника «Истории Кореи» - А.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и Вл. Ф. Ли представили новую объемную (544 с.) коллективную монографию, всецело посвященную истории Кореи в 1945 – 2008 гг.: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

[33] Указ. соч., с. 359.

[34] Указ. соч., с. 360.

[35] Указ соч., с. 362.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Эта монография также была рекомендована в качестве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я для студентов.

И эта монография, подобно «Истории Кореи» 2003 г., была написана в русле уже упоминавшейся концепци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изложения истории»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Тем более, что в годы подготовки рукописи монографии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 Но Мухён, в общем и целом продолживший традиции «политики солнечного тепла» Ким Дэчжун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бра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собенно в начале 2000-х годов, представлялся в этой коллективной монографии достаточно положительно. Например, в книге писалось о том, что на рубеже XX и XXI столети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НДР стало все больше проявляться элементов прагматизма ид даже реализма»[36]. «КНДР выступает за укрепление ООН, роли СБ ООН в поддержании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37].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ддерживает курс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а решительную борьбу проти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рроризма»[38], и т.п.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монографии А.В. Торкунова, В.И. Денисова и Вл.Ф. Ли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ена весьма положительно. Были дополнены и изложены более развернуто прежние концепции о переходе Южной Кореи от авторитаризма к демократии и «гражданскому обществу» (Глава II Части девятой). Причем нередко полож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лучали именно те ее шаги, которые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активизацию контактов и всестороннего обмена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ласти РК пошли на отмену многих нелеп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и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КНДР (право знакомиться с книгами, газетами, журналами, изданными в КНДР, пользоваться сайта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МИ в интернете и т.п.). И все эти акции носили довольно дальновидны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39].

---

[36] Торкунов А.В., Денисов В.И., Ли Вл. Ф.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2008, с. 420.

[37] Указ. соч., с. 421.

[38] Там жэ.

[39] Указ. соч., с.382.

3.1.2. Монографии и сборники статей, посвященные отде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истории Кореи или ее соременности. Кроме перечисленных выше изданий, можно назвать и ряд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монографий, сборников статей (например, изданных в Институт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по итогам ежегодных все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конференций),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которые придерживались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принципа в изложении реалий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реди них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монография Ю.В. Ванина, посвященная весьма болезненным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опросам освещения и интерпретации событий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40]. Ю.В. Ванин писал: «Оба корейских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ногократно декларировали свои мирные намерения. Вместе с тем, и гораздо чаще, они не скрывали готовность прибегнуть к силе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разумеется под своей эгидой, единства Кореи»[41].

Наиболее наглядным, с нашей точки зрения, изданием, «сбалансировано» представляющим «современную» Корею, стал фотоальбом «Доброе утро, Корея!», изданный Валентином Паком в 2006 г.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котором на соседних страницах были размещены фотографии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ружески дополняя, развивая и улыбаясь друг другу»[42].

Наряду с рассмотренной выше тенденцией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в 2000-е гг. в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сохранялась прежняя тенденция жесткой критик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3.2. Критический подход к описанию реалий КНДР в российском корееведении в 2000-е гг.

[40] Ванин Ю.В.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1950 – 1953) и ООН. М.,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2006.

[41] Ванин Ю.В.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1950 – 1953) и ООН. М.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2006, с.

[42] Пак В. Доброе утро, Корея! Фотоальбом.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пресс», 2006, с. 204.

До начала 2008 г., то есть до времени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Мёнбака, жесткая кр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ыла скорее исключением, нежели правилом в российском корееведении начала XXI столетия.

Так, в русле тенденций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подхода, о котором писалось выше, в 2006 г. ведущий московский специалист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А.З. Жебин выпустил монографию «Эволюц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КНДР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ьных перемен». Примечательным в данной монографии 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факт стилистической сдержанности *научного* анализа ситуации в КНДР начала XXI столетия, но и попытка объяснить особен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ма не столько «негативными качествами» отдельных политиков, сколько, в том числе, и конфуцианской традицией или древней мифологической традицией[43] (обращение к персонажу Тангуна). А.З. Жебин в нашел реалиях КНДР начла XXI века и ряд положительных моментов: «… Начавшиеся в КНДР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ставят на повестку дня определенную либерализацию жизни в стране и переход к посттоталитарному обществу как к социальной среде, более отвечающей потребностям нового этап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НДР»[44].

Жесткую критическую линию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в 2000-е годы продолжил российский кореевед,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й за рубежом (и, значит, напрямую не связанный с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линие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А.Н. Ланьков. В 2005 г. он выпустил значительно дополненное переиздание своей монографии 1995 г., но под новым названием: «КНДР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Неформальная истор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о, что его взгляды на КНДР диаметрально противоположны взглядам московских корееедов, мож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на его оценк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хеньянский режим несет прям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Корейскую

[43] Жебин А.З. Эволюц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КНДР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ьных перемен. М., Русская панорама, 2006, с. 15 – 21.

[44] Указ. соч., с. 150.

войну, массовые репрессии 1950-60-х годов и чудовищный по последствиям голод 1996 – 1999 годов…»[45].

В 2009 году в рамках серии «История сталинизма» А.Н. Ланьков выпустил монографию под названием «Август, 1956 год. Кризис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оторая выросла из его статьи о кризисе 1956 год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в первой монографии 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1995 г. В своей книге он определяе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ежим как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линизм», что идет вразрез с попытками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реееведов найти в реалиях КНДР элементы традиции[46],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помочь найти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й подход как в научном анализе, так и в практических шагах, связанных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днак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ледует сделать одно немаловажное замечани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книги А.Н. Ланькова издаютс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ользуются там значитель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его труды нельзя отнести в полной мере к категории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ведения*, поскольку с 1992 г. он практическ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ет за рубежом и объективно являе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скорее Западной или даж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нежели российской.

3.3 Позитивный и критический подходы к описанию реал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м кореееведении в 2000-е гг.

[45] А.Н. Ланьков.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реальность и демагогия (вместо заключения) // КНДР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Неформальная ис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 Восток Запад, 2005, с. 383.

[46] См.: Жебин А.З. Эволюц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КНДР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ьных перемен. М., Русская панорама, 2006; Курбанов С.О. Конфуцианский классический 'Канон сыновней почтительности' в корейской трактовке. Корейское восприятие универсальной категории 'почтительности к родителям'.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7; Асмолов К.В, Коре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традиции и трансформация. М., ИД РАН, 2009.

В первое десятилетие XX века в российском корееведении продолжилась и еще более развилась тенденция позитивного подхода к изучению различных реал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экономических[47], политических[48], культурных[49]. Ограниченность объема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не позволяет достаточно подробно перечислить даже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е из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монографий и сборников статей.

Однако 2000-е годы ознаменовались не только появлением специ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знакомившей российского читателя с положительным опы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о и серии популярных книг, которые в интересной и живой форм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временную Южную Корею.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труды Т.М. Симбирцевой – «Корея на перекрестке эпох» (М., «Муравей-Гайд», 2000) и А.Н. Ланькова – «Корея: будни и праздники» (М.,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0) и «Быть корейцем…» (М., «Восток Запад», 2006).

Таким образом, к 2000-м годам у российского читателя появилось достаточно возможностей, чтобы через специальную, а также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ую литературу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все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обликом современной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и, правда, и исключения из описанной выше тенденции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опис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же связанные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автора книг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речь идет о книге Т.Е. Габрусенко «Эти непонятные корейцы» (М., «Муравей», 2003), представившей Южную Корею страной малокультурных, «странных» и не слишком симпатичных людей. Книга написана интересно, достаточно живым, но грубы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

[47] См. Суслина С.С. Экономи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вете глобализации. М.,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02; Федоровский А.Н. Феномен чэболь. Государство и крупный бизнес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М., «Стратегия», 2008 и т.п.

[48] Толстокулаков И.А. Развити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процесс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период VI Республики.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ь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3.

[49] Марков В.М. Искус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Владивосток, 2002; Роль религиозного фактора в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ь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4 и т.п.

литературн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ом[50], с чувством заметной неприязни к людям, о которых написана книга. Скорее всего, подобную тональность книги можно объяснить тем, что ее автор практическ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ет за преде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 значит, его взгляды не отражают общие тенденции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еевед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в книге присутствуют явные страноведческие ошибки[51].

Заключение

За 20 лет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ССС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кореееведче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произошли карди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стали иным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путях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 То, что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считалось «пережитком прошлого»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е рыночные отношения), стало оцениваться как верный путь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о, что считалось прогрессивны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строй) стало ассоциироваться с тупиковым путем развит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российской кореееведче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произошла переоценка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у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

[50]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можно приве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лова «пофигизм», как одну из характеристик корейцев. (Габрусенко Т.Е. Эти непонятные корейцы. М., «Муравей», 2003, с. 162).

[51] Например, на с. 93 книги Т.Е. Габрусенко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в отличие от россиянина, кореец с гордостью заявит вам, что в его семье всегда экономят на еде». Настоящее утверждение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истине как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современной Южной Корее, так и к Корее старой. В данном контексте весьма показательным является отчет поручика первого Сибирского стрелкового Его Величества полка В.Д. Песоцког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в Хабаровске в 1913 г. в издании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амурье. Труды командированно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Приложение к выпуску XI». В.Д. Песоцкий писал о корейцах: «Скупые встречаются не часто, и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среди богатых» (С. 72 упомянутого сочинени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а российскую корееведческую историографию оказали влияние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иоритеты России, менявшие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20 лет.

В результате, к 2010 г. в России вышло из печати немалое количество монографий и сборников статей[52], достаточно подробно и комплексно представивших российскому читателю современную Южную 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53]. Основной пафос большинства этих публикаций, в особенности публикаций последнего десятилетия – это мир и процветание на всем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еобходимый как самим корейцам, так и России – одному из ближайших сосед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52] Из научных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периодических* изданий хотелось бы выделить следующие: 1)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Издаетс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 1995 г.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как периодическое издание под номером ISSN 1810-8008.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из печати вышло 11 номеров; 2) Альманах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Вышло из печати 5 выпусков. Издание Альманаха прекращено; 3)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53] С перечнем большей части монографических публикаций по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е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в «Избранной библиографии литературы по Корее на русском и западноевропейских языках», подготовленной Л.Р. Концевичем 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в томе № VI серии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М., «Первое марта», 2008).

С.О. Курбанов, 「Изменение восприятия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й 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в 1990 - 2010 гг.」 「1990-2010년 시기의 러시아 문헌에 나타난 현대 남북한에 관한 인식변화」에 대한 토론문

황영삼(한국외국어대)

상트페테르부르그 대학교 S. Kurbanov 교수가 작성한 본 논문은 1990년부터 2010년 기간에 러시아에서 간행된 남북한 관련 저술에 나타난 현대 남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용한 글이다. 특히 논문의 저자는 굳이 연구의 대상을 남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식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서 분석적 가치를 더 높여주는 효과를 도출하였다. Kurbanov 교수의 논지 전개방식은 역사적 서술법을 따르고 있는데 우선 본문의 첫 파트에서는 역사발전의 이론적 토대의 변화를 소비에트 말기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1990년대의 러시아 문헌에 나타난 현대 남북한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두 Korea에 대해 각각의 항목으로 서술하고 있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 2000년대의 시기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소항목으로서 첫째 2000년대에 부각되었던 남북한에 대한 균형잡힌 서술이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경향과 둘째 북한에 대한 비판적 서술경향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셋째 남한에 대한 긍정적이고 비판적인 서술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래서 20여년에 걸친 소련-러시아, 남북한 모두에서 전개된 현대적 변화 속에서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남북한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시대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가 있다.

몇 가지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1. 역사발전론과 관련하여: 1980년대 소련의 남북한 인식변화

Kurbanov 교수는 1987년 6월 시위에서 비롯된 남한 내의 민주화 운동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 90년 한-소 수교로 인하여 소련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과거 시기보다 더 호의적으로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호의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로 사회

적으로 확산되었는지 궁금하다. 일부 전문가 학자들에게서만 발생된 인식이 아닌지 알고 싶다.

2. 현대 남북한에 대한 1990년대의 러시아 문헌

Kurbanov 교수가 소개하고 있는 A. Rankov 교수는 남북한 모두를 꿰뚫고 있는 전문학자로서 국내의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다수 러시아인과 러시아 국가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러시아 학자로서 Kurbanov 교수는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지? 특히 김일성이 권력을 '우연히' 얻게 되었다는 관점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김일성의 권력쟁취가 계획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연한 일이었는지에 관한 견해이다.

남한의 경제발전 모델은 1990년대 러시아가 지향한 것으로서 그 원인은 사회 및 경제생활에서 국가의 역할이 컸던 것에서 찾고 있다. 남한의 재벌 чэболь 에 대하여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Andrianov 분석은 그 폐해를 간과한 외형적 것으로 보인다. Kurbanov 교수 개인의 견해가 궁금하다.

3. 2000년대의 인식변화

남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으로 팽배했던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 푸틴 집권기 이후는 남북한에 대한 균형잡인 인식이 러시아 내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Kurbanov 교수의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Kurbanov 및 Vanin 교수의 연구는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 또한 중요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논문 전체적으로 볼 때 Kurbanov 교수의 논지는 남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것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표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비단 Kurbanov 교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최근 러시아에서 발간되고 있는 남한 관련 문헌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남한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어떻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남한에 관한 정보를 구할 때 남한의 어떤 언론

매체(신문, 방송채널의 이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발제문의 3.3 항목 아래 첫 문장 В первое десятилетие XX века ~ 는 В первое десятилетие XXIвека의 오기인 듯하다.

러한 학자의 양국 역사에 대한 견해 차이 극복의 중요성

알렉산더 띠모닌(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 공사 겸 부대사)

존경하는 여러분!

러시아의 언어, 문화, 역사, 정치와 경제를 연구한는 교수, 연구원 및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한양대학교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러시아의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모든 분야에서 강화하는 것은 우선 순위를 차지합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깊은 역사적 뿔이를 갖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양 민족의 운명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다. 양국 국민은 극심한 사회 혼란, 기아, 빈곤, 유혈전쟁 등 많은 닮은꼴의 시련을겪었고, 사실상 그 시련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다시 일궈야 했습니다.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두 나라는 수많은 공동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현재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자신 있게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결과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양측 상호 적용이 높은 수준에 도달할수록 우리가 견해 차이가 있는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협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쟁점을 더욱더 솔직하고 신뢰성이 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활동 외에 30년 이상 한국역사를 연구해 왔는데 오늘 강의에서 러시아의 한국학 학자와 한국의 러시아학 학자의 관심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것은 바로 러시아와 한국 역사, 그리고 러한 관계 역사 일부 사건에 대한 양국 학계 사관에 있어 아직 남아 있는 차이입니다.

이 문제는 순수한 학문적 토론의 한계를 넘었고 러한 양국에서 서러 객관적이고 호의적인 이미지가 형성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2004년 2월 인천에서 러시아 순양함 바략 (Варяг) 호의 영웅적 항거 100주년 추모행사와 러시아 전사자 추모비 계막식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복잡한 대응을 보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 중요한 행사는 러한 관계의 높은 수준을 과시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도부와 관계

자들이 러시아 전통을 존경하고 자국을 위해 삶을 희생한 전사들의 추모의 중요성을 이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민족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 선원 추모비 설립을 반대하는 시위도 버려졌고 일부 한국 신문에는 20세기 초의 러시아 대 극동지역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백년 전에 외국 학자들이 강요한 «러시아 위협론»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이 남아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위협론»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가장 침략직인 계획을 가진 국가이었습니다. 과거에 일부 일본과 미국 정치가들이 한반도에 대한 자국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학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한국과 구소련이 오랫동안 교류가 없어 대한민국 학자들은 일본과 미국 출판물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남한에서 구소련의 정책 역사에 대한 관측도 일면적이었고 주로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1990년 러한 수교 전에 이러한 연구 분위기는 남한 국민 중에서 러시아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1990년 후에는 러시아와 한국 상호 정치와 역사 연구 조건은 향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러한 학자들이 자유럽게 만나고 다양한 논쟁점을 논의하고, 양국 도서관 및 기록 보관서에 일을 하면서 우리 양국 공동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근 17년 동안 러시아와 한국의 역사, 그리고 러한관계사의 많은 사건과 사실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사상해제된 정보를 제공하는 적지 않은 저서와 논문이 출판되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에서 서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언어학 및 문학 등 분야에서 새로운 훌륭한 전문가의 세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실에도 이 세대를 대표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국민의 러시아와 러한관계에 대한 인식과 우리 양국관계의 미래가 여러분의 러시아와 러한관계에 관한 연구 성과에 달려 있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러한 학자들이 이 분야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최근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 및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한러 학자들도 인정하는 대로 심한 견해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양국에서 발행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과서에는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최근에 한러 전문가들은 역사의 객관적인 서술의 문제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측에서는 러시아 과학원 동양학 연구소와 극동문제 연구소와 한국측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정신문화연구원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

서 이 일은 70년대 부터 시작된 한국바로알리기 프로젝트 틀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2004년 러시아 과학원 극동문제 연구소에서 개최된 학술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개발원을 대표하는 신혜숙 박사의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어 봤습니다. 이 발표문은 1989년 이후 러시아에서 발행된 새로운 교과서에서의 한국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는 최초의 남한 논문입니다. 이제 한국 학자가 하는 평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숙 박사에 의하면 «한러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하여,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혜숙 박사는 최근에 한국에 관한 러시아 교과서 내용은 더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가는 반면 한국 교과서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나 내용은 냉전시대에 비교할 때 변화가 없는 실정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신혜숙 박사는 이러한 교육은 중고등학생들에 영향을 끼치고 양국 협력에도 손상을 끼치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신혜숙 박사는 러시아 교과서의 개선을 인정하면서도 양국 학자 간에 심한 견해차이가 있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1. 1904-1905년 러일전쟁. 남한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러시아 자료의 대부부는 전쟁 도발 이유에 대하여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없고 러시아가 만주와 한국에서 자국 지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 것에 대하여 언급이 없습니다.
2. 한국의 분단. 신혜숙 박사는 러시아 교과서에서 한국 분단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회피하며 분단의 주도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3. 1950-1953년 한국전쟁. 러시아 교과서에서는 이 전쟁을 범세계적인 입장에서만 보며, 두 세계체제의 충돌이라고 평가함으로써이 비극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관점을 무시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측의 불만을 일으키는 러시아 학자 사관의 특징을 지적한 신혜숙 박사는 러시아가 한국 분단과 한국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 인정하는 것이 러시아 교과서 개선 사업의 목적중에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신혜숙 박사에 의하면 이 것은 한국에서 깊이 자리 잡은 부정적 러시아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조건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한국학 학자들은 남한 동료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존경하는 것을 별도로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 학자들은 구소련에서 한국역사 서술에 대한 한국측 일부

불만의 정당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한 학자들도 새로운 러시아의 교과서를 소련 시대 교과서와 동일시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러시아 한국학은 가치관 재편성 과정 중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해방, 분단, 육이오 전쟁 및 전쟁후의 남북한의 발전 문제를 포함한 많은 복잡한 근대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관이 재평가 중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러시아에서 많은 쟁점에 대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있는 서로 다른 «한국사» 책 세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강조할 만한 것은 한국사 서술에 수정을 할 의지가 있는 우리 학자들은 남한 저자들이 러시아사, 러한관계사의 일부 문제에 대해서도 더 객관적이고 호의적인 태도의 필요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국학 학자들은 남한 동료의 연구 성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데 일부의 사실과 사건에 대하여 편견적인 평가를 지적합니다.

특히 19세기 말 20세기초의 러한관계에 대한 양국 학계의 입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합니다. 이 시기를 깊이 연구해 본 러시아 학자들은 하남대학교 이찬춘 교수를 비롯한 일부의 한국 연구자들이 한반도에 대한 그 때의 러시아와 일본의 정책을 동일시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학계에서는 먼저 한국을 보호국으로 한 다음에 30년간 식민지 통치를 실시한 일본을 러시아에 비교한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론 러시아가 한국 국민을 돕기 위해서 일본에 대립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정책은 그야말로 냉정한 타산에 기초했습니다. 그 시기에 러시아의 전략적 목적은 한국에서 적대국가 입장 강화의 방지이었다. 유감하게도 러시아의 러일전쟁에서의 완패는 한국의 완전한 식민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시기의 상황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객관적인 연구의 예로는 남한 박정효 교수의 저서인 «러시아와 한국. 1895-1898», «1904-1905 러일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저서들은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어로 출판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유감하게도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일부의 한국 역사학자들이 러시아가 원래부터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위협했다는 «위협론»을 아직도 지키는 사실은 러시아 학계를 대단하게 놀라게 합니다. 러시아 학자들은 이러한 관측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감하게도 양국 학계의 견해차이는 남한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06년 출판된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위탁한 오창훈, 장종근, 장두호, 박찬석 등 저자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검토한 러시아 학자의 검토에 의하면 러시아의 내부적 발전에 관한 편에서 유럽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후진성과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 진로의 무능함이 강조됩니다. 위 교과서에는 노르만족이 «노브고로드 공국과 키예프 공국을 세워 러시아의 기원을 이뤘다»는 이른바 노르만 학설 아무 설명이나 감정 없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한편 같은 페이지에서 영국에 관해서는 노르만족이 «왕조를 이뤘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이용되는 것이 지적할 만합니다. 이반 3세 (Иван III) 통치시대와 관련하여 그는 «스스로를 차르(царь)라 일컬으며서 멸망한 비잔티움(Византия) 황제의 계승자로 자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크스바 공국과 비잔티움 제국 왕조의 혼인관계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스크바측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표트르 대제 이후의 러시아사 서술에서 역시 러시아의 후진성이 강조되며 주요의 내용은 러시아 농노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농노 해방 이후의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만 나오고 볼셰비키 혁명 직전의 러시아가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장 뒤처진» 나라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역사 전체에는 20세기 80-90년대의 변화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정치적 갈등,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는 체첸 등 주변 공화국의 분리 독립 운동 등의 불안 요소들이» 강조됩니다.

19 세기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대한 서술에서 두 가지의 안타까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성 전제입니다.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을때 마다 러시아는 무조건 도발자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면 폴란드 분할 점령이 언급되지만 러시아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달리 역사적으로 러시아 공후들이 지배했던 영토만 수복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크림 전쟁의 유일한 도발자로 서술는데 «오스만 제국과 크림 전쟁을 벌였으나 패해하였다»고 하지만 영국, 프랑스, 사르디니아 등 나라의 결정적 참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스만 제국 역사에 관련되 편에서 «개혁 정치는 러시아의 압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러시아를 터키 휴진성까지 책임을 취게 하는 것이다. 1939년 폴란드에 속해 있던 서부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의 소련에 합병도 폴란드에 대한 침략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고려할 때는 한반도 영향권에 대한 강대국들의 대립만 중요시됩니다. 그리고 1896년 이른바 아관파천 사건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을 견제하려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 후 고종왕은 사실상 친일파의 포로 상태에 빠지게 되

었고 신변위협까지 느끼게 된 상황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고 친러파를 이용하면서 일본의 패권을 일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 러시아 학자들은 그때의 조선왕조와 러시아 간의 긴밀한 관계는 조선의 독립 상실을 진연뿐 아니라 조선의 지도자의 고종왕의 개인적 안전 보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사 교과서에서 조선은 «아관파천으로 국가의 자주성을 손상되었다»고 하고 러시아에 역할은 고종왕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조선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영향권을 장악하려는 데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과서에는 한반도 해방에 있어서의 소련군의 역할이 언급되지 않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진주하였다»는 서술만 나옵니다.

한국의 해방과 그 다음의 나라의 분단의 평가는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극동에서의 제2차 대전 승리에 있어서의 소련의 역할을 과대평가할 필요성이 없지만 과소평가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 육군의 주요 병력을 이루던 광동군은 중국 동북부에 주둔해 있었고 1945년 8월에 소련군이 이 군대를 싸우게 된 사실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미군은 전투가 끝난 후 한반도에 진주했으며 한반도 해방을 위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련군이 한반도 해방을 위한 전투에서 사상자의 수는 2천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저 버리면 안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러시아와 한국 역사, 러한관계사에 대한 실지가 있고 객관적인 사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두 나라 정치가와 학자들이 해야 광범위하고 중요한 사업의 일부분뿐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다수의 학술회의와 세미나에서 벌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에 있는 중앙한국학연구원이 2007년10월에 주최한 «교과서를 통한 한러 양국의 이해 증진»이란 학술 세미나를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최근 러시아 교과서에서 한국관련 내용에 관한 수정에 대하여 한국 전문가들이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 교과서에서 몇년전과 달리 «한국은 경제기적을 일으킨 신흥산업국가이며 독재제도를 탈피하여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해가고 있는 나라로 기술하고 있다» . 또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방향으로 한국관련 내용을 서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 교과서 관련 전문가들과 집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2008년 초에 역사포럼이 출간한 대안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XIX 세기 대한반도 러시아위렵론, 1945년 한반도 분단과 육이오 전쟁 도발에 관한 소련책임론 등 진부한 고정관념들이 반복되는

사실입니다. 본 교과서의 출간은 옛날의 편견 및 역사적 신화원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달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상호 고립된 양국에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극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벌써 시작된 러한 학계 간의 의견 교환은 역사를 사실대로 배우고 양측의 입장과 근거를 염두에 두며 러한 국민간의 상호이해와 신뢰성의 강화에 기여하는 역사 연구논문과 교과서를 마련할 상호 의지를 증명합니다.

한·러 수교 이후 러시아 교재에 나타난 한국인식

정세진(한양대)

I. 서론

201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 9월30일 한러수교 협정이후, 러시아는 한국을 어떠한 역사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본고는 한러수교 이후의 러시아의 한국 인식에 관한 내용을 러시아 대학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역사 교과서 분석은 상대 국가의 중고등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대다수 파악되어왔다. 예를 들면, 일본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분석과 같은 부분이다. 그러나 본 논고는 러시아의 영향력 있는 대학교에서 교재로 선택된 한국사 관련 내용을 중점 분석한다. 본 논고에서 채택한 러시아 대학 교재는 다음의 3종이다.

첫째,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1)]
(한반도 : 전후 역사의 변형)

둘째,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2)]
(한국의 역사 : 고대에서 21세기 초까지) - 이는 2003년판 “한국사 강의: 고대에서 20세기 말”[3)]까지의 개정증보판이다)

셋째,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под редакцией А. В. Торкунова . Учебники МГИМО[4)] 등이다.
(한국의 역사 : 새로운 독해)

본 교재에는 한국사의 대부분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본고는 특히 1990년

1)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осква: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2008)

2) С. О. 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 :, Издатель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2009)

3) С. О. Курбанов,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 : Издатель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2003)

4) Под редакцией профессора А. В. Торкунов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03)

한러 수교 이후 시기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한국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대학 교재에 서술되는 역사 인식은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분야의 러시아의 대 한국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고의 역사 인식의 대상은 한국의 최현대사이다. 그러나 3종의 저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서 속에 기술된 내용이 객관적 역사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저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역사의 담론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며, 어떠한 역사적 해석을 규정적으로 내리기가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러수교 이후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역사학의 대상으로 목적화 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러수교 이후의 러시아의 대 한국 인식을 분명한 핀으로 뽑아내는 일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의 사건이 중첩적으로 얽혀있고 실체적 진실이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난감한 측면이 있다. 본 논고는 최현대사 부분에 대한 역사 교과서 분석이므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을 요하고 있다. 즉 한국의 최현대사에 대한 러시아 역사 교재에서 과거사에 대한 담론과 논쟁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 인식이라는 부분은 특정한 시대 및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5] 그것은 본 논고가 최현대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고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 즉 한국 민주주의 체제와 한국의 대북한관계, 한국의 대외관계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역사 인식의 준거틀을 가지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시기로부터 불과 2년 반의 시간이 경과된 이 시기의 러시아의 대 한국 인식을 일정한 담론의 틀을 통해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지난(至難)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과, 역사적 시간을 통해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대 한국 인식은 최현대사 시기를 다룬 교과서를 통해서도 그 일맥의 흐름이 존재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시기와 일치하는 러시아의 통치 체제기는 옐친 집권 거의 마지막 후반기와 푸틴 대통령의 집권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푸틴 전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러시아를 다시 세계의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21세기 정치적 격변기에

5) 예를 들면, 한일간 과거사 쟁점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한일관계도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역사적 해석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논점을 이끌어내기가 난해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홍영, “한일간 과거사 쟁점 소고- 기존 논의 검토 및 쟁점구도,”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5집 (2007), p. 29.

있었던 러시아 최현대사의 정치적, 사회적 흐름은 한국 최현대사의 진보 시기와 겹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시기에 기술된 한국사에 관한 역사 교재이기 때문이다.

한러수교이후 국내 최현대사에 대한 러시아의 한국 인식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 작업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대학교재에 나타난 한국 최현대사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적 인식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즉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한러 외교관계의 상호 인식을 위해서도 본 연구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한러수교 이후 소연방이 해체되고 푸틴 대통령 시기까지, 러시아의 격변기 체제 이행의 시기를 경험한 러시아 지식인들은 한국의 새로운 정치적 질서의 실험 무대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았을까? 본 논고는 기본적으로 한러간의 인식적 지평과 모형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성의 키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다.

본 논고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향성으로 전개될 것이다.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진 러시아의 대학교재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역사적 기술의 방향성은 어떤 측면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적 해석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러시아 지식인들의 대 한국 서술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러시아는 한국 사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한러관계는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러시아 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대 한국 이미지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모든 역사 교과서가 특정한 역사적, 정치적 체제의 산물[6]이라고 한다면, 본 러시아 역사 교과서도 이러한 형태의 이론적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교과서에 나타난 한러수교 이후의 대 한국 역사 인식의 근저에는 저자 자신의 역사 해석의 주관성이라는 측면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학교재를 기술한 저자들은 러시아 정치 체제의 우산 속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 책들이 서술된 시점이 푸틴 대통령 집권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본 교재에 대한 기술적 방향성도 러시아의 정치적 권위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일정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7] 러시아

6) 이병련, “역사 교과서의 의미와 서술기준 그리고 분석의 기준에 관하여,” 『史叢 』제 52집(2000), p. 183.

7) 이와 관련해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고전들이 제시하는 역사발전원리와 소련의 정치적 현실이 제시하는 역사 노선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현재는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해석적 방법론이 퇴색하였지만, 역사 교과서 서술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최덕규, “러일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인식 - 러시아 중등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 19권, 제2호(2003), p. 112.

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역사교과서 분석은 현재의 러시아 사회의 대 한국 인식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측면에서든지 한국을 분석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러시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내면화된 의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자들의 핵심적 인식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서술하고자 한다.

II. 한러수교 이후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1.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체제 인식 - 토르쿠노프의 저서를 중심으로[8)]

한러수교 이후 한국의 정치 체제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어 왔다. 노태우 대통령의 뒤를 이어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정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에 일정한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다. 러시아 대학 교재에는 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토르쿠노프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정부를 지나 한국의 진보적인 정치 체제를 이룩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 발전과 그 체제에 긍정적 입장을 가진다. 그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의의를 “신한국” 독트린으로 규정하면서, 김영삼 정부가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층 지도자층의 청렴화, 금권정치의 근절, 정치 파벌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화된 정부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정부라고 강조한다.[9)]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 독트린 정책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는 노태우 대통령 까지 지속된 군사 통치에 이은 문민정부 시기까지 이루어진 한국형 민주주의 발전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행정부 내에서 군인 출신들이 대거 축출되면서 민주주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토르쿠노프는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군부 엘리트 출신의 권력계보로부터의 이탈, 새로운 중산층의 강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한 측면은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뇌물 관행 등 전통적인 한국병을 치료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 인식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국가주의의 영향으로 분석

8) 이곳에 언급된 토르쿠노프는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한반도 : 전후 역사의 변형) 저서를 의미한다. 토르쿠노프가 감수한 다른 저서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под редакцией А. В. Торкунова . Учебники МГИМО 부분은 상기의 책과 유사한 역사적 인식을 다루고 있다.

9)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 독트린에 대해서는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343-359.

될 수 있다. 즉 러시아 사회의 모든 영역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러한 국가주의적 전통에서 본다면, 저자에게는 한국 민주주의는 역사의 진보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옐친 정부로부터 푸틴 대통령을 거쳐 현재의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기까지 진행되는 러시아 민주주의 체제를 국가주의라는 담론으로 해석해본다면, 한국 민주주의 발전 체제도 박정희 체제의 개발독재로부터 김대중-노무현 진보 정부까지 러시아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궤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로 대변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은 무엇일까? 토르쿠노프의 민주주의 인식은 이 두 명의 대통령을 역사적 진보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개발독재시기와 이어진 군사 통치 시기와 문민정부, 참여정부를 역사 발전의 진보적 개념으로 저자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민주주의 발전과 연계하여 높게 평가한다.[10]

저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진보 정치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다. 특히 청장년층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선거 세대로 참여, 두 명의 대통령을 선출, 민주주의 발전을 성취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런 점에서 저자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승리를 역사적 발전의 필연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역사 인식의 귀결로 보인다. 진보,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역사적 과정이다. 그는 한국에서의 진보 정치의 성장은 전통적인 한국 정치의 우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며,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자유화의 전방위적 성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역동적인 청년 세대의 정치적 신념이 새로운 국가 발전의 방향성으로 모색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11]

---

10) 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한국의 만델라에 비교하고, 그의 인생을 러시아의 인권주의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오버랩 한다. 그리고 그의 인생 역정과 유사한 인물로 중국의 등소평을 예로 들었다. 토르쿠노프는 김대중 대통령을 중도 좌파 시각을 가진 정치적 인물로 묘사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주요 경력으로 해방 이후에 다수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던 인민위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였다는 부분과 1970년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지도자로 표현한다. 특별히 러시아와의 각별한 인연도 강조하는데, 1994년 외무성 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부분도 소개하고 있다. 김대중은 경제학자 및 정치학자로 평가되면서 그의 교육 수준은 국제적인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되었다.

11) 이에 대해서는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372-377, pp. 390-397 참조. 1997년 선거로 인해 한국에서는 2가지 경향의 기묘한 정치적 지형도가 그려졌다. 필자는 김대중 대통령을 한국 정치 그룹의 중도 좌파의 핵심 인물로 수용하고 있고, DJP 연합의 또 다른 한 축인 김종필 총리는 우파 경향의 그룹으로 인식한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와의 DJP 연합, 그리고 선거 이후 의회내각제로 개헌할 것을 두 정치 지도자가 합의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DJP 연합 이전에는 당시 집권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밀리던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강력한 야당 연대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그의 노련한 정치적 역정으로 김종필 후보와의 연합 전선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우파 그룹에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진보적 관점에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는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그 진정한 역사성의 미학으로 발전된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세력이던 5.16 혁명 세대와 민주화 세력이 연합하여 국민 정부가 탄생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 한강의 산업화 세력과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 연합하여 민주주의 발전이 쟁취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12] 그러므로 저자의 한국 민주주의 인식의 중심에는 5.16 혁명 세대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저자는 한국 중도좌파의 진보적 세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저자의 저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논조는 분명 진보 정부의 탄생과 그 의의,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을 긍정적 담론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있어서 군사 독재, 개발 독재 통치를 필수적 의례 절차로 간주하는 시각이 엿보인다. 토르쿠노프는 5.16 혁명의 주체 세력인 김종필 국민정부 총리는 단지 1961년 쿠데타 때 군사력을 강제, 민주화 세력에 대한 빚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로 서술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그의 인식적 측면에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토르쿠노프로서는 국민 정부에 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 그리고 동시에 민주화와 반대적 정향성에 위치해 있는 군사 쿠데타 세력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국정의 핵심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13]

2000년 2월에 자민련은 김대중 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김종필 총리가 공동정부에서 사임한 사건을 다른 원인에서 찾기 보다는 김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대 북한 관계 개선의 정치적 성향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저자는 여전히 한국적 민주주의가 일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한국의 대 북한 관계에서 모색하고 있다.[14] 즉 저자는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 비밀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김종필 총리가 공동정부에서 사임했다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치에 대한 인식을 북한과 관련되어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한

12)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380-381.

13) 토르쿠노프는 이념이 다른 세력이 결집되면서, 통치 그룹에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났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14) 토르쿠노프는 김대중 국민정부의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2000년 4월 13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은 34.8 %의 득표율로 115석을 차지했고, 이는 4년 전의 25.3%에 79석의 의석을 획득한 것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선거결과였다고 기술한다. 한나라당은 6석을 잃으면서 133 의석을 차지하였다. 여전히 한나라당이 의회에서는 다수당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제 3의 세력을 자파로 끌어당기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국 국가정책의 핵심 전략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햇볕정책은 그에게 매우 뛰어나고 합리적인 국가정책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21세기 밀레니엄 시기에 중도좌파 지도자들이 새로운 역사적 역할과 전지적 비전을 가진 국가건설에 나서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정부는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평화적 대화 및 우호적 관계의 건설에 나설 수 있으며, 이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과 북한은 하나의 동일한 기동축으로 저자의 인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 체제는 북한과의 관련성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담보된다는 식의 역사적 인식은 본 교재가 역사 교과서라는 점에서 일정한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토르쿠노프에게 있어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적 인물로 부각된다. 특히 자신의 아들 문제를 비롯, 친인척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한국 민주화의 걸림돌이던 뇌물 부패 문제를 청산하는 혁신적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해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 김대중 대통령이 3남인 김홍걸, 차남인 김홍업 씨의 뇌물 문제 등 자신의 주변 문제로 집권 말기에 정치적 내홍을 겪었지만, 이 문제를 단호히 처리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한반도의 남쪽에서 새롭고도 건전한 시민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내부적 확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6]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토르쿠노프의 인식은 어떠한 것일까?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계승자로 인식된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은 무엇이었을까? 민주주의 체제는 닫혀져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열린 체제이며, 민주주의의 광장에는 다양한 시민과 대중이 참여하는 공동의 정부가 존재한다. 소비에트 체제를 거친 토르쿠노프의 역사적 인식에는 이러한 대중, 민중이 토대가 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보호자로서의 인식이 담겨있다. 대중의 이익을 국가의 우선적 책무로 인식한 소비에트 체제의 국가적 담론이 한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통치는 평등의 지평선에

15)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뇌물이나 형사상의 문제로 거론되었던 인물 중에 79명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측근으로 관직을 거친 사람들이었다. 김홍걸은 185만달러, 김홍업은 19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되었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 384.

16) 이러한 관점에서 토르쿠노프는 군사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대통령 재임 시기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정부 시대에 이루어진 시민사회의 성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아들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였고 법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서 펼쳐져야 한다는 인식이다.[17]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의 준거틀 아래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한국정치사의 새로운 시대의 서곡으로 인식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는 청장년층이며, 저자에게 청년 세대는 민주화와 사회 정의의 세대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과 변별적인 존재성, 그리고 이념의 대칭성으로 수용된다.[18]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좌파적 정치 그룹의 성장이라는 대 전제가 토르쿠노프의 역사적 인식에 녹아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 인식의 흐름은 소비에트 체제를 경험한 저자의 세계관으로 판단된다. 토르쿠노프는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 좌파 그룹의 성장을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여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았다. 즉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선거 참여는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신경향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19]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아젠다는 급진적인 민주주의와 사회적 급진 정책이며, 이 정당은 무상 교육 시스템의 도입, 서구 선진국의 세금 체계의 도입을 주장한다.[20]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보적인 정치 활동 단체이다. 토르쿠노프에게 인지된 이 진보 정당은 사회적 정당성을 지지하는 그룹이다. 즉 노무현 정부와 민주노동당은 대중적이고 일반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에는 역사의 진보성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노무현 정부시기 한국 민주주의 체제는 저자의 인식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즉 한국 민주주의, 대 북한 정책, 세종 신도시 문제, 탄핵 사건 등이 저자에 의해 기술되고 있는데, 탄핵에 관련된 부분은

17) 토르쿠노프는 글로벌 시기에는 동양의 공자 정신과 서구 문명의 통합성이 유효하며, 이를 통해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된다고 인식한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엄격한 구분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이 국민의 지지로 표출되었다. 노대통령의 승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곡이며, 야당이 된 한나라당에 정서적 타격이었다.

18) 한나라당과의 지지 계층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 청년과 노년층이라고 언급되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21세기 국민연합'의 정몽준 후보와 연대하면서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강조된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의 가문 출신이 아니고 평범하고 가난한 출신으로 정상적인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출신이기 때문에, 상류층 계층이나 가문 등의 문벌이나 학벌과 관계없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사람으로 서술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이후에 정권인수위원회의 활동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시대에 미래의 비전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노대통령은 정부 행정 조직의 재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부패와 국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민, 특히 청년 세대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정부에 참여한 국정 책임자들은 대부분 전문가 계층으로 민주적, 자유적 경향의 학자와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즉 가장 최우선의 국정 과제는 정부 지도자와 공무원들의 도덕적인 자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이 중시되는 정부, 원칙과 믿음이 진보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강조되는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토르쿠노프는 보고 있다.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395-396.

19)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3.9%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20)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 392.

한국 민주주의 절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1]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 절차를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 강조되고, 국민의 지지로 탄핵 정국이 돌파되었다고 기술하는데, 서술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22] 즉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에 관한 것으로 아주 짧은 멘트이다.

40분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낭독 시간으로 과거 한국의 부르주아 정치적 시스템에 의해 가동된 수개월 동안의 정치 드라마는 종식되었다.

저자에게 한국의 탄핵 과정은 민주화의 심화, 건전한 시민공동체 강화, 의회기능 시스템의 활성화로 수용되었다. 이 탄핵 사태는 한국 헌정사의 특별한 현상이었다. 토르쿠노프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이전의 4.15 국회의원 총선에 주목하고 있다. 즉 저자는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저자의 핵심적 키워드는 시민사회였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성숙된 과정에 있었고, 시민사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이는 국내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한국의 투표는 저항투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와 집권당의 승리로 귀결된 4.15 선거 결과는 탄핵 소추에 대한 저항이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저항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다.[23]
저자에게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 체제는 '선(善)' 이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사건은 '평화번영정책'이라는 대 북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24] 그러나 그의 역사 인식에는 일종의 편향성도 드러나

21) 세종신도시 건설에 대해 서울시와 충남 주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단정하고 있다

22) 즉 노대통령이 1천2백만 명이나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고 각종 행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 신도시를 건설하도록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 기록적인 시간 내에 신도시를 건설하도록 하는데, 450억 달러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18개 내각 부처 중에서 12개 부처, 수백 개의 국가 기관 및 민간기관, 산업 단지가 입주, 전체 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확고함을 보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에는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 부처, 그리고 의회, 외국 대사관 등이 유지된다. 이 신도시 건설은 서울시와 그리고 충청남도 주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추진력과 업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새로운 건설 사업은 수 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효용가치가 있고, 경제 수단의 창출과 더불어 거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활동을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또 토르쿠노프는 2002년의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대한민국 사회는 전통적인 문제점이었던 지역감정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근거지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대구 등이며, 새천년민주당은 전라남북도, 광주, 전주 등 호남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노대통령 후보가 부산, 대구, 경상남북도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도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은 부분도 언급하고 있다.

23)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1호 (2004), p. 257.

24) 이 탄핵은 먼저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어 헌법재판소로 결정권이 넘어갔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결국 국민의 여론이 노대통령 편으로 돌아서고 동정적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탄핵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나타났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이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경

고 있다.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하에 한나라당이 동조하는 형식으로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저자는 탄핵 과정이 진행되던 2004년 4월 15일 국회 총선에 대해 언급하는데, 한나라당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의 새 지도자인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인 박근혜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거의 궤멸(сокрушительный) 되는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서술을 함으로써, 한국사 교재로서의 객관성에 혼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토르쿠노프는 국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글을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로 보수파인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2. 쿠르바노프의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체제 인식

쿠르바노프 저서에 나타난 대 한국 인식은 서론에서 언급한 “한국의 역사 : 고대에서 21세기 초까지”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교재를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쿠르바노프는 먼저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에 대해서 군사독재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합법적 선거라는 측면으로 평가하였다.[25] 그러나 그는 1980년대 말의 한국 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쿠르바노프는 민주주의 가치의 다양한 범주를 강조하는 인식을 보인다. 즉 1987년 민주화 항쟁과 직선제 쟁취 이후에 1,000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부분이었는데, 그는 이를 1960년대 이후 노동운동사의 기록적인 사건으로 평가하며, 한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 기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실제적 발전의 시기로 평가되었다.[26] 그리고 김영삼 정부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개혁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27]

그렇다면 쿠르바노프의 저서에 나타난 김대중 진보 정부의 민주주의와 정치

제적 가치가 많이 손상되었으며, 특히 연기금 지수가 4% 정도 하락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탄핵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탄핵 사건의 와중에 벌어진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299석 중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역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약진도 강조하는데, 10명의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이는 한국 의회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로 소개하고 있다.

25)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504. 그는 대통령 선거 이후 있었던 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음으로 일방적 독재가 여당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26)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510.

27)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p. 515-522.

체제 인식은 어떠한 것일까? 김대중 정부를 그는 '국민정부' 혹은 '시민정부'로 명명하였다.[28] <한국의 역사 : 고대에서 21세기 초까지>의 저서 5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의 시기를 상정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는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사회-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의 고양 등으로 노동 현장에서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내용이 소개된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발전 과정은 한국 국민 스스로가 참여해 쟁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 2000년에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2000년 10월 23일, 기업체 대표, 노조, 정부가 참여한 합동위원회에서는 2001년 말까지 5일제 근무에 주 40 시간제를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먼저 거론되었다.[29] 쿠르바노프의 김대중 정부 서술에 이렇게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쿠르바노프의 기술에서도 토르쿠노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전통적인 국가주의의 일단을 보게 된다. 즉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고안과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이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체제의 동인으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이는 저자 자신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사회-경제 발전을 추구한 소비에트 체제의 구성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역사적 인식으로 가름될 수 있다.

쿠르바노프는 한러수교이후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 개인적 약력과 대통령 선출 과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한다.[30] 저자에게 한국 민주주의는 노태우 대통령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된 단계로 인식된다. 토르쿠노프와 동일하게 김대중 정부시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쿠르바노프는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를 통해 강조하였다. 즉 김대중 대통령은 대국민성명을 통해 아들의 뇌물 수수 문제로 새천년민주당에서 탈퇴할 것이며, 아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의 법치적 민주주의를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다. 쿠르바노프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권력 구도적 측면에서 한국형 민주주의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그가 특히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도 "한국적 특수성"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의 국가주의의 전통이 그의 역사적 인식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토르쿠노프와 마찬가지로 쿠르바노프에게도 한국 민주주의 체제를 남북관계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연스러운 역사 인식으로 보인다. 그는 2002년 대통

28)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525.

29)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573.

30) 시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를 거론하는데, 3남인 김홍일 의원의 부정부패와 김대중 대통령의 대 국민 담화 내용을 거론하다가 노대통령의 후보 과정을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을 이어간다. 이는 두 대통령을 단일하게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보다는 시간별로 한국의 국내 정치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령 선거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정치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이질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양 후보는 대북한 관계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특히 이 후보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자의 인식은 노무현 후보의 입장을 은연중에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31] 특히 노무현 후보가 국민연합 21의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공시켰고, 20-30대의 지원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한국 정치에서 진보 정부의 탄생을 지지하고 있다는 저자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쿠르바노프는 한국 국민들이 노대통령을 50년 동안 한국 내에서 존재한 정치적 질서를 타파하고 '새정치'를 구현하는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정보를 긍정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32] 토르쿠노프와 마찬가지로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쿠르바노프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수성을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던 탄핵 사건으로 해석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33] 쿠르바노프는 '한국적 특수성' 으로 박정희 시대를 해석하였지만, 특이하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탄핵 심판에 있어서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반대의 의미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 촛불 집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인식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주체 세력은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듯하다. 쿠르바노프의 역사적 인식에는 국가의 중심이 대중이며 대중이 주체가 되는 국가 경영이 가장 핵심적인 민주주의의 지표임을 자신의 저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노대통령은 다음 날 대 국민성명을 통해 향후 17대 국회에

31) 이 후보는 남북한의 현안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최고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후에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저자는 언급하는 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저자는 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2) 노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행정수도인 세종시 건설 계획이 충청도민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 전체의 인구 중 11-12%가 되는 충청도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역사 교재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간의 숨은 뜻을 파악해 본다면, 쿠르바노프의 시각 자체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후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현안이라는 입장이다.

33) 국회 탄핵 표결 때 참여한 국회의원은 195명이었는데, 193명의 표결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점, 그러나 국민은 정치가들의 의도와 반대되게 한국사에 있어 매우 드문 행동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촛불집회로 시작되는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출현하였다는 사실, 이에 반해 보수 단체들은 노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하였다고 기술한다. 2004년 3월 17일까지 행해진 여론조사에서는 59%가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71%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적인 집회로 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논조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쿠르바노프가 신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논조로 행간의 뜻으로 파악해도 될 것이다.

서의 정치적 아방가르드의 비전을 선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 2004년 4월 15일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음으로써, 우리당이 과반수이상 확보한 다수당이 되었다는 점이 사실적으로 서술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노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승리를 바탕으로 그해 가을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투쟁을 벌였다고 기술함으로써 저자는 노대통령을 진보적인 정치 투쟁가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34]

노대통령은 '참여 정부' 로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부, 열린 정부를 지향하였다는 것이 쿠르바노프의 시각이다. 즉 노대통령은 민주주의 구현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설정하였고 국민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평등한 사회를 국정의 목표로 지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시대'를 선포하고 '평화번영 정책'을 추구하는데, 쿠르바노프의 견해로는 이러한 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III. 한러수교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 인식

1. 토르쿠노프의 남북 관계에 대한 역사 인식

러시아가 바라보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떤 인식으로 남아있을까? 러시아 대학 교재에는 한국의 국내 정치 체제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술되어 있다. 과거 소련과 북한은 특수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러시아 대학 교재에 북한에 관한 서술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은 북한이다. 그러나 소연방 붕괴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러북 관계는 한때 소원한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한러 관계가 어려움에 봉착되면서 다시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많이 복원되었다.

그렇다면 토르쿠노프가 인식하는 남북관계는 무엇일까? 토르쿠노프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 한국의 대 북한 유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의 평가처럼 김대중 국민정부는 남북관계에 우호적 입장이었다. 그러한 국가 정책의 비전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저자의 서술은 한국 정부의 대 북한 정책이 김대중 정부 이후 매우 급진적으로 변하

34) 그리고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기본적으로 노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어 헌법재판소는 노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중대한 법률적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노대통령에게는 항상 험난한 정치적 여정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술로 이루어졌다.

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저자의 입장에서 북한에 관한 일정한 인식적 정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개인적, 자연적인 역사 인식의 발로로 남북관계가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토르쿠노프에게 있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매우 건설적이다.[35]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 회담은 전 세계가 주목하였으며, 남북 관계는 이제 새로운 세기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36] 심지어 전세계 여론이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적 예술로 충격에 빠졌다고 강조하고 있다.[37]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에 한국은 대미 종속외교에서 일정 수준 벗어나 대외정책에서 '자율성'과 '균형성' 을 강조[38]했는데, 이는 남북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증명되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한 대북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저자의 이러한 시각은 노무현 정부에도 동일하게 투사된다. 즉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계승을 대 북한 기본 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37,000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 관한 협상을 미국정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표현도 기술되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핵 문제는 남북 화해라는 큰 틀 에서 조정되어야 하며, 무역 및 투자 분야의 확대와 기술적 지원을 통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도 서술되고 있다.

토르쿠노프가 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휴머니즘적인 논조로 일관한다. 즉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풍기는 정치적 휴먼에 대해서 토르쿠노프는 일방성과 전체성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즉 당시 한국은 대 북한 관계를 단순히 '승리' 나 '패배' 로 이분법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노대통령은 대 북한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구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35) 그는 이러한 차원에서 2000년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관한 가능성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단순한 수사학적 언급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 북한 외교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는 남북 유대 관계의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되었다. 토르쿠노프는 김대중 정부는 오랫동안 북한과의 정치적 긴장을 유발한 국가보안법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쳤는데, 특히 2000년도에는 국가보안법에 적용되어 처벌받은 경우는 4명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관한 금서(禁書)도 대폭적으로 해제되었다. 이러한 대 북한 관련 여러 조치는 미래의 북한과의 건설적인 방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 382.

36)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 382.

37) 김대중 대통령은 동양의 공자 사상과는 다르게, 김정일 위원장보다도 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친히 방문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노벨상 후보에 13번 올랐다가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 382.

38) 홍완석, "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의미, 평가, 과제," 『슬라브연구』, 제25권, 제1호 (2009), p. 3.

대북 정책은 유연성과 부드러움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토르쿠노프의 관점이다. 노대통령의 인간성과 비전은 동시에 대 북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며, 그의 역사적 인식은 대통령의 그러한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 동시대 사회에서 증오보다는 사랑과 관용성의 측면, 즉 톨레랑스의 지향점을 보이는 관점이 대 북한 관련 정책에 구사되었다는 저자의 시각이 엿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저자의 역사적 인식이 노무현 대통령이 '기독교적 휴머니즘' 과 공동단결 정신으로 대 북한 관련 국가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공동번영의 실현에 있었다. 즉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 '평화번영정책' 이었다. 우리는 토르쿠노프의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책의 평가에서 한국 내에서 노무현 정부시기에 활발히 거론되어온 남북의 평화와 협력 체제에 강한 동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실제적인 성과는 분단 이후 최초로 2000년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과거에 지속되던 전쟁, 대결, 단절, 대립의 남북관계가 평화, 화해, 교류,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는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전에 이루지 못한 남북대화의 지속적, 정례적인 제도화를 이룸으로써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39]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통한 저자의 방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인 북한에 대한 러시아 국가의 관심이 강하게 응축되어 있다는 것.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그 사회가 추구하는 정치적 대상은 북한 인민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태도가 저자의 내면세계로 농축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대중을 위하는 정치가로서의 국정 책임자였다는 것이다. 북핵문제도 토르쿠노프의 인식에는 남북관계 속에서의 분쟁적 요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 그리고 화해 정신이라는 대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남북한의 무역과 경제 협력의 확대, 투자와 기술의 교환 및 인도적 차원의 유대를 통해 북핵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결론적으로 노대통령과 저자의 공동의 관점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토르쿠노프는 러시아적 인식에서 대중의 국가, 대중의 통치를 노무현 정부를 통해 발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보다 더 열려있는 국

39) 이에 대해서는 성경륭,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 제 48집(2008), pp. 298-300.

가를 지향하며, 대 북한 정책도 보다 더 진보적 개념으로 다가간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속하면서, 노대통령이 추구한 국가정책의 주요한 정강은 한국 경제의 부흥, 사회 복지의 향상, 이웃 국가와의 선린관계,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의 성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자의 인식 속에 '평화번영정책'의 실현, 남북한 간의 평화 협정 체결, 단일한 한반도 경제 존의 창설은 매우 바람직한 한국의 국가정책 요소이다. 저자에게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기준에 대한 평가는 '진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치적 신호이다.[40]

2. 쿠르바노프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쿠르바노프는 토르쿠노프와 마찬가지로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한 부분을 서술한다. 한국의 UN 가입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외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언급되었다.[41] 쿠르바노프도 토르쿠노프의 저서와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에 있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매우 주목하고 있다. 국민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햇볕 정책'이었다. 쿠르바노프는 이 정책이 새롭고도 역사적인 남북관계를 열어 놓았다고 평가하였다. 저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요한 사명은 남북통일이 아니라 양국 유대 관계의 보통화임을 강조하는데, 토르쿠노프의 역사 인식처럼, 그도 대 북한 유화 정책이나 남북 교류의 활성화 등을 지지하고 있다는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러시아의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사회에 대한 정치적 친밀성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김대통령이 북한을 흡수하는 남북통일을 추진하는 정책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 그는 김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정경 분리 정책이 기본적 방침이라고 언급한다.[42]

그러므로 저자에게 남북 협상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것은 저자의 인식 속에 북한은 국가적인 실체이며 역사적으로도 구체성을 가진 단위이기 때문

40)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하여 5천억 원을 북한에 지원하였다는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자금은 '현대 그룹'과 북한 당국의 경제 관계에 의한 민간 차원의 지원금이었다고 주장하였다는 부분도 기술하였는데, 이는 대학교재의 측면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진보적인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퇴임직전인 2003년 2월 14일에 김대통령은 법의 원칙을 어기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였다는 부분도 기술하였는데, 저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 북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요소는 평화와 한민족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힌 점도 주목하고 있다.

41)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512.

42) 햇볕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성 3가지는 첫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도발행위 금지, 둘째,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 반대, 셋째, 남북한 유대 관계의 강화 등이다.

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쿠르바노프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한의 각종 고위급 회담 등을 25페이지에 걸쳐 아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43] 이에는 남북한 장관급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등이 포함된다.[44] 소련 연방의 붕괴 이후 북소 우호조약이 폐기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옐친 정부 중반기에 러시아는 대 북한 관계를 복원시켰다. 그것은 한국의 대 러시아 외교 정책의 미숙이 가져다 준 결과물이었다. 1994년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건설적 동반자관계가 선언이 되었지만, 자발적 우호세력인 러시아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한국정부의 대러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45] 이 시기 러시아 측의 입장은 러시아가 남북한 정책에 있어서 남한 중시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관련 이슈 영역에서 친한적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를 규정짓던 "러-조 우호 협력조약 및 상호 원조조약"을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 러시아정책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46] 일반적으로 양국관계조정시기(1996년-1998년)로 간주되는 이 시기에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표명했지만, 북핵 위기를 마무리하는 한반도평화체제 논의구조에서 배제되면서 러시아 당국을 매우 실망하게 만들었던 시기였다. 당시 러시아 내의 여론도 남한일변도정책 및 한러관계의 한계와 관련되어 강한 비판이 제기되던 시기였다.[47] 그리고 푸틴 정부 시기에도 러시아와 북한은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48]

---

43) 2000년 6월 13-15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는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해 여름에 삼성과 LG는 북한에 기계조립제품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0년 7월 29-31일에 남북한 장관급 회의가 정상회담 후속으로 개최되었다. 양국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남북 철도 개통 협상 등을 지속해 나가는 등,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실현의 과정이 기술되고 있다.

44) 양국 간의 인도적인 협상은 2000년 8월에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실무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두 번째 남북한 장관급회담은 같은 해 8월 29-31일에 개최되었다. 저자는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남북의 회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와 회담 자체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저자는 이후에도 남북 장관급 회담 등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 협상에는 주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인 부분과 남북 철도 개설에 관한 협상이 2000년도에는 중심적으로 제기되었다. 2001년 초에는 남북문제에 관해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용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해서는 С. О. Курбанов,Ibid., pp. 625-651 참조.

45) 홍완석, "한 · 러 수교 20주년 : 평가와 제언," 『한 · 러 정치, 국제관계 : 평가 및 제언 (1)』 KRD 사무국 '한-러 대화' <정치와 국제관계> 분과 워크샵 프로시딩 (2010), p. 24.

46) 고재남, "한-러 정치-외교 관계 : 회고와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 23, N. 1 (2001), pp. 300-302.

47) 신범식, "한-러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략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1호 (2010년 봄) 통권 68호, pp. 240-241.

48) 고재남, "북핵 문제 및 6자 회담: 러의 입장 및 활용 방안," 『한국북방학회논집』 V. 11 (2004). p. 5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쿠르바노프의 대학교재에 나타나는 한국 현대사 서술도 러시아가 바라보는 남북한에 대한 역사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쿠르바노프가 바라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 북한 관계는 어떤 인식일까? 저자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술에서 2000년 8월에 한국의 언론 방송 관계자 46명이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국방위원장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협상을 남북당국이 2000년 8월과 9월에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이유를 언급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수단이 핵무기 소유이기 때문에 약소국은 강대국의 세계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핵 소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쿠르바노프가 2000년 8월은 남북의 현안이 평화적으로 해결한 토대가 마련된 시기라고 특별히 평가하는데, 이 같은 저자의 인식은 그가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한다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쿠르바노프의 이러한 관점은 대 북한 정책을 구사하는 한미 관계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즉 2001년 3월에 김대통령은 부시대통령을 방문했는데, 쿠르바노프는 당시 한미 공동 합의문은 북한을 견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양국 합의 사항은 첫째, 한반도 안보는 한미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로 확인되며, 둘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확립이 남북 관계의 핵심 사항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당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김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질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쿠르바노프는 양국 간의 이러한 합의문으로 햇볕 정책은 효력 상실이 되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49] 이러한 시각은 9.11 사건 이후 부시 행정부 내 네오콘 세력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구사한 데 대한 저자의 일단의 시각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쿠르바노프는 어떠한 시각으로 노무현 정부와 북한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을까? 쿠르바노프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나타난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정책 중 대 북한 관계 개선 정책은 국가 현안의 핵심 사항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인도주의 원조를 북한에 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 노대통령이 한반도 안보의 안정을 추구하는 지도자로 묘사한다. 그는 덧붙여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하던 '현대 아산'에 대한 이슈를 사실적으로 기술한다.[50] 특히 정몽헌 현대 그룹 회장의 자살 사건으로 북한

49) 쿠르바노프는 2002년 5월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북한 방문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 정치가들이 북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행간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박근혜 대표를 면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50)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 578.

관련 이슈가 한국 국내정치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쿠르바노프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국가 현안인 점을 강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2003년부터 북핵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저자는 북핵 문제와 오버랩되어 있는 6자회담의 당사자로서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때문인지, 노무현 정부의 최대 현안이 북핵 문제임을 단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51] 그리고 북핵 문제 이외에 김대중 국민정부 시기부터 거론되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의 보수파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 실제적으로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술되었다.

저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통치한 진보 정부의 대 북한 정책을 일란성 쌍생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노대통령이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대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동의 공동번영의 남북관계로 전환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진보정보의 업적이었다.[52] 노대통령은 유럽 공동체(EU)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취임식 때 밝혔는데, 경제 허브로서의 한반도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동북아 공동체의 개념 하에 단순히 남북의 평화적 공존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쟁취가 노대통령의 비전과 목표로 쿠르바노프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인식은 매우 파격적이다.[53]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기본적 목표와 비전은 선(先) 남북관계개선, 후(後) 통일실현이 기본적 인식의 실현이었는데,[54] 노대통령의 대북 목표를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쿠르바노프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사상적 측면에까지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주체' 와 '선군정치'의 개념이다. 쿠르바노프는 이에 대해 소개하면서, 외세 개입이 아니라 주체적 입장에서 남북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노무현 정부시기에 형성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라는 북한의 주장

51)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p. 584-585.

52) 성경륭,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 48집(2008), p. 285.

53) 쿠르바노프는 노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대 북한 정책을 계승하면서, 새롭게 '평화번영' 정책을 실천하는 바, 이의 실현을 위해 4가지의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그것은 첫째, 대화를 통한 협상, 둘째, 상호 신뢰와 상호 이익에 기초한 관계 정립, 셋째, 남북한의 원칙에 입각한 민족의 유대, 넷째, 평화번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들의 참여 등이다. 이 정책을 위하여 3가지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정해졌는데, 첫째, 단기간의 목표로 북한 핵문제 해결, 둘째, 중기 목표로, 한반도에서의 견고한 평화 확립, 셋째,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남북한의 발전이다.

54) 성경륭, Ibid., p. 291.

과 남북의 주체적 통일 개념을 서술하고 있다. 꾸르바노프가 북한의 주장을 언급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어느 정도 억지하고자 하는 저자의 신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쿠르바노프의 역사 인식적 담론은 친북의 입장에 가깝게 경도되어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사실상 쿠르바노프의 이러한 인식은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의정치적 인식과 상통한다. 한러수교 이후 한국이 견지한 대러관계의 기본 노선이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적절히 조율되지 못했으며, 한국정부는 대러관계 에서 러시아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로만 간주하는 편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러관계가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한국정부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55] 그러나 러시아의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역사 교재라는 측면에서는 쿠르바노프의 역사 인식이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드는 것도 사실이며, 비록 최현대사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지라도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이 첨부된 역사 인식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자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이고 등거리를 유지하는 데 일정한 문제를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쿠르바노프는 남북 군사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서도 저자의 진보 정부에 대한 입장은 긍정적이다. 즉 남북은 과거의 군사적 대치에서 평화와 유대 관계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남북 군사 협상을 거론하고 있다. 또 하나의 대비되는 측면에서 저자는 남북 군사 충돌에 대해서 기술한다. 김대중 정부 시기 2000년 상반기에 남북 정상 회담 개최로 표면적으로 군사적 충돌은 양국 관계의 콘텍스트 속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저자의 전언이다. 남북한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양국의 견고한 안보 및 안정을 위해 상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02년의 서해 연평도 교전에 대해서는 사실 위주로 기술되고 있는데, 북한이 NLL 북방 한계선을 넘어 들어와 한국 측에 먼저 교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하고 남북 양쪽에서 각각 5명, 1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고 기술되고 있다. 교전의 일차적 제공자는 북한이었음을 저자는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군사 충돌은 미리 계획되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서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측면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그는 노무현 정부 시기, 2004년의 몇 차례의 군사 충돌도 미리 계획되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

55) 신범식, “한-러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략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1호 (2010년 봄), 통권 68호, pp. 239-240.

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2000년에서 20005년 사이의 남북 관계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거쳤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IV. 한러수교 이후 한국경제와 한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1. 토르쿠노프의 한국경제 및 대외관계 인식

토르쿠노프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개발독재 시대의 경제 발전의 연장선상에서의 이해적 관점이다. 러시아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 시기로부터 노태우 6공화국 정부, 김영삼 문민정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진보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선상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토르쿠노프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한국경제를 '신경제' 시스템으로 서술한다. 7공화국은 김영삼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던 새로운 중산층이 등장한 경제 시스템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7공화국의 경제 발전 과정과 경제 시스템은 한국 경제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이정표로 작용하였다. 즉 이러한 차원에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김영삼 정부 시기 관료 기관과 대기업 간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와 산업은 전반적으로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재벌이 급속히 확장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르쿠노프는 서술하고 있다. 즉 그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의 재벌 시스템 속에서 다수의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김영삼 정부는 올리가르히적 자본의 모순과 부패 고리를 차단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법치성에 손상을 입혔다는 평가이다. 그리고 이는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56] 이러한 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로부터 발전적 경로를 거쳐 온 한국경제의 한계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토르쿠노프는 김영삼 정부 이후의 김대중 국민정부,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을 거론하고 있다. 토르쿠노프는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이 경제대국 8위로 성장하였다고 서술하였다.[57] 즉 한국의 경

56)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에 관련된 내용은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360-371.

57)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 Ibid., pp. 402-404.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의 기조 유지는 대기업

제 성장 배경에는 보호관세주의가 발동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자유 시장 경제의 기능에 맡기는 열린 경제 체제를 지향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한국경제가 보호주의의 경향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가 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현재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체제와도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된다. 즉 국가가 개입하는 시장 경제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저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은 최근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해석이다. 전임 옐친 시기 때에 엄청난 특혜를 누린 올리가르히에 대해 푸틴 정부가 강력히 대처했던 러시아 국내의 상황과 연관된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저자는 외국 자본의 유입 문제, 세계적 추세인 낮은 관세 적용, 대외경제 인프라 시스템의 강화 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토르쿠노프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제를 "한국형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의 "북한식 사회주의"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비교적 개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남북분단이후의 남북한의 독창적 정치 체제를 언급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일종의 군사통치(армия и присущие ей методы управления)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58] 저자는 한러수교 이후의 한국의 대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북한과의 관계를 경제적 부분과 정치적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상호 무역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59]

2. 쿠르바노프의 한국경제 및 대외관계 인식

쿠르바노프의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저술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국경제는 토르쿠노프와 유사하게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의 연장선상에서의 역사적 인식이 전개된다.[60] 그의 사고 속에는 역사 발전 단계로서의 한국경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해석한다면 한국경제는 진보적인 역사 발전 과정의 철로이다. 그는 진보 정부시기에 노동자

중심의 경제 발전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이 견지되었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자본 투자의 결핍 현상이 있었는데, 이는 기술 발전의 정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 경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일본, 중국 상품뿐 만아니라 서방의 상품과도 과도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한국의 모든 경제 구조의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58) Под редакцией профессора А. В. Торкунова. Ibid., pp. 367-369.

59) Под редакцией профессора А. В. Торкунова. Ibid., pp. 362-401.

60)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p. 592-597. 637-650.

계층이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 계급으로 등장하였다고 강조한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사회-경제 성장 분야에는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업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는 점이 서술되고 특히 모바일 시장 분야가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선도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61]

특히 쿠르바노프는 진보 정부의 대 북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만큼, 자신의 저서에서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경제 환경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쿠르바노프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경제 환경을 매우 주목하고 있다. 즉 한반도에서의 남북한의 경제적 활동의 특성과 사적 자본 부분에 대해 언급한다. 사적 자본 부분은 한국에만 적용되는데, 북한에는 공기업 이외의 사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쿠르바노프는 한국과의 공동 기업 활동을 위해 설립된 북한의 공기업은 실제적으로는 사회주의식 공기업의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남북 공동 합작 기업은 사적 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즉 저자는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온 북한 경제는 한국과는 이질적인 경제 발전 경향과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의 이러한 남북경제에 대한 인식은 그가 서술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남북의 경제협력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한 경제협력 부분에 있어서 저자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부분은 남북철도 사업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상호 경제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며, 이러한 인식 하에 철도 건설과 도로 건설에 관해 양국이 협의하였다는 내용을 5페이지에 걸쳐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62]

저자는 남북한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 남북한 공동 협정 및 공동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남북한의 공동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한 간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산업 등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상호 경제 협력관계 시스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협에 초점을 맞춘 그의 이러한 인식은 그가 러시아의 전통적인 국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술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여러 차례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개최

61)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한국경제는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이며, 당시 국민총생산은 4천67억 달러로 세계 13위였다. 인구 규모로는 4685만 명으로 세계 25위이다. 김대중 정부에 경제 개혁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가동되었다. 경제 개혁으로 2000년 11월에 11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00년도 현재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세계 4위 규모이다. 2002년 은행 시스템의 전면적 변환이 이루어졌고, 몇 개의 은행이 합병의 과정을 거쳤다.

62) С. О. Курбанов, Ibid., pp. 637-642.

되었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시기에 금강산 관광,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 사업에 대한 공동 추진 합의를 강조하면서 남북의 상호 경제 협정을 매우 중시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개최에 관련된 내용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63]

대외관계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안정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동북아 평화 구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기술되었으며, 특히 한러 외교에 관련된어서는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64] 그리고 한국의 대중국, 미국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적 위주로 기술되고 있다.[65] 당시 한미 양국의 현안이던 미 제2사단의 감축 문제를 노대통령은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쿠르바노프에게 있어서는 한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 문제임이 강조되고 있다.

V. 결론

러시아가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한 나라, 그래서 북핵문제의 해결이 주변 열강 세력의 국제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강한 근육질이 없는, 그래서 근력이 약한 국가의 위상에 불과한 것인가? 크렘린 지도부가 반복적으로 거듭해 온 전언은 기본적으로

63) 특히 개성공단의 기반건설은 2004년 상반기에 시작되었다. 저자는 개성공단에 대한 공동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북핵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양국관계의 실제적인 시스템의 창출은 2000년 9월에 이루어졌는데, 투자 보장 협정이나 이중관세 방지 협정 부분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후의 5년 동안에 거의 매년 5차례의 회담을 거쳐 이러한 공동의 남북관계가 증진되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러한 실제적인 결과들은 양국의 건전한 관계의 초석을 쌓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저자의 관점으로 나타난다.

64)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서술되고 있다. 양국 간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의 심화와 발전을 추진하기로 한 한러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쿠르바노프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9월 20-22일에는 노대통령의 러시아 공식 방문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방문은 쿠르바노프가 정확하게 인식하듯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는 다양한 합의사항이 있었으며, 쿠르바노프도 이러한 견지에서 이 회담이 매우 중요한 한러 관계가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즉 노대통령의 대 북한 관계 등 정치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한러관계가 더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저자의 평가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65) 2003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양국의 현안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이었다. 이 중국 방문에서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경제 자원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 양국의 현안 해결 과제로 인식되었다. 한국과 대 미국 관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28일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 미국 방문에 관한 내용이 나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양국은 군사 부분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서명했다. 그리고 2002년 2월 19일에서 21일까지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는데,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 및 테러와의 전쟁, 한국 및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현안 문제와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적 관계에 관한 협정, 그리고 북한 핵무기에 관련된 의제 등을 다루었다. 2003년 5월 12-1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라는 사실이다[66]. 70년간의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역사 인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러시아 대학 교재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적확히 하기 위해서는, 특히 본 논고가 최현대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사적, 정치적 상황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 역사 대상에 대한 역사학적 방법론은 다양하다. 본 논고에서 서술되고 있는 한러수교 이후의 러시아의 한국 인식은 러시아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학교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역사적 인식에 대한 객관성과 주관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논고는 한국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텍스트로 분석하지 않고 최현대사 부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역사적 접근을 필요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토르쿠노프와 쿠르바노프의 저서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에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국가주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엄청난 격변기의 러시아 사회를 고려해본다면, 여전히 이러한 국가주의의 전통은 역사적 해석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러시아의 한국 인식은 한러 관계사의 전통성과 개별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범주이다. 그러므로 한러수교이후의 러시아의 대 한국인식의 범주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라는 씨줄과 동시에 러시아의 전통적인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저서들에 나타난 한국 인식의 중심에는 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체제, 남북한 관계, 한국경제 등이다.

소련식 공산주의를 경험한 소비에트 체제의 역사적 인식의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저자들의 대 한국 인식은 러시아 국익의 측면에서 한국을 바라본다는 전제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정부에 대한 긍정성은 자연스러운 역사 인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논조는 객관적 사실과 진보 정치 10년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유사한 진보적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이러한 체제를 긍정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경제 발전의 진보적 개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바, 높은 수준의 정치적 과정,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는 한국적 특수성으로 해석되며, 특히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과 북한과의 관련성은 전임 김대중 정부의 연속선상에서의 확대된 담론으로 수용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에 한국은 국내적으로나, 국제관계적으로나 일정한 자율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자주 및 균형” 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 외교정책은

66) 홍완석,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전략,” 『슬라브연구』, 제 22권, 제 2호 (2006), p. 4.

러시아의 인식에서는 진보적이고, 한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새로운 역사 발전 단계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하에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논지가 전개된다.

이 3권의 책에서 기술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저자들은 진보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역주행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본 저서들이 가지고 있는 대 한국 인식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4강 외교의 핵심국인 러시아의 대 한국 인식에 대한 담론은 한국의 미래적 발전 전망에도 일정한 유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러수교 20년의 시점에서 러시아 대학생들을 위한 교재에 수록되어있는 한국사에 대한 인식은 러시아의 국익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러시아의 한국 인식이 표출되고 있다. 고문서의 먼지가 쌓이지 않은 한러수교 이후의 러시아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어떤 측면에서는 한러 외교사, 한국의 국내정치와 대북관계, 한국경제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러시아의 일반적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재남(2001). “한-러 정치-외교 관계 : 회고와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V. 23. N.1. 300-302.

고재남(2004). “북핵 문제 및 6자 회담: 러의 입장 및 활용 방안.” 『한국북방학회논집』 V.11. 59.

박명림(2004).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제1호. 257.

박홍영(2007). “한일간 과거사 쟁점 소고- 기존 논의 검토 및 쟁점구도.”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5집. 29.

성경륭(2008).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 제 48집. 298-300.

신범식(2010년 봄). “한-러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략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1호. 통권 68호. 240-241.

이병련(2000). “역사 교과서의 의미와 서술기준 그리고 분석의 기준에 관하여.” 『史叢』 제 52집. 183.

최덕규(2003). “러일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인식 - 러시아 중등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 19권. 제2호. 112.

홍완석(2006).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전략.” 『슬라브연구』. 제 22권. 제2호. 4.

홍완석(2009).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의미, 평가, 과제.” 『슬라브연구』. 제25권. 제1호. 3.

홍완석(2010). “한 · 러 수교 20주년 : 평가와 제언.” 『한 · 러 정치, 국제관계 : 평가 및 제언 (1)』 KRD 사무국 ‘한-러 대화’ <정치와 국제관계> 분과 워크샵 프로시딩. 24.

А. В. Торкунов, В.И. Денисов, В. Л. Ли(2008). *Корей 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метамо рфозы после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 Москва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С. О. Курбанов(2003).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конца XX в.* Санкт Пете рбурский : Издатель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С. О. Курбанов(2009).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 Санкт Пет ербурский : Издатель Санкт Петербур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д редакцией профессора А. В. Торкунова(2003).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 ение.* Москва: РОССПЭН.

「한·러 수교 이후 러시아 교재에 나타난 한국인식」 에 대한 토론문

백준기(한신대 국제관계학부)

1.총평:

1)연구시기의 적절성: -한-러수교 이후시기(1990s-2007년)는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작과 제3의 관계재정립을 1차 종결하는 '중대시기(critical period)'를 의미함. 따라서 발표자가 연구시기를 이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함.
-러시아(옐친-푸틴정부)와 한국(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 모두 이시기에 '체제이행'을 압축적으로 경험했다는 공통성이 있음.
2)시의 적절성: 한-러수교 20주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양국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의 유기적 관계의 회복은 중요한 문제인바, 발표문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상호 인식에 대한 비교확인은 관계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텍스트 선정의 적절성: 발표문에서 주요 분석대상인 A.토르쿠노프와 C. 쿠르바노프의 책은 러시아의 한국학 연구자/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재이자 레퍼런스로서, 러시아 (준)지식인/여론주도층의 한국인식을 유추할 만한 텍스트로 선정되기에 충분함.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두 텍스트에 대한 병렬식 분리분석이 아니라 주제별/섹션별로 유기적 비교분석의 방법을 취했더라면 연구성과라는 측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임.(Joseph M. Williams, *The Craft of Argument*)
4)최근, '한국의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정된 텍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인식은 외부적 시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시대적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음. 기본적으로 4강 외교의 핵심국가 중의 하나인 러시아의 한국 인식에 대한 담론은 한국의 미래적 발전 전망에도 일정한 유익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함.

2. 질문 또는 커멘트
1)저자들의 인식적 한계나 체제적 조건의 반영이라는 한계 뿐 아니라, 텍스트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대상, 텍스트의 논리/인식을 러시아의 한국인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오히려 범주의 한정(인식주체의)을 한다면 무리가 없

을 것으로 보임.

2) 발표자의 토르쿠노프와 쿠르바노프 텍스트에 대한 평가(긍정/부정)의 논리적 준거이자 분석도구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국가주의와 소비에트성'인데, 두 텍스트의 한국에 대한 어푸로치가 국가주의적 인식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과학 방법론 일반에 조응하는 것인가? : 발표문의 분석적 일관성 견지로 부터 의도하지 않은 경로 의존적 결과? 구미 특히, 서유럽의 역사사회(학)적 어푸로치, 사회경제적 어푸로치들도 동시기 한국사회변동과 국가의 성격, 체제이행을 분석할 때 위의 텍스트와 유사한 접근을 함. 물론 러시아 학계에서 소비에트의 잔재나 유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더불어 다른 인식적 방법(예, 실용주의, 정치적 현실주의(지정학적 관점 등)의 학문적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한국 민주주의, 체제이행 등 의 성격, 남북관계중시, 북한에 대한 분석비중, 남한편중외교에 대한 비판적 견해 등등에 대한 텍스트의 강조)

3)한국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남북경제공동체,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격 등)에 대한 두 텍스트의 과감한? 개념정의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한국인식에 대한 편향 가능성 등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